

한말연구

35

한말연구학회

한말연구 35

2014. 12.

논문

- 세종의 '정음 문자판' 맥락 연구 김슬옹 · 5
- 초등국어사전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김한샘 · 47
- 교체의 정의와 교체의 해석 그리고 기저형 신승용 · 77
-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 연구 .. 양삼기 · 김영주 · 101
-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 국어교육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일 고찰 이남호 · 133
- 의사소통 분석을 위한 기본 문법 단위 이봉원 · 155
- 언어병리학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試論 -
- 국어 분절음 연구의 쟁점 이진호 · 179
- 인쇄 공익광고의 표제와 슬로건에 나타난 화행 실현 양상 전정미 · 203
- 운율 연구의 동향과 전망 차재은 · 231
- 1950년대 이후 표준어 운율 연구를 중심으로 -
- 평창방언 체언의 성조 연구 최영미 · 261
- 18세기 국어 매김마디의 통어론적 연구 허원욱 · 297
- 송완식(1927) 『백과신사전』의 전문 용어에 대하여 허재영 · 317
-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말뭉치 자료 구축 방안 연구
..... 황성은 · 심혜령 · 341

알림

한말연구학회

세종의 ‘정음 문자관’ 맥락 연구

김슬옹

< 차례 >

1. 머리말
2. ‘정음’의 개념과 ‘정음 문자관’의 역사적 배경
3. 세종의 ‘정음’ 형성 과정과 주요 원리
4. 세종 ‘정음’의 주요 특징
5. 세종 ‘정음’의 주요 가치와 의미
6. 맺음말

1. 머리말

소리와 뜻과 정보, 그리고 생각을 문자로 적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오래 되었다. 그러한 욕망은 자연스럽게 싹튼 것이었으나 그것이 실제 문자로 탄생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권력이 작용하고 문화적, 사회적 성숙도 필요했다. 그래서 인류의 말소리 역사에 비해 문자의 역사는 매우 짧은 편이고, 현재까지 자연 언어로 살아남아 있는 모든 문자는 그 어떤 문자든 숭고한 역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 문자사에서 한자 또한 소리와 뜻을 담는 문자로 자연스럽게 탄생해 발전을 거듭하면서 고대 문명부터 거대한 문화와 역사를 담아낸 문자였으

나 섬세한 소리를 담고자 하는 욕망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말소리를 섬세하게 반영할 수 없는 한자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바른 소리[正音]를 적고자 하는 욕망을 더욱 부추겼으며 이른바 천지자연의 이치를 담은 정음 문자관이 발전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 글은 중국의 한자 중심의 정음 문자관의 형성 배경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한 세종의 정음 문자관의 형성 배경과 실체의 맥락을 밝히려는 것이다.¹⁾

말소리를 자연스럽게 적고자 하는 욕망은 15세기에 이르러서야 조선이라는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새로운 소리 문자로 탄생하였다. 그것은 말소리를 제대로 적을 수 없는 한자의 절대 모순과 그로 인해 발달한 중국의 성운학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지만 당대의 다른 문자와는 차원이 다른 독창적인 문자로 이룩되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접근하는 관점과 방법론은 일종의 ‘통합 언어학’이자 ‘유통 문자관’이라 할 수 있다. 통합언어학은 체계와 보편성 중심의 랑그 지향 근대언어학과 차이와 다양성, 특수성 중심의 파롤 지향 탈근대언어학을 통합하는 언어학이다.²⁾

‘유통’은 『훈민정음』 해례본(1446)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세종의 정음 문자관을 도드라지게 보여 주는 말이다.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가엾게

1) 맥락 중심 통합언어학 방법론에 대해서는 단행본인, 김슬옹(2012나)으로 집약한 바 있다.
 2) 글쓴이는 김슬옹(2008)에서 근대적 언어관과 탈근대적 언어관의 융합을 보여 준 소쉬르(1916)의 통합적 언어관이 세종 외(1446)의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겨 있음을 논한 바 있다. 이때는 ‘정음 언어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소쉬르(1916)은 Ferdinand de Saussure. (tr) Wade Baskin(1959)에 의한다.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유통’은 사람 사이의 소통뿐만 아니라 소리와 문자, 문자와 소리, 소리·문자와 사람 등 관련된 요소들의 자연스러운 상생적인 통합을 의미한다. ‘유통’의 관점으로 세종의 정음 문자관을 다시 조명하는 것은 정음의 본질을 최대한 잘 드러내고 정음을 둘러싼 맥락을 통합 또는 융합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관점과 일치한다.³⁾ ‘유통’은 소통의 대상과 소통 과정, 그리고 소통의 맥락과 가치를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다.

2. ‘정음’의 개념과 ‘정음 문자관’의 역사적 배경

2.1. ‘정음’의 개념

이 글에서 사용할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별해 쓰고자 한다.

한글 : 근대 이후의 한국어를 적는, 기본 24자로 구성된 한국의 고유 문자.

언문 또는 훈민정음 : 세종(이도)이 창제한 15세기 조선의 말을 적는 기본 28자로 이루어진 조선의 고유 문자.⁴⁾

정음 : 사람의 말소리를 비롯한 들리는 자연의 소리를 가장 과학적으로 적을 수 있는, 세종이 창제한 보편 지향 문자.

‘한글’과 ‘언문, 훈민정음’은 한국의 특수성과 민족주의와 떼려야 뗄 수

3) 훈민정음에 대한 융합 접근 방법론에 대해서는 백두현(2012)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

4) ‘언문’과 ‘훈민정음’의 맥락적 의미는 이상혁(2006), 홍현보(2012) 등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듯이 사뭇 다르다. 여기서는 기본 의미 차원에서 같은 용어로 묶은 것이다.

없는 용어이며, ‘정음’은 언문과 한글의 특수성과 한국 민족주의를 최대한 배제하는 의도를 담은 용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훈민정음’과 ‘정음’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지만, 15세기 조선의 특수성을 반영한 ‘훈민-’이 붙은 용어와 ‘훈민’을 뺀 ‘정음’의 용어 맥락의 차이는 분명한 것이다. 물론 세종은 정음을 통해 한국어의 특수성과 말소리의 보편성을 아울러졌지만, 맥락에 따라 한국어의 특수성과 인간 언어의 보편성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⁵⁾

그렇다면 ‘문자’와 ‘소리’라는 일반 용어를 통해 ‘정음’의 실체와 의미에 좀 더 접근해 보자. ‘문자(文字)’라는 일반 용어로 본다면, 문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층위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자1 : 말소리를 적는 기호

문자2 : 각 언어의 구체적인 입말을 적는 개별 글자로 중국어를 적는 한자, 영어 알파벳, 아랍 문자, 훈민정음/한글 등.

문자3 : 한자

문자4 : 자연의 소리를 최대한 잘 적을 수 있는 인류 보편 문자.

‘문자4’가 바로 ‘정음(正音)’이다. 중국어를 적기 위한 한자가 동아시아의 보편 문자가 되었듯이, 세종도 동아시아의 표준 표기 체계를 꿈꾸면서 조선의 말소리뿐만 아니라 한자음까지 옮겨 적고 주변 여러 나라의 말까지 받아 적을 수 있는 문자를 설계한 셈이다.⁶⁾ 이는 강신항(2003가: 50), 최영애

5) 언어와 문자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김슬옹(2008)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 있다. 훈민정음학회가 주도한 인도네시아의 짜아짜아족 한글 사용 문제도 ‘한글’이 아닌 ‘정음’의 관점에서 쌍방향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졌다면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했을 것이다. 물론 훈민정음학회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도한 것이다. 비록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도 세종의 정음 문자관을 구체적으로 시도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다수 언론들이 짜아짜아족 한글 보급이 정치적 갈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사)세계문자연 구소에서 개최한 ‘세계문자심포지아 2014’에 참여한, 짜아짜아족을 가르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비딘 바우바우고등학교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단 한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고 한다.

(2003 : 98), 이경희(2007 : 197-198)에서 지적했듯이, 파스와 문자가 몽골 말뿐만 아니라 한음의 정확한 표기와 여러 나라 말을 적기 위해 일종의 국제음성기호와 같은 다목적용으로 설계된 이치를 따랐다.

소리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층위의 소리가 있다.

- 소리1 : 모든 자연의 객관적 실체로서의 소리(음향+음성).
 - 소리1_1 : 사람 이외의 소리(두루미 소리,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
 - 소리1_2 : 사람의 말소리
- 소리2 : 들리는 소리로 사람의 인지 체계 안에 들어온 소리.
 - 소리2_1 : 사람 이외의 소리(두루미 소리,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
 - 소리2_2 : 한국인의 말소리
 - 소리2_3 : 한국 이외 나라의 말소리(중국, 미국, 일본 등)
- 소리3 : 말하는 소리

우리가 문자로 표기하는 말소리 이외의 자연의 소리는 결국 자연의 소리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인지 체계 안에서 사람의 말소리로 바뀐 소리이다. 문제는 그러한 소리를 문자로 나타낼 때 문자 체계에 따라 객관적 실체로서의 소리에 근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기본적인 음운론이나 문자 상식이 있다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다. 실제로 EBS와 숭실대소리공학연구소에서는 지난 2013년 한글날에 방송된 동영상 ‘위대한 문자-한글의 재발견’에서 이를 간단한 실험을 통해 입증해 보였다. ‘한국/영어권/중국 어권’ 학생들을 여러 명씩 동원해 실험을 진행했다.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고 각자가 사용하는 문자로 적고 읽어 보는 실험이었는데 한글 사용 학생

6) 이런 추론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중국이 천 년 이상 한자음 적기를 집대성한 『홍무정운』 운서의 한자음을 과감하게 훈민정음으로 옮긴 『홍문정운역훈』이다. 이 책 서문을 보면, 세종은 성운의 처음과 끝을 모조리 연구한 끝에 헤아려 옮기고 그름을 정해서 칠운·사성의 가로세로 하나의 줄이라도 마침내 바른 데로 돌아오게 하였다고(使七音四聲一經一緯竟歸于正. 吾東方千百載所未知者. 可不汲旬而學) 자신감을 표현했고 이는 결국 중국이 한자음을 제대로 적기 위해 천백 년 동안 노력해 왔지만 해결 못한 것을 열흘도 못가 배울 수 있는 훈민정음으로 적게 되었다는 것이다.

들만이 모두 적은데다 서로 일치했다. 또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상고어 소리를 받아 적고 읽어보는 실험에서도 한글 적기와 읽기를 한 학생들의 공명 주파수가 원음 발음에 가장 잘 일치했다.)

실험을 담당한 배명진 교수는 “모든 발성을 하면 반드시 입안에서 공명 울림이 나오고 그 울림의 변화를 가지고 무슨 발음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분석했는데 한 글자로 그대로 읽어 들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공명 울림이 정교하게 맞는 걸로 봐서 아프리카 상고어 발음을 정교하게 따라 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소리를 표기하는 데 세상에 어떤 문자보다 한글이 유리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라고 평하였다.

‘정음’의 개념을 짜임새 있게 처음으로 정리한 것은 “홍기문(1946), 『正音發達史』 하, 서울신문사 출판국, 44-46쪽”에서였다. 책 제목 자체가 ‘훈민정음발달사’가 아니라 ‘정음발달사’라고 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정음’을 ‘언문’과 더불어 훈민정음을 가리키는 문자의 양대 명칭으로 규정하였다. 정음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훈민-’이 붙었을 뿐 실제 통용되던 명칭은 ‘정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훈민’이 붙은 것을 이렇게만 보면 너무 가볍게 본 것이다. ‘훈민-’이 붙었기에 정음의 본질과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중국의 소용이 말하는 ‘정음’과 다른 본질적 가치가 있다. 훈민(訓民)이 가능한 ‘정음(正音)’과 그것이 거의 힘든 ‘正音’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세종의 정음 문자관은 문자의 가치와 창제 취지를 담은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명칭은 일반 명칭인 ‘언문’에 대비되는 특별 명칭이었다. 특별 명칭이었기에 문자 명칭임에도 그 맥락(배경, 근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7) 박동근(2005)에서는 한국어의 의성어 목록에 없는 당나귀, 칠면조, 코끼리의 울음 소리를 대상으로 한 의성어 창조 실험에서는 매우 다른 목록들이 나옴을 보고한 바 있다. 사람이 자연 그대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데다 기존 어휘 체계를 벗어난 경우이므로 이런 실험 목록은 일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들리는 소리를 자연의 소리 비슷하게 적는 것은 분명 문자마다 질적인 정도차가 있다는 것이고 EBS 실험은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다. 문자의 명칭임에도 왜 ‘-음(音)’으로 끝날까 고민이 불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⁸⁾

홍기문(1946)은 중국과 우리나라 주요 문헌에서 쓰인 ‘正音’의 용례를 통해 다섯 가지 개념을 뽑아냈다.

<표 1> 홍기문(1946)에서 정리한 ‘정음’ 개념 갈래

개념	근거 문헌
정확한 말소리	황극경세서
널리 통용되는 말소리	홍무정운
중앙 말소리	칠음략
본래 말소리	운회거요
정확한 소리이자 널리 통용되는 소리	석보상절

이런 분석 아래 “정음은 문자의 본질을 표시하는 이름이요, 언문은 그 용처를 표시하는 이름이다(홍기문 : 1946 하권 : 46)”라고 개념을 정리하였다. 곧 문자 자체가 성음(聲音)을 표시하는 점에 있어서 ‘정음’이요, 우리말에 사용되는 점에 있어서는 ‘언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음’의 의미를 직접 다음과 같이 서술한 석보상절 서문의 의미를 두 가지로 추려 냈다.

正정음음은正정훈소리니우리나라말을正정히반드기올히쓰논그릴씨일후를
 正정음음이라호느니라.(정음은 바른 소리이니 우리나라 말을 바르고 반듯하게
 옳게 쓰는 글이므로 이름을 정음이라 하나니라.) 『석보상절서문』

위 구절을 지금 말로 풀어 쓰면 “정음은 바른 소리라는 뜻이니, 우리나라

8) 박창원(2005 : 44)에서도 “당시 중국어와 다른 조선인의 언어를 위한 문자를 만들고 그것을 ‘正字’나 ‘正文’이라 하지 않고, ‘正音’이라고 한 것은 소리와 문자란 그 이치가 동일한 것이어서, 문자가 소리의 이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의 소산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말을 반듯하고 옳게 쓰는 글이므로 이름을 ‘정음’이라 한다.”라는 것인데, 홍기문은 이러한 정의에 담긴 정음의 뜻은 첫째로 틀린 소리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적는 글자라는 의미와 둘째로 표준어처럼 두루 통용되고 소통되는 소리를 적는 글자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홍기문은 ‘정음’의 본질을 정확성과 소통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석보상절 서문의 개념은 우리말에 한정된 개념이므로 ‘정음’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진 못한다. <표 1>처럼 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다.

강신항(2003나)에서는 홍기문(1946)을 참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조, 중국, 일본 세 나라 문헌에 쓰인 ‘정음’의 의미를 분석한 뒤, 우리말 어음의 표준음, 음악의 정음, 새로 개정한 동국정운식 한자음, 중국 표준음인 홍무정운식 한어자음(홍무정운역훈식 정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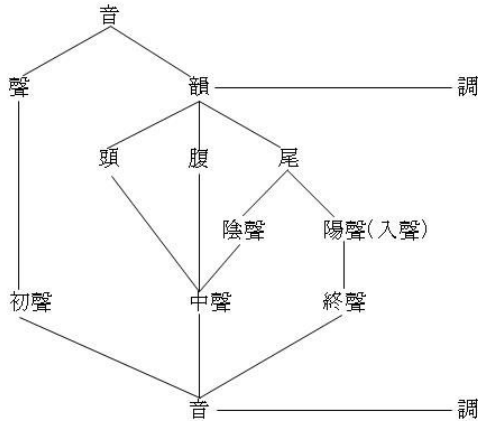
2.2. 정음 문자관의 역사적 배경

소옹의 정음 문자관은 중국의 고대 문자관을 체계화시키고 이론화하여 형성됐다.⁹⁾ 중국은 불경 전래와 더불어 산스크리트 문자와 같은 음소 문자의 영향으로 말소리를 연구하는 성운학이 더욱 발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1세기 송나라의 소옹(邵雍, 1011-1077)에 의해 정음 문자론은 정밀하게 체계화되었다.¹⁰⁾ 정초(1104-1162)가 지은 『통지』 『칠음략서』에 “七音之韻 起自西

9) 소옹의 정음 이론이 중국의 음운학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논의는 심소희(2013)에서 이루어졌다.

10) 『성리대전』에 나오는 소옹(소강절)이 쓴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의 주요 내용은 해와 달, 천체의 운동에 관하여 쓴 관물론(觀物論)으로 관물내편(觀物內篇)과 관물외편(觀物外篇)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물외편 7절에서 ‘정음론’을 칠정(七政)과 매화역수(梅花易數)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소옹의 정음 사상은 주희의 성리학 사상과 채원정의 『율려신서(律呂新書)』의 바탕이 되었고 특히 소옹의 ‘황극경세성음창화도’는 성리학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리대전』과 『훈민정음』 해례본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강신항(1963), 이승녕(1969, 1972), 유창균(1989), 문효근(1993), 박동규(2001), 이영월(2009) 등에서 집중 논의되었다. 특히 문효근(1993)에서는 훈민정음에 영향을 끼친 핵심 운서(韻書)와 문자학의 고전인 설문해자(說文解字)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域 流入諸.夏(칠음에 관한 지식은 서역에서 생겨서 중국에 전해 들어왔다)”라고 했고, 신숙주가 쓴 ‘홍무정운역훈 서문’에 보면 “切惟音韻 衡有七音 縱有四聲 四聲肇於江左 七音起於西域(음운은 횡으로 칠음이 있고 종으로 사성이 있는데, 사성은 강 왼쪽 지역에서 시작되고 칠음은 서역에서 기원하였다).”라고 하여 중국 성운학의 발달 계보의 한 단면을 밝혔다. 송나라 때의 성운학은 임용기(2008 : 5-6)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듯이 소리를 매우 정밀하게 분석해 냈다.



<그림 1> 성·운과 초·중·종성의 대응(임용기, 2008 : 10)

<그림 1>에서 보듯 이들은 중국의 일반적인 소리 인식인 ‘성’과 ‘운’의 이분법을 넘어 ‘운’을 ‘두-복-미’로 분석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이론으로만 남고 바른 소리를 실제로 보여주거나 적는 데는 이르지 못하여 바른 소리, 곧 ‘정음(正音)’은 중국의 음운학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관념이었다. 이론과 관념으로는 분명 ‘정음’은 존재하고 그 가치와 의미는 풍성한데 실체를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천지자연의 소리를 담은 문자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다. 고대에는 기초적인 상형 문자를 통해 소리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소리의

이미지였지 소리의 속성은 아니었고 단어 글자인 한자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음운 문자라고 소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소리를 분절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소용이 정음관을 체계화했던 시대에는 산스크리트와 같은 한자와는 전혀 다른 계열의 문자가 들어왔음에도 그런 다른 문자를 모방하거나 빌려 적을 생각을 하지 않아 정음을 보여 주지 못했다. 물론 세종 이전의 동양의 언어 전문가들이나 사상가들도 ‘반절법’ 등의 편법을 통해 그 실체를 보여주려고 노력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진정한 노력이라 보기 어려웠기에 실체를 보여 주는 데 실패한 것이다. 바른 소리를 바르게 적을 수 없는 한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주음부호가 개발(1918)되고 로마자가 도입(1926)되는 20세기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세종은 소용의 정음관을 접하고 이런 식의 고민과 탐구를 이어갔을 것이다.¹¹⁾ “천지자연의 소리에 어울리는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고 했는데 왜 문자(한자)로 그들의 소리(중국어)조차 제대로 적을 수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조선의 소리는 문자(한자)로 더더욱 적을 수 없는데 우리의 말소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적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말과 중국 한자음을 두루두루 잘 적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 수는 없는가? 몽골 말도 적고 다른 말도 적을 수 있는 국제 문자로 창제된 파스파 문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바뀌지 않는 소리와 바뀌는 소리를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문자는 없

11) 사실 세종이 『성리대전』에 나오는 소용의 정음관을 직접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성리대전』은 세종 1년에 조선에 들어왔고 세종이 이 책을 깊게 연구한 것만은 여러 관련된 기록이 나온다. 훈민정음 창제 공포 15년 전인 1428년에 세종은 집현전 응교 김돈에게 이르기를,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가 지금 인쇄되었는지라, 내가 이를 읽어 보니 뜻과 이치가 매우 정밀하여 이치를 깨닫기가 쉽지 않으나, 그대는 매우 꼼꼼한 사람이니 마음을 써서 한번 읽어 보라_세종실록 1428/03/02.”라고 했고, 이로부터 한 달 후인 4월 16일에는 명나라 사신에게 성리대전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하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탐독하고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는 것인가? 소리가 문자로 되고 문자가 다시 소리로 쉽게 복원되는 문자는 만들 수 없는가?¹²⁾”와 같은 질문이나 탐구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세종은 음악과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근대 언어학과 탈근대 언어학의 융합적인 언어학 지식을 결합시켜 정음을 보여 주는데 성공했다.¹³⁾ 언제부터 세종이 정음을 연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세종이 47세 때인 1443년 12월(음력)에 이르러서야 그 결과를 정음의 기본 문자인 28자를 통해 알렸다. 모든 소리를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소리 나는 원리와 이치를 파악해 그것을 가장 쉽고 간결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세종의 정음 문자는 1446년 9월 상한(음력)에 세상에 공포된 뒤, 단 한 사람도 공식적인 반대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지배층과 지식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되었으나 한자를 대체하는 문자가 아닌 보완하는 2류 문자 정도로 여겨졌고 더더욱 더 깊고 치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⁴⁾ 훈

12) H학회의 한 심사위원은 이런 식의 기술은 객관적 학술 논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서술이라 조언해 주셨다. 그러나 세종의 정음 창제 과정과 그에 따른 사유와 학문의 역사적 배경을 실증적으로 밝히기는 관련 기록이 거의 없어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관련된 간접 자료를 바탕으로 창제 전후 맥락을 통해 그 사유 구조를 추론하는 것은 정음 언어관의 실체를 밝히는 주요 연구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객관성을 본령으로 삼는 자연과학의 주요 업적들도 과정으로 보면 대부분 상상과 추론의 방법론인 ‘가설’이란 절차를 통해 이룩된 것이다. 실제로 세종실록에는 이런 식의 사유 과정을 보여주는 예가 나온다. 상상의 동물인 용에 대한 사건은 정음의 실체에 접근해 들어간 세종의 사유방식을 보여 준다. 1436년에 제주도 안무사로 내려간 최해산은 1440년에 정의현에서 한 주민이 다섯 마리의 용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긴급 보고를 올린다. 다급한 보고였지만 세종은 오히려 “용의 크고 작음과 모양과 빛깔과 다섯 마리 용의 형체를 분명히 살펴보았는가. 그 용의 전체를 보았는가, 그 머리나 꼬리를 보았는가, 다만 그 허리만을 보았는가. 용이 승천할 때에 구름 기운과 천둥과 번개가 있었는가. 용이 처음에 뛰쳐나온 곳이 물속인가, 수풀 사이인가, 들판인가. 하늘로 올라간 곳이 인가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구경하던 사람이 있던 곳과는 거리가 또 몇 리나 되는가. 용 한 마리가 빙빙 돈 것이 오래 되는가, 잠시간인가. 같은 시간에 바라다본 사람의 성명은? 용이 이처럼 하늘로 올라간 적이 그 전후에 또 있었는가. 용을 본 시간과 장소는? 세종실록 1440/01/30”라고 물었다. 이것은 왕의 물음이 아니라 학자와 사상가의 물음이었다.

13) 훈민정음의 과학과 수학 특성에 대해서는 정희성(1989)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되었다.

민정음은 다목적용으로 창제되었으므로 한자를 대체할 필요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었지만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온 것을 짚는 것이다.

17세,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 최석정, 신경준, 정동유, 유희 등 일부 실학자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훈민정음 연구 성과를 낸 것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그런 연구 성과가 더 깊이 이어지지는 못했다.¹⁵⁾ 조선 말기에 와서야 주시경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정음 연구를 이어나가려 하였으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39세로 요절하였다. 다행히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어 이를 반영한 최현배(1942), 홍기문(1946), 방중현(1948) 등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세종의 정음 문자관에 관한 논의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정음 문자관에 대해 최초로 자세한 논의를 한 홍기문(1946)과 단일 논문으로 다룬 강신항(2003나), 정음 문자관을 단행본으로 집약한 한태동(1983, 1998/2003)에서 집중 논의되어 왔다.¹⁶⁾

14) H학회의 한 심사위원은 “최만리를 위시해 당시 사대부 계층에서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공식적인 반대가 없었다”는 말에서 ‘공식’을 오해한 평가다. 최만리의 6인의 반대상소와 같은 공식적인 반대는 이 상소 이후로는 실제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남아 있는 기록만이 역사의 진실은 아니다. 생생한 1차 공식 기록서인 승정원 일기는 볼타 없어진 기록이 더 많다. 그러나 졸고(2012다)에서 밝혔듯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언문의 우수성과 실용성은 인정하되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이류 문자 취급을 함으로써 한자의 권위를 유지하였으므로 최만리와 같은 반대를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그 밑바탕에는 세종이 언문을 다목적용으로 만들어 전면 반대를 못하게 한 고도의 문자 보급 정책이 성공한 요인이 깔려 있다.

15) 실학자들의 훈민정음 연구에 대해서는 이상혁(2004 : 119-150), 김영주(2004), 김동준(2007), 조성산(2009) 등에서 논의되었다.

16) 한태동(1983)은 정음의 실제와 이론들을 『훈민정음』(해례본), 『동국정운』, 『악학궤범』을 바탕으로 통합 분석한 최초의 융합 연구로, 이를 단행본인 한태동(1998)으로 출판한 뒤 재편집하여 한태동(2003)으로 최종 출판하였다.

3. 세종의 '정음' 형성 과정과 주요 원리

소옹이 집대성한 정음관은 어떤 경로에 의해서건 세종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설령 소옹의 이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당대 언어와 문자 이론을 연구했을 세종이 동양의 전통적인 정음관을 살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세종은 어떻게 그런 동양의 전통 정음관을 이어받으면서도 그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음 문자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지를 세 가지 원리로 추려낼 수 있다.

3.1. 상형 과학

역설스럽게도 정음 창제의 뿌리는 한자(漢字)다. 정음 창제의 핵심인 상형 원리는 한자에서 비롯되었고 더불어 한자로는 소리를 제대로 적기가 불가능한 절대 모순은 정반대에 있는 소리 문자 창제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 (1)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做古篆(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니, 그 문자는 고전을 본떴다.)_『세종실록』 1443/12/30
- (2) 字形雖做古之篆文(글자 모양은 비록 옛 전자를 본떴지만)_『세종실록』 1444/02/20/ 세종 최만리 반대 상소문
- (3) 가. 正音二十八字,各象其形而制之(정음 28자 각 글자는 형태를 본떠 창제했다)_『훈민정음 제자해』
 나. 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字,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뜻을 통하고, 천지인 삼재의 이치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들이 능히 글자를 바꿀 수가 없었다.)_『훈민정음』 정인지서
 다. 象形而字做古篆,因聲而音叶七調.三極之義, 二氣之妙,莫不該括.(이 글자는 옛 글자처럼 모양을 본떴지만, 말소리는 음악의 일곱 가락에 들어맞는다. 천지인 삼재와 음양 이기의 어울림을 두루 갖추

지 않은 것이 없다.) 『훈민정음』 정인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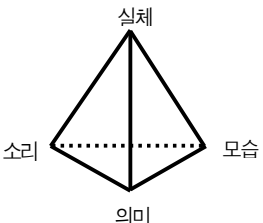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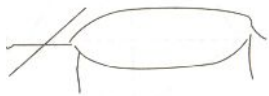
(4) 가. 天地絪縕 大化流行 而人生焉 陰陽相軋 氣機交激 而聲生焉. 聲既生而
七音自具 七音具而四聲亦備.(하늘과 땅이 화합하여 조화가 유통하
매 사람이 생기고, 음양이 서로 만나 기운이 맞닿으며 소리가 생
기나니, 소리가 생기매 칠음이 스스로 갖추어지고, 칠음이 갖추
어지매 사성이 또한 구비된지라.) 『동국정운』 서

나. 是故 包犧畫卦 蒼頡制字 亦皆因其自然之理 以通萬物之情(이러한 까
닭으로, 포희(복희)씨, 중국 고대 전설의 임금)가 괘를 그리고 창
힐(고대 한자를 만든이)이 글자를 만든 것이 역시 다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만물의 뜻을 통한 것이다.) 『동국정운』 서

창제와 반포에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쓴 이와 같은 논의의 핵심은 천지자
연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고 그 문자는 상형 원리로 이루어
졌으며, 그것은 옛 전자나 정음이나 한결같다는 것이다. (1)-(3)의 기록들은
그런 점을 한결같이 직접 서술하고 있고, 동국정운 서문의 (4)를 보면 그런
이치에 따라 고대 중국의 문자 신(고대 중국 황제의 사관)인 창힐이 한자를 소
리와 뜻을 담아 만들었고 정음이 이를 이어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¹⁷⁾

한태동(2003 : 3-10)은 그런 이치를 <표 2>의 예로써 보여 주었다.

<표 2> 고대 한자 제자 원리와 실제 예(한태동, 2003 : 3-4)

고대 한자 제자 원리	'개(狗)'의 모습과 소리(개~을)를 함께 나타낸 상형기호
	

17) 그동안 많은 학자들은 발음기관을 본뜬 '상형'의 독창성과 옛 전자를 모방했다는 모방설이 마치 대립된 진술인 듯 여겨오거나 '자방고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러한 상형 기호는 개 실체의 모습을 보여 주어 그 의미를 드러냄과 동시에 ‘꺼-을’이라는 소리의 이미지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상형 기호야말로 ‘천지자연지성 천지자연지문’의 이치를 담은 것이며 이 기호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리와 모습을 다시 연상해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발음과 의미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문자를 만들고자 하는, 한자와 정음이 갖고 있는 공통된 상형 원리로 보면 ‘字倣古篆’이란 말의 맥락은 자연스럽게 풀린다.¹⁸⁾ 한자와 정음의 핵심적 차이는 ‘한자’가 갑골문으로 흔히 불리는 초기 일부 한자에만 사물 중심으로 상형 원리가 적용된 데 반해, ‘정음’은 기본 28자 모두 상형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상형 절차가 과학의 이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때의 과학은 실제 과학이면서 언어과학이다.¹⁹⁾

한자의 경우 단어가 많아지고 뜻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물을 그대로 상형하는 초기 의도는 약화 되었다. 실제로 지금 한자는 상형 문자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1차적인 상형문자에서 떨어진 문자가 대부분이다. 사물과 대상을 있는 그대로 상형하고자 하는 한자 상형 원리의 한계는 소리 과학과 기하학의 원리를 도입한 세종에 의해 해결된 셈이다.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여 자음과 모음에 서로 다른 상형 전략을 적용한 것이 상형 과학의 핵심이었다.

초성 자음의 경우 핵심 문자소(ㄱ ㄴ ㄷ ㄹ ㅁ)를 발음 기관과 발음 작용을 그대로 상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간결한 직선과 원으로 상형하고 다른 문자를 유기적 체계를 이루게 하는 철저한 상형 과학을 적용해 명실상부한 상형 문자를 만들었다. 소리 나는 기관을 상형함으로써 소리를 그대로 담아 내려 한 “천지자연지문(天地自然之文)” 전략에도 성공하였다. 모음의 문자소(· - ㅣ)는 아예 천지자연의 세 요소를 상형하고 음양의 상징물(땅, 하늘)을

18) ‘자방고전’의 문제는 백두현(2012 : 133-134)에서 종합 정리되었듯이, 기존 논의의 대부분은 문자 구성 원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한태동(2003)에서처럼 소리와 문자를 일치시키려는 상형 원리로 보는 것이 더 옳다.

19) 세종 대의 과학 수준은 당대 최고였다(김일권 2007 참조). 천문과학과 훈민정음의 상관관계는 반재원(2001) 참조.

통해 모음조화의 우리말 특성까지 반영하여 역시 천지자연의 소리문자를 담았다.

‘한자’와 ‘정음’은 모두 문자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가 곧 상형인 셈이지만 소리나는 이치를 반영한 상형과 그렇지 않은 상형은 질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우리는 정음 문자를 구현하고자 하는 세종의 치밀하고도 놀라운 전략을 보게 된다. 발음 나는 원리를 본뜬으로써 상형의 부담도 줄이고 그 효율성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형 원리는 실증성과 관찰을 바탕으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과학 절차에 의한 상형과학이었다.

한태동(2003 : 2)에서 ‘정음’을 지은 목표는 “쉬운 한글로 복잡한 한자 풀이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글자의 모습과 소리가 이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본연의 관계를 되찾아 주어 만물의 속정(情) 소통하는 소임을 하는데 있다.”라고 하였다. 고대에는 오히려 발음과 의미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제자(製字)를 하였다고 본 것이다. 김석연(1993)에서는 이러한 상형 과학이 ‘정음’의 핵심이라는 의미로 ‘정음’을 “인간의 소리를, 그 발음 기관에서 소리를 생산하는 조음 구조를 상형·시각화하여 글자로 만든 일과 동일 발음 부위 안에서 생산된 소리가 점층적으로 크고 약하게 들리는 변별적 자질까지도 반영하는 포괄적 명칭”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평가이다.²⁰⁾

결국 세종의 상형 전략은 말소리의 분석에서 문자에 이르기까지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정음을 만들어낸 핵심 원리가 되었다.²¹⁾

20) 김석연(1993)은 Sek Yen Kim-Cho(2001)로 발전 기술되었다.

21) 김주원(2013 : 206)에서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발음기관을 본뜬 것이므로 전 인류적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알렉산더 멜빌 벨(Alexander Melville Bell)이 세종의 업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1867년에 펴낸 『보이는 음성 : 보편 알파벳 과학』(*Visible Speech : The science of Universal Alphabets*)이란 책에서 발음기관과 발음 작용을 상형한 문자야말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면서 실제 상형 부호를 보였지만 그것이 정음처럼 상형 과학으로 이어지진 못해 더 이상 발전을 못한 듯하다.

3.2. 음률 배치 원리

정음을 구현하기 위해 음악 연구와 그 적용은 필수였다. 음악에서 소리와 음표의 필연적 관계, 기본 음표로 다양한 소리를 빚어내는 것은 정음의 이치와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음악은 바른 세상과 바른 정치의 표상이자 도구였다.

세종이 1430년에 펴낸 ‘아악보’ 서문에서 정인지가 썼듯이 음악은 성인(聖人)이 성정(性情)을 기르고, 신과 사람을 서로 어울리게 하며, 하늘과 땅을 자연스럽게 하여, 음양을 조화시키는 방법이다.²²⁾ 악학궤범 서문에서도 “樂也者 出於天而寓於人 發於虛而成於自然 所以使人心感 而動盪血脉 流通精神也 (음악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인 것이요, 빔에서 발하여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케 하는 것이다.)”²³⁾라고 하였다.

음악은 곧 천지자연의 조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소용의 정음관에 의하면 바른 말소리와 바른 문자도 이런 음악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정음론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철저히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성운학의 한계로 그러한 음악 원리를 철저히 이루지 못한 데 반해, 세종은 정음을 통해 그런 점을 좀 더 완벽하게 구현하였다.

세종 초에 들어온 『성리대전』에 실려 있는 음악이론서인 ‘율려신서’는 조선의 음악 연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실록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옵서 특별히 생각을 기울이시와 선덕(宣德) 경술년 가을에 경연에서 채씨(蔡氏)의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공부하시면서, 그 법도가 매우 정밀하며 높고 낮은 것이 질서가 있음에 감탄

22) 樂者 聖人所以養性情 和神人 順天地 調陰陽之道也. 세종실록 1430/윤12/01.

23) 이혜구(2000),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31쪽 참조.

하시와 음률을 제정하실 생각을 가지셨으나, 다만 황중(黃鍾)을 급히 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그 문제를 중대하게 여기고 있었다._1430/윤12/01/_조선왕조실록 온라인판 번역

올려신서를 지은 중국의 음악 이론가 채원정(蔡元定, 1135~1198)은 음악을 성리학과 과학 이론으로 풀어냈다. 세종과 박연(1378~1458)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아예 조선식 악기를 제정하여 우리식 음악 이론을 세워 훈민정음에 적용하였다.²⁴⁾ 절대 음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률과 화음을 만들어내는 이치를 정음에 그대로 적용하여 절대 음가를 나타내는 정음을 만든 것이다.²⁵⁾

고대 사회에서 음률은 천지자연의 흐름을 측정해 보이는 것이어서 우주의 흐름을 보여 주는 ‘역(曆)’과 변화의 이치를 보여 주는 ‘역(易)’과 더불어 3대 축에 해당된다(한태동, 2003 : 227). 또한 표준음을 정하고 표준 악기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도량형을 제정하였으므로 음악은 과학과 생활의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세종의 음악 연구는 박연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런 흐름은 박연이 올린 각종 상소와 이를 모아 놓은 『난계유고』, 세종실록의 관련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²⁶⁾ 더욱이 세종 당대의 음악 이론을 자세히 기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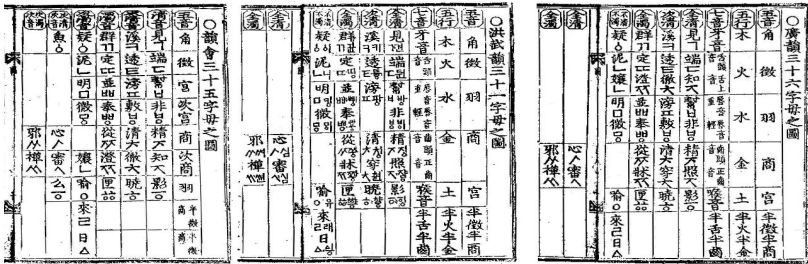
24) 惟蔡元定之書 深得律呂之源 然未能布爪指而諧聲律 是猶抱鋤耨而未諳耕耘之術也. 由茲以觀 樂非自成 因人而成 樂非自敗 因人而敗(송나라 채원정의 저술이 깊이 울려의 근본을 얻었으나, 탄법(彈法)과 지법(指法)이 성(聲)과 율(律)에 맞게 퍼지 못하였으니, 이는 마치 호미와 쟁기는 있지만 갈고 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다. 이로써 보면 음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악(樂)은 저절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하여 허물어지는 것이다.)_악학궤범 서문/이혜구 신역(2000),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5) 예악과 정음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박동근(1993), 허재영(1993)에서 일찍이 논의된 바 있다.

26) 그간 박연의 훈민정음 관련 업적은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아마도 『훈민정음』 해례본 저술 명단에 박연이 없다 보니 그런 듯하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박연의 역할은 해례본 공저자 못지않다고 본다. 박희민(2012)은 박연의 훈민정음 관련 업적을 최초로 조명한 단행본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자체를 세종이 아니라 박연이 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훈민정음은 음악 지식과 연구만으로 이루어진 문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성종 때의 『악학궤범』이 있어 훈민정음 제자해의 음악 관련 기술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한태동(1983, 2003)은 이를 당대의 이론과 현대 과학의 실증적 연구를 종합해 입증한 업적이다.

채원정의 『올려신서』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 이론을 적용했던 것을,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자음(초성)과 모음(중성)을 철저히 분리하여 음성 과학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사진 1> 최세진의 '사성통해' 범례의 정음 표기(운회, 흥무정음과 광운 자모지도)

<표 3> 훈민정음과 각종 운서의 오음 배치 비교

구분	궁	상	각	치	우	지은이와 출처
廣韻三十六字母之圖	후음	치음	아음	실음	순음	수나라 육법언(陸法言), 광운
洪武正韻三十一字母之圖	후음	치음	아음	실음	순음	명나라, '흥무정음(洪武正韻)'
三十六字母之圖	후음	치음	아음	실음	순음	조선 영조, 신경준의 '훈민정음도해'
初聲二十五母之圖	후음	치음	아음	실음	순음	조선 순조, 유희의 '언문지'
韻會三十五字母之圖	순음	치음	아음	실음	후음	송나라 황공소(黃公紹), '운회자모도'
훈민정음 초성 23자모	순음	치음	아음	실음	후음	세종 외,

대체로 중국의 운서에서는 '후음'을 '궁'으로 하고 '순음'을 '우'로 정하였는데, 훈민정음에서는 그와 반대로 '순음'(口)을 '궁'으로 하고 '후음'(○)을 '우'로 정하였다.

한태동(1998 : 41)에서는 이렇게 중국의 대다수 운서와 다른 이유가 악리

에 따라 실제 음정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최종민(2013 : 65, 주석 10)에서의 지적처럼 송나라 황공소가 지은 ‘운회삼십오자모도’만 중국의 다른 운서와 다른 측면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²⁷⁾

황공소의 ‘운회’ 자모도는 원나라 때 편찬된 『몽고운략』을 바탕으로 만들어 본래 중국 운서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최세진이 ‘사성통해’ 범례에서 그 내력을 밝힌 바 있다.

黃公紹作韻會字音則亦依蒙韻而又緣蒙字有一音兩體之失故今不取基分音之類也
 唯於注解則正毛氏之失聚諸家之著而友加詳切故今撰通解亦取韻會主解爲釋。(황공소가 『韻會』를 지을 때 글자의 어음 역시 『蒙韻』에 따랐지만, 몽고 글자에서 하나의 음을 두 가지 글자로 표기하는 잘못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류음의 방식은 취하지 않는다. 오직 주해에 있어서만큼은 모씨 『禮部韻略』을 지은 毛晃의 잘못을 바로잡고 여러 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더욱 상세하게 풀이하였으므로, 이제 『通解』를 편찬함에 있어서 역시 『韻會』의 주해를 취해 그 뜻을 풀이하였다.²⁸⁾)

운서는 중국의 운서든 조선의 운서든 시기별로 끊임없이 편찬되었고, 그 내용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이런 내력에 대해서는 『고금운회거요』 첫머리에 나오는 ‘공’자에 대한 주해(案)에서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²⁹⁾

聲韻之學 其傳久失 韻書起於江左 譌舛相承 千有餘年 莫之適正 近司馬文政公
 作切韻 始依七音韻 以牙舌脣齒喉 半舌 半齒 定七音之聲 以禮記月令 四時定 角

27) H학회의 한 토론자는 “『韻鏡』, 『七音略』 등의 운서나 운도들은 ‘후음-궁, 순음-우’이지만 『切韻指掌圖』나 『四聲等子』, 『切韻指南』 등의 운서나 운도는 ‘순음-궁, 후음-우’로 배합하였으므로 이 글에서 제시한 예가 훈민정음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이 논지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음계 논증은 훈민정음만의 독창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말의 분절적인 원리와 음계의 체계적인 원리의 상관 관계를 세종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 정음 문자관을 실현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뿐이다.

28) 번역은 주성일(2009가)에 따르되 다듬어 인용함.

29) 박영규(2013), 『세종으로 훈민정음을 보다』, 미간행본. 참조.

徵宮商羽 半商徵 半徵商之次 又以三十六字母定 每音清濁之等 然後 天下學士 始知聲音之正 今韻所編 重加訂定.(성운학이 오래 전에 전해오던 것을 읽어버렸다. 강의 왼쪽에서 일어난 운서가 잘못되고 어긋나게 심해진 지 천 년이 넘었으므로 바로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근래에 이르러 사마문정공이 절운을 지었는데 일곱 개의 음운에 의거하여 아, 설, 순, 치, 후, 반설과 반치의 칠음의 성을 정하였다. 『예기월령』에서 사시를 정할 때 사용한 각치궁상우 반상치와 반치상에 따라서 36 자모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음을 청탁의 등위를 둔 이후에야 세상의 학사들이 성음의 바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운을 편집하면서 거듭 고쳐 바로잡게 되었다. _『古今韻會舉要』 1권 3가(아세 아문화사 영인본, 20쪽 위)

곧 성운학이 많이 바뀌어 운서가 잘못되고 어긋나게 이어 온 지 천 년이 넘었는데, 성운학에 가장 가까운 절운(切韻)은 사마문정공(司馬文正公), 곧 사마 공이 지었다는 것이다.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은 『절운지장도』를 지은 사람으로 아설순치후·반설과 반치의 칠음에 따라 성모를 정하였고, 『예기월령(禮記月令)』에서 사시(四時)를 정할 때 사용한 각·치·궁·상·우·반상치와 반치상에 따라 음에 청탁의 등위(等位)를 두어 36자모를 만들었으며, 그 이후에야 세상의 학사들이 성음(聲音)의 바른 것, 곧 정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금운회거요』는 중국에서 1297년에 간행되고 조선에서는 1433년 무렵에 재간행되어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인 1444년에 세종이 국역을 지시한 책³⁰⁾으로 『동국정운(1449)』 편찬의 바탕이 된 책이다.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운서의 편찬 맥락을 보여 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성음’을 알게 되었다는 구절이 기존 운서의 발달이나 성음론의 발달에 따른 중국에서의 상대적 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문제는 ‘성음’ 또는 ‘정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이론이나 관념에 머무른 것이다. ‘정음’을 제대로 보고자 하는 이들의 꿈은 15세기 조선에서

30) 물론 세종실록에는 “以諺文譯『韻會』_1444/02/16”라고만 나오고 실제 번역서는 남아 있지 않다.

만든 운서 『동국정운』(1448)과 중국의 운서를 훈민정음으로 보여주는 『홍무정운역훈』(1455)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기존의 동양의 성음 이론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제 그런 문자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3.3. 민본주의 교화와 소통 원리

세종 정음관의 핵심에는 정음 사용자의 주체가 있다. 중국 고대의 정음관이나 소옹의 정음 이론에는 정작 정음을 누가 왜 사용하는가에 대한 주체의 문제가 없었다. 천지자연의 소리와 문자 논의는 풍성하지만, 정작 그 소리와 문자를 사용하는 주체 논의가 없는 것이다. 김슬옹(2008)에서는 소쉬르의 언어학과 세종의 언어학의 핵심 차이를 주체가 있고 없음으로 논의한 바 있다. 물론 성리학은 사람의 도리를 다루는 학문이므로 당연히 다음과 같이 주체의 문제를 다룬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脩道之謂教 『중용(中庸)』 첫머리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요 그러한 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이고 그러한 도를 닦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 실천할 때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다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중용의 시대적 배경에는 누구나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없는 신분제를 따르는 것도 본성이라 본 시대적 한계성은 있지만 무엇이 인간의 바른 길인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소옹의 정음관도 이런 천지자연 본성론에 따르고 있지만, 정작 언어를 통한 소통의 문제 등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교화와 소통 문제로 정음을 꿈꾸게 되었고 그 꿈을 28자를 통해 이루었다. 세종은 다목적용으로 정음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그 근본

출발은 책을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고 책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널리 나누고 싶은 데에 있었다. 한문이나 이두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어 정음을 창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세종 때도 신분제의 한계가 있었으므로 책을 통한 소통 문제를 오늘날의 소통 차원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신분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사람으로서의 섬세한 감성 표현까지 가능하게 하고 신분과 권력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듦으로써 시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정 계층만이 문자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주체조차 마음대로 감성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은 노비까지 문자를 사용하고 감성 표현의 주체가 되는 시대 상황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본다.³¹⁾

‘훈민정음’의 1차적 사용 주체는 조선의 백성이었으나 보편 문자로서의 ‘정음’에 주목한다면, 김석연(1993 : 168)에서처럼 그 주체를 확대할 수 있다. 곧 김석연(1993)에서 정음을 사용할 ‘훈민’의 대상이 한국 국민만이 아니었음은, 정음을 보편적 문자로서 온 누리에 편만하게 하고 싶었던 세종의 꿈과 청사진이 깔려 있는 원본의 제자 원리와 창제 의도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세종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바른 문자를 통한 소통과 교화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신분제가 있는 상황에서의 소통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표현조차 못하는 상황과 표현이 가능한 상황은 역시 차원이 다르다. 세종이 1446년에 발표한 세종 서문과 그 이전 신하들과의 토론, 회의 등을 종합해 보면, 하층민이 하고 싶은 말(글)을 한문으로 인해 하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을 문제 삼았으며 그런 까닭으로 새 문자를 창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음’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

31) 조선 시대의 노비 계층의 한글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김슬옹(2005: 53-56)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고, 전반적인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는 최현배(1942), 김슬옹(2012)에서 총체적으로 기술되었다.

4. 세종 ‘정음’의 주요 특징

세종이 정음 창제에 성공한 주요 사상적 특징을 짚어보기로 한다.

4.1.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언어는 중층적이다. 근대 언어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소쉬르(1916)는 랑그와 파롤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언어의 복합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론화 하였다. 그러나 소쉬르의 이러한 접근은 다른 중층성을 잘 보여주었지만 이분법적 접근 한계로 언어의 융합적 실체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다. 반면에 세종은 훈민정음을 통해 음성 기호로서의 보편 문자 기능과 자연어로서의 특수성을 아울러 구현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의 융합을 이루었다.

현대 언어학은 50년 이상 소쉬르의 이분법을 확대 재생산하였고, 최근에 와서야 융합적인 흐름을 형성하는데, 이에 반해 세종은 이미 15세기에 그런 흐름을 보여준 것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융합하는 원리는 『훈민정음』(1446)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1) 有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所以古人因聲制字，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而後世不能易也。
- (2) 가. 然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焉。蓋外國之語，有其聲而無其字。假中國之字以通其用，是猶柄鑿之鉏鋤也，豈能達而無礙乎。要皆各隨所處而安，不可強之使同也。(사망의 풍토가 구별되므로 말소리의 기운 또한 다르다. 대개 중국 이외의 단 나라 말은 그 말소리에 맞는 글자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빌려 소통하도록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으니, 어찌 제대로 소통하는 데 막힘이 없겠는가? 요컨대 모든 것은 각각의 처한 곳에 따라 편안하게 할 것이지, 억지로 같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 但方言俚語,不與之同(오직 우리말이 중국말과 같지 않다.)

(1)에서는 문자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자연의 말소리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적는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옛 사람들도 천지자연의 말소리에 맞는 천지자연의 글자를 만들었고, 그 글자에 만물의 뜻을 담고 천하의 이치를 담았기에 후세 사람들이 쉽게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말소리와 문자를 일치시키려는, 말소리와 문자의 유기적 관계로서의 보편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가)에서는 말소리와 문자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는 곳이 다르면 말소리 또한 다르기 마련인데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대개 그 말소리에 맞는 글자가 없다. 그래서 중국 글자를 빌려 쓰지만 이것은 마치 등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끼우는 격이라 소통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각 지역에 맞는 문자를 쓸 일이지 한자 같은 문자를 빌려 억지로 쓰게 할 필요는 없다. 즉 (2나)처럼 각 지역의 방언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융합한 대표적인 보기는 초성자와 종성자의 인식과 문자화이다. 정음은 '초성부용초성'에서 보여 주듯 변이음을 정확히 인식하여 초성자와 종성자를 같은 모양으로 디자인하고 간결한 문자로 말소리를 기술할 수 있게 하였다. 순정음 비읍(빙)과 같이 모국어 화자의 일상 언어 생활에서 인식되지 않는 음까지 표기하는 문자를 만들고도 종성자처럼 변이음을 실제 기본 문자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표기와 소통의 효율성을 이루었다.

정음은 사성을 나타내는 가점법(加點法)과 같은 초분절음소 표기 체계를 통해 말소리의 특수성을 보편적 체계로 드러내는 최대의 성과를 보여 주었다. 정우영(2013)에서의 지적처럼 이는 세계 문자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우영(2005)은 “일반적으로 분절음소만 적는 일반 문자와 달리 ‘훈민정음’ 표기법은 초분절음소를 문자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기록을 현실 발화로 재현할 수 있게끔 되었다.”

라고 기술하며 같은 방식으로 당시 국어를 표기한 15세기 국어 문헌은 ‘문자로 기록된 소리 책’이라 평가하였다.

이렇게 말소리와 문자 기호의 유통이 자유로운 것은 말소리의 보편적 규칙(랑그)에 따라 문자를 창제했음에도 다양한 말소리(파플)를 적을 수 있는 문자 체계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곧 세종의 정음은 소쉬르가 랑그를 통해 강조한 체계와 과학에 기반한 공통성으로서의 보편성과 들뢰즈(Gilles Deleuze, 1969)가 강조한 차이로서의 보편성을 아울러 드러내는 문자이다.

4.2. 자연주의 문자관과 과학주의 문자관의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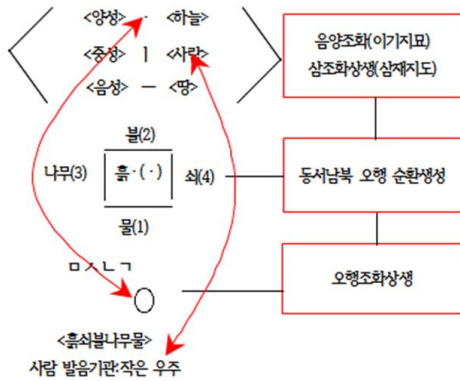
문자관에서의 ‘자연주의’는 문자는 자연의 소리로서의 말소리를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표상체로 보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문자는 말소리의 연속적 실체이며 말소리의 자연스런 모사 기호이다. 반면에 ‘과학주의’는 말소리를 적는 과정의 방법론과 문자 시스템의 체계성, 규칙성을 뜻한다.

세종의 정음 문자관에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이 융합되어 있지만 1차적인 문자관은 자연주의 문자관이다. 자연의 소리 이치에 따라 문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와 이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곧 앞서 살펴본 “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所以古人因聲制字,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라는 정인지 서문에 이런 사상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천지자연의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문자에 담아 소리와 문자가 자연스레 ‘유통’하게 하는 것은 오랜 역사이자 전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자에는 자연스럽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롭게 존재하고 생성되는 천지인 삼재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대의 기본 문자관을 후세 사람들은 함부로 바꿀 수 없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은 이런 문자관을 기본 문자에 반영하여 다음 그림에서 보듯 모음소의 대표격인 아래아(·)부터 자음소의 대표격인 ‘ㅇ’까지 동양의 유기적 철

학을 부여하였다. 거시적인 하늘과 미시적인 사람의 목 부분까지 음양오행의 논리를 적용해 천지자연의 질서를 반영했으며 이는 동양의 전통에 따른 보편성을 최대로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었다.

동양의 전통적 음양오행론을 철저히 구현하면서도 그것을 철저히 현대 언어 과학으로 융합하고 있다.³²⁾



<그림 2> 훈민정음의 자모음 기본자에 적용한 음양 오행론

‘·(아래아)’의 경우 문자 측면에서도 모음의 중심이므로 천지자연의 중심인 하늘의 의미를 부여했고 가장 기본적인 모음의 특성(실체 과학)을 부여했다. 아래아가 현대 표준어에서는 배제되고 변화의 양상이 복잡해 음소냐 아니냐의 논쟁까지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장 원초적인 발음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³³⁾

32) 훈민정음의 과학성에 대해서는 “김슬옹(2012가), 한글 우수성, 과학성, 독창성에 대한 통합 연구, 『문법교육』 16호, 문법교육학회, 37-82쪽.”에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줄인다.

33) 한태동(2003 : 70)에서는 아래아(·) 소리는 신생아 때부터 제일 흔히 쓰는 음으로 구강의 모든 근육과 목젖까지 이완시킨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이고, 말을 구사하기 이전에 분화되지 않은 제일 자연스러운 소리로 유아들이 [엄마]라 발음할 때 내는 [으막] 소리에 들어 있는 음으로 보았다.

/./소리는 <표 4>와 같은 『훈민정음』 해례본 설명대로라면 입술은 /./보다 좁히고 /./보다 더 벌려 내는 소리로 입술 모양이 /./처럼 벌어지지도 않고 /./처럼 오므라지지도 않는 중간쯤 되는 소리다. 혀는 /./와 /./와 같이 정중앙 쪽으로 오그리는 것으로 /./를 낼 때보다 더 오그리고 혀를 아예 오그리지 않는 /./보다 훨씬 더 오그리는 소리다. 혀뿌리를 중앙으로 당기듯이 오그리다 보니 성대가 살짝 열리면서 소리는 성대 깊숙이 울려 나온다. 입술 모양은 둥근 모음과 안둥근 모음의 중간 정도 되는 소리다.

<표 4> 15세기 기본 모음자의 소리 특성 비교

갈래	혀 특성(오그리기↑)		소리 성질(깊기 정도↑)		음양 상징 자질	위치상징 자질
•	舌縮	혀 오그리기	聲深	깊은 소리	하늘(양성)	자
—	舌小縮	혀 조금 오그리기	聲不深不淺	깊지도 알지도 않은 소리	땅(음성)	축
丨	舌不縮	혀 오그리지 않기	聲淺	얕은 소리	사람(중성)	인

/./의 경우도 혀끝 뒷부분이 아랫니에 닿으면서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높이 올려 나오는 고모음인데, 혀 앞에서 나오는 전설 모음을 대표하는 기본 모음 역할을 한다. /./는 아랫니에 닿아 있던 혀를 떼고 ‘혀를 약간 내리면서 혀 뒤쪽으로 발음이 나오는 고모음 소리로 혀 뒤에서 발음이 나므로, 후설 모음을 대표하는 기본 모음이다. 결국 /./와 /./의 발음은 다양한 모음의 기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종은 /./와 /./를 모음자를 만드는 기본 모음 음운으로 삼았을 것이고, 각각을 나타내는 ‘丨’, ‘—’를 기본 문자로 삼았으며, ‘丨’는 서 있는 사람, ‘—’는 평평한 땅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는 혀 뒤쪽에서 나오는 약한 발음이라 ‘쓰+어=씨’에서와 같이 잘 탈

락된다. 이런 발음 현상은 인류 보편 현상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문자로 형상화하지 못했다. 특히나 로마자권 사람들은 /-/ 발음을 거의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독립된 문자도 없다. 그러나 한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 발음이 섬세하게 발달된 편이고 세종은 이를 정확히 포착하여 문자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모음의 기본 특성에 대한 과학적 관찰과 천지자연의 삼요소인 삼재와 연결시켜 정음으로서의 실체와 가치를 극대화한 것이다.

자음의 경우는 ‘ㅇ’가 문자 차원에서도 작은 우주의 중심이니 사람, 그 말소리의 중심인 목을 본떴고 그런 문자의 기본 특성을 말소리로도 갖고 있다. 훈민정음 제자해에서는 “대저 사람의 말소리가 있는 것도 그 근본은 오행에 있는 것이다(夫人之有聲本於五行).”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목구멍소리의 특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 ‘어금닛소리-혓소리-잇소리-입술소리’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목구멍은 깊숙하고 물기가 있으니 ‘물’에 해당되며 소리가 비고 거침없음은 물이 투명하고 맑아 잘 흐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한태동(2003 : 174)에서는 ‘·’의 음관 상태가 관련된 근육을 이완시킨 가장 자연스러운 본연의 상태를 보여 자음 ‘ㅇ’의 음관 상태도 ‘·’와 같은 것으로 구조적으로 같은 공명 소리를 낸다고 보았다.

이렇게 자연스런 말소리 이치를 문자에 반영하다 보니 정인지 서에서는 “故人之聲音，皆有陰陽之理，顧人不察矣。正音之作，初非智營而力索，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라고 하여 사람의 성음(聲音)에도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는 것인데, 스스로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살피지 못했을 뿐이라 하였다.

이러한 자연주의 언어관은 자연스럽게 자음 기본자의 발음 기관 상형이라는 경험과 관찰에 의한 과학과 우리말 모음의 기본 특성을 반영하는 모음 기본자의 통합 과학으로 융해되었다. 더욱이 자음 확장자의 가획과 모음 확장자의 합성이라는 규칙성으로서의 과학 등의 문자 과학으로 융합되어 문자의 가치와 효용성은 극대화되었다.

5. 세종 ‘정음’의 주요 가치와 의미

훈민정음의 정음관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신경준(1750 : 6)에서도 “正音不止惠我一方而可以爲天下聲音大典也(정음은 우리나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말소리(성음)를 기록할 수 있는 큰 경전이다.)”라고 하였고, 한태동(1983 : 130)에서는 “정음은 어느 특정된 나라의 어음이 아니고 언어를 위한 언어로 구성되어 모든 언어의 기틀이 되는 위대한 언어 체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음은 만민을 위한 언어학의 기틀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석연(1993 : 168)에서는 “정음을 사용할 ‘훈민’의 대상이 한국 국민만이 아니었음은, 정음을 보편적인 문자로서 온 누리에 편만하게 하고 싶었던 세종의 꿈과 청사진이 원본 밑에 깔려 있는 제자 원리와 창제 의도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는데…”라고 하였고, 정우영(2005)에서는 “지역성을 초월하여 교정적, 인위적, 이상적인 성격을 띤 한국어의 표준 발음 또는 그것을 적는 문자체계”라 하였다.³⁴⁾ 박선우(2009 : 143)에서도 “정음이 당대의 음성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창제되었으며 자질성을 포함하여 음성부호로서의 보편성을 가진 체계이었다는 점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세종의 정음관은 역사적인 자연주의와 과학 생성주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대의 성운학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수용하면서도, 또한 완전히 다른 정음을 창제하였기 때문이다.³⁵⁾ 소용의 논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좇았다면 새로운 정음 창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34) 박종국(2006 : 65)에서도 “정음이라는 이름은 정자나 정문과 같은 뜻을 품고 있는 것으로 중국 글자를 말하는 한자나 그 밖의 다른 나라 글자들보다 상위의 글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세종대왕의 숨은 뜻에 의해 지어진 글자 이름”이라 하였다.

35) 이런 의미에서 심소희(2013 : 383)는 세종의 정음 업적을 “결국 우리는 외래 사상인 정음관을 주체적으로 섭취하여 창조적으로 우리의 토양에 맞게 변용하고 또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도구로 활용하였으므로, 결국 정음관은 우리 민족의 사상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세종은 선행 이론과 역사적 흐름을 존중하되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냈다.

세종과 집현전 음운학자들은 『훈민정음(1446)』 해례본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화의 문자 표준을 동국의 문자 표준으로 가져오는 담대한 정음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동국정운』(1448)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천 년 이상을 해결 못한 운서의 발음 표기(『홍무정운』)를 과감하게 입증해 보인 것이 『홍무정운역훈』(1455)이다. 『홍무정운』 편찬의 기본 목표는 이 책 서문에서 밝혔듯이 그 당시 통용되는 현실 한자음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었고 『동국정운』은 철저히 이 책을 근간으로 편찬되었다. 그러나 『홍무정운』은 소리를 제대로 적을 수 없는 한자의 절대 모순 때문에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없는 반쪽 운서에 머무른 것이며 『동국정운』이 대안 운서로서의 방법론을 보여주고 『홍무정운역훈』은 아예 『홍문정운』에서 보이지 않던 소리를 보여주었다.³⁶⁾ 이는 황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으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명나라 집권 세력과 당대의 중국 음운학자들은 이런 도전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³⁷⁾



<사진 2> 동국정운(1448)과 홍무정운(1375), 홍무정운역훈(1455)

36) 이런 맥락을 처음으로 세밀하게 다룬 논저는 성원경(1971, 1976)이다.

37) 알려진 공적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알았다 하더라도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역훈』은 한자와 한문이 갖고 있는 문어로서의 동아시아적 보편성을 또 다른 보편 문자인 정음으로 그 한계를 극복한 것이었다. 황제의 나라 중국이 밝히지 못한 정음의 실체를 눈으로 보게 된 그 기쁨을 신숙주는 이렇게 표현하였다.

我世宗大王天縱之聖.高明博達.無所不至.悉究聲韻源委.而斟酌裁定之.使七音四聲.一經一緯.竟歸于正.吾東方千百載所未知者.可不浹旬而學.苟能沈潛反復.有得乎是.則聲韻之學.豈難精哉.古人謂梵音行於中國.而吾夫子之經.不能過跋提河者.以字不以聲也.夫有聲乃有字.寧有無聲之字耶.今以訓民正音譯之.聲與韻譜.不待音和類隔正切回切之繁且勞.而舉口得音.不差毫釐.亦何患乎風土之不同哉_ 『홍무정운역훈』 서문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타고나신 성인으로 고명하고 통달하여 깨우치지 아니한 바 없으시어 성운의 처음과 끝을 모조리 연구한 끝에 헤아려 옳고 그름을 정해서 칠운·사성의 가로세로 하나의 줄이라도 마침내 바른 데로 돌아오게 하였으니, 우리 동방 천백 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열흘이 못 가서 배울 수 있으며, 진실로 깊이 생각하고 되풀이하여 이를 해득하면 성운 학이 어찌 정밀하기 어렵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산스크리트어가 중국에 행해지고 있지만, 공자의 경전이 인도로 가지 못한 것은 문자 때문이지, 소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대개 소리가 있으면 글자가 있는 법이니 어찌 소리 없는 글자가 있겠는가. 지금 훈민정음으로써 번역하여 소리가 운(韻)과 더불어 고르게 되면 음화(音和)·유격(類隔)·정절(正切)·회절(回切) 따위의 번거롭고 또 수고로울 필요가 없이 입만 열면 음을 얻어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니, 어찌 풍토가 똑같지 아니함을 걱정하겠는가.

정음 창제가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제일 먼저 알아차린 이들은 최만리를 비롯한 갑자상소 주역들이었다.

我朝自祖宗以來.至誠事天.一遵華制.今當同文同軌之時.創作諺文.有駭觀聽.儻曰諺文皆本古字.非新字也.則字形雖倣古之篆文.用音合字.盡反於古.實無所據.若流中國.或有非議之者.豈不有愧於事天慕華.(우리 조선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따랐습니다.

이제 문자(한문)도 같고 법과 제도도 같은 시기에 언문을 창제하신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설혹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 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형상이 비록 옛날의 전자를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치는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거나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중국에라도 흘러들어 가서 혹 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사오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사오리까?)

갑자 상소는 중국이 천 년 이상을 해결하지 못한 한자음 적기를 해결한 세종이 창제한 언문(정음)의 신묘함에 놀라면서도 정작 그 한자음 적기보다는 중국이 해결 못한 것을 조선이 해결한 ‘과도함’이 지나치다고 세종의 문자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 두려움은 자기 검열식 두려움일 것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오랑캐 나라가 오랑캐 문자를 갖는 것은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다. ‘정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중국에서 볼 때 오랑캐 나라의 오랑캐 문자일 뿐이다. 실제 훈민정음 반포 이후 중국의 공식 반응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중국의 지배층이나 음운학자들은 용 보기를 간절히 원했으면서도 정작 용이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나타나자 철저히 무시한 셈이다.

세종의 융합적 정음관은 고대의 정음관을 15세기에 맞게 변용한데다 시간 변화와 관계없이 응용 확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곧 세종은 자연주의 문자관과 과학 생성주의 문자관을 융합하여 정음의 창조성을 높였다.

6. 맺음말

중국의 정음관은 근본적으로 소리를 기록하는 데 집중하여 문자가 다시 소리로 돌아오는 이치를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다. 또한 소리와 문자의 주체인 사람 사이의 소통에도 소홀하였다. 곧 진정한 ‘정음’이 아니었다.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세종의 ‘정음 문자관’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실제 성과를 거두었는가가 중요하다. ‘정음(正音)’은 사람의 말소리를 비롯한 들리는 자연의 소리를 가장 과학적으로 적을 수 있는 보편 문자에 대한 특별 명칭이다. 세종은 정음을 통해 소리와 문자를 유통(流通_세종 서문)하게 함으로써 사람 사이의 유통이 가능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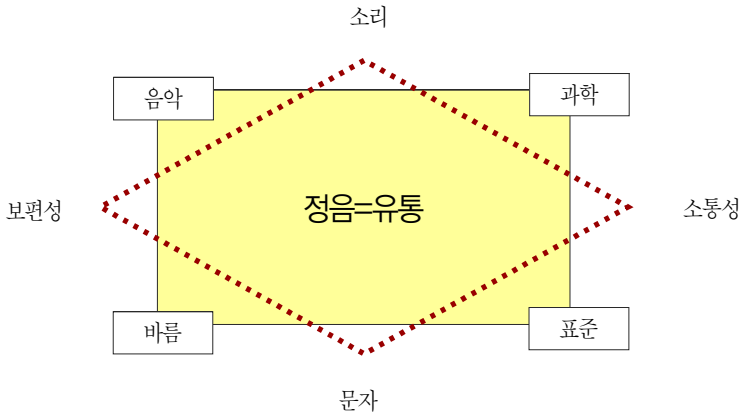
이런 관점에 따라 세종의 정음 또는 정음관의 핵심 형성 과정을 상형 과학과 음률 배치, 소통 주체 측면에서 다시 규정하였다. 그 배경 원리로 보편성과 특수성의 융합 원리와 자연주의 철학과 과학 생성주의의 융합 원리를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음관의 실체를 조명하였다.

세종은 소리와 문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각 자소의 절대 음가를 구현하면서도 그것이 빚어내는 다양한 말소리의 역동성도 함께 담아냄으로써 정음의 ‘바름’이 지향해야 하는 바른 세상의 길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제시하였다.

세종 정음의 실체는 소리와 문자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사람 사이의 소통성을 이룬 것이며 이를 음악과 과학 방법론으로 소리와 문자의 바름과 표준이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음 문자관은 문자 맥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상생으로 융합되는 ‘유통’ 정신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세종의 정음관 또는 정음이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말소리 자체가 시대와 공간에 따라 역동성을 띠므로 그것을 담아내는 완벽한 문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역동성 안에 담겨 있는 기본 원리나 바탕 원리는 있는 것이며 세종은 바로 그런 원리를 문자에 담는데 성공

한 것이다.



<그림 3> '정음' 특성 구성도

참고문헌

<영인본>

- 신경준(1750, 영조 26), 『訓民正音圖解』(영인본, 2007), 학신재.
유희(1824, 순조 24), 『諺文志』(영인본), 한양대학교부설 국학연구원.
宋濂 외(1973), 『洪武正韻』(영인본, 1973), 아세아문화사.
胡廣 편(1994), 『性理大全』(영인본, 1984), 보경문화사.
이혜구 역주(2000), 『신역악학궤범』, 『樂學軌範』(영인본), 국립국악원.
熊忠(1297), 『古今韻會舉要』(영인본, 1975), 아세아문화사.

<일반문헌>

- 강신항(1963), “<訓民正音> 解例理論과 <性理大全>과의 聯關性”,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 177-185쪽.
강신항(2003가),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강신항(2003나), “‘正音’에 대하여”, 『한국어연구』 1, 한국어연구회, 7-25쪽.
권은선(2007), “<洪武正韻譯訓> 중국어 성모의 장·속음 대응 양상”, 『韓中言語文化研究』 12집, 韓國現代中國研究會, 39-65쪽.
권재선(1992), 『한글 연구(I)』, 우골담.
김동준(2007), “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활동과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제 35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8-39쪽.
김무림(1991), “洪武正韻譯訓의 音韻論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병훈(2004), 『올려와 동양사상』, 예문서원.
김석득(2009), 『우리말 연구사』, 태학사.
김석연(1993), “정음 사상의 재조명과 부흥” 『한글』 219, 한글학회, 155-217쪽.
김슬옹(2005), 『조선시대 연문의 제도적 사용 연구』, 한국문화사.
김슬옹(2008), “세종과 소쉬르의 통합언어학적 비교 연구”, 『사회언어학』 16권 1호, 1-23쪽, 한국사회언어학회, [김슬옹(2010)에 404~439쪽에 재수록].
김슬옹(2012가), “한글 우수성, 과학성, 독창성에 대한 통합 연구”, 『문법교육』 16호, 문법교육학회, 37-82쪽.
김슬옹(2012나), “맥락으로 통합되는 국어교육의 길 찾기”, 동국대출판부.
김슬옹(2012다),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김슬옹(2013), “세종학의 필요성과 주요 특성”, 『한민족문화연구』 42, 한민족문화학회, 7-42쪽.
김슬옹(2014), “세종(世宗, King Sejong)의 ‘정음 언어관’의 맥락에 대하여—‘통합’과

- ‘유통(流通)’ 관점에서의 재조명”, 『2014년 훈민정음학회 제3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10), 41-63쪽.
- 김영주(2004), “少論系 學人의 言語意識 研究, 1:『正音』 研究를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27집, 동방학문학회, 291-320쪽.
- 김일권(2007),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 김주원(2013), “훈민정음—사진과 기록으로 읽는 한글의 역사”, 민음사.
- 김주필(2012), “訓民正音의 性格과 ‘轉換’의 意味”, 『어문학논총』 31집, 국민대학교 어문학 연구소, 1-30쪽.
- 문효근(1993), “훈민정음 제자 원리”, 『세종학 연구』 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282쪽.
- 박동근(1993), “훈민정음에 나타난 禮樂과 正音·正聲 사상과의 관계”, 춘허 성원경 박사 화갑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한중음운학논총』 1, 서광학술자료사, 279-294쪽.
- 박동근(2005), “울음표현 흥내말의 연구”, 『한글』 267호(봄), 한글학회, 141-175쪽.
- 박동규(2001), “샤오 용의 사상이 한글 제정에 끼친 영향”, 『한글』 253호, 한글학회, 103-133쪽.
- 박선우(2009), “음성부호로서의 훈민정음—훈민정음과 일반적 음성부호의 비교”,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125-150쪽.
- 박동근(1993), “훈민정음에 나타난 禮樂과 正音·正聲 사상과의 관계”, 춘허 성원경 박사 화갑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한중음운학논총』 1, 서광학술자료사, 279-294쪽.
- 박영규(2013), 『세종으로 훈민정음을 보다』, 미간행본.
- 박종국(2006), 『훈민정음 종합연구』, 세종학연구원.
- 박창원(2005),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 박희민(2012), 『박연과 훈민정음』, Human & Books.
- 반재원(2001), 『한글과 천문』, 한배달.
- 방중현(1948), 『訓民正音通史』, 일성당서점.
- 백두현(2012), “융합성의 관점에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어문론총』 57권 1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115-156쪽.
- 성원경(1971), “東國正韻과 洪武正韻訓音의 比較研究”, 『학술지』 12집, 建國大學校學術院, 별책부록.
- 성원경(1976), “『홍무정운역훈』에 있어서의 문제점: 역훈본 교주를 시도하여 원본과 대조하면서”, 『한불연구』, 한불문화연구소, 21-55쪽.
- 심소희(2013), 『한자 정음관의 통시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유창균(1989), “황극경세서가 국어학에 끼친 영향”, 『石堂論叢』 15,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研究院, 69-102쪽.
- 이경희(2007), “八思巴字와 訓民正音의 공통특징—편찬배경과 표음문자 중심으로” 『중

- 국어문학논집』 43, 중국어문학회, 169-186쪽.
- 이극로(1932), “訓民正音의 獨特한 聲音 觀察”, 『한글』 5, 조선어학회, 198-201쪽, [『國語學論叢』, 정음사, 1948, 재수록].
- 이기문(1996), “현대적 관점에서 본 한글”, 『새국어생활』, 6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3-18쪽.
- 이동립(1970), 『東國正韻 研究』, 상(연구편)·하(재구편), 동국대 국어국문학연구소.
- 이상혁(2004), 『훈민정음과 국어연구』, 역락.
- 이상혁(2006), “훈민정음. 언문. 반절. 그리고 한글의 역사적 의미—우리글 명칭 의미의 어휘적 함의를 중심으로”, 정광 외, 『역학사와 국어사 연구』, 태학사, 444-487쪽.
- 이승녕(1969), “〈皇極經世書〉의 李朝後期 言語研究에의 影響”, 『震檀學報』 32, 震檀學會, 105-130쪽.
- 이승녕(1972), “〈性理大全〉과 李朝言語의 研究”, 『東洋學』 2, 檀國大學校附設東洋學研究所, 5-9쪽.
- 이영월(2009), “훈민정음에 대한 중국운서의 영향 관계 연구 : 삼대어문정책을 중심으로”, 『中國學研究』 50집, 中國學研究會, 255-274쪽.
- 임용기(2008),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과 훈민정음”,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115-156쪽.
- 정우영(2005), “국어 표기법의 변화와 그 해석 : 15세기 관관 한글문헌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26, 한국어학회, 293-326쪽.
- 정우영(2013), “세종시대 훈민정음 관련 문헌의 국어학적 재조명—문헌 연구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2013년 세종시대 과학 문화의 재조명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7-72쪽.
- 정희성(1989), “수학적 구조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1989년도 한글날 기념 학술 대회 논문집』, 한국 인지과학회·정보과학회.
- 조규태(2010), “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 한국문화사.
- 조성산(2009), “조선후기 소론계의 東音 인식과 訓民正音 연구”, 『韓國史學報』 36호, 고려사학회, 87-118쪽.
- 주성일(2009가), 『사성통해』 범례고1, 『中國文學研究』, 38집, 韓國中文學會, 115-150쪽.
- 주성일(2009나), 『사성통해』 범례고2, 『中國文學研究』, 39집, 韓國中文學會, 215-245쪽.
- 진용옥·안정근(2001), “악리론으로 본 정음창제와 정음소 분절 알고리즘”, 『음성과학』 8권 2호, 한국음성과학회, 49-60쪽.
- 최영애(2003), “〈蒙古字韻〉과 그 음운특징 : 15,6세기의 한국자료를 통하여”, 『중국어문학논집』 24호, 중국어문학연구회, 89-115쪽.
- 최종민(2013), 『훈민정음과 세종악보』, 역락.

- 최현배(1942/1982), 『한글갈』, 정음문화사.
- 한태동(1983), “훈민정음의 음성 구조”, 『537돌 한글날 기념 학술 강연회 자료집』 (단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한태동(1998/2003), 『세종대의 음성학』, 연세대학교출판부.
- 허 응(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 허재영(1993), “훈민정음에 나타난 성운학의 기본 개념”, 준허 성원경 박사 화갑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한중음운학논총』 1, 서광학술자료사.
- 홍기문(1946), 『正音發達史』 상·하, 서울신문사 출판국.
- 홍현보(2012), “우리 사전의 왜곡된 '언문' 뜻풀이에 관한 연구”, 『한글』 298호, 한글학회, 51-105쪽.
- Ferdinand de Saussure. (tr) Wade Baskin(1959),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 Philosophical Library ; (페르디낭 드 소쉬르/최승언 옮김, 1990, 『일반언어학 강의』, 서울 : 민음사)
- G. K. Ledyard(1966),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 The Origin. Background. and Early History of the Korean Alphabet.”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t. No. 6608333.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Ann Arbor.
- G. Sampson(1985), *WRITING Systems : A linguistic introduction*. London : Hutchinson Publishing Group; (신상순 역, 2000, 『세계의 문자체계』, 한국문화사)
- Gilles Deleuze(1969), *Logique du sens*. Paris : Editions de Minuit; (이정우 옮김, 1999, 『의미의 논리』, 서울 : 한길사)
- Margaret Thomas(2011), *King Sejong the Great(1397-1450), Fifty Key Thinkers on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pp.49-55.
- Sek Yen Kim-Cho(2001), *The Korean Alphabet of 1446 : Exposition*. OPA. the Visible Speech Sounds, Annotated Translation. Future Applicability Hwun Min Ceng Um, Humanity Books & AC Press(아세아문화사).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xt of Sejong's View of Jeong-eum Letters

Kim Seul-ong

This paper explains the true nature and context of Sejong's "view of jeong-eum language." Jeong-eum (正音 proper sounds) is the special name for universal letters that can most scientifically express the audible sounds of nature, including the sounds of human speech. By allowing sounds and letters to circulate (流通_Sejong Introduction) through jeong-eum, Sejong made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possible.

Based on this perspective, the paper re-stipulated the core formation process of Sejong's jeong-eum or view of jeong-eum in terms of hieroglyphics, tone and rhythm placement, and agent of communication. The true nature of the view of jeong-eum was illuminated with the principle of convergence between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and the principle of convergence between naturalist philosophy and scientific generativism chosen as the background principles.

Based on the scientific analysis of sounds and letters, Sejong determined the absolute phonetic value of each grapheme and at the same time captured the dynamism of diverse sounds of speech produced by them, and in so doing, he presented the path of the right world that the "correctness" of jeong-eum should follow whil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e true nature of Sejong's jeong-eum lies in realizing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on the basis of the universality of sounds and letters and in making it possible with music and scientific methodology to have correctness and standards for sounds and letters. Therefore such a view of jeong-eum letters is established on the “circulation” spirit where all elements forming the context of letters naturally converge in mutual support.

- **주제어** : 훈민정음, 정음, 세종대왕, 소리, 통섭
Hunminjeongeum, Jeongeum, King Sejong, sound, consilience

김 슬 옹

소 속 : Washington Global University

전자우편 : tomulto@daum.net

논문 접수 : 2014. 10. 14.

논문 심사 : 2014. 10. 25. - 11.15.

게재 결정 : 2014. 11.20.

초등국어사전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김 한 샘

< 차 례 >

1. 머리말
2. 초등국어사전의 거시 구조 분석
3. 초등국어사전의 미시 구조 분석
4. 초등국어사전의 개선 방안
5. 맺음말

1. 머리말

Sydney(1989)는 ‘사전’을 ‘강력한 단어’라 하였다. 책의 제목을 ‘사전’이라 붙이는 순간 그 책이 권위적이고 학문적이며 정확하고 정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전은 언어 교수·학습의 기본 콘텐츠로 활용된다. 그런데 국내의 사전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사전을 국어 학습보다 외국어 학습에 활발히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어원에서 국민의 언어의식을 조사한 결과¹⁾ 외국어사전 보유 비율이 75.2%인데 비해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61-A00027)

1) 2010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전국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조사

옥편을 제외한 국어사전을 보유한 비율은 60.9%에 불과했다. 하영동(2009)에서 소개한 대로 프랑스처럼 법령으로 자국어 사전을 소유할 것을 규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돌리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사전을 곁에 두고 활용하면서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국어교육의 차원에서 독려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을 적용한 교과서 체계에서 사전을 활용한 학습 내용이 처음 소개되는 것은 4학년 1학기이다.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라는 3-4학년군의 문법 영역 내용 성취 기준에 의한 것이다.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이때 국어사전을 처음 접하게 되므로 다양한 매체의 사전을 소개하고 사전의 구조와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게 되어 있다. 이때 활용하게 되는 초등국어사전에 초등 국어교육의 내용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어야 사전과 국어교육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논문은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초등국어사전의 구조를 분석하여 교육 과정에 따른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초등국어사전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초등학생을 사용자로 명시한 사전 네 가지를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 보리국어사전(2008/2014, 토박이 사전 편찬실, 도서출판 보리)
- 연세초등국어사전(2002/2014,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두산동아)
- 초등새국어사전(1976/2014, 두산동아)
- 푸르넷초등국어사전(2001/2014, 김낙준, 금성출판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같지만 네 사전은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리국어사전』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사용자로 설정했고,²⁾ 『연세초등국어사전』은 대학의 연구소에서 편찬했으며, 『초등새

2) 하영동(2009)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초등학생 대상 사전이 저학년용 사전

국어사전』은 머리말에서 제시한 초등국어사전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으며 전환된 사전이다. 『초등새국어사전』과 『푸르넷초등국어사전』은 교과서, 참고서 등 사전 이외의 교육 콘텐츠를 함께 생산하는 출판사에서 펴낸 사전이다. 이하 네 종류의 사전을 『보리』, 『연세』, 『새국어』, 『푸르넷』으로 표기하여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초등국어사전의 거시 구조 분석

2.1. 표제어의 규모와 구성

표제어의 규모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제시한 사전은 『푸르넷』뿐이었다. 3만 2천 개의 올림말을 실었다고 알려두기에 밝혔다. 『보리』, 『연세』도 알려두기에서 표제어 수에 대해 언급했는데 『보리』는 4만 개 넘게, 『연세』는 3만 7천여 개를 실었다고 하여 대강의 표제어 수를 제시하였다. 『새국어』에서는 머리말에 1998년 초에 5판을 내고 이에 4,000여 낱말을 새로 추가하였다고 밝혔는데 5판에서 역시 표제어 수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제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 장현희(2009)에서 『새국어』의 표제어 수를 26,000으로 추정할 것을 받아들이면 표제어 수는 『보리』, 『연세』, 『푸르넷』, 『새국어』 순으로 많다. 초등학교용 국어사전의 적절한 표제어 규모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없지만 하영동(2009)에서 프랑스어 사전과 비교하여 표제어 수와 관련한 제안을 한 바 있다. 거시 구조의 규모를 키우다 보면 미시 구조가 부실화 될 수 있으며 언어 학습 사전으로서 기본적인 어휘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과 과정과 관련이 없는

과 고학년용 사전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보리』에서 사전 사용자를 초중고생으로 넓게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고유명사, 전문어, 어려운 한자어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교과 과정’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표제어 수록의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연세』 초판에서 초등학교 전학년 전과목 교과서의 낱말을 포함했다고 선언하면서 이후의 초등국어사전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를 표제어의 부분 집합으로 삼고 있다. 하영동(2009)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한 고유명사, 전문어, 어려운 한자어는 교과서에 출현하기 때문에 실린 것이 대부분이다. 초등국어사전이 단순히 국어 교과에만 국한하지 않고 초등학교 전 교과에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출현하는 어휘 수가 초등국어사전 표제어의 최소한의 규모가 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얼마나 많은 어휘가 실려 있을까? 김한샘(2010)에 의하면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어휘 수는 23,310이었고, 『보리』에서 초등학교 모든 학년, 모든 과목 교과서에 있는 낱말 27,400여개를 실었다고 한 것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새국어』를 제외한 모든 사전의 표제어 규모가 교과서 수록 어휘보다 크다. 실제로 『새국어』는 일러두기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낱말을 ‘골라’ 실었다고 밝혔다.

교과서 어휘 이외에는 어떤 기준으로 표제어를 선정했는지를 살펴보면 『보리』는 어린이 책과 초등학교 학급 문집에서 낱말을 뽑아 실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친숙도(familiarity)가 높은 어휘를 포함하는 동시에 초등학생들이 직접 쓴 글에 나타나는 어휘를 반영해 이해 어휘뿐만 아니라 표현 어휘까지 고려하였다. 『연세』는 말뭉치 연구의 전통을 살려 ‘기초 학습용 말뭉치’를 구축하고 초등학생용 도서를 포함하여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중요 낱말을 포함하였다. 연세 말뭉치의 고빈도어 목록과 초등 교과서 어휘 목록을 교차 검토하여 이들 중 2500여 개의 낱말에 대해 초등학교 교육용 기초 어휘 표시(*)를 붙인 것은 다른 사전들과 변별되는 점이다. 『새국어』는 ‘초등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낱말’을 실었다고 하여 추상적인 표제어 선정 원칙을 제시하였고, 『푸르넷』도 초등학생들이 알아야 할 낱말을

널리 모았다고 밝혔다. 속담, 관용구 등의 관용 표현과 고유명사는 모든 사전에 공통적으로 실렸는데 『보리』는 고유명사 중 인명은 배제하였다. 『보리』, 『연세』는 ‘빠가 빠지게’ 등과 같이 용언으로 끝나는 관용구의 활용형이 제한적일 때는 이를 반영하여 표제어로 제시하였다. 『연세』를 뺀 모든 사전에서 북한어를 수록하였는데 적게는 『보리』 800항목, 『새국어』 83항목, 『푸르넷』 100항목으로 각각 2%, 0.3%, 0.3%의 낮은 비율이다.

어떤 언어 단위를 표제어로 삼았는가를 살펴보면 네 사전이 모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보리』, 『연세』, 『푸르넷』은 학교문법에서 단어로 인정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의 9품사를 모두 표제어로 삼았고 『새국어』는 이중에서 조사는 제외하였다. 현행 교육과정의 3-4학년군의 문법 영역 내용 성취 기준에서 조사를 주요 품사로 보고 변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기 영역 성취 기준에서 조사를 앞말에 붙여 쓰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맞게 문장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게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조사를 표제어로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언의 활용과 관련한 어미는 『연세』만 표제어로 포함하였다. 그런데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을 살펴보면 3-4학년군에서는 낱말의 기본형과 활용을 이해시키게 되어 있고, 5-6학년군에서는 다양한 연결 어미로 앞뒤 절을 연결해 보는 활동 등을 통해 연결 어미의 쓰임새를 알고 효과적인 문장 구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성취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므로 단어가 아니더라도 어미를 등재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사전이 교과서에 나오는 지명, 단체명 등을 적극적으로 수록하였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 통화 기금’ 등과 같은 구를 표제어로 다수 등재하였다. 어근과 접사, 이들이 형성한 복합어를 표제어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는 (1)~(4)의 에서 드러난다.

(1) ㄱ. 주표제어 : 꾸물-

ㄴ. 부표제어 : 꾸물거리다, 꾸물대다, 꾸물꾸물

- (2) ㄱ. 주표제어 : 꾸물거리다, 꾸물대다, 꾸물꾸물
 ㄴ. 관련어 정보 : ㉠꾸물대다, ㉡꾸물거리다
- (3) ㄱ. 주표제어 : 꾸물거리다, 꾸물꾸물
 ㄴ. 가표제어 : 꾸물대다
 ㄷ. 관련어 정보 : ㉠꾸물대다
- (4) ㄱ. 주표제어 : 꾸물거리다/꾸물대다, 꾸물꾸물
 ㄴ. 부표제어 : 꾸물꾸물하다

『보리』는 (1)과 같이 ‘꾸물-’ 등의 어근을 표제어로 포함하고, ‘꾸물거리다, 꾸물대다’처럼 어근이 접사와 결합한 파생어나 어근 ‘꾸물꾸물’ 같이 어근 자체가 반복되어 형성된 합성어를 부표제어로 제시하였다. 『연세』는 ‘꾸물거리다’, ‘꾸물대다’, ‘꾸물꾸물’을 모두 주표제어로 삼았고 ‘꾸물거리다’와 ‘꾸물대다’의 관계는 비슷한 말의 표지를 붙여 각각의 관련어로 제시함으로써 의미적으로 접근하였다. 『새국어』도 『연세』와 같은 방식이나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풀이하는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서 ‘꾸물대다’는 가표제어로 설정하여 ‘꾸물거리다’의 뜻풀이와 예문을 통해 정보를 얻도록 하였다. 『푸르넷』은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 ‘/’를 구분자로 하여 두 개의 단어를 하나의 표제항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푸르넷』은 ‘꾸물꾸물’을 표제어로 올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꾸물꾸물하다’를 부표제어로 제시하였는데, 『보리』의 방식에서는 ‘꾸물꾸물’이 부표제어이기 때문에 ‘꾸물꾸물하다’는 포함할 수 없다. 『보리』와 같이 어근을 표제어로 하여 기술하는 방식은 초등학교의 수준에서 어근을 분리하여 사전을 찾기 힘들다는 점과 2차적으로 파생되는 어휘를 실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언어 단위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각 사전의 표제어 수록 양상을 정리하면 『보리』는 구·단어·어근·접사를, 『연세』는 구·단어·어미·접사를, 『새국어』는 구·단어(조사 제외)·접사를, 『푸르넷』은 구·단어·접사를 표제어로 포함하였다.

2.2. 표제어의 배열

표제어는 모두 한글 맞춤법 제2장 제4항의 붙임2³⁾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교과서의 사전 찾는 법에도 ‘글자가 짜인 순서’라는 제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어문 규정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순서에 대해서만 정해놓았지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실제로 사전을 찾을 때 필요한 종성의 배열 순서까지 포함하여 제시하여 <그림 1>과 같이 사전의 낱말 배열 체계를 설명하였다.

2 글자가 짜인 순서

한글 글자는 첫 자음자와 모음자, 끝 자음자로 이루어지는데, 국어 사전에 있는 낱말은 낱자가 짜인 순서대로 실려 있습니다. ‘피난’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려면, 먼저 첫 번째 글자인 ‘피’를 찾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글자인 ‘난’을 붙여 낱자가 짜인 순서대로 찾아야 합니다.

<그림 1> 사전의 낱말 배열 순서(초등 국어 4-1[내])

사전에서 낱말을 배열하는 기본 원칙은 가나다순이지만 (1)~(4)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사전 모두 표제어에 주표제어와 부표제어의 층위가 있으며

3)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 ㄱ ㅋ ㆁ ㄷ ㅌ ㄹ ㄴ ㄷ ㅌ ㄴ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ㅡ ㅛ ㅝ ㅟ

모음 : ㅏ ㅓ ㅗ ㅛ ㅜ ㅠ ㅡ ㅡ ㅛ ㅝ ㅟ

사전별로 상하위 구조의 양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보리』는 명사, 부사,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 형성된 파생 용언을 모두 부표제어로 인정하였으며 ‘-이/히/스레’가 붙어 형성된 부사와 어근이 반복되어 형성된 첩어류도 부표제어로 실었다.

『보리』가 부표제어의 범위를 가장 넓게 인정한 데에 반해 『연세』는 명사에 ‘-하다/되다’가 붙어서 파생된 단어만을 부표제어로 인정하여 가장 부표제어의 범위가 좁다. 『새국어』와 『푸르넷』은 명사에 ‘-하다/되다’가 붙어서 파생된 동사와 명사, 부사, 어근 등에 ‘-이/히/스레’가 붙어 형성된 부사를 부표제어로 삼았다. 모든 사전에서 관용구와 속담은 부표제어로 제시하였다. 관용 표현은 주표제어 설명이 끝난 후 줄을 바꾸어 뜻풀이와 예문을 제시하지만 주표제어를 어근으로 하여 형성되는 복합어는 줄을 바꾸지 않고 제시하며 미시 구조가 예문 한 가지로 단순하다.

3. 초등국어사전의 미시 구조 분석

유현경·남길임(2009)에서는 일반적인 언어사전의 미시 구조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제어(어깨번호)(한자)[발음] [활용형] 품사 뜻풀이 용례 관련어 참고 참고상자

위에 포함된 표제어 정보, 발음 정보, 품사 정보, 형태 정보, 의미 정보, 관련 어휘 정보는 초등국어사전에도 대부분 기술되어 있다. 초등국어사전의 미시 구조를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특정 정보의 수록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1. 공통 미시 구조

분석 대상 초등국어사전 4종 모두 유현경·남길임(2009)에서 제시한 일반 언어사전의 기본 미시 구조 모형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우선 표제어의 표현 방식을 살펴보면 어형이 변하지 않는 품사는 단어 자체를 표제어로 삼았고 활용하는 용언의 경우 어간에 ‘-다’를 붙여 기본형을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인 네 종류의 사전이 똑같은 방식을 취했다. 모든 사전에서 한자어나 외래어에 대해 소괄호 안에 원어 정보를 표시하였는데 외래어의 원어를 표시하는 방식은 사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리』는 (5)와 같이 소괄호 안에 외래어의 원어를 적되 무표인 경우는 영어로 설정하고 영어 외의 원어는 (5ㄴ)처럼 원어 정보 다음에 위 첨자로 어떤 외국어에서 왔는지를 표현하였다. 『연세』는 원어 정보 앞에 외국어의 종류를 적었는데 (6ㄱ)과 같이 영어의 경우에도 정보를 주었다. (7)에 나타난 『새국어』는 외래어의 어원에 대한 정보 없이 로마자로만 표현하였고, 『푸르넷』은 (8)과 같이 『연세』와 동일한 방식을 취하였다.

- (5) ㄱ. 피아노(piano)
 ㄴ. 피자(pizza이)
- (6) ㄱ. 피아노 【악기】 (영 piano)
 ㄴ. 피자(이 pizza)
- (7) ㄱ. 피아노¹(piano)
 ㄴ. 피자(pizza)
- (8) ㄱ. 피아노¹(영 piano)
 ㄴ. 피자(이 pizza)

‘우동’과 같은 일본어에서 온 말에 대해서도 위의 (5)~(8)의 방식을 적용하여 로마자로 ‘udon’이라는 정보를 준 사전이 대부분이었는데 『푸르넷』만 별도의 원어 정보 없이 ‘가락국수’의 일본식 말이라고 뜻풀이에 정보를 주

었다. 그런데 (5)~(8)의 예를 보면 외래어 외에도 동형어를 나타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의 『연세』는 동형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길잡이말을 제시했고 (7)~(8)의 『새국어』, 『푸르넷』은 일반적인 국어사전과 같이 동형어 번호를 위 첨자로 제시하였다. (5)~(8)의 ㄱ에서 예로 든 ‘피아노’를 동형어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보리』도 『연세』와 같은 방식으로 동형어를 구분하였다. 『보리』는 꼴이 같은 올림말은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길잡이 어깨말을 붙여 구분하였다고 일러두기에 밝혔고, 『연세』는 길잡이말에 대해 (9)와 같이 일러두기에 적고 있다.

(9) 길잡이말 : 형태가 같은 말이 여럿 있을 때 그중에서 찾고자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말을 보여 주었다. 이를 ‘길잡이말’이라고 한다. 길잡이말은 기존 사전들에서 동형어를 구분할 목적으로 붙였던 어깨번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해당 올림말이나 의미 항목을 가장 잘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길잡이말은 올림말 바로 뒤에 위 첨자로 표시했다.

같은 방식으로 동형어를 표시하였는데 『연세』에서 (9)와 같이 자세히 길잡이말에 대해 설명한 것은 2002년 『연세』 초판에서 길잡이말을 처음 도입하면서 새로운 방식에 대해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세』에서 도입한 방식을 『보리』에서도 적용하면서 길잡이말 체계의 정교함이 더해졌다. 아래 (10 ㄱ)은 ‘말’의 동형어에 대한 『연세』의 길잡이말이고 (10 ㄴ)은 이에 대응되는 『보리』의 길잡이 어깨말이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연세』보다 『보리』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더 쉽고 구체적인 말로 길잡이말을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자어보다 고유어를, 상위어보다 하위어를 사용함으로써 길잡이말의 난이도가 낮아졌다.

(10) ㄱ. 언어, 동물, 그릇, 놀이, 끝

나. 이야기, 동물, 그릇, 옷놀이, 끝

길잡이말로 동형어를 구분하는 새로운 방식이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어 정보를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전통적인 동형어 번호 부여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다. 『보리』, 『연세』, 『새국어』의 세 사전은 관련어 정보에서는 동형어를 구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낮’이라는 표제어에 ‘밤’이 반의어로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밤’로 표현하지 ‘밤【때】’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푸르넷』에서는 ‘낮’의 반의어를 ‘밤’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렇게 관련어에서 동형어를 구분하는 체계를 갖추었다면 표제어 간의 인덱싱이 쉽고 빠른 동형어 번호 제시 방식도 장점이 될 수 있다.

『보리』를 제외한 세 사전에서 단어의 형태와 발음이 달라진 경우에 발음을 보였다. 다만, 장음의 표시를 『연세』에서는 ‘양육[양:육]’과 같이 발음을 표시하는 대괄호 안에 하였고, 『새국어』, 『푸르넷』에서는 ‘양:육’으로 표제어 정보에서 표현하였다. 한편 모든 사전에서 활용 정보를 실었는데 협의의 ‘활용’은 ‘극용’과 대립되는 용언 어간에 다양한 형태의 어미가 붙는 현상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활용 정보’라고 하면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과 용언의 활용형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초등국어사전에서도 대부분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을 제시하는 목적이 조사에 따라 변하는 체언의 발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음을 제공하지 않는 『보리』에서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었다. (11ㄱ), (11ㄴ), (11ㄷ)이 각각 『연세』, 『새국어』, 『푸르넷』의 예인데 조사 일부나 제시 순서만 다를 뿐 같은 방식으로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과 그 발음을 보이고 있다. 용언의 활용 정보는 사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선 『보리』, 『새국어』, 『푸르넷』은 발음 정보 없이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활용 정보만 보였다. 정보의 양 면에서는 『보리』, 『푸르넷』이 (12ㄱ), (12ㄴ)처럼 세 개의 활용형을 제시한 반면 『새국어』는

(12ㄷ)과 같이 두 개의 활용형만 보였다. 나머지 세 사전과 달리 『연세』는 (12ㄴ)처럼 세 개의 활용형을 제시하면서 불규칙 활용 용언에 대해서는 발음을 함께 보였다. 발음 정보와 활용 정보 면에서는 『연세』가 가장 많은 정보를 제시하였다.

- (11) ㄱ. 뭉이[목씨], 뭉만[몽만], 뭉되[목또]
- ㄴ. 뭉이[목씨], 뭉도[목또], 뭉만[몽만]
- ㄷ. 뭉이[목씨], 뭉과[목짜], 뭉만[몽만]
- (12) ㄱ. 더운, 더워, 답습니다
- ㄴ. 더운[더운], 더워[더워], 답습니다[답:씀니다]
- ㄷ. 더우니, 더워
- ㄹ. 더운, 더워, 답습니다

초등국어사전의 뜻풀이를 의미를 기술하는 데에 쓰인 메타언어를 통제할 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분석 대상이 된 네 가지 종류의 사전이 전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새국어』는 메타언어로 쓰이는 어휘에 대한 제한이 없고, 『보리』는 ‘쉬운 우리말’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반면 『연세』는 메타언어를 『연세』에 실린 표제어 항목으로 완전히 통제하였다. 이는 어떤 어휘의 의미를 몰라서 『연세』에서 찾아 뜻풀이를 읽다가 그 안에 혹시 모르는 어휘가 등장하더라도 『연세』 안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푸르넷』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아주 쉬운 단어로 풀이하되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단어를 쓸 경우에는 괄호 안에 쉬운 말을 보여 사전의 뜻풀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전을 찾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메타언어 통제 방식은 적합한 단어로 표제어를 풀이하면서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푸르넷』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13)은 『푸르넷』에서 취한 메타언어 통제의 예이다. ‘친가’가 푸르넷에 표제어로 올라있지 않아서 괄호 안에 ‘아버지의 집안’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하였다. (14)는 (13)과 같은 방식의 확장을 보이는 예이

다. 어른이라는 의미의 ‘성인’이 표제어로 올라 있으나 만 20세 이상이 된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성인¹과 덕과 지혜가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의 성인²가 있으므로 괄호 안에 교체할 수 있는 쉬운 어휘인 ‘어른’을 보여 바로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괄호 안에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는 범위를 뜻풀이뿐만 아니라 예문에까지 확장하여 ‘불가’에 ‘할 수 없음’이라는 설명을 보탤다.

- (13) 삼족(三族) 1. 부모와 형제와 처자. 2. 친가(아버지의 집안)와 외가와 처가의 가족. [예] 옛날에는 역적질을 하면 삼족을 멸하였다고 한다.
 (14) 연소자(年少者) 나이가 어린 사람. 특히, 성인(어른)이 아닌 사람.
 [예] 연소자 관람 불가(할 수 없음).

네 사전 모두 용례의 형식은 구와 문장이었다. 다만 용례의 출처와 매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새국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용례를 뽑았다고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한 반면 『연세』는 교과서와 어린이책이라는 출처를 제시하였다. 『푸르넷』은 창작동화에서 뽑은 것을 포함하여 3만 개의 예문을 실었다고 예문의 수를 밝혔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보리』는 보기글은 초등학생이 흔히 쓰는 입말로 보여 주었다고 하여 차별화하였다. 예문 전체가 입말인 것은 아니지만 입말 예문을 풍부하게 실어 다양한 입말 종결어미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장점이다. 입말 예문 중에 의문문의 비중도 높다. 『보리』 입말 예문의 구체적인 예는 (15)와 같다.

- (15) 가. 나 : 형, 나랑 공놀이 할래?
 나. 남 : 남도 아닌데 그렇게 모른 척하기야?
 다. 너 : 너, 나 좀 도와주겠니?
 르. 네 : 네가 준 편지 잘 읽었어.

관련어 항목은 학습자의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현행 교육

과정의 초등학교 1-2학년군 문법 영역 내용 성취 기준에 관련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16)과 같다.

(16)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 낱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어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각 사전의 관련어 정보 체계는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마다 적게는 9가지에서 많게는 16가지까지 다양한 관련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괄호 안의 숫자는 관련어 항목의 종수이다. 그런데 연어, 속어, 속담 등 어휘의 결합 관계로 형성된 언어 단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McCarthy(2003)에서 영어 어휘 교육의 큰 축으로 결합 관계인 연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것에서 국어의 어휘 관계 교육의 불균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관용 표현의 학습은 우리의 어휘 사용에 대한 습관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계기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수록해야 하겠다.

- (17) 가. 『보리』(9) : 본말, 준말, 같은 말, 비슷한 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 참고어, 다듬은 말, 복녀말, 잘못 쓴 말, 바뀔말
나. 『연세』(13) : 본딤말, 준말, 같은 말, 비슷한 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 큰말, 작은말, 센말, 거센말, 어린말, 관련어, 참고어
다. 『새국어』(12) : 본말, 준말, 같은 말 · 비슷한말, 반대말 · 맞선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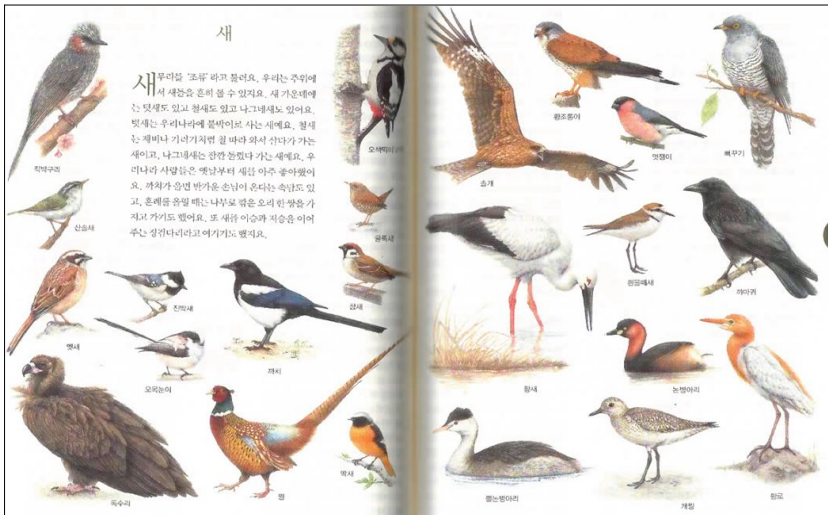
높임말, 낮춤말, 큰말, 작은말, 센말, 거센말, 여린말, 높임말, 낮춤말, 참고어

- 리. 『푸르넷』(16) : 같은 말, 비슷한 말, 반대말, 본딴말, 준말, 원말, 변한말, 높임말, 낮춤말, 큰말, 작은말, 센말, 거센말, 여린말, 참고어, 북한말

3.2. 비공통 미시 구조

앞 절에서 분석 대상 사전에 공통으로 제시된 미시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어 각 사전에서 특성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3.2.1. 『보리』



<그림 2> '새'의 모듬 정보

『보리』에서는 다른 사전에는 없는 ‘모듬 정보’를 실었다. 해당 표제어 바로 다음에 제시하므로 미시 구조에 포함하기는 해야겠지만 사전의 본문과

별도로 사전을 펼쳤을 때 보이는 양면을 모두 활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글과 그림을 실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을 함께 익힐 수 있게 하는 독특한 정보이다. 그림 2의 내용을 보면 주제인 ‘새’의 관련어인 ‘새무리’, ‘조류’와 함께 하위어인 ‘짙’, ‘독수리’, ‘뼈꾸기’를 그림과 함께 제시하여 귀납적으로 ‘새’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혼례를 올릴 때 나무로 깎은 오리 한쌍을 가지고 간다는 등의 문화적인 정보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형식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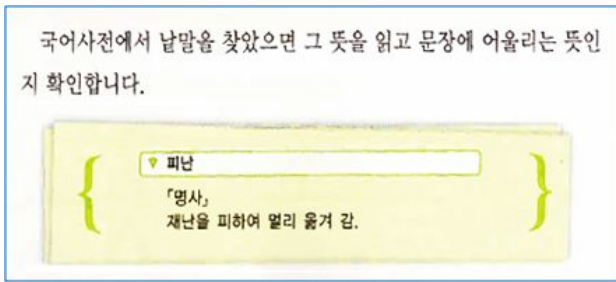
3.2.2. 『연세』

다른 사전과 변별되는 정보를 가장 많이 제시한 것은 『연세』였다. 품사, 문형, 기초 어휘, 영어 대역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인 언어사전에서는 어휘의 범주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품사와 주요 형태소(접사, 어미)의 범주에 대한 정보는 기능, 형태,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휘의 범주에 대한 정보는 『연세』에서만 제공하였다. 『연세』에서 제공한 범주 정보는 학교문법에서 인정한 9개의 품사와 의존 명사, 접사이다. 표제어로 포함한 언어 단위 중 어미를 뺀 모든 표제어 항목에 대해 범주에 대한 정보를 부여하였다. 초판에서 다른 사전과 마찬가지로 어휘의 범주에 대한 정보는 신지 않았던 『연세』에서 개정을 통해 어휘 범주 정보를 추가한 것은 초등 교육 과정에서 품사가 다루어지지 않으나 사용자 대부분이 외국어 교육을 통해 이미 품사에 대한 정보를 접하였고 품사 표시로 여러 가지 문법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알려두기에 밝혔다. 그런데 초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인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의 내용 요소에 ‘국어 품사의 기초 개념 이해하기’가 포함되어 있다.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3-4학년군 문법 영역 내용 성취 기준에서 사전 사용과 품사 변별에 대한 내용을 관련지어 (18)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8)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 다양한 종류의 낱말을 분류하는 능력은 국어적 사고력과 국어 인식 능력의 신장을 이끌 수 있으며 사전 활용 능력은 모든 국어 공부의 기초가 된다. 사전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낱말의 기본형과 활용을 간단한 수준에서 이해시킨다. 또한 형태나 의미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같은 품사에 속하는 낱말들을 구별해 내는 활동을 통해 국어사전 찾기에 필요한 주요 품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를 변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으면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있음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국어사전에서 여러 낱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서 국어사전의 유용성을 익히고 국어사전을 즐겨 찾는 습관을 지니도록 지도한다.



<그림 3>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기 활동(초등 국어 4-1[나])

(18)의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에서도 품사의 명칭을 그림 3과 같은 방식으로 노출하고 있다.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서 뜻을 확인하는 활동의 예에 ‘「명사」’라는 품사의 명칭을 보였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군의 문법 영역에서 ‘국어의 기본적인 문장 성분을 이해하고 성분 사이의 호응 관계가 올바른 문장을 구성한다’라는 내용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장의 구조는 이해와 표현의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데 『연세』에서만 용언 표제어의 미시 구조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용언이 서술어인 문장을 구성할 때 어떤 논항을 취하게 되느냐와 관련한 문형 정보를 곁괄호 안에 보였다. (19)는 ‘먹

다'의 문형 정보인데 이와 같이 동사가 필수적으로 취하는 주어 이외의 문장 성분을 제시하여 문장의 구조와 필요한 문장 성분의 의미 부류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병규(2000)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 국어사전의 문형 정보 제시 방식을 초등국어사전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문형 정보를 뜻풀이에 포함하고 격조사의 글씨체를 다르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노출시켰다.

- (19) ㄱ. ((먹을 것을)) 입에 넣어 씹거나 그대로 삼키다
- 나. ((나이틀)) 더 많이 가지게 되다
- ㄷ. ((편을)) 가르다
- ㄹ. ((축구나 농구 같은 경기에서 점수를)) 잃다

『연세』의 가장 큰 특징은 어휘의 중요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연세』에서 표제어 앞의 별표(*)는 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라는 표지이다. 말뭉치 고빈도 어휘, 교과서 출현 어휘 등을 근거로 2500여 개의 기초 어휘를 선정하고 이를 사전에 반영한 것이다. 통계 정보의 활용과 사용자 중심 사전 편찬 철학 등 『연세』의 특징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는 이희자(2005)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3.2.3. 『새국어』

분석 대상 사전 모두 표제어로 올린 ‘새옹지마’라는 한자성어에 대해 『보리』와 『푸르넷』은 한자 정보와 뜻풀이만 제시하였고, 『연세』와 『새국어』는 한자 정보와 뜻풀이뿐만 아니라 예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새국어』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20)과 같이 어원·유래와 관련한 정보를 제시하여 다른 사전과의 변별을 추구했다.

- (20) ‘새옹지마’의 유래
 : 옛날, 중국의 변방에 사는 한 늙은이가 기르던 말이 달아나 잃어

버린 줄 알았는데 얼마 뒤에 그 말이 다른 좋은 말을 한 마리 데리고 돌아왔다. 그 일이 있은 후, 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는 불행을 당했으나, 나중에 그로 인하여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어 목숨을 구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말.

3.2.4. 『푸르넷』

『푸르넷』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관련어가 다른 사전에 비해 풍부하고 예문의 양이 많다는 장점이 있으나 나머지 세 사전에서 구현하지 않은 고유한 정보를 찾기는 힘들었다.

4. 초등국어사전의 개선 방안

초등국어사전과 관련한 최근 논의인 안찬원(2012)에서는 실제로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초등학교 국어 수업을 관찰하여 문법 내용의 구체적 안내, 문법 교육 내용의 위계화, 통합적인 언어 학습 시도 등 국어 교육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초등국어사전 콘텐츠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 논의로는 김화영(2001), 장현희(2009) 등이 있다. 김화영(2001)에서 제시한 초등국어사전의 개선 방안을 간추리면 (21)과 같다.

- (21) ㄱ. 어휘 빈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 선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나. 모든 표제어에 표준 발음을 제시하여야 하며,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경우의 발음 변화, 용언의 활용형에 따른 음운 변동형을 표시해야 한다.
- 다. 설명용 어휘 약 3000 단어를 정해 표제어의 의미를 정확하고 쉽게 풀이해야 한다.
- 르. 실제 사용된 글말이나 입말 자료 중에서, 평이하고 표준적인 문

장을 선별하여 제시해야 한다.

- ㄱ. 낱말들간의 유의 관계, 반의 관계, 부속 관계, 연합 관계를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한다.
- ㄴ. 뜻풀이에 ‘누구, 어디, 무엇’ 등의 메타 언어와 그 용언이 요구 하는 격조사를 통합하여 격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21)에 제시한 개선 방안 중 (21ㄷ)은 3만 항목 전후인 초등국어사전의 표제어를 3000개의 설명용 어휘로 풀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21ㄷ)을 제외한 나머지 제안 사항은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인 네 종류의 초등국어사전에서 거의 구현되었다. 2000년대 이후 초등국어사전이 질적으로 발전하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장현희(2009)에서도 (22)와 같이 초등국어사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22ㄱ), (22ㄴ)은 분석 대상 사전 모두에서 만족시키고 있지만 (22ㄷ)은 어떤 사전에서도 구현하지 못하였다. (22ㄷ)과 관련해 『보리』를 제외한 모든 사전에서 발음 정보를 제공하며, (22ㄱ)에 제안한 문법 정보는 『연세』에서만 구체화하였다.

- (22) ㄱ. 초등학교 전 학년, 전 과목에 수록된 모든 어휘를 표제어로 선정해야 한다.
- ㄴ. 백과사전적 표제어는 짧고 명료한 뜻풀이와 삽화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 ㄷ. 모든 표제어에 대해 용례를 제공해야 한다.
- ㄷ. 표준 발음법에 따라 표기와 발음이 다른 모든 표제어에 대해 발음 표시를 해야 한다.
- ㄱ. 교육과정에 따라 품사 정보를 포함하고 격틀 등의 문법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초등국어사전은 전과목의 지식을 아우르는 교육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고 이는 초등국어사전이 초등교육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2, 3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초등국어사전의 개선 방안을 짚어보기로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향유하는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지역마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다른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별로 다른 언어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지표이다.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문화의 다양성을 국어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초등학교 3-4학년군에서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에 대해 교육하도록 하였다. 이는 (23)의 내용 성취 기준에 드러난다.

(23)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를 알고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 표준어 사용 능력은 평소 낭독, 질의응답,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져야 한다. 표준어와 함께 방언도 소중한 국어 문화 자산이므로 표준어와 방언의 효과적 사용 능력은 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중략) 아울러 표준어와 방언에 관심을 갖고 표준어와 방언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그런데 초등국어사전에서 방언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사전에 등장하는 어휘는 표준어와 비표준어로만 분리되어 있다. 방언 어휘는 표준어 중심의 이분법적 논리에 의하면 비표준어이지만 사용을 무조건 제한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중1-3학년군의 듣기·말하기 영역 내용 성취 기준, 고등학교 국어 I의 문법 영역 내용 성취 기준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교육 대상이 되는 방언 어휘를 표제어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제로 사전에 적용하려면 하나의 표준어 어휘에 여러 개의 방언 어휘가 대응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방언 어휘 중 어떤 것을 사전에 실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텍스트 중 중 방언으로 이루어진 문학 작품을 말뭉치로 구축하고 어휘 단위로 분석하여 빈도가 높은 것을 표제어로 실을 수 있다. 인쇄사전의 지면 제약을 고려하여 별도의 미시 구조 없이 가표제어로 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어휘가 지역 문화와 관련이 있거나 표준어와 일

대일로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뜻풀이와 참고 정보로 이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세』를 제외한 분석 대상 사전에서 신고 있는 북한어도 일종의 방언이다. 다만 ‘북한어’라는 명칭 자체가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어 실제로 이 어휘를 쓰는 장면을 접할 수 없다는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다. 거시 구조 분석 결과에서 보인 것처럼 각 사전에서는 2% 미만의 비율로 북한어를 수록하였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북한어에 대한 내용은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현재 초등국어사전에서 북한어를 실어 놓은 양상을 보면 교육 목표에서 벗어나 있다.

- (24) ㄱ. 『보리』 : 멧마당, 모름지기, 뒤욕
- ㄴ. 『새국어』 : 들창코, 주석단, 후어머니
- ㄷ. 『푸르넷』 : 넣는사람, 씨엥씨엥, 잠나라

일상생활에서의 빈도가 높아서 통일 후 혼란이 오기 쉬운 어휘나 우리와 다른 북한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는 어휘를 골라 양을 늘려 실는 것이 바람직한데 (24)에 예로 든 어휘들은 이와 무관해 보인다. 『새국어』, 『푸르넷』과 같이 적은 양의 북한어를 부록 등의 별도 정보로 사전에 실을 때에는 발음과 표기, 어종의 측면에서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할 수도 있겠다. 북한의 문화어와 남한의 표준어 대응 양상은 (25)와 같이 매우 복잡하다. (25ㄱ)은 발음은 같은데 표기가 다른 예이고, (25ㄴ)은 원어는 같지만 발음과 표기가 모두 다른 예이다. (25ㄷ)은 문화어와 표준어의 어종이 같은 경우이고 (25ㄹ), (25ㅂ)은 어종이 다르다.

- (25) ㄱ. 논뚝(논둑)
- ㄴ. 룬문(논문), 도나트(도넛)
- ㄷ. 구텡이(구덩이), 수줍대(수집다), 지푸래기(지푸라기)
- ㄹ. 건늬길(건널목), 날래(빨리), 식의주(의식주), 우편국(우체국)

- ㉑. 엮음새(구성), 나비해엄(접영), 단얼음(빙수), 비신(장화)
- ㉒. 과일단물(주스), 달린웃(원피스), 땡기(리본), 손기척(노크)

미시 구조 분석 결과 어원 정보는 『새국어』에서만 신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민간 어원은 지양해야 하겠지만 어휘의 형태와 의미가 변해 온 역사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므로 적극적으로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헌을 통해 검증된 어원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록하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어원 정보가 언어와 역사의 접점에 대한 통시적 접근이라면 언어와 사회 문화의 결합을 보여 주는 공시적 정보가 바로 관용 표현이다. 미시 구조 분석에서 지적한 어휘 관계의 균형성과 언어문화 학습의 측면에서 관용 표현 정보는 적극적으로 수록해야 할 대상이다.

문법 교육의 측면에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8학년에 처음 등장하던 단어 형성과 관련한 내용이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군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26)은 이와 관련한 내용 성취 기준인데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고유어 명사 파생 접두사 ‘-개’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6)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이해하면 국어의 어휘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높이고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여기서 낱말 확장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개꿈, 개떡, 개머루’에는 공통적으로 ‘개-’가 들어가 있어 모두 ‘참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고 함부로 된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중략) 다양한 토박이말(고유어)와 한자어를 두루 익히게 하여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킨다.

그러나 초등국어사전에서 접사는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접사 수록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고빈도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의 수록 양상을 살펴보니 <표 1>과 같았다.

〈표 1〉 초등국어사전의 고빈도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 수록 현황

순위	접미사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보리(9)	연세(6)	새국어(10)	푸르넷(10)
1	-들	10076	39.641	39.641	O	O	X	X
2	-口	5294	20.828	60.469	X	X	X	X
3	-이29	2548	10.024	70.493	X	X	O	O
4	-님	1940	7.632	78.126	O	O	O	O
5	-씩	1142	4.493	82.618	O	O	O	O
6	-기	1085	4.269	86.887	X	X	X	X
7	-네	1026	4.037	90.924	O	X	O	O
8	-갈	295	1.161	92.084	X	X	X	X
9	-끼리	262	1.031	93.115	O	X	O	O
10	-짜리	254	0.999	94.114	O	O	O	O
11	-질	213	0.838	94.952	O	O	O	O
12	-개	175	0.688	95.641	X	X	X	X
13	-쫘	173	0.681	96.321	O	O	O	O
14	-새	163	0.641	96.963	O	X	O	O
15	-음	153	0.602	97.565	X	X	O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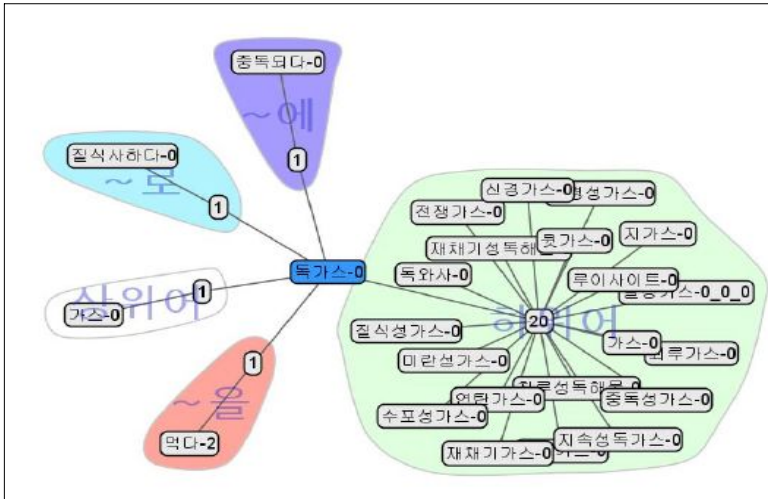
〈표 1〉은 김한샘(2013-7)에서 7차 초등교과서의 전 학년, 전 과목 텍스트를 분석한 어휘 말뭉치를 재분석하여 생성한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 통계 자료 중 상위 15 항목이 분석 대상 사전에 어떻게 실려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네 사전 모두 표제어로 올린 접미사는 ‘-님’, ‘-씩’, ‘-짜리’, ‘-질’, ‘-쫘’의 다섯 항목에 불과하였고 가장 많은 접사를 포함한 『새국어』와 『푸르넷』의 경우에도 등재율이 66.7%에 그쳤다.

〈표 2〉 초등국어사전의 고빈도 한자어 명사 파생 접미사 수록 현황

순위	접미사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보리(3)	연세(2)	새국어(0)	푸르넷(0)
1	-적(的)	1424	11.739	11.739	X	X	X	X
2	-물(物)	779	6.422	18.161	X	X	X	X
3	-형(形)	674	5.556	23.717	X	X	X	X
4	-자(者)	619	5.103	28.819	X	X	X	X
5	-장(場)	526	4.336	33.155	X	X	X	X
6	-별(別)	438	3.611	36.766	X	X	X	X
7	-인(人)	354	2.918	39.684	X	X	X	X
8	-관(館)	341	2.811	42.495	X	X	X	X
9	-성(性)	294	2.424	44.918	O	O	X	X
10	-기(器)	244	2.011	46.93	X	X	X	X
10	-실(室)	244	2.011	48.941	O	O	X	X
12	-어(語)	238	1.962	50.903	X	X	X	X
13	-지(地)	237	1.954	52.857	X	X	X	X
14	-기(機)	234	1.929	54.786	X	X	X	X
15	-회(會)	228	1.879	56.665	O	X	X	X

한자어 접사의 경우 『새국어』, 『푸르넷』과 같이 아예 신지 않은 사전도 있었고 『보리』와 『연세』도 등재율이 각각 20%, 13%에 불과하였다. (25)에서 제시한 접사에 의한 파생법 이해, 고유어와 한자어의 고른 이해라는 3-4학년군 내용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리』의 경우 사전 사용자를 초중등생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초등국어사전에서 모든 접사를 표제어로 올리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접사 표제어의 선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의 접사 통계와 함께 중고교 문법 교과서에서 예로 든 접사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접사 표제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휘 의미 관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분석 대상 사전 모두 다양한 관련 어휘를 제시하고 있지만 (16)에서 보인 초등학교 1-2학년군 문법 영역 내용 성취 기준에서 지도할 것을 권장한 상위어와 하위어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어휘 의미 관계에 대해 수직적 계열 관계, 결합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4> ‘독가스’의 의미 관계 정보

<그림 4>는 국립국어원(2009)에서 제시한 입체적 국어사전 구현을 위한 의미 관계 정보의 예이다. ‘독가스’라는 표제어가 ‘가스’의 하위어인 동시에 ‘미란성 가스’, ‘수포성 가스’ 등의 상위어라는 수직적 계열 관계 정보와 ‘중독되다’, ‘먹다’ 등의 동사와 주로 어울려 쓰인다는 결합 관계에 대한 정보를 구현하였다. 초등국어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려면 시소러스, 온톨로지 등 의미 관계를 구축한 콘텐츠와 말뭉치 통계 자료 등 언어정보학적 연구 성과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현재 출판되어 사용되고 있는 초등국어사전 중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보리』, 『연세』, 『새국어』, 『푸르넷』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네 종류의 사전을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기는 하지만 표제어 등재 단위, 문법 정보 등에서 사전별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도출되었다. 어미·조사 표제어의 보완, 품사 정보 수록 등 미시 구조 정보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초등국어사전 전반을 살펴보면 방언 및 북한어 표제어의 적극 수용, 어원 정보와 관용 표현 등 공시적, 통시적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정보의 보완 등도 필요하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접사 표제어를 보완하고 어휘 관계 기술에서 수평적 계열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 계열 관계인 상하위어와 관련한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3학년에 배치되었던 사전 활용 관련 교육 내용이 4학년에 배치되었다. 5-6학년군 초등 교과서가 교과의 난이도나 어휘량의 면에서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만큼 이 논의에서 제시한 초등국어사전의 개선 방안이 실제로 구현되어 초등교육 전반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저서류〉

국립국어원(2009), 『어휘의미 체계 기반 입체적 국어사전 확장』.

국립국어원(2010),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김한샘(2010), “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 『국어교육연구』 47, 국어교육학회, 63-90쪽, 2010.

김한샘(2011),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단어족 분석 연구”, 『한말연구』 29, 한말

연구학회, 71-96쪽.

김한샘(2013 ㄱ), “교육용 접사 선정을 위한 명사 파생 접미사 빈도 연구”, 『언어와 문화』 9-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1-44쪽.

김한샘(2013 ㄴ),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접미사의 생산성 연구”, 『한국어 의미학』 40, 한국어 의미학회, 521-547쪽.

김화영(2001), “초등 학생용 국어 사전에 관한 비판적 연구”, 『초등국어교육』 11,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연구소, 131-158쪽.

안찬원(2012), “국어사전 활용 수업 분석 연구 : 초등학교 문법 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17, 한국문법교육학회, 165-196쪽.

유현경 · 남길임(2009), 『한국어사전 편찬학 개론』, 역락.

이병규(2000), “초등 학생용 국어 사전에서의 문형 정보 제시 방안”,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10,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87-211쪽.

이희자(2005), “말뭉치 기반 초등국어사전 알기 : 『연세초등국어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6, 한국사전학회, 35-67쪽.

장현희(2009), “어휘 교육을 위한 초등 국어사전의 편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희자 · 유현경 · 김한샘 · 천미애(2007), 『학습용 한국어 관용 표현 사전』 편찬 연구, 『한국사전학』 9, 한국사전학회, 99-122쪽.

하영동(2009), “프랑스와 한국의 초등학생용 사전 비교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65, 한국프랑스학회, 71-98쪽.

Landau, Sidney I.(1989), *Dictiona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Carthy, Michael(2003), *Oxford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 Press.

〈사전류〉

김낙준(2001/2014), 『푸르넷초등국어사전』, 금성출판사.

두산동아(1976/2014), 『초등새국어사전』, 두산동아.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2002/2014), 『연세초등국어사전』, 두산동아.

토박이 사전 편찬실(2008/2014), 『보리국어사전』, 도서출판 보리.

〈ABSTRACT〉

An Analytic Study for Improvement on Korean Elementary Dictionary

Kim Han-saem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Korean elementary dictionaries and to evaluate them considering their achievement of educational goals according to the curriculum. Bori Korean dictionary (Center for dictionary compilation of native word), Yonsei Korean elementary dictionaries(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udies), New Korean elementary dictionary(Doosan Dong-A), and Pureunet Korean elementary dictionary (Kumsung publishing) are analyzed based on two aspects, macro-structure and micro-structure. The headword lists of these dictionaries consist of the words extracted from elementary school textbooks and they include proper nouns and idiomatic expressions in common. In terms of language units, New Korean elementary dictionary missed ‘Josa’ as called as Korean particle, and Yonsei is only dictionary to include ‘Eomi’-the conjugation part of Korean verb. There are two ways to identify homographs. One of them is traditional way to attache shoulder numbers to headwords and the other is to provide the distinguishers. The metalanguage used in most dictionaries is controll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users. Overall, the quality of dictionaries is high. However, the elaboration of micro-structure is required such as complement of headings list and supplement of the information about POS, etc. It is also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ocial and cultural information

like dialects, etymology, and idiomatic expressions. Affix should be added to headword and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hypernym/hyponym is required in order to follow the current curriculum.

- **주제어** : 사전, 초등 교육, 어휘 교육, 어휘 관계, 접사
Dictionary, Elementary Education, Vocabulary education,
Lexical Relations, Affix

김 한 샘

소 속 : 연세대학교

전자우편 : khss@yonsei.ac.kr

논문 접수 : 2014. 10. 20.

논문 심사 : 2014. 10. 25. - 11.15.

게재 결정 : 2014. 11.20.

교체의 정의와 교체의 해석 그리고 기저형

신 승 용

< 차 례 >

1. 서론
2. 교체의 정의와 규칙
3. 교체의 내용 및 공시성·통시성의 해석과 기저형
4. 결론

1. 서론

생성음운론에서 표면형은 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된다.¹⁾ 이때 표면형은 기저형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기저형과 표면형이 같지 않을 때 교체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체를 형식화한 것이 규칙이다. 즉 규칙은 교체를 형식화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어떤 교체는 규칙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교체는 규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설령 규칙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교체를 형식화한 규칙은 규칙적인 규칙이 될 수 없을 것이다.

1) 기저형과 표면형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표면형은 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되며, 도출 과정에서 교체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 기저형과 표면형이 같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한다.

그런데 동일한 표면형을 두고 우리는 교체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교체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해당 교체를 공시적으로 해석하느냐, 통시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 판단은 기저형을 결정하는 일과도 직결된다. 한 시기의 언어에는 서로 다른 시간적 단층을 가진 언어 자료가 공존한다는 사실에서 공시태에 존재하는 교체의 공시성·통시성은 공시태의 언어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두 표면형 [x]와 [y]의 관계가 교체의 관계이나, 변화의 선후형의 관계이냐는 결국 해석의 문제이다. 그 해석이 어떠한지 즉, [x]와 [y]에 적용된 음운 현상을 교체로 해석하든 변화로 해석하든 [x]와 [y]의 사이에 어떠한 음운 현상이 적용되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단지 해당 음운 현상을 공시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공시성·통시성에 대한 판단은 필연적으로 기저형을 결정하는 데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본고는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첫째, 교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체와 규칙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교체의 내용 및 공시성·통시성에 대한 해석과 기저형 설정의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 교체의 정의와 규칙

하나의 형태소가 항상 동일한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둘 이상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하나의 형태소가 둘 이상의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교체(alternation)라고 한다. 교체는 공시적인 음운 현상이 적용된 결과라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가 바

편 통시적인 변화와 구분된다. 따라서 교체 또는 교체형이라는 말은 이미 공시적이라는 것을 전제한 개념이다. 그런데 교체에 관여한 음운 현상이 공시적이냐 통시적이냐는 그 자체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운론적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교체에 관여한 음운 현상이 공시적이라면 교체형들의 관계는 공시적인 관계로 해석될 것이고, 반면 해당 음운 현상이 통시적이라면 교체형들의 관계는 통시적 변화의 선후형으로 해석될 것이다. 김경아(2001 : 53)의 지적처럼 공시적인 교체가든 통시적인 변화이든 입력부의 동기화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공시적이냐 통시적이냐에 따라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1) ㄱ. 암툼[암탁](<암ㅎ+답)

ㄴ. 농고[노코]

ㄷ. 축협[추협]

(1ㄱ~ㄷ) 모두 /ㅎ/ 축약이라는 교체가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기왕의 구분을 따른다면 (1ㄱ)에서의 /ㅎ/ 축약은 공시적인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1ㄱ)에 적용된 /ㅎ/ 축약은 변화이고, (1ㄴ)에서의 /ㅎ/ 축약은 공시적인 교체이다. (1ㄷ)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통시적인 교체라고 하기도 한다.²⁾ (1ㄱ)의 경우에도 ‘암ㅎ’이 /ㅎ/ 중성체언으로 존재하던 시기에 [암탁]에 적용된 /ㅎ/ 축약은 적어도 합성어가 형성될 그 시점에서는 공시적인 교체였을 것이다.

이처럼 교체이나 변화이나 하는 문제는 결국 적용된 음운 현상에 대한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교체’와 ‘변화’ 대신 ‘공시적 교체’, ‘통시적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³⁾

2) 최명옥(2007)처럼 단어는 형성되는 그 순간 통시적이고 해당 단어에 적용된 음운 현상도 통시적이라고 보게 되면 (1ㄷ)의 /ㅎ/ 축약은 통시적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단어가 형성되는 그 순간에 적용된 /ㅎ/ 축약은 공시적이어야만 할 것이다. 이 문체는 신승용(2013a)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러면 교체가 무엇인지 즉, 교체의 정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교체를 정의한 몇 논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 가. 어떤 형태소가 둘 이상의 음소적 형상(phonemic shape)으로 실현될 때, 그 형상들은 서로 교체의 관계에 있으며, 그 형태소는 교체를 보인다. 각 표상(representaion)은 형태이고, 주어진 형태소를 표상하는 모든 형태는 이형태라고 부른다(Hockett 1958 : 272).⁴⁾

나. 하나의 단어가 그 위치하는 음운론적 환경 때문에 발음이 바뀌는데, 이러한 상황을 교체라 하고, 두 발음을 교체형이라고 한다 (Spencer 1996 : 49~50).

다. 어휘 형식의 표면에서의 다양한 실현형이 교체형이다. 어휘 표상(lexical representation)이 규칙의 적용에 의해 음성 표상(phonetic representation)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도출(derivation), 어휘 표상과 차이가 나는 현상을 교체라고 하고, 그렇게 실현된 음성형을 교체형이라고 한다(Roca & Johnson 1999 : 52~53).

교체를 설명하는 대상의 단위가 (2가)에서는 형태소, (2나)에서는 단어, (2다)에서는 어휘 형식으로 차이가 있다. 대상의 단위가 형태소, 단어, 어휘 형식 등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론적 배경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교체를 설명하는 분야가 음운론이나 형태론이냐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⁵⁾ 어쨌든 (2가~다)의 교체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교체의 대상이 되는 단위가 무엇이든지간에 교체가 일어났다는 것은 교체를 기

3) ‘공시적 교체’, ‘통시적 교체’가 본고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교체의 공시성·통시성에 대해 다룬 최명옥(1988)에서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구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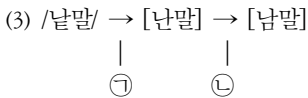
4) Hockett(1958 : 272)에서 교체의 예로 든 것은 ‘sell’과 ‘sold’이다. 그러나 현재 ‘sell’과 ‘sold’를 교체 관계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5) 이론적 배경에 따라 용어에 차이가 있고, 음운론과 형태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동일하지 않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외연이 다르지는 않다. ‘형태소 = 어휘 표상 = 기저형’이 평행한 개념이고, ‘이형태 = 변이형 = 교체형’ 역시 평행한 개념이다. ‘표면형(=음성형=음성 표상)’은 ‘기저형’에 교체가 적용된 것도 표면형이지만, 기저형이 교체 없이 실현된 경우에도 ‘표면형’이라고 하므로, ‘교체형’과 ‘표면형’은 구분된다.

점으로 해서 전후의 형태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체가 방향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김현(2012 : 60)은 (2가), 즉 Hockett(1958)의 교체의 정의에서 어떤 이형태(또는 분절음)가 다른 이형태(또는 분절음)로 바뀐다는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그리고 Dressler(1985 : 16)의 ‘교체는 이형태들이 대응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개념으로서 무방향적 또는 양방향적 성격을 띤다.’는 진술을 들어 교체가 무방향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⁶⁾ 하지만 (2가)의 정의에서 ‘형태소 → 이형태’의 방향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가)는 구조주의언어학에서의 교체의 정의인데, 이보다 앞선 Bloomfield(1933)의 교체의 정의에서도 교체의 방향성은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 Bloomfield(1933 : 213)는 기본적인 것으로서 하나의 이형태(basic form)가 있고, 다른 형태들은 그것으로부터 규칙에 의해 도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⁷⁾ 이는 ‘기본형 → 이형태’라는 방향성을 전제한 것이다.

생성음운론에서의 교체의 정의를 잘 보여주는 것이 (2다)인데, (2다)에서 보듯이 생성음운론에서의 교체의 정의에는 ‘기저형 → 표면형’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기저형과 표면형의 관계가 아닌, 표면형과 표면형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교체 역시 방향성은 존재한다.



(3㉠)은 기저형으로부터 표면형으로 도출되는 과정에서의 교체이지만, (3

6) Dressler는 언어학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자로 정통 음운론자는 아니며, 굳이 음운론과 형태론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깝냐고 한다면 형태론자에 더 가깝다. 그렇기에 음운론에서 교체의 정의를 고찰하면서 Dressler의 교체의 정의는 비판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7) 그 예로 ‘knife[naiɸ]’의 복수형 ‘knives[narvz]’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단수형의 발음 [f]가 복수접미사 앞에서 [v]로 대체된다고 말하는 데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은 표면형 [난말]이 입력이 되어 또 다른 표면형 [남말]이 실현된 과정이다.⁸⁾ 이는 표면형이 또 다른 교체의 입력이 되기도 함을 보여준다. 이때 입력과 출력이라는 방향성은 여전히 존재해야만 한다. [남말]이 [난말]로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조건 환경의 성격에 따라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와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로 대별해 왔다.⁹⁾ 생성음운론에서는 교체 자체보다는 규칙을 하위 분류하였는데, 규칙이라는 것이 교체를 공식화해서 표현한 것(정국 1994 : 196)으로 조건 환경에 따른 규칙의 분류는 조건 환경에 따른 교체의 분류와 평행하게 된다. 생성음운론에서의 규칙의 분류는 Hooper(1976)를 참조할 수 있는데, 여기서 6가지로 분류한 규칙의 유형 중에서 교체의 유형과 평행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음성적으로 조건된 규칙(P-rule), 형태음소규칙(MP-rule), 의거규칙(via-rule)이다(Hooper 1976 : 14~18).¹⁰⁾ 이와는 달리 교체의 양상에 따라 교체를 분류하기도 하였다. Hockett(1958 : 273~274)은 교체를 정상적인(normal)인 교체와 산발적인(sporadic) 교체로 구분하였다. 규칙적인 교체와 불규칙적인 교체, 수의적인 교체¹¹⁾와 필수적인 교체 등의 분류 역시 교체의 양상에 따른 분류

8) 표면형 [남말]을 최종 도출형이라고 할 경우에 [난말]은 중간 도출형이라고 할 수도 있다.

9) Bubenik(1999 : 20~21)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와 어휘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로 구분하고, 어휘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는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10) 나머지 3개는 syllabification rules, morphological spell-out rules, word-formation rules이다. 음성적으로 조건된 규칙은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와 평행한 개념으로 음운 규칙이라고도 한다. 조건 환경이 순수히 음운 자질과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음운 경계(음절 경계, 휴지)로 이루어진 규칙이다. 형태음소규칙은 조건 환경이 통사·의미론적인 정보(단어 경계와 형태소 경계, 형태론적 범주나 통사론적 범주, 의미론적 집합)이 수반되는 규칙이다. 그리고 의거규칙은 음성적으로도 조건되어 있고, 형태론적으로도 조건되어 있는 규칙으로서 어휘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정 어휘에서 특정 음운론적 조건 하에서 교체가 일어날 때 이를 공식화한다면 일종의 의거규칙이 된다.

11) 수의적인 교체는 다시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동일한 조건 환경임에도 어휘에 따라 교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경우이고,

라고 할 수 있다. Hockett(1958)의 분류에서 산발적인 교체는 불규칙적이며 수의적인 양상의 교체에 해당할 것이다.

본고가 교체를 분류하고 각각의 교체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아니다. 그럼에도 교체의 유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어떤 교체가 비록 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교체라는 사실, 또한 어떤 교체가 불규칙적이거나 수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교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국어음운론에서 주로 다루었던 현상들은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산발적이거나 불규칙적인 교체는 교체가 아닌 것처럼 오해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물론 이들 산발적이거나 불규칙적인 교체는 현재의 방법론으로 타당한 설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이 이들 교체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두어 다루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체의 정의나 교체의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발적이거나 불규칙적인 교체 역시 교체의 하위 분류라는 사실에서 교체임에는 분명하다. 현 시점에서 타당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규명되어야 하는 현상이라는 것도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하는 음운 현상 가운데는 현재의 이론적 방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인 것들이 있다.

- (4) ㄱ. /저기/ → [찌기]
 ㄴ. /비행기/ → [비앵기] → [뱅기]
 ㄷ. /닭 + -으면/ → [다으면] → [다면] ~ [다면]

(4)에서 진하게 밑줄 친 형태들은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이어서 생성음운론에서 말하는 타당한 규칙으로는 형식화하기 어려운 예들이다.¹²⁾ (4ㄱ)의 [찌기]는 어두경음화가, (4ㄴ)의 [뱅기]는 /ㅎ/ 탈락 후 축약어, (4ㄷ)의 [다:

둘째는 교체가 적용된 형과 적용되지 않은 형이 공존하는 경우이다.

12)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이긴 하지만, 일정한 조건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면]은 /-/ 탈락에 이은 장모음화, [다면]은 /-/ 탈락이 적용된 것으로 기술할 수는 있다.¹³⁾ 하지만 동일한 조건 환경에서 이러한 교체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된 교체를 현재까지는 타당하게 기술하기 어렵다.¹⁴⁾

그러나 (4)의 [짜기], [뱅기], [다:면~다면]에 나타난 음운 현상이 교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현재로는 교체의 조건 환경 및 교체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짜기], [뱅기], [다:면 ~ 다면]에 적용된 교체가 공시적인 교체이나 통시적인 교체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지 않는 한, 이들에 적용된 교체를 통시적인 교체라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4)는 김경아(2001), 김현(2012)에서 말한 자유변이의 성격에 해당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¹⁵⁾ 만일 (4)가 자유변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휘부에 저장되어 암기 처리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교체의 정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최명옥(1988)의 교체의 정의이다. 이는 구체음운론을 국어 음운론에 도입하면서 국어의 관점에서 교체를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동일 형태음소 또는 형태소에 둘 이상의 이음 또는 이형태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어에서 공시적인 교체는 곡용과 활용으로 한정된다 (최명옥 1988 : 66).

13) 물론 [다면]의 경우 [다:면]에서 단모음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14) /당+음면/ → [다오면]에서 일어난 /ㅎ/ 탈락은 활용의 경계에서 일어난 교체이지만, [다오면]에서 [다:면], [다면]이 도출되는 과정은 입력형이 활용형 [다오면]이라는 사실에서 활용의 경계에서 일어난 교체라고 할 수 없다.

15) 김경아(2001)에서는 (4c)을 자유변이로 설명하고 있다. 자유변이에 대해 김경아(2001 : 59)는 ‘두 개 이상의 음성 혹은 음운이 동일한 환경에서 교체를 보이면서 전혀 의미상의 분화를 보이지 않는 임의적이고 수의적인 변이형’으로, 김현(2012 : 53)은 ‘음운론적으로 동일한 조건 환경에서 둘 이상의 어형이 실현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최명옥(1988)의 교체의 정의는 공시적인 교체를 곡용과 활용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5)에 따르면 형태소 내부나 단어 내부에서는 더 이상 공시적인 교체가 있을 수 없고 통시적인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2)의 교체의 정의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2)에서의 교체의 대상이 되는 언어 형식의 단위는 형태소, 단어, 어휘 형식 등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론적으로 교체의 대상이 되는 단위가 활용과 곡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⁶⁾ 물론 이는 대상 언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2)의 교체의 정의에 미루어 (5)의 정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명옥(1988)에서 (5)의 정의와 관련하여 왜 활용과 곡용이 아닌, 단어 내부에서는 공시적인 교체가 나타날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5)의 교체의 정의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배경은 Kiparsky(1968)의 교체조건,¹⁷⁾ 그리고 Vennemann(1971)의 강력자연성조건이다.¹⁸⁾ 하지만 교체조건이나 강력자연성조건에서 공시적인 교체를 곡용과 활용으로 제한한다는 어떠한 기술도 없다. 특히 강력자연성조건을 두 번째 조건을 보면, 교체의 대상이 되는 언어 단위가 형태소이다. 교체조건이나 강력자연성조건은 추상적 기저형의 설정을 막기 위한 조건이지, 형태소나 단어 내부 교체의 공시성·통시성과는 무관하다. 이 문제는 3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그러면 규칙은 무엇인가? 교체가 실제하는 음운 현상이라면, 이러한 음

16) 소신애(2009 : 66)에서도 교체를 ‘형태소의 기저형이 표면형으로 도출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체계 음운(systematic phonem) 혹은 기저 분절음(underlying segment)의 변동’으로 정의함으로써 공시적 교체의 대상을 곡용과 활용으로 제한하는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17) 음성적으로 항상 동일한 형태소의 기저형은 표면형이 곧 기저형이다. 음성적으로 구별되는 즉, 교체가 있는 형태소는 교체형 중의 하나가 기저형이다(Kiparsky 1968b/1982 : 130~131).

18) 강력자연성조건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a) 교체형이 없는 형태소의 기저형은 음성형과 동일하고, (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형태가 있는 경우, 이형태 중의 하나가 그 음성형으로 어휘부에 등록되고 다른 것들은 그것으로부터 도출된다(Hooper(1976 : 116~117)에서 재인용).

운 현상을 기술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규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교체에 앞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생성음운론에서의 규칙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어떤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규칙은 명료성과 정확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 언어적 사실들을 표현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는 Chomsky&Halle(1968 : 60)의 기술, ‘규칙은 성격상 예측성(prediction)을 가져야 한다’는 정국(1994 : 199)의 기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실재하는 것은 규칙이 아니다. 다시 말해 실재하는 것은 교체(음운 현상)이지 규칙은 아니며, ‘규칙은 주어진 언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운 현상을 공식화한 것(전상범 2004 : 124)’에 지나지 않는다. 규칙이 교체 이전에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어떤 것일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교체를 규칙이라는 형식으로 공식화한다고 할 때, 그 규칙의 성격은 해당 교체의 성격과 일치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체에는 산발적인 것도 있고, 불규칙적인 것도 있다. 만일 이러한 교체를 규칙으로 형식화한다면 생성음운론에서 말하는 타당한 규칙 즉, 예외가 없는 규칙으로 형식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규칙이 교체를 형식화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정의에 충실한다면, 규칙이 명료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또한 예측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전제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실재하는 모든 교체가 명료하고 정확하고, 예측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교체를 명료하고 정확한, 그리고 예측적인 규칙으로 형식화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을 규칙의 형식으로 기술할 수는 있다. 물론 이렇게 기술된 규칙은 생성음운론의 규칙 평가의 잣대로 보았을 때 타당한 규칙일 수는 없다. 그러면 이러한 규칙은 규칙이 아닌가? 김현(2012 : 64)은 규칙의 구조기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규칙의 개념을 폭넓게 잡아 일단 규칙이라고 한 신승용(2004 : 64)의 기술에 대해, ‘어떤 이론적 도구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넓게 잡는 것은 연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예외 없는 규칙의 형식화

에 경도되었던 생성음운론의 규칙의 관점에 철저히 충실하게 맞춰 규칙을 바라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명료하고, 정확하고, 예측적이라고 할 수 없는 교체에 대해서도 규칙의 형식을 빌어서 기술해 오고 있다. 당장 수의적인 규칙은 동일한 조건 환경 Z에서 동일한 X가 Y로 교체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수의적인 교체를 형식화한 규칙은 당연히 명료성이나 정확성, 예측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교체를 규칙이라는 형식으로 기술하고 이러한 규칙을 수의적 규칙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생성음운론에서 말하는 명료하고, 정확하고 예측적인 교체를 형식화한 것만 규칙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교체를 형식화한 것은 규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규칙을 하위 분류하는 것과 내용상 별반 차이가 없다. 규칙이 교체를 기술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명료하고 정확하며, 예측적인 규칙만 규칙이라고 제한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명료하고 정확하며 예측적인 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체도 있으므로, 이를 공식화한 규칙 역시 명료하고 정확하며 예측적인 규칙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규칙도 있는 것이다.

3. 교체의 내용 및 공시성 · 통시성의 해석과 기저형

어떠한 교체가 공시적인 교체이나 통시적인 교체이나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기저형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교체가 공시적인 교체이나 통시적인 교체이나는 결국 해석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두고 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기도 하고, 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기도 하는 논쟁이 있어 왔다. 표면형에 적용된 교체를 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느냐 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느냐에 따

라 기저형이 달리 설정된다는 점에서 공시성·통시성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기저형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곧 화자의 공시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¹⁹⁾

교체의 공시성·통시성에 대한 판단은 2장에서 살펴본 교체의 정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6) ㄱ. 잡히다 → 재피다
 ㄴ. 굳이 → 구지

(6)에서 [재피다]가 ‘잡히다’에서 움라우트 규칙의 적용을, [구지]가 ‘굳이’로부터 구개음화 규칙의 적용을 받은 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잡히다/ → [재피다]에 움라우트가 적용된 교체, /굳이/ → [구지]에 구개음화가 적용된 교체가 통시적이냐 공시적이냐는 논란이 된다.²⁰⁾ 전자의 경우 그 기저형은 표면형 [재피다], [구지]와 같은 /재피다/, /구지/가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 그 기저형은 규칙이 적용되기 전의 /잡히다/, /굳이/가 될 것이다.

최명옥(1988)의 교체의 정의인 (5)를 따른다면, (6ㄱ), (6ㄴ)은 활용과 곡용의 형태소 경계가 아니므로 공시적인 교체가 아니게 되고, 따라서 그 기저형도 표면형 [재피다], [구지]와 똑같은 /재피다/, /구지/가 되고, [재피다]와 [구지]에 적용된 움라우트와 구개음화 규칙은 당연히 통시적인 규칙이 된다.²¹⁾

19) 생성언어학에서 언어능력은 이상적 화자의 언어능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 화자는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의 화자가 아니며 언어능력 또한 한 개인의 언어능력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화자의 언어능력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랑그’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20) 여기서 ‘→’는 공시적인 교체와 통시적인 교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즉 여기서 ‘→’는 방향성만 가리키는 중립적인 의미이다.

21) 이진호(2002 : 16~17)에서는 공시성의 조건으로 첫째, 교체가 있어야 하고, 둘째, 형태소 경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들었다. 그리고 공시적 음운 규칙의 조건으로 첫째,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적용되어야 하고, 둘째, 음운 체계의

반면 박창원(1991 : 316)에서는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고, 어근과 파생접미사가 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음운 현상은 공시적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즉 ‘잡히다’가 ‘잡-’에 피동접사 ‘-히-’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로 분석 가능하고, 어간 ‘잡-’과 피동접사 ‘-히-’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피다]에 적용된 음라우트는 공시적인 교체라는 것이다. ‘굳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굳-’과 ‘-이’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지]에 적용된 구개음화 역시 공시적인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김경아(2000 : 48)에서도 파생과 합성의 경우도 형태음운론적 교체에 포함해야 함을 제기하였는데, 이때 형태음운론적 교체는 물론 공시적 교체를 말하는 것이다.

분석 가능성을 공시성의 판단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은 송철의(2006)에서도 제기되었다. 송철의(2006 : 130)는 인간의 언어 능력에는 새로운 단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형성된 단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분석 능력에는 단어의 내구 구조에 대한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음운 현상에 대한 분석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국어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밤만]을 듣고 ‘밤+만’으로 분석해 낼 수 있다. [밤만]을 듣고 ‘밤+만’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밤만]에 비음동화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분석해 낼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물론 분석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공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²²⁾ 하지만 언중들의 직관적 분석 능력이 공시적인 언어능력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언중들은 활용형과 곡용형의 경계를 분석해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파생어나 합성어 경계 역시 분석해 낼 수 있다. 전자의 분석 능력과 후자의 분석 능력이 다르다고 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분석 능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다. 그런데 형태소 경계에 파생어나 합성어 경계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6)의 교체는 통시적인 교체이고 (6)에 적용된 규칙은 통시적인 규칙이 된다.

22) 예컨대 ‘כותنال’은 ‘코’와 ‘날’이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כותنال’의 ‘ㅅ’이 공시적으로 첨가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력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단어 내부에서는 공시적 분석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규명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²³⁾

분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점은 (5)에서 공시적인 교체라고 규정한 활용에서도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7) 더불어, 가로되, 다오

(7)은 소위 불구동사로 불리는 용언의 활용인데, 이들 용언어간은 결합하는 어미가 극히 제약되어 있다. 그래서 (7)의 활용형으로부터 어간 ‘더블-’, ‘가로-’, ‘달-’을 분석해 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활용형이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이동석 2002 : 60, 신승용 2007 : 93 등).

활용과 곡용에서의 분석 능력만 공시적인 언어능력이고 단어 내부에서의 분석 능력은 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논리상의 편의적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형태소와 단어는 어휘부에 저장되고 활용형과 곡용형은 어휘부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가설을 편의적으로 적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 송철의(2006), 신승용(2013a)에서 지적하였듯이 단어 형성의 공시성·통시성과 단어 형성 과정에서 파생어나 합성어 경계에 적용되는 음운 현상의 공시성·통시성이 같은 차원인지는 여전히 증명이 필요한, 논쟁이 되는 문제이다.

앞서 공시적인 교체를 활용과 곡용으로 한정해야 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신승용(2013a, 2013b)에서 지적되었듯이 공시적인 교체를 곡용과 활용으로 한정하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일종의 선

23) Milroy(1992 : 21)가 언어 변화에서 촉발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촉발을 연구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든 일기예보의 비유가 여기에도 적용될 듯하다. 즉 일기예보의 정확도가 낮다고 해서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공시적 분석 능력을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를 규명하는 작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험적 전제이다. 공시적인 교체를 활용과 곡용으로 한정하게 되면, 형태소 내부는 당연하고, 파생어나 합성어 경계에서 일어나는 교체도 모두 통시적인 교체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통시적인 교체임이 증명되어서 통시적인 교체가 아니라, 공시적인 교체를 활용과 곡용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통시적인 교체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생성음운론의 어떠한 설명에서도 파생어나 합성어 경계에서의 교체를 통시적인 교체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생성음운론에서 도출 환경은 전형적인 교체의 환경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교체는 당연히 공시음운론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Kiparsky(1973 : 65)의 정의에 따르면, 도출 환경은 형태소 결합에 의해서 또는 음운론적 과정의 적용에 의해서 유발된 환경이다. 분석 가능한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계가 전형적인 도출 환경이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파생어나 합성어 경계에서의 교체를 통시적인 교체라고 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공시적인 교체를 (5)처럼 활용과 곡용으로 한정하게 되면, 신승용(2013b)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교체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체가 활용이나 곡용에서 일어나느냐, 파생어와 합성어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별개의 교체라고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8) ㄱ. 낱말[난말]

ㄴ. 앞만[임만]

즉 (8ㄱ), (8ㄴ)의 경우 동일하게 중화와 비음동화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5)의 관점에서는 전자에서 적용된 중화와 비음동화는 복합어 내부에서의 교체이므로 통시적인 교체이고, 후자에 적용된 중화와 비음동화는 곡용에서의 교체이므로 공시적인 교체가 된다. 따라서 (8ㄱ)에서 중화와 비음동화는 공시적인 교체가 아니므로 그 기저형이 /낱말/이 아닌 /난말/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임만]을 듣고 ‘앞’과 ‘-만’을 분석해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말]을 들으면 ‘낱개’의 ‘낱’과 ‘말’이 결합하였다는 것을 직

관적으로 분석해 낸다. (8ㄱ)의 기저형을 /난말/이라는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직관과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 (9) ㄱ. [국뺨], [궁물]
- ㄴ. [밥꼭], [물국]
- ㄷ. *[뺨국], *[물궁]

(9)는 신승용(2013a : 157~158)에서 (9ㄱ)에 대한 언중들의 인식적 실재를 알아보기 위해 한 실험인데, (9ㄱ)을 거꾸로 말해 보라고 했을 때 (9ㄴ)처럼 대답하였고, (9ㄷ)처럼 대답한 피실험자는 없었다. 이는 교체형 [국뺨]에 적용된 불과화에 이은 경음화, [궁물]에 적용된 비음동화를 언중들이 분석하여 그 기저형을 /국밥/, /국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9ㄱ)에 적용된 불과화에 이은 경음화, 비음동화가 공시적인 교체임을 말해준다. 만일 (9ㄱ)에 적용된 교체가 공시적인 교체가 아니라면, 언중들이 해당 교체를 분석하여 그 기저형을 /국밥/, /국물/로 인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단 파생어나 복합어 경계만이 아니라 단일어나 형태소 내부의 경우에도 공시적인 교체가 없다고 단언할 수만은 없다.

- (10) [새끼] ~ [새이] ~ [췌이] ~ [시끼] ~ [스끼] ~ [시끼]

(10)은 일종의 심리적인 어감의 약화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상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양상조차 기술하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다. (10)의 각 표면형들 사이의 관계는 입력형과 출력형을 결정하기도 쉽지는 않지만,²⁴⁾ (10)의 기저형이 /새끼/임에는 분명하다. 이들 표면형들이 모두 어휘부에 저

24) 일정 정도 추정할 수는 있다. 예컨대 [새이], [시끼]는 기저형 /새끼/로부터, [췌이]는 표면형 [새이]로부터, [스끼], [시끼]는 역시 표면형 [시끼]로부터 교체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단언하기는 어렵다.

장되어 있고, 암기 처리 방식에 의해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 한, (10)의 표면형에 적용된 교체는 비록 현재의 이론적 방법론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교체이다. (10)의 표면형들에 적용된 교체를 통시적인 교체라고 보고, (10)의 표면형들이 모두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직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다.

기저형은 표면형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기저형이 정확히 표면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능력과 언어수행을 구분한 생성음운론의 관점에서 기저형은 언어능력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저형은 표면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정된 즉, 해석된 실체이다. 주지하다시피 Kiparsky(1968)와 Hyman(1970)의 추상성 논쟁 이후 기저형은 교체형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저형이 표면형 중의 하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Kiparsky(1968)의 교체조건, Vennemann(1971)의 강력자연성조건도 절대중화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설정된 것이지, 그것이 기저형은 표면형 중의 하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구체음운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Hooper(1976) 역시 표면형 중에 어느 것도 기저형이 아닌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11) palauan language²⁵⁾

- [ma-téʔəb](present middle verb)
- [təʔib-1](future past)
- [təʔəb-áll] : pull out

이 언어에서 강세를 받지 못하는 모음은 ə로 약화되는 생산적인 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저형은 /teʔib/로 분석되어야 한다(Hooper 1976 : 117~

25) Shane(1974 : 300)에서 인용.

119). 하지만 [teʔib]라는 표면형은 실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기저형이 반드시 표면형 중의 하나가 아닐 수도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기저형이 반드시 물리적 실재로서의 표면형 중의 하나가 아니라 표면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정된, 해석된 실재임을 말해 준다.

- (12) ㄱ. [노타, 노코, 노으니, 노오면, 노아라]
 ㄴ. [겔 : 꾸, 겔 : 뜨나, 겔 : 쟈, 거르문, 거르니]

(12ㄱ)은 ‘-ㅎ’ 말음 어간 /놓-/의 활용인데, 어느 표면형에서도 [놓]이라는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12ㄴ)은 이익섭(1972 : 102)에서 제시한 강릉방언의 예로 그 기저형을 /꺄-/로 설정한 경우인데, 역시 표면형에서 어간 [꺄]이라는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놓-/의 /ㅎ/과 /꺄-/의 /ㄱ/(ʔ/)은 그 자체로 표면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²⁶⁾ 따라서 [놓]과 [꺄]이라는 형태를 표면형에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다. 이진호(2007 : 149~151)에서는 기저형 설정 조건과 관련하여 기저형에 포함된 분절음들은 표면형에 나타나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다.²⁷⁾ 그런데 (12ㄱ)의 기저형 /놓-/에서 [ㅎ], (12ㄴ)의 기저형 /꺄-/의 /ㄱ/은 그 자체로 어떠한 경우에도 표면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서 분절음 실현에 대한 조건에도 위배된다. 그럼에도 기저형 /놓-/ /꺄-/을 설정하는 것은 활용형에 적용된 교체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 및 해석을 통해서이다. 당연히 이때의 해석은 표면형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기반

26) ʔ/을 기저형에 설정한 논의들은 많다. 최명옥(1982 : 101~102)에서는 표준어 ‘죽다’의 경북방언 [주 : 꼬, 주떠라, 주모]의 기저형으로 /cooʔ-/를, 그리고 최명옥(1985 : 168)에서는 ‘스’ 불규칙 용언어간의 기저 말자음으로 ʔ/을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광충구(1994 : 555)에서는 경북방언의 [흐리, 흘또]의 곡용을 설명하면서 그 기저형을 /hiʔ/로 설정하였다.

27) 기저형 설정 조건은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분절음 성격에 대한 조건이고, 둘째는 분절음 실현에 대한 조건이다. 첫째는 기저형에 포함되는 분절음은 국어에서 음운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저형에 포함된 분절음들은 표면형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음운론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추상적 실제의 인정과는 전혀 별개이다.

4. 결론

음운론은 기본적으로 교체의 유무를 찾아내고, 교체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분야이다. 교체가 있다는 것은 교체 전의 형태와 교체 후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교체 전의 형태를 기저형, 교체가 일어난 형태를 표면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체를 형식화한 것이 규칙이다. 동일한 언어 자료를 두고 우리는 교체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교체가 없다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는 기저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기저형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다시 교체의 공시성·통시성과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대신한다.

2장에서는 교체의 정의 및 교체와 규칙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교체에는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것도 있지만,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것도 있다. 규칙은 교체를 형식화한 것이므로 전자를 형식화한 규칙은 규칙적인 규칙이 될 것이고, 후자를 형식화한 규칙은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규칙이 될 것이다. 이 중에서 전자의 규칙만 규칙이라고 하고, 후자는 규칙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전자를 타당한 규칙이라고 하고 후자를 타당하지 않은 규칙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규칙이 교체를 형식화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정의에 입각한다면,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교체 역시 규칙이라는 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다만 그 규칙은 타당한 즉, 명료하고 정확하며 예측적인 규칙은 아니다.

3장에서는 공시적인 교체의 유무에 대한 해석은 결국 교체의 공시성·통시성에 대한 해석에 기반하며, 교체의 공시성·통시성에 대한 해석은 기저형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공시

적인 교체를 활용과 곡용으로 제한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단어 내부에는 공시적인 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공시적인 교체를 곡용과 활용으로 제한하는 것은 논증된 사실이 아니라 논증 이전의 선행적 결론에 지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 기저형은 표면형 중의 하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석된 실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의 유무에 대한 해석, 교체의 공시성·통시성에 대한 해석과 기저형을 설정하는 작업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단어 내부에서의 교체를 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느냐 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기저형의 형태도 달라지게 된다.

참고문헌

- 곽충구(1994), “系合 內에서의 單一化에 의한 語幹 再構造化”, 『南川 朴甲洙 先生 華甲 紀念論文集』, 태학사.
- 김 현(2012), “자유 변이의 공시론과 통시론”, 『형태론』 14-1, 형태론학회, 53-72쪽.
- 김 현(2013), “어휘부와 국어음운론”, 『국어학』 66, 국어학회, 335-360쪽.
- 김경아(2000),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태학사.
- 김경아(2001), “‘음운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태형어문연구』 9,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51-70쪽.
- 김성규(2000), “불규칙활용에 대한 몇 가지 논의”, 『형태론』 2-1, 형태론학회, 121-128쪽.
- 박창원(1991), “음운 규칙의 변화와 공시성-음라우트 현상을 중심으로”,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 展開』, 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민음사, 297-322쪽.
- 소신애(2009), “음운론적 변이와 변화의 상관성-함북 육진 방언을 중심으로”, 태학사.
- 송원용(2002), “형태론과 공시대·통시대”, 『국어국문학』 131, 국어국문학회, 165-189쪽.
- 송철의(2006), “국어 형태론 연구의 문제점”,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117-141쪽.
- 신승용(2004), “교체의 유무와 규칙의 공시성·통시성”, 『어문연구』 124, 63-90쪽.
- 신승용(2013a), “단어 형성의 공시성·통시성과 음운 현상의 공시성·통시성”,

- 신승용(2013b), “이론 내적인 형식적 타당성과 음운 현상의 실제”, 『우리말연구』 35, 우리말학회, 5-29쪽.
- 이동석(2002), “국어 음운 현상의 소멸과 변화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고려대).
- 이익섭(1972), “강릉 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회』 34, 진단학회, 97-119쪽.
- 이진호(2001), “국어 비모음화와 관련된 이론적 문제”, 『국어학』 37, 국어학회, 61-84쪽.
- 이진호(2002), “음운 교체 양상의 변화와 공시론적 기술”, 박사학위논문(서울대)
- 이진호(2006), “음운규칙의 공시성을 바라보는 시각”, 『국어학』 47, 국어학회, 39-64쪽.
- 이진호(2007), “국어의 기저형 설정 조건”,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139-160쪽.
- 전상범(2004), 『음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 국(1994), 『생성음운론의 이해』, 한신문화사.
- 정인호(2007), “소위 ‘비모음화’ 현상의 지리적 분포와 그 성격”, 『우리말글』 41, 우리말글학회, 135-162쪽.
- 최명옥(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學校出版部.
- 최명옥(1985),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 p-, s-, t- 變則動詞를 중심으로”, 『국어학』 14, 국어학회, 149-188쪽.
- 최명옥(1988), “國語 UMLAUT의 研究史的 檢討”, 『震檀學報』 65, 진단학회, 63-80쪽.
- 최명옥(2006), “경북 상주지역어의 공시음운론”, 『방언학』 4, 한국방언학회, 193-231쪽.
- 최명옥(2007), “한국어 형태론의 문제점과 그 대안”, 『西江人文論叢』 22,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52쪽.

Bloomfield, L.(1933), *Language*,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Bubenik, V.(1999), *An Introduction to study of morphology*, München; Lincom Europa.

Chomsky, N. & Halle, M.(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 Harper.

Crystal, D.(1985),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2nd)*, Blackwell.

Dressler, W.U.(1985), *Morphology : the dynamics of derivation*, Karoma Publishers. Inc.

Hockett, Charles F.(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Hooper, J.B.(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Academic Press.

Fujimura, O. ed.(1973), *Three Dimensions of Linguistic Theory*, Tokyo : TEC.

Hyman, L.M.(1970), How concrete is phonology?, *Language* 46, 58-76.

Kenstowicz, Michael J. & Charles W. Kisseberth(1979), *Generative Phonology — Description and Theory*, Academic Press.

Kiparsky, P.(1968), How abstract is Phonology?, Distributed by Indiana Universkiy

- Linguistics Club. Reprinted in Kiparsky(1982), 119-164.
- Kiparsky, P.(1973), Abstractness, opacity, and global rules, In *Three dimentsions of linguistic theory*, ed. by o. Fujimura, Tokyo : TEC, 57-86.
- Kiparsky, P.(1982), *Explanation in phonology*, Dordrecht : Foris.
- Milroy, J.(1992), *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Blackwell, [『언어변이와 변화』, 정영인 외 6인 옮김, 태학사].
- Roca, I. & Wyn Johnson(1999), *A course in Phonology*, Blackwell Publishers.
- Saussure, F.de.(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 Payot,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옮김, 1990, 민음사].
- Shane, S.A.(1974), How abstract is abstract? *Natural Phonology Parasession*, Chicago Linguistic Society, 297-317.
- Spencer, A.(1996), *Phonology*, Blackwell.
- Vennemann, T.(1971),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Paper read at annual meeting of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St. Louis, Missouri.

〈ABSTRACT〉

A Definition and Explanation of Alternation, and Underlying form

Shin Seung-yong

There are predictable alternations, and are also unpredictable alternations. The rule that formulates unpredictable alternation isn't predictable, also isn't proper, yet we cannot say that the rule isn't rule if according to definition of rule. Because a rule is defined, whatever it is, as anything that formulates alternation. That rule is of course just non-proper on the view of veridity of rule. It is merely a problem of interpretation that a relation of two different surface forms [x] and [y] are alternation or the former and latter form of change. Regardless of if The phenomenon applied in [x] and [y] is interpreted in alternation or change, it is obvious fact that some phonological phenomenon had been applied between [x] and [y]. Some people severely have restricted synchronic alternation only to conjugation and declension. But if it does so, we cannot suppose synchronic alternation into word. A word can have one more than allomorph. And there isn't any evidence that a phonological phenomena appeared into word is diachronic one. Underlying form is just a existence interpreted. So we have to decide whether any alternation is synchronic one or diachronic one according to property of phenomenon itself.

- 주제어 : 교체, 규칙, 도출 환경, 공시성, 통시성, 기저형
 alternation, rule, derived environment, synchronicity,
 diachronicity, underlying form

신 승 용

소 속 : 영남대 국어교육과

전자우편 : shinsy0901@naver.com

논문 접수 : 2014. 10. 14.

논문 심사 : 2014. 10. 25. - 11. 15.

게재 결정 : 2014. 11. 20.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 연구

—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양삼기* · 김영주**

< 차례 >

1. 서론
2. 선행 연구
3. 실험 방법
4. 실험음성학적 분석
5. 논의
6. 결론

1. 서론

한국어와 중국어의 파찰음은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조음 위치로 보면 한국어의 파찰음은 경구개음만이 있는 반면에 중국어의 파찰음은 설첨음(치조음), 설면음(경구개음) 그리고 권설음이 있다. 조음 방법으로 보면 한국어의 파찰음은 기식성의 유무와 조음 기관의

* 제1저자

** 교신저자

긴장 여부에 따라 평음, 경음, 격음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중국어의 파찰음은 기식성의 유무에 따라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나뉜다(허용, 2010; 김성란, 2011). 이로 인하여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를 학습할 때 파찰음 발음을 이해하고 산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주림걸·김영주(2013)에서는 중국 내 대학교 한국어 전공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 기간에 따른 파찰음 산출의 정확성을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은 학습 기간이 길어짐에도 정확성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발음 산출에 문제가 있는 어려운 발음으로 남아 있음을 보고하였다.²⁾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어인 중국어와의 차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그중에서 특히 학습 환경과 기간에 따른 목표어 노출을 꼽을 수 있다.³⁾ Rubin(1975)을 비롯하여 Segalowitz & Freed(2004), Collentine & Freed(2004) 그리고 Smemoe & Halsam(2013)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최근 연구들은 학습자가 목표 언어 환경에 있는지 모어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 발음 습득에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발음의 유창성과 이해가능성 등이 목표 언어 학습 환경에서 좋아짐을 발견하였다. 이는 목표 언어 환경에 있는 학습자는 모어 화자와 의사소통할 기회가 훨씬 많고 오랜 시간 동안 목표 대상 언어에 노출될 수 있지만 모어 환경에 있는 학습자는 수업 시간에만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들에 영향을 받아 실험음성학적으로 발음의 정확성을 측정하여 발음의 정확성이 학습 환경 및 학습 기간과 어떤 관계를 보이

- 1) 학습 기간이 4개월이 된 1년차 학습자, 1년 4개월이 된 2년차 학습자 그리고 2년 4개월인 3년차 학습자로 이뤄졌다.
- 2) 본고에서 말하는 정확성은 ‘모어 화자와 같은 방법으로 발화되어 발음에 오류가 없음’을 가리킨다.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가 발화한 파찰음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모어 화자가 발화한 파찰음과 실험음성학적으로 대조하였다.
- 3) Kenworthy(1987)는 학습자의 발음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어 외에 연령(age), 노출(exposure), 타고난 음성학적 능력(innate phonetic ability), 개성 및 언어 자아(identity and language ego) 그리고 좋은 발음에 대한 동기 및 관심(motivation and concern for good pronunciation) 등을 언급하였다.

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인 과찰음을 선정하여 학습자의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에 따라 어두 및 어중 위치 과찰음 발음 발달을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본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과찰음 발음에 관한 연구 그리고 학습 환경 및 학습 기간과 발음 습득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선행연구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과찰음 발음 연구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의 과찰음 체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과찰음은 그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한·중 과찰음 음운 체계

조음방치	조음위치	치조음(치음)		권설음		(치조)경구개음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평음	무기음	/ /	/z/[ʈ]	/ /	/zh/[ʈʂ]	ㅈ[ʧ]	/j/[ʈʂ]
경음						ㅉ[ʧʰ]	
격음	유기음		/c/[ʈʰ]		/ch/[ʈʂʰ]	ㅊ[ʧʰ]	/q/[ʈʂʰ]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의 과찰음 발음에 어려움이 많음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논의를 하였다. 추이진단(2002)

과 권기양(2007)은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평음을 발음하기 어렵다고 했고 주립결·김영주(2013)에는 음성학적 실험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어중 위치에서의 평음을 유성음화를 실현하지 못하고 평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한편, 김성란(2011)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경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장향실(2002), 김소아(2006)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어두 위치 /ㅅ, ㅈ, ㅊ/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를 중국어의 파찰음인 /ㄷ/로 발음하는 추세가 있다고 밝혔고 정명숙(2008)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어두 위치의 /ㅅ/을 [ㅊ]으로 발음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학봉(2009)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파찰음의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옮겨서 발음하기 때문에 파찰음을 치경음으로 발음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중국인 학습자가 특히 파찰음의 평음과 경음, 평음과 격음을 구분하여 발음하지 못 하는 오류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평음과 경음 간의 발음 오류를 다룬 연구로는 고미숙(2000)을 비롯하여 오성애(2003), 최금단(2004), 김소아(2006), 그리고 한성우(2008) 등이 있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으로 연구들은 중국어의 파찰음은 기식의 유무에 따라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나뉘고 중국인 학습자는 이를 잘 인식하지만 조음 기관의 긴장성에 따라 발음한 경음을 잘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고미숙, 2000; 오성애, 2003) 한편 김소아(2006), 레이레이·김영주(2010)와 주립결·김영주(2013)에서는 이처럼 중국인 학습자가 평음과 격음을 혼동하는데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기식성의 문제가 아니라 평음과 격음의 피치 값을 뚜렷하게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레이레이·김영주(2010)에서는 학습 기간 6개월 미만인 중국인 초보 학습자가 발음한 어두 위치 평음과 격음 사이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인 학습자가 어두 위치의 평음과 격음을 구분하여 발음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평음의 피치 값을 격음보다 훨씬 높게 발화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평음을 격음으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2.2. 학습 환경 및 학습 기간에 따른 발음 습득 연구

언어 습득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환경을 학습자가 언어를 습득할 때 처하는 물리적인 환경으로 설명하고 있다(Rubin 1975; Segalowitz & Freed 2004; Collentine & Freed 2004). Segalowitz & Freed(2004)에서는 환경을 SA(Study Aboard)와 AH(At Home)로 나누었다. 이는 기존의 SL(Second Language) 환경과 FL(Foreign Language) 환경과 같은 구분이나 기존의 방식이 언어 위주의 구분이었다면 SA와 AH의 구분은 학습자 중심의 구분이라 할 수 있다.⁴⁾

Segalowitz & Freed(2004)에서는 한 학기동안 영국인 스페인어 성인 학습자(SA 환경 22명; AH 환경 18명)를 대상으로 주로 학습 환경, 구어 생산 능력, 그리고 제2언어와 관련 있는 인지 처리 능력을 살펴보았다. SA 학습자는 이전에 스페인에서 스페인어를 배운 경험이 없었고 AH 학습자는 AH 환경에서 학교 이외에서는 목표 언어를 접할 수 없도록 통제하였다. 결론은 학습 환경이 발음 및 구어 수행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SA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더 우수한 구어 발달을 보이거나 학습 환경이 제공하는 요소와 학습자 개별 변인이 모두 다 중요하고 그 관계가 복잡하다고 하였다.

Collentine & Freed(2004)에서는 SA, AH 그리고 IM(Immersion Context) 학습 환경을 주제로 하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학습 환경이 모든 학습자의 언어 습득이나 언어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언어의 개별 영역 그리고 개인적 변인에 따른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AH 환경의 학습자는 형태·통사론적 습득에 있어서 SA 학습자에 비해 우수하였으나 어휘와 이야기 능력, 그리고 말하기 유창성에 있어서 SA 학습자가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한편, 발음에 있어서는 AH 학습자와 SA 학습자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Smemoe & Haslam(2013)에서는 학습자의 적성과 전략 사용, 그리고 학습 환경이 발음 숙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PLAB,⁵⁾ 발음 테스트

4) AH는 Study Home으로 불리기도 하며 이 경우 SH라는 약어를 사용한다.

트, 그리고 SPLS⁶⁾를 통해 성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환경(EFL 대 ESL)과 언어 적성(낮음 대 높음)이 제2언어 발음 전략 및 발음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습 환경의 차이는 학습자의 발음 습득 정도와 발음 습득 전략 사용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학습 환경이 발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모두 공존하고 있어 더 많은 데이터 축적을 통해 결과의 신뢰를 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스페인어나 영어를 목표 언어로 하고 있어 타 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 집단의 다양한 목표어 습득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발음의 정확성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언어 발달을 다룬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기간에 따른 파찰음 발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접근을 한 주립결·김영주(2013)에서는 KFL(Korean as Foreign Language)환경에서 중국인 학습자 48명을 학년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 세 집단으로 나누고, 한국인 모어화자 16명의 파찰음 발음 양상을 산출실험과 실험음성학적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학습 기간이 길어져도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이 바뀌지 않았으며 이는 학습 기간이 길어져도 중국인 학습자가 파찰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인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KSL(Korean as Second Language) 초보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혹은 학습 기간에 따른 발달을 보기는 하였어도 KFL 환경만을 고려하고 KSL 학습자의 상황을 고

5) PLAB(Pimsleur Language Learning Aptitude Battery)는 언어 적성 테스트 중의 하나이다. 이 테스트는 Pimsleur(1966)에서 처음에 나왔고 Pimsleur 외(2004)는 이를 계속 이어 사용한다.

6) Eckstein(2007)은 새로운 발음 학습 전략으로 SPLS(Strategic Pronunciation Learning Scale)를 창안하였다. Eckstein(2007)은 발음이 입력/연습(input/practice), 피드백/주목(feedback/noticing), 가설 형성(hypothesis forming) 그리고 가설 테스트(hypothesis testing)와 같은 4가지 학습 처리 단계에서 획득된다고 하였다.

려하지 않아 학습 기간과 학습 환경이 과찰음 발음 발달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규명하기에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환경 및 학습 기간에 따라 그들의 과찰음 발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 (1) KSL 초보 학습자와 숙련 학습자, 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과찰음 발음에 차이가 있는가?⁷⁾
- (2) KFL 초보 학습자와 숙련 학습자, 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과찰음 발음에 차이가 있는가?
- (3) KSL 숙련 학습자와 KFL 숙련 학습자 간의 과찰음 발음에 차이가 있는가? 고자 한다.

3. 실험 방법

3.1. 실험 참여자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 60명과 한국인 모어 화자 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중국인 학습자 중의 30명은 처음부터 중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KFL 학습자이고 나머지 30명은 처음부터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KSL 학습자이다. KFL 학습자와 KSL 학습자 집단을 다시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라 초보와 숙련 집단으로 나누었다. 초보 학습자는 한국어를 배운 지 약 6개월 미만의 학습자이고 숙련 학습자는 한국어를 배운 지 18개월 이상이 된 학습자이다.⁸⁾ 중국인 학습자는 모두 다 한국어를 학문 목적으로 전

7) 국내 한국어 학습자들은 많은 경우 표준화된 시험 성적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 내 학습자들은 표준화된 시험 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숙달도에 따른 신뢰성 있는 구분이 어려웠다.

공하고 있고 표준 중국어를 말하는 20대 이상의 여성이다.)⁹⁾ 한국인 모어 화자 15명은 모두 표준 한국어를 말하는 20대 이상의 여성이다.

3.2. 실험 자료

본고는 한국어 파찰음 /ㄷ, ㅌ, ㅉ/을 실험 대상으로 하며 후행 모음은 공명도가 낮아 실험 대상 음소인 파찰음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ㅏ/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자료는 CV 구성인 어두 위치 파찰음과 VCV 구성인 어중 위치 파찰음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실험 자료

유형	한국어
CV	/ㄷㅏ/, /ㅌㅏ/, /ㅉㅏ/
VCV	/ㅏㅌㅏ/, /ㅏㅌㅏ/, /ㅏㅉㅏ/

3.3. 실험 방법

신지영·차재은(2013)에서는 다막음과 덜막음의 조음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파찰음은 크게 폐쇄와 마찰의 국면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의 조음 방법의 특징이 결합된 것이다.

어두와 어중 위치 파찰음은 그 측정 방법이 서로 다른데 어두 위치의 경우에는 묵음 기간과 폐쇄가 일어나는 기간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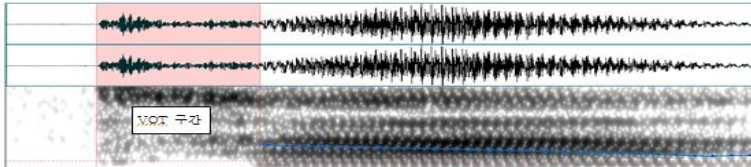
8) 본 연구에서 숙련 학습자 집단의 학습 기간을 18개월로 산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12~18개월의 교육을 통해 고급 숙달도를 획득한 후 교육원을 떠나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9)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큰 성대를 가진 남성의 경우 성대의 진동하는 속도가 느려 평균 피치 값이 약 120Hz가 된다. 반면 여성은 평균 피치 값이 약 230Hz이고 어린이는 약 300Hz로 매우 높다(양병곤, 2003 : 65). 본고는 신뢰도 있는 결과를 위해 실험 참여자를 모두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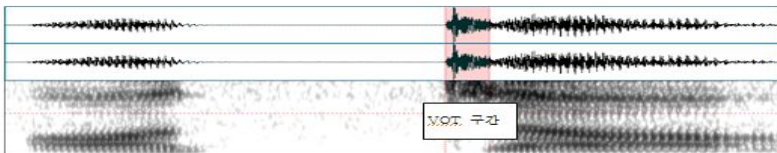
지속시간(CD : closure duration)을 제외한 성대진동시작시간(VOT : Voice Onset Time)과 후행 모음 피치 값을 측정한다(레이레이·김영주, 2010; 주립걸·김영주, 2013). 아래 <그림 1>은 어중 위치 파찰음의 폐쇄지속시간의 측정 방법의 예시로 폐쇄지속시간은 어중 위치일 때만 측정한다. 어두 위치 파찰음의 VOT는 폐쇄가 일어나는 시작점으로부터 후행 모음 진동이 시작될 때까지의 구간을 가리키며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그림 2>와 같으며 진한 부분이 어두 위치의 파찰음의 VOT를 측정하는 구간이다. 어중위치의 파찰음 VOT 구간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1> 어중 위치 파찰음의 폐쇄지속시간 예(/아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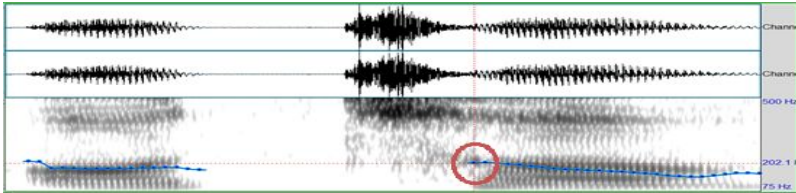
<그림 2> 어두 위치 파찰음의 VOT 측정 방법의 예(/자/)



<그림 3> 어중 위치 파찰음의 VOT 측정 방법의 예(/아짜/)

Cho, Jun & Ladefoged(2002)에 의하면 파찰음은 후행 모음의 시작점의 기본주파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발음이다. 따라서 본고는 어두와 어중 위

치의 파찰음에 대해 후행 모음 시작점의 피치 값을 측정하였다. <그림 4>에서 붉은색 동그라미 부분이 바로 후행모음시작점의 피치이다.



<그림 4> 어중 위치 파찰음의 후행모음시작점의 피치 값 예(/어처/)

3.4. 실험 절차

본 실험은 외부의 소음을 통제하기 위해 조용한 교실에서 진행하였다. 교실로 실험 참여자를 한 명씩 들어오게 한 후 실험 참여자에게 실험 자료를 일정한 속도로 읽게 하고 발화 내용을 노트북(type : aspire 4736G) 내부에 설치된 음성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실험 참여자가 발화한 음성은 44.1kHz로 표본 추출을 설치하여 참여자 각각을 녹음한 후에 컴퓨터에 바로 저장하였다. 이어서 praat를 통해 분석하고 spss로 통계처리 하였다.

4. 실험음성학적 분석

4.1. KSL 학습자 집단의 파찰음 발음

4.1.1. 어두 위치

[1] 성대진동시작시간(VOT; Voice Onset Time)

한국어 모어 화자의 평음 VOT 값과 격음 VOT 값의 차이는 미미하나

(89.53ms VS 102.93ms; $p=0.188(>0.05)$), 경음과 평음의 차이는 뚜렷하였다 (89.53ms VS 43.48ms; $p=0.000(<0.05)$). 또한 격음 VOT 값은 경음보다 훨씬 컸다(102.93ms VS 43.48ms; $p=0.000(<0.05)$). 따라서 모어 화자의 어두 위치 파찰음의 VOT 값은 격음이 가장 크고 경음이 가장 작았다.

KSL 초보 학습자가 발음한 파찰음 VOT 값은 모어 화자가 발음한 평음과 격음 사이의 VOT 값의 차이가 미미한 것과 달리 격음의 VOT 값이 평음보다 많이 컸다(112.12ms VS 81.04ms; $p=0.000(<0.05)$). 한편, 숙련 학습자가 발음한 평음의 VOT 값은 모어 화자와 같이 경음보다 더 크고 격음보다 더 작았다. 그렇지만 숙련 학습자는 모어 화자와는 달리 평음과 격음 사이의 VOT 값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72.61ms VS 102.88ms; $p=0.016(<0.05)$). 이는 초보 학습자 집단과 같은 결과이다.

<표 3> KSL 학습 집단의 어두 위치 파찰음 VOT 평균값(ms)

	평음 VOT	SD	격음 VOT	SD	경음 VOT	SD
모어 화자	89.53	28.87	102.93	25.41	43.48	11.37
KSL 초보	81.04	32.44	112.12	27.93	48.54	13.26
KSL 숙련	72.61	36.69	102.88	27.01	39.89	12.45

<표 4> KSL 학습 집단의 어두 위치 파찰음 VOT 유형별 t-검정 결과

	모어 화자	KSL 초보	KSL 숙련
평음-경음	$p=0.000(<0.05)$	$p=0.009(<0.05)$	$p=0.003(<0.05)$
경음-격음	$p=0.000(<0.05)$	$p=0.001(<0.05)$	$p=0.000(<0.05)$
평음-격음	$p=0.188(>0.05)$	$p=0.000(<0.05)$	$p=0.016(<0.05)$

[2]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Cho 외(2002)는 후행 모음 시작점의 피치 값은 파찰음의 평음, 경음, 격음을 구별하는 중요한 지각 단서라고 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발화한 격

음은 후행 모음 피치가 가장 크고 평음과의 차이도 크지만(267.37Hz VS 223.21Hz; $p=0.013(<0.05)$) 경음과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다(267.37Hz VS 255.57Hz; $p=0.377(>0.05)$). 또한 평음의 후행 모음 높이는 가장 낮고 경음과의 차이가 뚜렷하였다(223.21Hz VS 255.57Hz; $p=0.000(<0.05)$).

KSL 초보와 숙련 학습자는 평음, 경음 그리고 격음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KSL 초보 학습자가 발음한 경음(246.20Hz)의 피치 값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평음과 격음의 피치 값은 비슷하였다(243.32Hz VS 242.69Hz). t -검정 결과에 따르면 KSL 초보 학습자의 평음과 경음[$p=0.755(>0.05)$], 경음과 격음[$p=0.698(>0.05)$] 그리고 평음과 격음[$p=0.949(>0.05)$]의 비교 결과는 모두 다 유의미하지 않았다. KSL 숙련 학습자 집단에서는 평음(241.17Hz)의 후행 모음 피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경음과 격음의 피치(267.46Hz VS 263.12Hz)가 거의 같아 초보 학습자와 다르게 보이나 t -검정 결과 초보 학습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5> KSL 학습자 집단의 어두 위치 파찰음 피치 평균값(Hz)

	평음 pitch	SD	격음 pitch	SD	경음 pitch	SD
모어 화자	223.21	26.23	267.37	32.50	255.57	39.13
KSL 초보	243.32	27.07	242.69	26.15	246.20	22.78
KSL 숙련	241.17	39.22	267.46	56.66	263.12	45.85

<표 6> KSL 학습자 집단의 어두 위치 파찰음 피치 유형별 t -검정 결과

	모어 화자	KSL 초보	KSL 숙련
평음-경음	$p=0.013(<0.05)$	$p=0.755(>0.05)$	$p=0.170(>0.05)$
경음-격음	$p=0.377(>0.05)$	$p=0.698(>0.05)$	$p=0.820(>0.05)$
평음-격음	$p=0.000(<0.05)$	$p=0.949(>0.05)$	$p=0.151(>0.05)$

4.1.2. 어중 위치

[1] 폐쇄지속시간(CD; closure duration)

한국어 모어 화자의 CD 값은 경음(169.10ms)이 가장 크고 평음(41.15ms)이 가장 작았다. 즉, 모어 화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은 CD 값에 의해 경음, 격음 그리고 평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t*-검정 결과 평음-경음 [$p=0.000 (<0.05)$], 경음-격음 [$p=0.001 (<0.05)$], 평음-격음 [$p=0.000 (<0.05)$]의 CD 값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KSL 초보 학습자 집단의 CD 값은 경음(221.96ms)이 가장 크고 평음(112.06ms)이 가장 작았으나 격음의 CD 값(198.43ms)은 경음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 모어 화자와 비슷하였다. *t*-검정 결과에 따르면 KSL 초보 학습자가 발음한 어중 위치 평음-경음 [$p=0.038 (<0.05)$] 차이만 유의미하고 경음-격음 [$p=0.756 (>0.05)$]과 평음-격음 [$p=0.184 (>0.05)$]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KSL 숙련 학습자 집단의 CD 값은 경음(182.78ms)이 가장 크고 평음과 격음의 CD 값은 매우 비슷하였다(121.47ms VS 120.36). *t*-검정 결과, KSL 숙련 학습자의 평음-경음 [$p=0.050 (=0.05)$] 그리고 경음-격음 [$p=0.036 (<0.05)$]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모어 화자와 유사한 반면 평음-격음 [$p=0.964 (>0.05)$]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KS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폐쇄지속시간 평균값(ms)

	평음 CD	SD	격음 CD	SD	경음 CD	SD
모어 화자	41.15	6.46	131.37	21.70	169.10	32.69
KSL 초보	112.06	82.77	198.43	231.22	221.96	176.50
KSL 숙련	121.47	71.34	120.36	60.64	182.78	91.62

〈표 8〉 KS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폐쇄지속시간 유형별 *t*-검정 결과

	모어 화자	KSL 초보	KSL 숙련
평음-경음	$p = 0.000(<0.05)$	$p = 0.038(<0.05)$	$p = 0.050(=0.05)$
경음-격음	$p = 0.001(<0.05)$	$p = 0.756(>0.05)$	$p = 0.036(<0.05)$
평음-격음	$p = 0.000(<0.05)$	$p = 0.184(>0.05)$	$p = 0.964(>0.05)$

[2] 성대진동시작시간(VOT; Voice Onset Time)

Jun(1998)에서는 어중 위치의 평음이 어두 위치의 평음보다 VOT 값이 작을수록 유성음화가 더욱 뚜렷하다고 제시하였다. 본고의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어중 위치 평음 VOT 값은 어두 위치 평음에 비해 두 배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43.30ms VS 89.53ms). 이 수치는 모어 화자가 어중 위치 평음을 발음할 때 완벽한 유성음화를 실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어 화자의 평음과 경음의 VOT 값은 미세한 차이를 갖고 있었다(43.30ms VS 40.79ms; $p = 0.529(>0.05)$). 또한 격음의 VOT 값은 평음과 경음에 비해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95.22ms VS 43.30ms; 95.22ms VS 40.79ms). *t*-검정 결과에서도 격음의 VOT 값은 경음 [$p = 0.000(<0.05)$] 또는 평음 [$p = 0.000(<0.05)$]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KSL 초보 학습자 집단의 어중 위치 평음의 VOT 값은 어두 위치 평음보다 약간 작게 나타나(71.88ms VS 81.04ms) 어중 위치 평음의 유성음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경음-격음 [$p = 0.000(<0.05)$] 그리고 평음-격음 [$p = 0.000(<0.05)$]의 VOT 값 차이는 유의미한 반면 평음과 경음의 VOT 값 차이(71.88ms VS 58.14ms; $p = 0.202(>0.05)$)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KSL 숙련 학습자 집단의 어중 위치 평음의 VOT 값이 어두 위치 평음보다 작게 나타나(56.96ms VS 72.61ms) 초보 학습자보다 평음의 유성음화가 상대적으로 더 잘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모어 화자와 같은 유성음화를 실현하지는 못 했다. *t*-검정 결과 숙련 학습자 집단의 평음-경음 [$p = 0.002(<0.05)$], 경음-격음 [$p = 0.000(<0.05)$] 그리고 평음-격음 [$p = 0.000(<0.05)$]의

VOT 값의 비교 결과가 모두 다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9> KS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VOT 평균값(ms)

	평음 VOT	SD	격음 VOT	SD	경음 VOT	SD
모어 화자	43.30	10.32	95.22	17.30	40.79	11.31
KSL 초보	71.88	27.84	117.76	28.43	58.14	29.67
KSL 숙련	56.96	22.16	107.85	20.17	36.19	9.61

<표 10> KS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VOT 유형별 *t*-검정 결과

	모어 화자	KSL 초보	KSL 숙련
평음-경음	$p = 0.529(>0.05)$	$p = 0.202(>0.05)$	$p = 0.002(<0.05)$
경음-격음	$p = 0.000(<0.05)$	$p = 0.000(<0.05)$	$p = 0.000(<0.05)$
평음-격음	$p = 0.000(<0.05)$	$p = 0.000(<0.05)$	$p = 0.000(<0.05)$

[3]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경우 어중 위치 격음(244.12Hz)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이 가장 크고 평음(219.99Hz)이 가장 작았다. 평음과 경음의 후행 모음 피치 값(225.49Hz)은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p = 0.554(>0.05)$). *t*-검정 결과 격음-경음 피치 값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p = 0.056(>0.05)$) 반면, 평음-격음 후행 모음 피치 값의 비교 결과는 유의미하였다($p = 0.011(<0.05)$).

KSL 초보 학습자 집단과 숙련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어중 위치 평음, 경음과 격음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초보 학습자의 평음, 경음과 격음의 음높이가 거의 유사하였고(236.65Hz VS 235.29Hz VS 235.46Hz) *t*-검정 결과에서도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평음-경음 [$p = 0.889(>0.05)$], 격음-경음 [$p = 0.653(>0.05)$], 평음-격음 [$p = 0.763(>0.05)$]).

KSL 숙련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격음의 후행 모음 피치 값(253.29Hz)이 평음(249.06Hz)과 경음(245.65Hz)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t*-검정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KSL 학습자는 학습 기간과 관계없이 어중 위치 파찰음을 비슷한 음높이로 실현하였다.

<표 11> KS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피치 평균값(Hz)

	평음pitch	SD	격음pitch	SD	경음pitch	SD
모어화자	219.99	23.55	244.12	24.92	225.49	26.61
KSL초보	236.65	22.76	235.29	24.34	235.46	23.86
KSL숙련	249.06	35.36	253.13	37.98	245.65	51.22

<표 12> KS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피치 값 t -검정 결과

	모어 화자	KSL 초보	KSL 숙련
평음-경음	$p = 0.554(>0.05)$	$p = 0.889(>0.05)$	$p = 0.834(>0.05)$
경음-격음	$p = 0.056(>0.05)$	$p = 0.985(>0.05)$	$p = 0.653(>0.05)$
평음-격음	$p = 0.011(<0.05)$	$p = 0.875(>0.05)$	$p = 0.763(>0.05)$

4.2. KFL 초보 학습자와 숙련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

4.2.1. 어두 위치

[1] 성대진동시작시간(VOT; Voice Onset Time)

KFL 초보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어두 위치 격음(109.95ms)의 VOT 값이 가장 크고 경음(36.47ms)의 VOT 값이 가장 작았다. 그러나 평음과 경음 사이의 VOT 값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반면(43.53ms VS 36.47ms; $p = 0.066 (>0.05)$) 평음-격음 [$p = 0.000 (<0.05)$]의 VOT 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KFL 초보 학습자 집단은 어두 위치 평음과 격음을 지나치게 차이를 두어 발음한 결과 경음과 평음 간에 차이를 두는 데 실패하였다. 한편, KFL 숙련 학습자 역시 평음과 격음을 지나치게 구분하여 발음하면서 경음과의 VOT로

인한 구분에는 실패하였으나 그 수치가 조금은 상승하였다. KFL 초보와 숙련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경음-격음 또한 평음-격음의 VOT 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여 모어 화자의 결과와 달랐다.

<표 13> KFL 학습자의 어두 위치 파찰음 VOT 평균값(ms)

	평음 VOT	SD	격음 VOT	SD	경음 VOT	SD
모어 화자	89.53	28.87	102.93	25.41	43.48	11.37
KFL 초보	43.53	10.93	109.95	20.93	36.47	9.21
KFL 숙련	54.78	23.17	117.39	24.33	45.94	20.68

<표 14> KFL 학습자의 어두 위치 파찰음 VOT *t*-검정 결과

	모어 화자	KFL 초보	KFL 숙련
평음-경음	$p = 0.000(<0.05)$	$p = 0.066(>0.05)$	$p = 0.280(>0.05)$
경음-격음	$p = 0.000(<0.05)$	$p = 0.000(<0.05)$	$p = 0.000(<0.05)$
평음-격음	$p = 0.188(>0.05)$	$p = 0.000(<0.05)$	$p = 0.000(<0.05)$

[2]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KFL 초보 학습자 집단의 경음(263.09Hz)의 피치 값이 평음과 격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평음과 격음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은 거의 유사하였다(255.83Hz VS 252.09Hz). 그러나 *t*-검정 결과에 따르면 평음-경음 [$p = 0.641(>0.05)$], 경음-격음 [$p = 0.258(>0.05)$] 그리고 평음-격음 [$p = 0.799(>0.05)$]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KFL 숙련 학습자 집단의 경우는 경음(260.72Hz)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어서 평음(252.65Hz)과 격음(247.93Hz)의 순으로 나타났으나(경음>평음>격음) *t*-검정 결과 그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p = 0.451(>0.05)$; $p = 0.256(>0.05)$; $p = 0.660(>0.05)$].

〈표 15〉 KFL 학습자의 어두 위치 파찰음 피치 평균값(Hz)

	평음 pitch	SD	격음 pitch	SD	경음 pitch	SD
모어 화자	223.21	26.23	267.37	32.50	255.57	39.13
KFL 초보	255.83	51.86	252.09	22.05	263.09	29.61
KFL 숙련	252.65	27.74	247.93	30.38	260.72	29.98

〈표 16〉 KFL 학습자의 어두 위치 파찰음 피치 값 *t*-검정 결과

	모어 화자	KFL 초보	KFL 숙련
평음-경음	$p = 0.013(<0.05)$	$p = 0.641(>0.05)$	$p = 0.451(>0.05)$
경음-격음	$p = 0.377(>0.05)$	$p = 0.258(>0.05)$	$p = 0.256(>0.05)$
평음-격음	$p = 0.000(<0.05)$	$p = 0.799(>0.05)$	$p = 0.660(>0.05)$

4.2.2. 어중 위치

[1] 폐쇄지속시간(CD; closure duration)

KFL 초보 학습자가 발화한 어중 위치 경음(137.42ms)의 CD 값이 가장 길고 이어서 격음(114.87ms)과 평음(77.40ms)의 순으로 나타나 모어 화자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모어 화자와 달리 초보 학습자는 평음-경음($p = 0.000(<0.05)$) 또한 평음-격음($p = 0.023(<0.05)$)의 비교 결과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KFL 숙련 학습자의 경우 경음(60.11ms)의 CD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났고 평음과 격음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74.85ms VS 73.90ms). 전체적으로 숙련 학습자의 파찰음 CD 값은 초보 학습자에 비해 모두 작게 나타났다. *t*-검정의 결과에 따르면 평음-경음[$p = 0.001(<0.05)$] 그리고 경음-격음[$p = 0.001(<0.05)$]의 CD 값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17> KF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폐쇄지속시간 평균값(ms)

	평음 CD	SD	격음 CD	SD	경음 CD	SD
모어 화자	41.15	6.46	131.37	21.70	169.10	32.69
KFL 초보	77.40	34.90	114.87	49.17	137.42	44.91
KFL 숙련	74.85	28.35	73.90	27.90	60.11	43.05

<표 18> KF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폐쇄지속시간 *t*-검정 결과

	모어 화자	KFL 초보	KFL 숙련
평음-경음	$p = 0.000(<0.05)$	$p = 0.000(<0.05)$	$p = 0.001(<0.05)$
경음-격음	$p = 0.001(<0.05)$	$p = 0.200(>0.05)$	$p = 0.001(<0.05)$
평음-격음	$p = 0.000(<0.05)$	$p = 0.023(<0.05)$	$p = 0.927(>0.05)$

[2] 성대진동시작시간(VOT; Voice Onset Time)

KFL 초보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어중 위치 파찰음에서 격음의 VOT 값이 가장 크고 경음이 가장 작았다(97.12ms VS 40.79ms). 그러나 어중 위치 평음의 VOT 값이 어두 위치 평음의 VOT 값보다 커(49.94ms VS 43.53ms) 위치에 따라 평음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모어 화자의 결과와 많이 달랐다(89.53ms VS 43.30). 이는 KFL 초보 학습자가 어중 위치에 관계없이 평음을 유성음화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t*-검정에 의하면 평음-경음, 격음-경음과 평음-격음의 VOT 값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p=0.004(<0.05)$; $p=0.000(<0.05)$; $p=0.000(<0.05)$] 평음의 유음화로 평음과 경음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모어 화자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숙련 학습자 집단은 초보 학습자 집단과 비슷하게 격음(108.74ms)의 VOT 값이 가장 크고 경음(48.72ms)이 가장 작았다. 또한 숙련 학습자의 어중 위치 평음과 어두 위치 평음의 VOT 값이 비슷하게 나타났다(52.37ms VS 54.78ms). *t*-검정 결과에 의하면 숙련 학습자는 경음-격음 [$p=0.000(<0.05)$]과 평음-격음 [$p=0.000(<0.05)$]의 VOT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초보 학습자 집단보다 숙련 학습자 집단이 어중 위치 파찰음에서 모어 화자에 가

깝게 발음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숙련 학습자 집단의 파찰음 VOT 값은 전반적으로 모어 화자 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19> KF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성대진동시작시간 평균값(ms)

	평음 VOT	SD	격음 VOT	SD	경음 VOT	SD
모어 화자	43.30	10.32	95.22	17.30	40.79	11.31
KFL 초보	49.94	12.50	97.12	24.28	36.70	10.49
KFL 숙련	52.37	22.39	108.74	26.24	48.72	13.55

<표 20> KF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성대진동시작시간 *t*-검정 결과

	모어 화자	KFL 초보	KFL 숙련
평음-경음	$p = 0.529(>0.05)$	$p = 0.004(<0.05)$	$p = 0.593(>0.05)$
경음-격음	$p = 0.000(<0.05)$	$p = 0.000(<0.05)$	$p = 0.000(<0.05)$
평음-격음	$p = 0.000(<0.05)$	$p = 0.000(<0.05)$	$p = 0.000(<0.05)$

[3]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KFL 초보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평음, 경음 그리고 격음의 후행 모음의 피치 값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256.32Hz VS 256.64Hz VS 256.47Hz) *t*-검정 결과 평음-경음, 경음-격음과 평음-격음의 후행 모음 피치 값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 = 0.985(>0.05)$; $p = 0.982(>0.05)$; $p = 0.967(>0.05)$). 한편, 숙련 학습자 집단의 경우 평음(248.60Hz)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이 가장 크고 격음(240.38Hz)의 피치 값이 가장 작으나 *t*-검정의 결과에서 후행 모음 피치 값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742(>0.05)$; $p = 0.658(>0.05)$; $p = 0.449(>0.05)$). 결과적으로 KFL 숙련 학습자와 초보 학습자 집단 모두 평음, 경음 그리고 격음을 혼동하여 발음함을 볼 수 있었다.

<표 21> KF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평균값(Hz)

	평음 pitch	SD	격음 pitch	SD	경음 pitch	SD
모어 화자	219.99	23.55	244.12	24.92	225.49	26.61
KFL 초보	256.32	22.92	256.64	19.99	256.47	20.94
KFL 숙련	248.60	27.82	240.38	30.79	245.21	28.08

<표 22> KF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t*-검정 결과

	모어 화자	KFL 초보	KFL 숙련
평음-경음	$p = 0.554(>0.05)$	$p = 0.985(>0.05)$	$p = 0.742(>0.05)$
경음-격음	$p = 0.056(>0.05)$	$p = 0.982(>0.05)$	$p = 0.658(>0.05)$
평음-격음	$p = 0.011(<0.05)$	$p = 0.967(>0.05)$	$p = 0.449(>0.05)$

4.3. KSL 숙련 학습자와 KFL 숙련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

4.3.1. 어두 위치

[1] 성대진동시작시간(VOT; Voice Onset Time)

KSL 숙련 학습자 집단이 발음한 어두 위치 평음의 VOT 값은 KFL 숙련 학습자에 비해 크게 나타난 반면에(72.61ms VS 54.78ms) 경음과 격음은 KFL 학습자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102.88ms VS 117.39ms; 39.89ms VS 45.94ms). *t*-검정 결과 KSL 숙련과 KFL 숙련 학습자의 어두 평음, 격음 그리고 격음의 비교 결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p = 0.123(>0.05)$; $p = 0.134(>0.05)$; $p = 0.340(>0.05)$]. 즉, 두 집단이 발음한 어두 위치 파찰음의 VOT 값은 차이가 없었다.

<표 23> 두 숙련 학습자 집단의 어두 위치 VOT 평균값(ms)

	평음 VOT	SD	격음 VOT	SD	경음 VOT	SD
모어 화자	89.53	28.87	102.93	25.41	43.48	11.37

KSL 숙련	72.61	36.69	102.88	27.01	39.89	12.45
KFL 숙련	54.78	23.17	117.39	24.33	45.94	20.68

[2]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KSL 숙련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평음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은 KFL 숙련 학습자 집단에 비하여 더 작게 나타났다(241.17 VS 252.65Hz). 반대로 KSL 학습자의 어두 격음의 음높이는 KFL 학습자보다 더 높았다(267.46Hz VS 247.93Hz). 그러나 *t*-검정 결과, 두 집단 간 경음, 평음, 그리고 격음의 비교 결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p=0.363(>0.05)$; $p=0.249(>0.05)$; $p=0.866(>0.05)$].

<표 24> 두 숙련 학습자 집단의 어두 위치 피치 평균값(Hz)

	평음 pitch	SD	격음 pitch	SD	경음 pitch	SD
모어 화자	223.21	26.23	267.37	32.50	255.57	39.13
KSL 숙련	241.17	39.22	267.46	56.66	263.12	45.85
KFL 숙련	252.65	27.74	247.93	30.38	260.72	29.98

4.3.2. 어중 위치

[1] 폐쇄지속시간(CD; closure duration)

KSL 숙련 학습자 집단의 어중 위치 평음, 격음 그리고 경음의 CD 값이 모두 KFL 숙련 학습자 집단에 비해 많이 컸다(121.47ms VS 74.85ms; 120.36ms VS 73.90ms; 182.78ms VS 60.11ms). *t*-검정 결과에 따르면 두 집단 간 어중 위치 평음, 경음과 격음의 CD 값의 차이는 모두 다 유의미하였다 [$p=0.026(<0.05)$; $p=0.012(<0.05)$; $p=0.027(<0.05)$].

<표 25> 두 숙련 학습자 집단의 어중 위치 폐쇄지속시간 평균값(ms)

	평음 CD	SD	격음 CD	SD	경음 CD	SD
모어 화자	41.15	6.46	131.37	21.70	169.10	32.69
KSL 숙련	121.47	71.34	120.36	60.64	182.78	91.62
KFL 숙련	74.85	28.35	73.90	27.90	60.11	43.05

[2] 성대진동시작시간(VOT; Voice Onset Time)

KSL 숙련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어중 위치 평음의 VOT 값은 KFL 숙련 학습자 집단보다 약간 크게 나타난 반면에(56.96ms VS 52.37ms) 경음의 VOT 값은 KFL 집단보다 작게 나타났다(36.19ms VS 48.72ms). 한편, 격음의 VOT 값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107.85ms VS 108.74ms). *t*-검정 결과 KSL 집단과 KFL 집단이 발화한 경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p=0.007(<0.05)$] 평음, 격음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p=0.577(>0.05)$; $p=0.918(>0.05)$].

<표 26> 두 숙련 학습자 집단의 어중 위치 VOT

	평음 VOT	SD	격음 VOT	SD	경음 VOT	SD
모어 화자	43.30	10.32	95.22	17.30	40.79	11.31
KSL 숙련	56.96	22.16	107.85	20.17	36.19	9.61
KFL 숙련	52.37	22.39	108.74	26.24	48.72	13.55

[3]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KSL과 KFL 숙련 학습자 집단 간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은 차이가 거의 없고 매우 비슷하였다. KSL 숙련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평음과 경음의 후행 모음 피치는 KFL 학습자와 거의 일치하였고(249.06Hz VS 248.60Hz; 245.65Hz VS 245.21Hz) 어중 격음의 음높이에서 약간 높았다(253.13Hz VS 240.38Hz). *t*-검정 결과 두 집단 간의 어중 위치 과찰음의 피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p=0.977(>0.05)$; $p=0.321(>0.05)$; $p=0.969(>0.05)$].

<표 27> 두 숙련 학습자 집단의 어중 위치 피치 평균값(Hz)

	평음 pitch	SD	격음 pitch	SD	경음 pitch	SD
모어 화자	219.99	23.55	244.12	24.92	225.49	26.61
KSL 숙련	249.06	35.36	253.13	37.98	245.65	51.22
KFL 숙련	248.60	27.82	240.38	30.79	245.21	28.08

5. 논의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에 따른 과찰음 발음 양상을 살펴보고 교육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 대한 논의를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1은 KSL 초보 학습자 집단과 숙련 학습자 집단, 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의 과찰음 발음에 대한 것이다. 분석 결과, KSL 초보와 숙련 학습자의 과찰음 발음은 서로 비슷한 반면 모어 화자의 발음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어두 과찰음의 후행 모음 피치 차이를 통해 한국어의 평음, 경음과 격음을 구별하여 발음하는 것과 달리 KSL 초보와 숙련 학습자는 어두 위치 평음, 격음, 경음의 피치 값이 거의 일치하였다. KSL 환경에 있는 학습자는 학습 기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두 위치 평음-경음과 평음-격음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한편, 어중 위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KSL 학습자가 발화한 어중 위치 평음의 유성음화와 후행 모음 시작점의 피치 값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달리 KSL 초보와 숙련 학습자 집단 모두 어중 위치 평음의 유성음화

를 뚜렷하게 실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음, 경음 그리고 격음을 혼동하여 발음했다. 이상의 결과는 학습 기간 6개월 미만의 중국인 KSL 학습자의 과찰음을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어두 위치와 어중 위치를 망라하고 평과찰음, 경과찰음, 격과찰음을 구분하여 발음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레이레이·김영주(2011)와 같은 맥락이며 이에 더하여 학습기간의 증가는 과찰음 발음의 정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연구 질문 2는 KFL 초보 학습자 집단과 숙련 학습자 집단, 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의 과찰음 발음에 대한 것이다. KFL 환경에 있는 학습자의 과찰음 발음 양상은 KSL 학습자와 비슷한 반면 모어 화자와는 차이가 있었다. KFL 초보와 숙련 학습자는 어두 위치에서 평음, 격음, 경음을 발음할 때 서로 비슷한 음높이를 가지고 세 가지 음을 혼동하여 발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어중 과찰음의 경우 KFL 초보와 숙련 학습자의 어중 평음의 VOT 값은 모어 화자의 어중 평음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각각의 어두 위치 평음의 VOT 값과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어중 평음의 유성음화 실현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두 평음의 VOT 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Jun(1994)에 의하면 본 연구의 KFL 초보 및 숙련 학습자 집단은 어중과 어두에서 평음의 VOT 값이 모어화자의 어중 위치 평음의 VOT 값과 비슷해 본 연구의 KFL 학습자 집단은 어두와 어중 위치 모두에서 유성음화를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FL 중국인 학습자들은 학습 기간과 관계없이 평음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격음과 다르게 발음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 평음을 위치에 관계없이 유성음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KFL 학습자의 학습 기간별 과찰음 발음 발달을 연구한 주림걸·김영주(2013)과는 다른 결과이다. 주림걸·김영주(2013)에서는 학습기간과 관계없이 평음이 어두와 어중에서 모두 비슷한 값으로 나타났다(1년차 : 102.27ms VS 90.16ms, 2년차 : 59.14ms VS 69.97ms, 3년차 :

61.2ms VS 63.03ms). 이외에도 음높이를 살펴보면 KFL 학습자 집단은 어중 위치 평음, 격음 그리고 경음을 서로 비슷한 음높이를 가지고 발음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질문 3은 KSL 숙련 학습자와 KFL 숙련 학습자 간의 과찰음 발음에 차이에 대해서이다. 어두 위치 과찰음 발음에 있어서 KSL과 KFL 숙련 학습자 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어중 과찰음의 경우, 어중 위치 경음의 CD 값을 제외하면 KSL 학습자와 KFL 학습자가 발음하는 과찰음의 VOT 값과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값은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KSL 숙련 학습자와 KFL 숙련 학습자의 어중 위치 과찰음 양상이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는 KSL 환경과 KFL 환경이라는 학습 환경이 중국인 학습자의 과찰음 발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론은 외부적인 학습 환경이 학습자의 발음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 요인이 되지 못함을 언급한 Collentine & Freed(2004) 그리고 Smemoe & Haslam(2013)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을 달리 한 본 연구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어두 위치에서 과찰음을 구분하여 발음하지 못 하였고 어중 위치만의 평음의 유성음화를 실현하는 데 실패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목표어 사용 지역으로의 학습 환경의 변화와 학습 기간의 길이가 중국인 학습자의 과찰음 발음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Kenworthy(1987)에서 학습자의 목표 대상 언어에 노출된 환경과 시간의 길이보다 노출의 질과 강도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떤 발음은 학습 환경 변화 및 학습 기간의 확대만으로 향상을 보이지 않음을 입증하며 교육 현장에서 강조하여 교육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한국어 교육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발음은 어느 정도 학습자의 개인적인 학습 영역으로 간주되어 초급을 벗어나서는 교실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현 제2언어 교육의 추세에 따른 점도 있으나 발음 교육 방법의 부재, 발음 전문 교재의 부재, 발음 학습 전략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원인이기도 하다. 교육 자료와 방법의 부족은 관련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지고 공유할 결과물이 산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6. 결론

본고는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이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파찰음 발음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에 따라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을 통해 파찰음 발음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중국인 KSL 학습자와 KFL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에서 SL과 FL이라는 학습 환경과 6개월 미만과 18개월 이상이라는 학습 기간의 차이는 파찰음 발음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발음 향상을 위해 목표어 지역으로의 이주, 학습 기간의 양이 주는 역할이 제한적이며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발음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말고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이 목표어 발음의 정확성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에 한국과 중국이라는 학습 환경 그리고 학습 기간의 길이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특정 지역의 중국인을 표본 집단으로 하였고 파찰음만을 연구하여 결론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학습 기간의 차이를 더 크게 해서(예를 들어 6개월 미만 학습자 집단과 3년 혹은 그 이상의 학습 기간의 학습자 집단) 조사하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도 본 연구

가 보이는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와 물리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음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 및 태도, 전략 사용, 목표어 접촉 정도 등의 개별적 변인과 함께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이 발음 향상에 주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제2언어 학습자의 발음 습득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란(2011), “한국어와 중국어 자음의 음성학적 대조교찰”, 『인문논총』 21권,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4-58쪽.
- 김소야(2006), “한국어 평음/경음/기음에 대한 중국인의 지각적 범주 연구”, 『이중언어학』 32권, 이중언어학회, 57-79쪽.
- 고미숙(2000), “한·중 분절음소와 초분절음소와 관계 연구”, 『중국언어연구』 12권, 한국중국언어연구, 235-256쪽.
- 권기양(2007), “중국어권 KFL 학습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발음교육 방안”, 『코기토』 61권, 7-30쪽.
- 레이레이·김영주(2011), “중국인 화자가 발화한 한국어 파찰음의 음향음성적 특성”,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6, 한국음운학회, 383~400쪽.
- 박진원(2001), “한중 여성화자의 한국어 발음의 실험음성학적 대조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병곤(2003), 『프라트(Praat)를 이용한 음성분석의 이론과 실제』, 만수출판사.
- 이중진(2010), “청취와 음성 산출 실험을 통한 몽골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오류 연구”, 『한국어교육』 21권 3호, 189-207쪽.
- 오성애(200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61-567쪽.
- 여학봉(2009), “한·중 자음 대조를 통한 중국인 한국어 자음 발음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향실(2002), “중국어 모국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 시 나타나는 발음상의 오류와 그 교육 방안”, 『한국어학』 15, 한국어학회, 211-227쪽.
- 정명숙(200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전략적 발음 교육”, 『한국어학』 38, 한국어학

회, 345-369쪽.

주림걸·김영주(2013), “중국인 KFL 학습자의 학습 기간에 따른 과찰음 발음 연구”, 『한말연구』 32, 한말연구학회 339~358쪽.

추이진단(2002), “중국어권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교육”,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309-345쪽.

최금단(2004),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 분석을 통한 중국어 장애음에 한글표음 문제 재검토”, 『중국언어연구』 18권, 321-339쪽.

신지영·차재은(201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한성우(2008),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우리말 글』 44, 우리말글학회, 165-194쪽.

한재영(2003), 『한국어 발음교육』, HOLLYM, 1-2쪽.

허 용(2010), “자음 체계 대조 연구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언어과학연구』 55, 자음 체계 대조 연구, 305-332쪽.

Cho, Taehong, Sun-Ah Jun & Peter Ladefoged(2002), Acoustic and aerodynamic correlates of Korean stops and fricatives. *Journal of Phonetics* 30 : 193-228.

Collentine, J. & B. F. Freed(2004), Learning context and its effect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troduc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6, 153-171.

Jun, S. A. (1998), The Accentual Phrase in the Korean Prosodic Hierarchy, *Phonology* 15, 189-226.

Kenworthy, J. (1987), *Teaching English pronunciation*, London : Longman.

Rubin J.(1975), What the 'good' language learner can teach us. *TESOL Quarterly* 9, 41-51.

Segalowitz, N. & B. F. Freed(2004), Context contact, and cognition in oral fluency acquisition : learning Spanish in at home and study abroad context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6, 173-199.

Smemoe, W. B. & N Haslam(2013), The Effect of Language Learning Aptitude, Strategy Use and Learning Context on L2 Pronunciation Learning, *Applied Linguistics* 34, 435-456.

〈ABSTRACT〉

A Study on the Affricate Sound of Chinese Korean Learners in Terms of Learning Contexts and Learning Duration - Based on the Experimental Phonetic Analysis -

Yang Sam-gi · Kim Young-joo

This study investigated affricate pronunciation produced by Chinese-speaking Korean learners in terms of learning contexts(SL vs FL) and learning period(less than 6 months vs. more than 18 months) through experimental phonetic analysis. The study employed 60 Chinese learners among whom 30 students started learning Korean in Korea and the other 30 students in China., and 30 Korean native speakers. The learners in two groups are divided by two groups again in terms of learning period. The affricate sounds are analyzed by voice onset time, closure duration, and pitch. As for results, the study found out that (i) all Chinese learners showed difficulties in accurate pronunciation of affricate sounds (ii)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ginner learners and expert learners in both KSL and KFL learning contexts, and finally (iii)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KFL and KSL expert learners. Consequently, this study supported previous studies that claimed no influence of learning contexts on pronunciation development.

- **주제어** : 학습 환경, 학습 기간, 파찰음, 성대진동시작시간, 폐쇄지속시간, 피치
Learning Contexts, Learning Duration, Affricate, Voice Onset Time, Closure Duration, Pitch

양 삼 기(제1저자)

소 속 :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전자우편 : senqiyang@yahoo.com

김 영 주(교신저자)

소 속 :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전자우편 : yikims@khu.ac.kr

논문 접수 : 2014. 10. 15.

논문 심사 : 2014. 10. 25.- 11. 15.

게재 결정 : 2014. 11. 20.

국어교육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일 고찰

이 남 호

— < 차 례 > —

1. 서론 : 모국어교육
2. 언어의 원리
3. 언어의 실체
4. 결론 : 국어교육의 정체성

1. 서론 : 모국어교육

한국에서의 국어교육이란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한국어교육이라는 용어로 따로 지칭된다.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은 공통의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어교육은 한국어가 제1 언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비교적 명료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국어교육은 이미 국어를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가르칠 것인가 하는 보다 복잡한 문제를 내포한다. 국어교육은 한국어교육의 고급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교육과는 다른 차원이 고려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국어교육은 근대 민족 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어를 잘 다듬어서 언어생활의 편리한 도구가 되게 만들고 또 한국어를 널리 교육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강한 근대 민족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의 일부로서, 19세기가 끝날 무렵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세기 전반, 한국어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기표가 되었고 이에 따라 국어교육의 민족적 중요성도 한층 강조되었다. 이 시기의 국어교육은 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애국심을 길러주는 주요 방편이었으며 아울러 국민을 계몽시키고 서구의 근대문물을 전파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20세기 전반 나라를 잃었던 시기에 특히 강조되었던 민족주의적 국어교육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진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어교육은 국가적 사업으로 계획되고 실행된다. 1954년에 정식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이 제정되어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밝힌 이래 지금까지 9차례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 1차에서 4차에 이르기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질적 내용은 대체로 국어교육이 표현과 이해, 언어, 문학의 세 영역을 가지며, 원활한 국어사용과 교양 및 문화적 소양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즉 언어기능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어로 표현된 문화와 사유와 가치를 배우는 것도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5차 교육과정에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데, 국어과의 성격이 내용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즉 5차 교육과정은 국어교육을 기능중심으로 변화시키고 국어교육에서 영역의 세분화와 공고화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국어교육이 단순히 언어사용기능을 훈련시키는 교과 즉 마치 외국어교육처럼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단순기능만을 훈련시키는 교과로 그 폭이 좁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

국어교육이 단순한 언어기능 교육인가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학습자의 내면과 지성의 형성에 관여하는 교육인가는 국어교육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국어교육은 국어를 배우는 것이므로 국어를 잘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며 따라서 국어를 잘 구사할 줄 아는 언어기능 교육에 치중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풀리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언어습득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모국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언어의 원리

2.1. 단어와 규칙

언어는 간단히 말해서 단어들과 규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단어들을 규칙에 따라 나열함으로써 수많은 문장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단어는 유한하지만 그 단어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무한하다. 단어는 소리와 의미를 지니는데, 이 때 소리와 의미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 페르낭드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언어가 ‘자의적인 기호’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암기해야 한다.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의 경우 대략 5만개의 단어를 알고 있다고 추정된다.²⁾ 사람 이름이나

-
- 1)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국어교육의 성격변화에 관한 이 논의는 이남호(2011), “21세기 한국에서의 국어교육”, 『한국어문교육』 10, 1-21쪽,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참조.
 - 2) 심리학자 윌리엄 네이기와 리처드 앤더슨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참고한 것이다. 이는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평균 하루에 10개의 새로운 단어를 암기할 셈이 된다. 인간의 단어 암기력은 다른 어떤 암기력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조명환 외(2003), 『언어심리학』, 학지사, 137쪽에서 재인용.

전화번호 같은 기호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암기하는가와 비교해보면 인간이 지닌 단어 암기력은 경이롭다.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기호를 그렇게 많이 암기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규칙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문장을 만드는 규칙은 노암 촘스키(Noam Chomsky)에 의해서 ‘생성 문법’이라는 것으로 설명된 바 있다. 단어들을 조합하여 문장을 만드는 이 규칙은, 혼합체계가 아니라 이산조합(離散組合)체계이다. 혼합체계에서 조합의 속성은 그 요소들의 속성 사이에서 자리 잡으며, 각 요소들의 속성은 평균하기 혹은 뒤섞기 속에서 사라진다. 예를 들어 붉은 색 물감과 흰색 물감을 섞으면 분홍색 물감이 된다. 이에 반해 이산조합체계는 유한한 수의 개별요소들이 조합되고 치환되어 그 요소들의 특성과는 아주 다른 특성을 띠는 더 큰 구조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개’와 ‘닭’과 ‘보다’라는 세 개의 요소들을 조합하여 ‘개가 닭을 보다’, ‘닭이 개를 보다’, ‘개와 닭을 보다’, ‘개인 줄 알고 보니 닭이다’ 등등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산조합체계는 유한한 단어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한다. 20개의 단어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의 수는 줄잡아 천개가 넘는다. 그러므로 4-5만개의 단어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의 수는 무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이산조합체계라는 문법³⁾을 가짐으로써 배우지도 않은 무수한 문장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산조합체계 역시 단어라는 기호의 자의성처럼 의미나 인지능력과 무관한 자율적인 기호체계이다. 이산조합의 규칙에 맞게 만들어진 문장도 말이 안 되는 것일 수 있다. 가령 ‘나는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도 규칙에 맞고 ‘나는 학교를 들고 가방에 간다’도 규칙에 맞지만 후자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런가 하면 이산조

3) 이 때 문법이란 규범문법이나 학교문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체계나 규칙인데, 이를 규범문법과 구분하여 정신문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모든 개별언어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편문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합의 규칙에 안 맞는 문장이라도 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주어가 없는 문장은 규칙에 어긋나지만 우리는 흔히 주어를 생략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이해한다. 뿐만 아니라 상황과 문맥을 고려하여 문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다. 언어를 사용할 때 의존하는 정신문법은 이 산조합체계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체계를 유연하게 넘어서는 융통성도 지니고 있다.⁴⁾

우리는 자의적인 기호인 단어들을 이산조합의 방식으로 배열하여 문장을 만들고 말을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문장이나 말을 이해한다. 이처럼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놀랍고 복잡한 일이다. 모국어의 경우, 사람들은 이 일을 쉽게 한다.

2.2. 언어능력의 습득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상징 기호를 상당히 많이 암기하고 또 그 기호들의 문법적 기능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기호들을 이산조합의 방식으로 규칙에 맞게 배열할 줄 알며 더 나아가 그러한 기호의 배열이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순식간에 처리하여 말하고자 하는 문장을 만들어낸다. 특히 말을 하거나 듣는 복잡한 과정이 ‘즉시’ 이루어지는데, 이 즉시성은 인간이 지닌 매우 놀라운 인지처리의 자질이다.

언어를 사용하여 복잡한 내용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에게서 찾아보기 어렵다. 극히 일부의 실험실 동물들이 기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사례는 있지만, 그 경우도 거의 언어라고 말할 수 없는 간단하고 빈약한 반응행동에 불과하다. 언어를 구사할

4) 인공지능언어가 인간의 언어를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것은 이 유연성 때문이다.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만이 지닌 종 특정적(specis-specific) 자질이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인간은 어떻게 습득하는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간이 구사하는 언어는 거의 무한하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특별한 교육의 혜택이 없어도 거의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말할 수 있으며, 그 말들을 알아듣는 말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일상적인 다른 지적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어린 아이 시절에 이러한 언어 능력이 획득된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3~4세 쯤에 문법이라는 복잡한 언어 시스템을 거의 다 습득한다. 문장을 연결하고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고 대명사와 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문법의 통사적, 음운론적, 형태적, 의미론적 규칙을 별 어려움 없이 이해한다. 달리 말하면, 부모나 다른 어른들이 말하는 문장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수많은 문장들(예전에 전혀 들어 본 적이 없는)을 별 어려움 없이 만들어낸다. 언어학습에 관한 거의 모든 아이들은 천재적이다.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고 구사하는 능력은 자기 부모들까지 자주 놀라게 한다.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배우지도 않은 문장을 상황과 문법에 맞게 그리고 말이 되게 더욱이 순식간에 구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변은 인간의 언어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생득적 자질이라는 것이다. 이는 소위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이라는 언어학이론으로 언어에 대한 생각을 크게 바꾼 노암 촘스키(Noam Chomsky)의 관점인데, 다음 주장은 이 관점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언어는 시간 읽는 법이나 연방 정부 운영방식을 학습하듯이 학습하는 문화적 인공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뇌의 생물학적 구조의 일부다. 언어는 복잡하고 특화된 기술로서, 의식적 노력이나 정규 교육 없이 어린 아이에게서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하며, 그 저변의 논리에 대한 자각 없이 전개되며, 모든 개인들에게서 균질하며, 정보처리나 지능적 행동에 필요한 더 일반적인 능력들과 구분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인지과학자들은 언어를 심리적 능력, 마음의 기관, 신경시스템, 연산 모듈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좀 색다르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본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 이 용어에는 거미가 거미줄 치는 법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의미에서 사람들은 말하는 법을 안다고 하는 생각이 담겨있다. 거미의 거미줄치기는 어떤 천재 거미의 발명품이 아니며, 적절한 교육을 받거나 건축이나 건설업에 적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거미는 거미의 뇌를 가지고 있으며, 이 뇌가 거미줄을 치도록 거미를 충동하고, 그 일에 집요하게 매달리게 만든다. …… 직립보행이 문화적 발명품이 아니듯 언어는 문화의 발명품이 아니다. 언어는 상징 사용의 일반 능력을 보여주는 징표도 아니다. 누구나 알듯이 세 살배기 아이도 문법의 천재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각예술, 종교 상징, 교통신호나 기호학 과정의 온갖 것들에 대해 뭘 아는가?⁵⁾

이처럼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언어능력을 본능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능력과 같이 인간의 언어능력이 타고 난 본능이라는 것이다. 세 살배기 어린 아이가 폭발적으로 새로운 어휘들을 사용하고 또 복잡한 규칙들을 사용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언어능력이 생득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최근의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의 연구들도 있다.⁶⁾

언어능력이 생득적이거나 본능적이라는 견해의 타당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어릴 적 모국어의 습득이 제2언어 습득과는 완전히 다르게 거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어릴 적 아이가 지닌 언어능력이 모국어로 초기화되고 나면 대체로 그 능력은 크게 약화된다. 즉 10세 이후에 제2언어를 배울 때에는 그러한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⁷⁾ 이에 대해 스티븐 핑커는 마치 간니가 자라고 나면

5) 스티븐 핑커, 김한영 외 옮김(2004), 『언어본능』, 동녘사이언스, 24-25쪽.

6) 조명환 외, 앞의 책, 14장과 15장 참조. 여기에는 언어능력이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학습되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소개되어 있다.

7)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또 실험적으로도 확인된다. 그리고 모국어를 말할 때와 제2언어를 말할 때 활성화되는 대뇌의 영역이 전혀 다르다는, 뇌영상기법을 이용한 연구결과도 있다. 위의 책, 14장 참조.

더 이상 이가 나지 않는 것과 같이, 언어본능이 작동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한다. 10세 이전의 모국어 배우기의 쉬움에 비해서 10세 이후의 제2언어 배우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경험적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모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주요한 차이를 시사한다.

2.3. 입말과 글말

모국어의 습득과 구사가 본능에 가까운 것이라면, 거미의 거미줄치기처럼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국어교육은 왜 필요한 것일까? 우리가 언어라고 할 때, 그것은 입말과 글말을 모두 가리킨다. 그러나 촘스키나 스티븐 핑커가 생득적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의 천재적인 언어 습득과 구사능력은 입말에 해당하는 것이지 글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제도나 프로그램을 통한 배움이 없더라도 입말을 구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도 거의 모든 백성들의 말하기와 듣기는 유창했을 것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모국어 혹은 제1언어를 듣고 말하는데 곤란을 겪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거칠고 격에 안 맞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지성이나 품성이나 예의의 문제이지 언어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입말을 모르는 문맹은 없다. 문맹이란 글말을 모르는 것을 뜻할 뿐이다.

입말과 달리 글말은 저절로 습득되지 않는다. 옛날부터 모국어로서의 언어교육은 곧 읽기와 쓰기 교육이었다. 글말은 아이들이 지닌 언어본능과 관련이 간접적이거나 적거나 아니면 거의 없다. 글말의 습득은 입말의 경우와는 달리 따로 암기하고 반복 학습하는 지루한 공부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8) 입말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차원이거나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특별한 학습과정이 없어도 잘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수준이 높은 말하기와 듣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김진우는 촘스키의 언어습득이론이 통사적 차원에서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언어 전체에 대한 습득이론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진우(1999), 『언어습득의 이론과 실상』, 한국문화사.

아마도 5살 한국 아이가 한국어의 입말을 익히는 것과 25살 한국청년이 영어의 입말을 익히는 것은 그 어려움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겠으나, 5살 아이가 한글 자모를 처음 익히는 것과 25살 청년이 영어 알파벳을 처음 익히는 것은 비슷한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휘사전이 들어 있는데, 입말 어휘사전과 글말 어휘사전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다.⁹⁾ 그리고 읽기는 듣기와 달리 발화자(글쓴이)와 다른 공간에서 그가 만든 문장만으로 뜻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통사적 질서와 구성적 질서에 따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주의와 감각에 익숙해져야 한다.

읽기보다 더 배우기 힘든 것이 쓰기이다. 쓰기는 보이지 않는 대상(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기에)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객관화가 필요하고 이 객관화를 위해서 많은 규칙들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자기호만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달의 효용성을 위해서 그 구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글쓰기 능력은 오랜 시간의 수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자질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어교육은 글말 중심의 교육, 즉 읽기와 쓰기 중심의 교육일 수밖에 없을 듯하며, 규범문법의 이해와 습득이 그 바탕을 이루게 된다.¹⁰⁾

9) 조명환 외, 앞의 책, 364-366쪽 참조.

10) 모국어의 경우, 입말 중에서도 듣기는 특히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듣기는 청력과 이해력의 문제이므로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닐 것이다.(이해력은 다른 포괄적인 공부들 통해 길러진다) 듣기와 관련해서 선생님의 할 수 있는 말은 '상대의 말을 제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한다'는, 태도나 예의에 관한 지도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말하기는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한 면이 있다. 말하기 교육과 관련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말할 때 지켜야 하거나 지키는 것이 권장되는 여러 규칙들이다. 그 규칙들은 소위 학교문법의 하위 영역을 이룬다. 문법은 언어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여러 규칙들의 집합을 뜻하는데, 나라에서 따로 정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문법을 일반적으로 일컫는다.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가 학교문법을 낳고 그리고 학교문법은 그 사회에서 언어

3. 언어의 실체

3.1. 문화재로서의 모국어

지금까지 논의에서 언급된 언어는, 언어의 설계도나 해부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개별 언어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언어의 기본적인 원리로서 살펴 본 언어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서로 다른 많은 나라의 언어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제각기 역사성과 사회성을 갖고 오래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고 또한 언제나 변화 속에 있는 거대한 덩어리이다. 어떤 면에서 한 언어는 그 언어로 말해지고 쓰인 모든 문장들 또는 책들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¹¹⁾ 마치 한국인으로 살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한국인의 총합을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듯이, 한국어로 말해지고 쓰인 모든 것의 총합을 한국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실체를 이런 거대한 덩어리로 볼 때, 개별 언어의 모습은 크게 다르다. 해부학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의 본질적 모습이 동일할지 몰라도 실제 인간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과 성격과 자질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면서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형성에 관여한다. 한 사람의 현재 모습은 그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며, 그 총합으로써 그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 마찬가지로 언어도 그 본질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실제 개별 언어들이 역사와 사회 속에서 형성해 온 모습은 제각기 큰 차이를 보인다.

사용의 규범이 된다. 말하기도 이 규범을 지켜야 의사소통이 안정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경어법을 포함해서 상황에 따라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말하기와 듣기 능력은 기능을 넘어서 내용 차원의 공부를 통해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11) 김우창은 ‘글을 집대성해 놓은 것은 한국어면 한국어, 영어면 영어, 언어 전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김우창(2014), 『깊은 마음의 생태학』, 김영사, 10쪽.

하나의 언어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사용해 온 사람들의 역사와 삶이 축적되어 있다. 언어의 차이는 단순한 기호의 차이를 훨씬 넘어선다. ‘개’ ‘dog’ ‘Hund’ ‘犬’ ‘いぬ’ 등은 사람과 친한 어떤 동물을 지칭하는 기호로 서로 거의 흡사한 의미를 지니지만, 그 동물이 사람과 맺는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어느 정도의 문화적 차이를 내포한다. 익숙한 사물을 지칭하는 기초적인 단어들도 그러하지만, 훨씬 심각한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단어나 관용구들도 많다. 가령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이나 ‘한’ ‘서글픔’ 같은 말과 꼭 같은 느낌과 의미를 지닌 외국어는 거의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말 속에는 오랜 세월 한국 사람들이 인식했던 마음의 움직임이 반영되어 있고, 그 말을 배운다는 것은 곧 그러한 인식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의 개별 언어 속에는, 수천 년 동안 그 언어를 사용해온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모국어는 거대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언어학자 바이스게르버(Leo Weisgerber)는 훔볼트(Humboldt)의 언어학을 이어받아 모국어를 문화재로 이해하고 우리의 정신이나 사유방식이 그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인간은 확실히 그의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언어를 형성하는 실마리가 언제나 되풀이해서 모국어를 받아들임으로써 밀려나는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더 이상 혼자서 그의 경험을 토대로 그의 세계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에 나타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전의 사람들의 경험들에 정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민족의 언어 속에는 수천 년에 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의 결과, 사유에 있어서 감성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혹은 유용한 것으로서 판명되었던 모든 것이 갈무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우리는 어린아이의 언어습득 또한 이러한 모국어라는 정신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성장하는 것으로서 평가해야만 한다.¹²⁾

12) 레오 바이스게르버, 허발 옮김(2004), 『모국어와 정신형성』, 문예출판사, 175-176쪽.

바이스케르버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곧 모국어라는 정신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정신세계 속에서 자신의 정신을 형성해가는 일이 된다. 아이들은 다른 어떤 문화재보다 모국어라는 문화재를 통해서 그들의 선조가 지녔던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한국어에는 한국인의 얼이 담겨있다’는 말이나, ‘한국어를 지키는 일은 민족정신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말의 근저에 깔려 있는 생각도 이와 같다.

번역까지도 포함해서 한국어로 쓰인 수많은 저술 속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모국어는 일종의 문화재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어로 된 문화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공부해야 한다면, 그 공부는 상당 부분 국어교육의 영역일 것이다.

3.2. 언어와 사고

한편, 모국어를 문화재로 보는 바이스케르버의 입장은 모국어가 정신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극단적 주장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언어교육의 목표는 언어를 수월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형식과 규칙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고 또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은 모국어교육에도, 외국어교육에도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목표가 된다. 그러나 바이스케르버에 따르면 이러한 형식구사와 표현능력은 모국어교육의 본질이 아니다. 그는 모국어교육이 의사전달이나 표현을 위한 언어의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인식가치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즉 모국어교육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정신형성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국어가 정신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바이스케르버의 주장은 다소 지나치다. 그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워프(Whorf)의 가설과 상통한다. 워프에 의하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고 유사한 경험도 다르게 해석하므로 해서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된다. 즉 생각과 언어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때 크게 주목받았던 워프의 가설은 오늘날 많은 비판을 받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언어가 관여하지 않는 사고도 있으며, 언어 자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언어를 사용하는 특정 수준이나 문맥에서 사고가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 보다 설득력이 있고 일반적이다.

언어가 사고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은 쉽게 인정된다. 언어 자체가 지닌 로고스적 질서가 사고의 형식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하나의 언어는 세계를 기호화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 그리고 세계 속의 경험들이 언어에 축적된 사회적 역사적 흔적들로 남는다. 언어가 다른 종류의 기호와 중요하게 구분되는 점은, 언어 기호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의미의 때가 많이 끼어서 그 의미가 별로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지시적 의미 외에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사전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이러한 의미의 불투명성은 역설적으로 언어의 한계를 넓히고 의미 전달의 섬세함과 정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¹³⁾ 모국어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이러한 기호화 방식과 불투명한 의미에 익숙해진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어느 정도 선조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의 내용들이 참가해서 더 큰 단위의 내용을 조직한다. 즉 관용구를 이루고 문장을 이루고 단락을 이루고 나아가 한편의 의미 있는 글이나 책이 된다. 이 모든 것이 모국어의 내용을 이루고 나아가 모국어교육의 내용을 이룬다. 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모국어를 배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국어로 표현된 훌륭한

13) 일정한 체험이나 감정 또는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여러 형식의 글 가운데서, 문학이 언어가 지닌 함축적이고 관습적인 의미 요소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형식일 것이다. 이것은 문학텍스트가 모국어교육 혹은 고급의 국어교육의 텍스트로서 지니는 의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어교육은 정신의 형성이나 사유의 훈련과 관련이 깊다. 정신형성이 국어교육의 제1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바이스게르버의 주장은 지나칠 수 있지만, 모국어에 담긴 많은 민족적 경험과 사유와 가치를 내면화하는 학습은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국어교육에서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 경우 국어교육의 텍스트는,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글보다는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훌륭한 저술들이 보다 유용함은 물론이다.

한편, 매체환경의 변화가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전자매체의 발달은 문자문화의 비중과 힘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나 정신형성에 미치는 언어의 영향력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러나 모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은, 전자영상문화의 범람 속에서 오히려 더 고유하고 중요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또는 다른 교과를 통해서 모국어라는 언어매체 속에 담긴 문화재적 가치와 사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어교육이 매체환경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은 매체교육을 국어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문자매체에 더 치중함으로써 국어교육의 고유한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국어교육의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3.3. 언어능력과 보편 지식

국어교육이 글말 중심의 언어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입말을 거의 저절로 잘 하게 되는 모국어의 경우 글말을 배우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말하기·듣기·

14) 전자매체의 발달과 문자문화의 쇠퇴에 관해서는, 이남호(2004), 『문자제국쇠망약사』, 생각의나무 참조.

읽기·쓰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규범문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된다. 여기서 국어교육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어느 정도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모국어를 왜 중등학교 교육에서 큰 비중으로 계속 배워야 하는가? 앞서 논의 한, 모국어가 거대한 문화재라는 생각이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수많은 모국어 텍스트 속에 담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마음이나 삶의 방식을 계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이다. 이 공부의 외연은 상당히 넓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만큼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도 국어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국어교육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의 답변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다 우수한 언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인 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국어 구사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객관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어려운 내용과 표현을 지닌 어려운 글이나 담화를 수월하게 이해하고 또 스스로 그러한 글이나 담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때 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다. 편의 상 글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글이 어렵다는 것은 글의 내용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표현이나 형식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또는 많은 경우 내용이 어려우니 표현과 형식이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진 것일 수도 있다.

사실 많은 어려운 글들은 그 언어형식적 측면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어렵다. 내용이 어려운 정보적인 글들을 살펴보면 그 언어형식적 측면은 의외로 단순한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서 문학적인 글은 겉보기에 쉬워 보이지만(보통 특정 지식이나 주장을 담고 있는 정보적인 글에 비해서 평범한 이야기인 듯한 소설은 쉬워 보인다) 고급하고 섬세한 언어형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학작품이 언어를 가장 고급한 방식으로 다루는 공간이라는 사실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문학은 오랜 전통 속에서, 세계와 언어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기 위해 언어의 가능성과 효용성을 극대화

해 왔다. 언어를 고급하게 다루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문학작품은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배우는데 효과적이다. 실제로 모국어이건 외국어이건 고급 수준의 언어교육 텍스트는 문학작품이 주요 텍스트가 되어 왔고, 이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문학작품은 국어교육에서 문학을 배우는 텍스트인 동시에 우수한 언어능력을 습득하는데 적합한 텍스트이기도 하다.

한편, 내용이 어려운 글을 작성하거나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지식이나 높은 지성이 요구된다. 언어를 고급하고 섬세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곧 세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는 것과 짝을 이룬다. 예를 들어 색채에 대한 많은 표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색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과 높은 수준의 지성은 상관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모든 공부하는 어느 정도 국어공부가 되며, 또한 모든 국어공부는 다른 모든 공부의 도구가 된다.¹⁵⁾ 전문 지식이나 높은 지성은 모든 종류의 공부를 포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어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고급한 언어능력의 바탕이 되는 지식이나 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폭넓은 공부 또는 독서가 요구된다. 모든 교과가 여기에 관계되지만, 국어교과가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할 지식분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국어교과와 직접 관계되는 국어학과 국문학에 관한 일정 수준의 이해와 지식일 것이다.¹⁶⁾ 그 다음으로 고려될만한 것들은 특정 교과의 범주에 포함되

15) 사실 국어교육은 모든 과목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말하기와 듣기 공부도 이루어지고,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거나 과제를 쓰거나 하는 일들도 국어공부가 된다. 이는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는 국어선생님의 역할도 겸하게 됨을 뜻한다.

최근 개정된 미국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 CCSS(Common Core State Standards)에서 역사, 철학, 과학, 사회 등 비문학적인 텍스트의 읽기 비중이 높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국어교육에서도 비문학적인 텍스트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는 많은 읽기 교육이 타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를 잘못 이해한 것(또는 국어교육에만 적용시키는 논리적 오류)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정은아(2014), 「국어교과의 대상 텍스트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 144, 한국어교육학회 참조.

16) 이 수준은 평균 이상의 국민교양 정도면 될 것이다. 우리 중등학교의 교육목표가 교양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전문적인 국어학, 국문학 지식은

기 어려운 교양적이고 생활적이고 보편적인 이해와 지식들이다. 계절, 인간 관계, 감정과 욕망, 미덕, 아름다움, 자연, 문명과 제도, 그 외 삶의 다양한 굴곡과 국면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과 삶에 대한 오랜 이해들을 담고 있는 단어, 속어, 경구, 관용구, 속담 등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도 이와 관련이 된다. 가령 ‘염치(廉恥)’라는 말을 배우는 것은 곧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쌓는 것이며,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는 말을 배우는 것은 삶의 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된다. 이런 교양적이고 생활적인 지식들은 국어교육의 밖에서는 다루어질 기회가 적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넓은 의미의 문학적인 글들 속에서 자주 다루어진다. 우리는 좋은 시와 소설 속에서 삶과 세계에 관한 다양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그것에 대한 섬세한 언어적 표현들을 배운다. 그리고 격조 높은 에세이 속에서 세상과 사물과 인간에 대한 가치 있는 사유와 언어들을 만난다. 특수 전문 지식을 다루고 있는 좋은 글들은 다른 교과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이런 글들은 국어교과 밖에서 다루어질 기회가 거의 없다. 우리는 넓은 의미의 문학적인 글들 속에서 이러한 보편 지식을 넓고 깊게 만날 수 있다. 우수한 언어능력의 관점에서든 문학과 국어교육은 상관성이 높다.

4. 결론 : 국어교육의 정체성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어교육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간단하지

중등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가령 전문적인 문학 지식 또는 어학 지식 그리고 지나치게 상세한 국문학사 등은 고등학교 국어교과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속의 특수한 견해나 지식이 바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내용에 소개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않다. 그 물음은 언어와 모국어의 성격에 대한 통찰에서부터 탐구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국어교육이 모국어교육임에 주목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동질성이 강한 언어공동체에서 모국어로서의 국어교육은 특별한 민족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언어가 지닌 보편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언어는 단어와 규칙으로 이루어진 이산조합체계이다. 모국어의 경우, 이 놀라운 체계를 인간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습득한다. 거의 저절로 습득되는 모국어를 제도적으로 강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는데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가령 이 점은 왜 국어교육에서 말하기 듣기 교육보다 읽기 쓰기 교육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모국어는 그 자체로 거대한 문화재로 생각될 수 있다. 모국어 속에는 오랫동안 그 언어를 사용해 온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와 삶이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모국어를 넓고 깊게 배운다는 것은 선조들의 사상과 문화와 삶을 배운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사고의 형성에도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언어 속에는 어떤 전문 영역에 속하지 않는 많은 사유와 지식이 녹아 들어 있다. 좋은 글을 읽고 좋은 문장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삶과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높이는 중요한 공부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공부의 주요한 텍스트는 좋은 문학작품들이 된다. 여기서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의 접합점이 강조될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춘다는 이유로 국어교육과정도 자주 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모국어와 언어에 대한 본질적 통찰의 토대 위에서 국어교육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자 조그만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우창(2014), 『깊은 마음의 생태학』, 김영사.
- 레오 바이스게르버, 허발 옮김(2004), 『모국어와 정신형성』, 문예출판사.
- 스티븐 핑커, 김한영 외 옮김(2004), 『언어본능』, 동녘사이언스.
- 이남호(2004), 『문자제국쇠망약사』, 생각의나무.
- _____ (2011), “21세기 한국에서의 국어교육”, 『한국어문교육』 10,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21쪽.
- 정은아(2014), “국어교과의 대상 텍스트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 144, 한국어교육학회.
- 조명환 외(2003), 『언어심리학』, 학지사.

〈ABSTRACT〉

A Study on Principles and Contents of Korean Education

Lee Nam-ho

In this essay, Korean education means teaching Korean language as a mother tongue. It is different from teaching Korean language as a second language. This essay focus on principles of Korean education and what its curriculum should be.

Language ability is human's specis-specific quality which is inherent. Everyone can speak mother tongue after 2-3 years old without a planned education. He knows some words and can apply rules to make sentences. Children can speak many sentences that is not learned from their parents. Moreover they speak with instantaneousness. What Korean education teach one who already can speak Korean?

Unlike speaking and listening ability, reading and writing ability is not inherent. To get reading and writing ability, one must have repetitive learning and practice. This means that Korean education place more importance on reading and writing.

And Korean education aims at higher language skills. For greater capacity of language performance, one need not only rules and express skills but broad knowledge base, which may involve every subject. But there should be the knowledge that only can be obtained by Korean education such as the knowledge in literature works. Therefore literature works are good texts for

Korean education.

According to Weisgerber, mother tongue is one kind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By learning mother tongue one can have valuable thinkings and minds of ancestors. These are also what Korean education must do.

Korean education encompass high language skills and some kind of knowledge and valuable thinkings and minds. It is important to thinking practice and mind building(geistesbildung).

- **주제어** : 국어교육, 모국어, 언어능력, 읽기와 쓰기, 정신형성, 사유
korean education, mother tongue, language ability, reading
and writing, mind building, thinking

이 남 호

소 속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전자우편 : namoo@korea.ac.kr

논문 접수 : 2014. 09. 30.

논문 심사 : 2014. 10. 25. - 11.15.

계재 결정 : 2014. 11.20.

의사소통 분석을 위한 기본 문법 단위*

— 언어병리학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試論—

이 봉 원

< 차 례 >

1. 도입
2. 문법 단위의 필요성
3. 형태소, 단어, 어절의 재검토
4. 분석을 위한 단위의 재구성
5. 결론

1. 도입

이 글은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분야, 즉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언어학적 분석을 위해 이용해 온 문법 단위들의 개념과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한국어 특성에 적합한 분석을 위한 기본 단위의 요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분석 틀의 재구성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소통 장애의 진단과 치료를 다루는 언어병리학 전문가들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발견해 내는 기준으로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을 활용한다. 사용

* 이 논문은 제39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 이 연구는 2014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된 언어에 드러나는 다양한 범주의 특성을 통해 해당 화자의 의사소통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고, 이 결과를 활용하여 치료의 목표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즉, 언어병리학 전문가들은 언어학적 지식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봉원 2013 : 256).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여러 문법적 지식이 매우 중요한 기반 지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학교 문법, 즉 교육 문법을 다소 기계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분석에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형태소-단어-어절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문법 단위를 계량화 지표로 이용하면서도 각 단위의 개념 및 설정 근거와 분석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 어떤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형태소, 단어, 어절과 같은 기본 문법 단위는 학교 문법을 통해 그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규정이 다소 불확실하거나 정의와는 달리 실제 분석 단계에서는 명확한 판단이 힘든 사례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국어학자가 아닌 언어병리학 전문가들이 기본 단위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형태소, 단어, 어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각각의 문법 단위들이 언어병리학적 목적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전적 제안을 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문법 단위의 필요성

의사소통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원인과 현상으로 실현된다. 그것이 음성

1) 어절과 같은 일부 단위에 대해서는 문법 단위의 지위가 의심되기도 하지만 학교 문법이나 여러 문법서에서 하나의 단위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통용 단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나 조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문장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나 단어 기억의 문제와 관련될 수도 있다.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에 이르는 언어학의 전 분야에 걸친 기본적 지식과 적용 능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도구적 차원에서 필요한 언어학적 지식은 포괄적인 것보다는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료한 형식의 결과로도 출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의 언어발달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면 동일한 연령이나 동일한 언어 수준을 갖고 있는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척도는 측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 신뢰성을 보증하기 어렵다.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정한 수치로 언어적 특성이 계량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숫자로 나타난 특성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것은 평균 발화 길이(MLU : Mean Length of Utterance)와 같은 일정한 양의 발화 안에 포함된 문법 단위의 양적 특성이다.²⁾ 평균 발화 길이는 각 발화³⁾에 나타난 문법 단위의 수를 총 발화의 수로 나눈 것으로, 예를 들어 평균 형태소 길이라면 각 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수를 모두 계산하여 발화 단위의 수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발화에 포함된 형태소의 수, 즉 길이를 알 수 있다. 평균 발화 길이는 위와

2) 이들 단위는 대개 자발화 분석에서 활용된다. 자발화란 언어사용자가 일상적 상황에서 산출하는 언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언어병리학 분야나 특수교육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 언어 연구자들은 ‘spontaneous speech’나 ‘spontaneous utterance’를 ‘자유 발화’ 정도로 번역할 것이고,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는 ‘자연 발화’라는 용어도 쓰이는데, 모두 어떤 상황 하에서 화자가 자연스럽게 산출한 발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발화 분석은 표준화된 정적 측정도구가 제공하지 못하는 각종 언어지표를 잘 보여주며, 언어사용자의 표현 언어를 민감하게 반영하므로 임상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정부자 2013 : 40).

3) 발화는 ‘화자의 의도가 운율적으로 완결된 단위’이며 말차례, 억양구 경계 성조(종결 억양), 휴지, 종결 어미, 통사적 응집성, 의미적 응집성 등의 요소로 확인할 수 있다. 발화는 문어의 문장과 비슷한 단위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구어 분석에서는 불명료하거나 미완성인 부분이 많으므로 세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김수진 외 2011 : 93).

같은 경우처럼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이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평균 형태소 길이에 따라 아동의 문법 발달 단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⁴⁾, 어떤 아동의 발화에 포함된 형태소의 수가 특정 연령대의 아동이 보이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의사소통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문법 단위의 수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려면 문법 단위에 대한 정밀한 규정과 분석 기준의 일관성이 필요할 것이다. 발화에 대한 형태소 분석이 연구자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 완수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문법 단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단어 분석이나 어절 분석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이다. 특히 언어학 전문가가 아닌 언어치료사들이 발화의 분석을 시도할 때에는 분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도 여러 가지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측정 가능한 문법 단위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흔히 문법 단위로 간주되는 것은 기호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단위이다. 즉 형식에 대한 의미를 대응시킬 수 있는 형태소, 단어, 구, 절, 문장 등 형태론과 통사론에서 이용하는 단위가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이 제공해 온 이들 문법 단위의 개념이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그대로 수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세형(2004 : 463)에서 지적하였듯이 학교 문법의 관점이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 원리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힘들고, 언어 단위에 대한 기능적 차원의 재규정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 목적에 따라 형태소나 단어, 문장과 같은 친숙한 문법 단위 외에도 한국어의 특성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단위를 새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문법 단위가 계량화의 대상이며 진단과 평가의 도구라는 점에서는 정의의 명확성만 확보된다면 교육 문법의

4) 김영태(2002 : 236)에서는 발화당 평균 형태소 길이에 따라 1.75, 2.25, 2.75, 3.50, 4.00의 5단계를 제시하였다.

틀을 고수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분석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용하기 힘들 것이다. 언어병리학 연구들이 교육 문법의 틀을 쉽게 벗어나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이용되어 온 문법 단위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글의 동기가 된다. 상당히 많은 성과가 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에서 적용되어 온 언어 단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자발화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틀은 서구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지만 실제로 이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개별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다.

3. 형태소, 단어, 어절의 재검토

적어도 언어병리학자들 대다수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문법 단위는 형태소, 단어, 어절 정도가 될 것이다.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나 절, 또는 다른 기능적 단위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화 길이의 측정 단위가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작은 문법 단위들이 우선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앞에서 언급한 대로 평균 발화 길이의 측정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단위인 것이다. 이 절에서는 대표적인 문법 단위에 대해 개념과 분석 기준, 그리고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양상을 다시 음미해 볼 것이다.

3.1. 형태소

형식과 내용이 결합되어 있는 기호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쪼

갈 수 없는 최소의 단위, 즉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minimal meaningful unit)라고 규정되는 형태소(morpheme)는 상대적으로 가장 명확한 정의를 갖는 문법 단위이다. 어느 학문이나 최소의 단위를 규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면, 형태소는 이런 점에서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형태소의 정의는 대개의 문법서에서 거의 일치한다.

(1) 형태소의 정의

뜻을 가진 문법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고영근·구본관 2008 : 28)

단어를 이루는 작은 요소 중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이익섭 2005 : 35)

형태소를 단어 차인과 결부시키는 경우 형태소 대신 어소라는 용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고영근·구본관 2008 : 28), 굳이 어소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형태소는 단어와 관련되면서 이보다 작은 단위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형태소는 단어의 일부이며 단어를 분석해서 얻을 수 있거나 형태소를 합하여 단어를 이룬다고 기술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형태소의 정의는 간명하지만 발화에서 형태소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형태소를 찾기 위해서는 더 큰 문법 단위인 어절이나 단어를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즉, 더 큰 문법 단위에 대한 분석 이후의 2차적 분석을 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의사소통 분석의 기본 문법 단위를 형태소로 설정하는 것은 적어도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매력적인 전략은 아니다. 분석을 수행하는 주체가 언어학자가 아니라 임상 현장의 언어치료사들이기 때문이다. 형태소 분석의 수준과 기준은 목적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같은 발화에 대한 몇 가지의 다른 분석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어학자가 아닌 임상가에게 형태소 분석은 때로 매우 난해한 과제가 되기도 한다. 이봉원(2013 : 243)에서는 언어병리학 분야에서의 형태소 분석이 몇 가지 문제를 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언어발달과 같이 구어 중심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지는 이 분야 연구의 특성상 형태소 분석의 기준이 상당히 자세하게 수정되어 왔지만 적용의 오류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2) 아동언어의 예외적인 형태소 구분 방법(김영태 2002 : 245)

- ㄱ. 성인 말에서는 의존형태소로 이루어진 한자어도 개별형태소로 분석하지만, 아동 말에서 사용된 한자어는 개별 어휘를 의미 있게 사용한 예가 없는 한, 그 독립성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형태소로 분류한다.(학교 : 형태소 1개)
- ㄴ. 성인 말에서는 줄임말의 경우 그 본디말로 바꾸어 형태소를 분석하지만, 아동 말에서 줄임말은 각 어휘의 개별적인 사용이 관찰되지 않는 한, 하나의 형태소로 분류한다. (넌 : 모든 발화 자료에서 ‘넌’만 관찰되면 형태소 1개)
- ㄷ. 오류로 중복된 것은 길이 산출에 이용하지 않는다. (곰이(가)요 : ‘가’는 오류이므로 배제)
- ㄹ. 복합어를 한 단어로 습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 (옷장 : ‘옷’과 ‘장’을 사용하면 형태소 2개, 그렇지 않으면 형태소 1개) (후략)

아동 발화에 출현한 형태소 분석을 위한 기준은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을 고려해 아동 발화 전체에서 출현형을 검증하는 것이다. 즉, ‘학교, 넌, 옷장’ 등의 단어가 언어발달의 특정 단계에서는 하나의 형태소로 인지되고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화자의 출현형 모두를 검색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화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너’와 ‘넌’을 따로 사용하면 보조사를 분리할 수 있고, ‘넌’만 관찰되면 분리해 내지 못한다는 기준은 여러 화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형태소를 지나치게 가변적으로 규정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아동 발화 전체를 검색해서 모든 형태를 점검하는 노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생략형의 분석이나 단어형성 요소의 분리 등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제이다. ‘사 쥐요’의 ‘사’가 전자의 예이다. 이 형태는 본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융합된 것으로 소리로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적 연결어미를 찾아내기 어렵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분석을 살펴보면 분리를 하지 않고 하나의 형태소로 처리한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어의 활용이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큰 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으면 많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몇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조사나 어미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통합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는다, -어요’ 등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통합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한자어 형태소의 경우에도 분리보다는 가능하면 분석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단어형성에 관여하는 어근과 접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사와 어미를 분리하는 작업은 한국어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문법적 기능을 확인하는 데 불가결하지만, 조어와 관련된 형태소는 이보다는 의사소통 기능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봉원(2013 : 244)에서는 이를 ‘굴절 우선 원칙’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는데, ‘지우개가’라는 어절에 포함된 ‘지우-, -개, 가’의 세 형태소 중 조사를 분리하는 것이 명사 파생 접미사를 분리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작업이 되어야 하므로 굴절적 요소를 먼저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2차적으로 조어적 요소를 분석하는 절차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형태소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와 어미 중심 분석의 우선성이 확보될 것이다.

3.2. 단어

형태소 분석보다 어절이나 단어 등 상위 단위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의사소통 장애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언어발달의 정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형태소 분석이 갖는 다양성이 이런 시도의 동

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어나 어절은 형태소에 비해 분석의 난이도는 낮은 편이므로 분석의 일관성이 더 잘 지켜질 것이다.

물론 한국어에서 단어의 개념을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학교 문법에서는 단어(word)를 자립할 수 있는 최소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개념은 뚜렷하지 않다. 단어의 정의 자체가 매우 어려워서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일상어 차원에서 이용하기도 하며, 음운론적 단어, 통사론적 단어 등으로 단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3) 단어의 정의

자립성, 자리이동, 휴지, 분리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도 단어의 정의는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법 단위의 하나이다(고영근·구본관 2008 : 33).

단어는 자립성과 일정한 의미를 갖는 단위로 정의되어 왔지만 가장 중요한 자립성 기준은 한국어에서 단어를 정의하는 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분리성을 비롯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여전히 한국어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단어는 문법적 지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개념으로 그 분류 기준만 하더라도 형태적, 분포적, 기능적, 의미적, 어휘적, 정서법적 기준 등으로 너무나 많은 관점들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언어 유형별로도 다양한 분류 체계가 존재한다(한정한 2011 : 228). 학교 문법의 규정대로 자립성으로 이 단위를 규정한다면 조사의 특수성을 해결하기 힘들고, 정병철(2012 : 523)에서 제시한 테일러의 단어 판별의 기준⁵⁾을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선행 요소와 하나의 상위 단위를 형성한다는 특성이 다른 단어와 차

5) 정병철(2012 : 523)에 소개된 테일러의 단어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ㄱ. 의미적 안정성 : 단어는 사람이 기억에 꽤 안정적인 의미의 단위로 저장되어 있다.
- ㄴ. 내적 구조 : 단어의 내적 구조가 바뀌면 의미도 바뀌거나 다른 단어가 되어 버린다. 또한, 단어의 내부에는 휴지나 다른 요소가 끼어들기 어렵다.
- ㄷ. 자유 결합 : 단어는 앞뒤에 어떤 요소가 오는지에 대해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

별적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김건희(2014 : 293)의 지적대로 정의와 분류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니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필요한 것은 정의라기보다는 분류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분석 방법일 것이다. 그렇다면 단어에 대해서는 그 정의에 집착하기보다는 단어 분석 기준을 정해서 합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언어병리학자들에게 단어 단위는 학교 문법의 틀 안에서 그 분석 기준이 암묵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서 이용하는 단어 분석의 기준 중 중요한 것을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단어 구분 방법(김영태 2002 : 252)

- ㄱ. 자립형태소, 자립형태소에 붙는 조사, 준자립어(의존명사, 보조용언)는 개별 단어로 계산한다.
- ㄴ. 파생동사와 합성동사는 한 단어로 취급한다.
- ㄷ. 서술격조사는 한 단어로 보되 보조사 ‘요’가 간투사로 사용되면 단어로 보지 않는다. 예) 이거요 사과가요 아니에요(첫 번째와 두 번째 어절의 보조사는 단어로 보지 않는다)
- ㄹ. 고유명사는 한 단어로 취급한다. (후략)

위에 제시한 단어 구분 기준은 형태소처럼 예외적 규정이 많지는 않되, 핵심은 조사를 별도의 단어로 분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형태소에 비해 분석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비일관적 분석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4ㄱ)에 따르면 자립형태소를 모두 개별 단어로 보기 때문에 합성명사는 그 내부에 여러 개의 단어를 갖게 되지만 실제 언어병리학적 분석에서는 합성명사를 몇 개의 단어로 나누지는 않는다. 특히 언어병리학의 분석 대상이 주로 구어로 실현되는 아동 언어라는 점에서 그 대상이 자주 출현하지 않기도 하거나 합성명사의 분석은 그다지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는 특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합성명사

분석에서도 자주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언어병리학 분야의 적용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4ㄷ)과 연계하여 합성명사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파생동사와 합성동사를 한 단어로 취급하는 문제는 다소 모호하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별개의 단어로 인정하면서도 이것과 유사한 용언 연쇄 패턴을 보이는 합성용언은 하나의 단어로 인정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사전에 기댄 단어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계를 분명히 긋기 어렵다는 것은 여러 문법서의 기술대로이다(이익섭 2005 : 314). 이 문제는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성은 학교 문법은 물론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도 별개의 단어로 인정한다고 기술되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연쇄를 합성용언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는 예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다. 역시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하나의 단어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피하기 힘들다.

또한 문법형태소의 처리에서도 모호한 점이 존재한다. (4ㄸ)의 보조사 ‘요’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조사가 간투사의 기능으로 실현될 때에는 이들을 단어로 인정하여 측정하지 않는다. 또 ‘하고는 싶다’의 어미와 보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보조사를 별개의 단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조사 내부에서도 비대칭적 단어 인정 여부가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단어는 형태소에 비해서 언어병리학 분야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단어에 대해서는 교육 문법의 단어 판별 기준, 즉 조사를 단어로 인정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그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단어 분석의 비일관성을 피하기 어려운데 이는 단어가 갖는 포괄성, 비일관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3.3. 어절

어절은 형태소나 단어와 같이 개별 단위라기보다는 단어를 넘어서 문장 차원에 참여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사적 단위로 볼 수 있다. 어절은 매우 널리 알려진 단위이면서도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

(5) 어절의 정의

어절은 체언이 조사의 도움을 받거나 하나의 단어가 문장의 형성에 참여하는 단위이다(고영근·구본관 2008 : 272).

어절은 교착어적 특성이 단어가 문장에 참여하면서 드러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절을 음운론적 단어로 해석하거나 심리적 실재를 반영하는 실체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대개는 문장 구성 요소, 즉 문장 성분이 배당되는 형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어절이 문장 성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엄밀한 정의라고 하기 어렵다.

왜 어절은 이런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널리 이용되는 것인가? 한국어의 어절은 영어의 단어와 유사한 면이 있다. 표기법에 반영된 띄어쓰기의 단위가 단어와 거의 일치와는 영어에서는 단어 분석이 더 쉬운 편이고,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면서도 띄어쓰기에 반영하지 않는 한국어에서는 단어보다는 어절이 일차적 분석 단위로 더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어절 단위 분석의 가장 큰 미덕은 분석이 수월하다는 데 있다. 국어학적 분석의 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더라도 띄어쓰기의 형식으로 표출되는 어절 단위의 분석에는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절을 의사소통 분석의 기본 단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학교 문법에서 어절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받아들여진다. 어절은 통사론적 단위이지만, 어휘적 요소에 문법적 요소가 첨가되는 방식으로 형

성되는 단위이다. 어절은 문자 언어에서 띄어쓰기라는 장치로 실현되므로 분석의 어려움을 줄여 주지만,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문법 요소의 중요성 때문에 기본 단위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성은 개별 형태소에 매우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분리해 내야 한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절의 구분 원칙을 보면 띄어쓰기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태(2002 : 259)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어절이 자발화 자료 분석에서 갖는 의의는 구어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러는데 있다. 어절은 말의 흐름을 구분 짓는 단위이므로 띄어 말하기의 단위에 가까우며 이런 점에서 자발화 분석에서 효용성을 가지지만, 띄어 말하기의 단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로 띄어쓰기 기준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절을 음운론적 단어로 보려는 관점도 이런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6) 어절의 구분 원칙(김영태 2002 : 258)

- ㄱ. 띄어쓰기
- ㄴ. 복합용언 및 분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은 한 어절로 간주한다.(열어 놓았어 : 1어절)
- ㄷ. 의존명사는 1어절로 본다.
- ㄹ. 고유명사는 전체를 1어절로 본다. (후략)

그렇지만 주세형(2004 : 468)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어절은 구어에서 실현되는 어조 묶음, 즉 끊어 읽기의 양상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제시한 어절의 구분 원칙에도 모순점이 발견되는데, 어절이 구어의 띄어 말하기를 반영한다면 분용언과 보조용언을 한 단위로 처리하는 것은 용인되지만, 의존명사를 별도의 어절로 보는 것은 구어의 실현 양상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의존명사는 선행요소와 한 단위로 발음되면서 경음화나 위치동화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남아 있지만, 어절에 대한 인식

은 띄어쓰기와 같은 형식적 표지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는 자립성을 갖는 단위로, 영어로 보면 단어에 대응하는 단위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남길임 2013 : 115).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용이성 때문에 어절 단위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절을 기본 단위로 이용한 성과는 적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김영태(1997)에서는 영어의 평균 형태소 길이에 비해 한국어의 평균 형태소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발화에 포함된 형태소의 수가 한국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한국어의 평균 단어 길이나 평균 어절 길이는 영어권 아동의 평균 형태소 길이와 유사한 길이를 보였다고 한다. 문법 단위가 어떤 것이든 그 단위의 출현 빈도가 어떤 집단의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다면 자발화 분석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윤미선 외(2013)은 2, 3, 4세 아동의 자발화에서 형태소, 단어, 어절의 세 가지 문법 단위로 측정된 평균 발화 길이를 분석하여 어느 정도 규모의 발화 표본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였는데, 어절 수준에서는 50발화 정도의 규모로도 안정적인 수치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단어와 형태소 분석에서는 2세와 4세 아동은 100발화 정도의 표본을 추출해야 최적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윤미선 외 2013 : 373). 언어치료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어절 분석으로도 대략적인 언어발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어절 단위는 다른 측면에서도 분석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교류되는 내용을 단위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내용 단위(content unit)라고 한다. 이 내용 단위는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단위로 의사소통 상황의 정보 전달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일반인들이 항상 한 단위로 묶어서 표현하는 단위’로 개념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옛날이야기를 시작할 때, ‘옛날에’, ‘옛날 옛적에’, ‘옛날, 먼 옛날에’ 등 서두에 이야기를 이끄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들을 문법 단위의 수를 무시하고 하나의 의미 단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분석은 의사소통에 참

여하는 화자와 청자의 정보 교환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문법 단위의 양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위와 같이 정보 전달의 양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단위를 새로 규정할 것이다(권미선 외 1998 : 35).

그러나 내용 단위의 유형이 명확하게 규정되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확한(올바른) 정보 단위(CIU; correct information unit)’로 불리는 개념이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다(권미선 1998 : 37). 정확한 정보 단위는 ‘문맥상 명료하며, 주제 혹은 과제에 적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어 혹은 어절’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단위의 구분 원칙은 (7)과 같이 산출한 일정한 문법 단위, 즉 단어나 어절 중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위의 수만 측정하고 내용과 무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단위는 측정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이렇게 의사소통 맥락에서의 의미적 측면을 고려하면 발화의 효율적 사용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⁶⁾

(7) CIU의 구분 원칙(임은주 외, 2001 : 390)

- ㄱ.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명료도를 가지며, 내용이 주제 및 과제에 적절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어절을 말한다.
- ㄴ. 부적절한 내용을 전달하는 어절은 제외한다. (여자가 빨래를 하네요. (설거지를 하는 상황이라면 제외한다.)
- ㄷ. 자가수정한 경우에는 마지막 반응을 분석한다. (스페, 스피, 스프를

6) 이들 내용 단위는 주로 성인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이용되어 왔다. 발화에 포함된 분당 내용 단위의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형식적 단위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면 같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현주(2012 : 140)에서는 노년층의 담화를 분석한 결과 교육 연수가 높을수록 CIU 단위의 비율이 높고,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CIU 단위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단위를 활용하여 분석한 임은주 외(2001 : 381)에 따르면 이 단위는 실어증의 정도를 판정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전체 발화 대비 정확한 정보 단위의 비율을 보면 경도의 경우 86.1%, 중등도는 65.1%, 중도는 35.7%로 나타났다. 분당 산출 어절 수의 경우는 각각 53.9, 49.5, 35.5개였다.

녕네요.) (후략)

이 단위는 영어에서는 단어 단위로 운용될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의미를 실현하는 정보 단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되겠지만 대개 이 단위를 도입한 연구들은 단어나 어절 모두를 이용하고 있다. 임은주 외(2001)나 최현주(2012)에서는 어절을 단위로 이용하였는데, 임은주 외(2001)은 정보의 전달이라는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면 한국어의 문법적 기능어는 내용어와 함께 하나의 의미 단위를 구성하므로 별도의 단위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정보 단위에서 어미와 같은 기능적 요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지표를 산출하는 데 단어와 어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두 문법 단위의 지위가 적어도 내용 단위의 파악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분석을 위한 단위의 재구성

형태소, 단어, 어절은 널리 알려진 문법 단위로 엄밀한 개념 규정 없이도 언어병리학자들이 이용해 온 기초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단위들이 언어병리학적 차원에서는 물론, 국어 연구의 영역에서도 만족스러운 분석 지침이 확립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어와 어절의 구분 원칙이 대개 조사의 분리 여부로만 차별화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단계의 구별이 근본적으로 조사의 특이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의존적인 것이라도 단어의 자격이 있으면 분리했기 때문에 어절과 단어의 차이는 조사의 분리 여부가 주된 것이다. 또 하나의 차이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성이 한 어절, 두 단어가 된다는 것이지만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함께 서술어를 형성한다는 문장 성분의 관점에서 보

면 이러한 처리가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학교 문법에 규정된 조사와 어미의 비대칭성은 언어병리학에도 그대로 수용되어 분석의 명확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절은 그 내부에 어휘적 요소와 문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2차적 분석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어절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나 어미는 해당 어절에서 문법적인 핵을 형성하고, 이 부분을 분리하는 것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기능하는 한국어의 주요 문법적 장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만을 단어로 인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단계적 불일치성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8) 의존적 요소의 분석 층위

- ㄱ. 의존명사, 보조용언 : 어절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 ㄴ. 조사 : 단어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 ㄷ. 어미 : 형태소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의사소통 상황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문법적 요소가 이렇게 각 분석 단위별로 나누어지면 어떤 단위의 계량은 특정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단어 분석은 한국어의 어미를 세지 못한다. 언어병리학 분야의 언어 분석 목적이 측정에 있다면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분석 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문법적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조사와 어미에 대한 분석을 놓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⁷⁾

형태소 분석의 수준에서는 조사와 어미 모두 단위로 측정되므로 문제가

7) 조사와 어미 분석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장의 구조에 대한 지표가 되며, 구어 등 새로운 분석 기준을 도입하여 기술해야 하는 자료 연구에서도 긴요한 과정이다. 남길임(2013 : 133)에서는 일정한 기능을 갖는 정형화된 표현(formulaic expression)을 검색하고 한국어의 경우 조사와 어미가 최소 구문 단위로 기능하므로 문법 형태가 이 연쇄를 구성하는 단위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구어 분석에서는 조사와 어미는 물론 이를 포함한 정형화된 표현이나 문법적 언어까지 포함하여 분석 대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형태소 분석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일관성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단어형성과 관련된 영역은 의사소통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관성 확보에는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조사와 어미의 비대칭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을 동일한 층위에서 기술해야 함을 지적해 왔다. 최호철(1995)은 교착어에서 자립성만으로 실질적 의미 단위와 형식적 의미 단위를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의미적 특성을 기준하여 어절과 형태소 사이의 새로운 단위인 ‘어사’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단위는 주시경의 ‘씨’에 해당하는 단위를 홍기문의 용어로 수용한 것이다.

(9) 국어의 문법 단위(최호철 1995 : 649)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문장)
철수가 / 이야기책을 읽었다	(구)
철수가 / 이야기책을 / 읽었다	(어절)
철수 / 가 / 이야기책 / 을 / 읽었다	(학교 문법의 단어)
철수 / 가 / 이야기책 / 을 / 읽 / 었 / 다	(어사, 새로 제안한 단어)
철수 / 가 / 이야기 / 책 / 을 / 읽 / 었 / 다	(형태소)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보는 관점은 여러 연구자들이 제기해 온 것이다. 최형용(2010 : 72)에서는 구와 결합하는 조사와 어미는 통사 단위로 볼 수 있으며, 어미도 품사 분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조사와 어미의 비대칭성은 선행 요소와의 분리성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속성은 조사와 어미가 아닌 선행 요소의 속성이며 통사론적으로는 단어 인정 여부의 변별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정환(2011 : 223)도 단어의 기능적 정의를 통해 어미를 단어의 부류로 인정하고 있다. 문장 내 성분들 간의 통사적 관계에 기대어 기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한국어의 기능적 단어를 상정하면,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는 접속조사와 함께 접속어라는 단어 부류

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태소 분석과 어절 분석 사이에 학교 문법과는 다르게 규정된 단어 단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조사와 어미를 동일한 차원의 분석 단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층위 간의 구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즉, 조사와 어미를 포괄하는 굴절소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사적 기능을 인정하고 같은 층위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기존의 단어 단위를 형태소 분석의 수준으로 정밀화하는 것이다. 사실상 그동안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이용한 형태소 분석의 층위는 엄밀한 의미의 형태소 층위가 아니라 바로 굴절적 차원의 문법 요소를 분석하는 수정된 단어 층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합성어나 고유명사를 하나의 형태소로 처리하는 등의 기준(김영태 2002 : 2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정된 새로운 단위가 언어병리학적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단어 분석 층위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어절 층위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미 한국어의 발화 길이 측정에서 형태소와 어절 단위로 연령별 차이를 확인한 연구가 있으며(정부자 2013 : 43), 학교 문법에 따른 단어 단위보다는 어절 단위의 측정이 임상 현장에서 선호되고 있다. 물론 어절 단위 분석이 갖는 용이성이라는 장점에 이유가 있겠지만, 단어 단위 분석과의 차별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을 짐작하게 한다. 아직 의존명사나 보조용언 등의 의존적 단위 분석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지침이 추가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겠지만, 문장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관형어와 의존명사,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기존의 형태소-단어-어절 단위를 수정된 단어-어절의 두 단계 단위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존의 3단계 단위를 2단계로 축소한다면 여기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단어에 포함된 어미를 분석하는 것은 이미 형태소

분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형태소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어절에 대해 그 통사적 지위를 인정해서 새로운 이름을 새로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절을 문법 단위의 일원으로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서도 이 용어를 널리 이용한 것은 띄어쓰기라는 문자언어의 형식적 특성과 분석 용이성에 따른 것이며, 또한 문장의 구성 요소로서의 지위를 반영하는 것 때문이다. 자립성을 기준으로 하여 단어를 규정한다면 어절은 단어에 해당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렇다고 어절에 단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김기혁(1988 : 2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형태소에 가까운 더 작은 단위와 어절에 가까운 더 큰 단위 모두 단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대상이라는 데 있다. 그 차이는 작은 단위에서 주로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법 요소의 분석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큰 단위는 한국어의 통사적 운용 단위라는 것이다. 그 중간 단계가 언어병리학적 분석에 유용할 것인가? 만약 현재와 같이 조사와 어미의 비대칭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체계라면 그 답은 불분명하다. 현재의 단어 단위가 갖는 불명확성 때문에 여기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여러 연구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할 필요도 제기된다. 명확한 장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중간적 단어 단위를 버려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결론

의사소통 장애를 다루는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문법 단위가 활용되어 왔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문법 단위는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진단과 평가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한국어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단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문법 단위의 분석 기준을 더 명확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 문법의 틀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겠지만 새로운 단위의 도입을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형태소, 단어, 어절의 세 가지 문법 단위의 정의와 분석 기준을 다시 살펴보았다. 학교 문법 및 기술 문법서에 제시된 정의와 실제 이용되는 분석의 기준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으며, 이는 언어병리학의 분석 대상이 되는 발화 자료가 주로 구어 자료인 데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애초에 조사와 어미의 지위를 비대칭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현 문법 체계의 문제이다. 적어도 언어병리학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범주와 분석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며 형태소-단어-어절의 기준을 형태와 품사 중심의 작은 단위와 문장 구성 요소로서의 큰 단위의 이원적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 제안은 실제 자료에 대한 적용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권미선 외(1998), “한국 성인의 자발화 분석에 관한 연구 : CIU 분석법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3,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35-49쪽.
- 김건희(2014), “단어, 품사, 문장성분의 분류에 대한 일고찰” 인문논총 71-1,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79-316쪽.
- 김기혁(1998), “국어문법의 단위”, 논문집 9, 상지대학교, 157-180쪽.
- 김수진 외(2011), “발화 요소와 발화 유형”,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91-118쪽.
- 김영태(1997), “한국 2-4세 아동의 발화길이에 관한 기초연구”, 말-언어장애연구 2,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 5-26쪽.
- 김영태(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 학지사.

- 남길임(2013), “한국어 정형화된 표현의 분석 단위에 대한 연구: 형태 기반 분석과 어절 기반 분석의 비교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20-1, 담화인지언어학회, 113-136쪽.
- 윤미선 외(2013), “평균발화길이 분석을 위한 발화 표본의 크기”, 언어청각장애연구 18-4,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368-378쪽.
- 이봉원(2013), “의사소통 장애 관련 학문 전공자를 위한 문법 교육의 몇 가지 과제”, 한국어학 61, 한국어학회, 233-259쪽.
-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은주 외(2001), “경증도에 따른 유창성 실어증환자의 정보전달능력에 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6-2,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374-391쪽.
- 정병철(2012), “형태소와 단어의 불분명한 경계에 대한 학교 문법의 처리 방안”, 청람어문교육 46, 청람어문교육학회, 513-544쪽.
- 정부자(2013), “2-4세 일반아동의 자발화 표본크기와 평균발화길이의 비교”, 자폐성장장애연구 13-3, 39-51쪽.
- 주세형(2004), “학교 문법 다시 쓰기 -언어 단위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0, 국어교육학회, 461-498쪽.
- 최현주(2012), “노년층의 담화 산출 특성: 노화, 성별,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 말소리와 음성과학 4-2, 한국음성학회, 135-143쪽.
- 최형용(2010), “품사의 경계 -조사, 어미, 어근, 접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47, 한국어학회, 61-92쪽.
- 최호철(1995), “국어의 문법 단위와 문법 교육”, 어문논집 34-1, 안암어문학회, 637-657쪽.
- 한정환(2011), “통사 단위 단어”, 국어학 60, 국어학회, 211-232쪽.

〈ABSTRACT〉

Basic Grammatical Units for Analysis of Communication Disorders

Yi Bong-won

In this article, I review the definition of the grammatical units and the criteria for analysis of the units to be used in the field of speech-language pathology. Many researchers of communication disorders, perform a linguistic analysis in order to discover the communication problems and find appropriate intervention strategies. Grammatical units could be used for detection and assessment of communication problems. This result of unit analysis is used to define the goals and methods of intervention for the disorders. This linguistic knowledge and description of the criteria for accurate analysis might be shared with speech-language pathologists. However, It is insufficient whether this knowledge of grammatical units for use in communication disorders is suitable. There are three types of the units that are used widely in the field of speech-language pathology; morpheme, word and eojeol. It has to be re-examined for the definition and the criteria of the units for linguistic analysis. And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definitions presented in school grammar and the results from analyzing actual data. This may be due to the data type of communication was primarily spoken data. However, I guess the mor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the current grammar systems have the asymmetric position of the word endings. For effective analysis in the field of at least speech-language pathology,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the

analysis criteria. So I suggested a way to simplify the units to dual stages of grammatical units for analysis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disorders. The larger units as components of the sentence are based on the independency, and the smaller units are corresponding with the revised word include the word endings. Of course, this proposal is to be verifi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some of the actual spoken data.

- **주제어** : 의사소통 분석, 문법 단위, 형태소, 단어, 어절, 언어병리학
analysis of communication, grammatical units, morpheme,
word, eojeol, speech-language pathology

이 봉 원

소 속 :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전자우편 : cynos@kornu.ac.kr

논문 접수 : 2014. 10. 20.

논문 심사 : 2014. 10. 25. - 11. 15.

게재 결정 : 2014. 11. 20.

국어 분절음 연구의 쟁점

이진호

< 차례 >

1. 머리말
2. 분절음과 관련된 용어의 문제
3. 자음 체계의 문제
4. 모음 체계의 문제
5.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국어 음운론의 여러 주제 중 분절음과 관련된 연구사적 쟁점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현대 국어의 음소 체계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국어 음운론 분야는 일찍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러한 성과는 주로 음운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음운들 사이의 대립 관계에 기반하여 음소 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해석하면서 수준 높은 결과물들이 도출되었던 것이다.

반면 현대 국어 음운론은 통시 음운론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20세기 전반기의 경우 음성학 이론의 도입으로 인해 문자의 환영에 빠지는 음운론 연구를 극복하게 해 주었다.¹⁾ 또한 20세기 후반기에

는 생성 문법을 받아들여 공시적 기술 방법들을 세밀하게 다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²⁾

여기서 다루려는 것은 현대 국어의 음운론 연구 중 음소 체계와 관련하여 부각되었던 여러 이견들이다. 통시 음운론에서는 음소 체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한 연구사적 쟁점이 되었던 반면 현대 국어 음운론에서는 음운 현상이나 공시적 기술 방법 등 음소 체계와 동떨어진 내용들이 연구사적으로 더 부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음소 체계와 관련해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이견들이 없지는 않다.

이 글에서 검토할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2장에서는 음소 체계와 관련된 용어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문법 용어는 문법 연구에서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지만 지금까지 그리 깊이 있게 다루어진 적은 없다. 음소 체계의 연구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 중 세 가지를 선택하여 그 속에 숨겨진 문제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3장과 4장은 각각 자음 체계 및 모음 체계와 관련된 쟁점을 살핀다. 3장에서는 자음 체계 중에서도 자음의 조음 위치 분류 및 ‘ㅎ’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 4장은 이중 모음의 범위, 이중 모음 ‘니’의 해석, 반모음 목록 등 주로 이중 모음에 대한 내용들을 살핀다.

2. 분절음과 관련된 용어의 문제

2.1. ‘파열음’의 경우

자음 중에서 ‘폐쇄-지속-파열’의 단계를 거쳐 발음되는 장애음의 부류를

-
- 1) 문자에 기대어 잘못된 음운 분석을 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 국어의 ‘ㄱ, ㅋ’ 등을 단모음이 아닌 이중 모음으로 분석한 것을 들 수 있다.
 - 2) 가령 불규칙적 교체의 기술 방안 또는 형태소의 기저형 설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 등은 생성 문법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일반적으로 ‘파열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파열음’ 이외에 다른 용어들도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용어들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ㄱ. 다막음소리, 단음소리, 정지음(停止音), 폐쇄음(閉鎖音), 밀폐음(密閉音), 차단음(遮斷音), 폐쇄구음(閉鎖口音), 색음(塞音), 폐색자음(閉塞子音), 폐음(閉音), 폐지음(閉止音), 막힘소리, 막음소리 등
 - ㄴ. 폐쇄 지속음 등
 - ㄷ. 헤치소리, 파열음(破裂音), 파장음(破障音), 충돌음(衝撞音), 터짐소리, 터지소리, 터침소리, 헤침소리, 파열음운(破裂音韻), 터지는 소리, 터뜨림소리, 파음(破音), 폭발음(爆發音), 구강 파열음, 터짐당소리 등
 - ㄹ. 순간음(瞬間音), 단음(斷音), 비계속음(非繼續音), 비지속음(非持續音) 등

(1ㄱ~ㄷ)은 파열음의 조음 단계 중 특정한 단계에 초점을 둔 것이고 (1ㄷ)은 파열음의 전체적인 음성적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 (1ㄱ)은 파열음의 첫 번째 조음 단계인 ‘폐쇄’, (1ㄴ)은 두 번째 조음 단계인 ‘지속’, (1ㄷ)은 세 번째 조음 단계인 ‘파열’을 반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를 나타내는 (1ㄱ)과 세 번째 단계를 나타내는 (1ㄷ)이 우세하다. (1ㄷ)은 파열음이 지속음과 달리 공기의 흐름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다지 널리 쓰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음에 반대되는 자음에는 파열음 이외에 파찰음 등도 있어서 파열음만을 지칭하기에는 그리 정확한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

(1)의 여러 용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1ㄱ)을 대표하는 ‘폐쇄음’과 (1ㄷ)을 대표하는 ‘파열음’이다. 각종 음운론 논저에서도 이 두 용어는 거의 대등하게 쓰이고 있다. ‘파열음’보다 ‘폐쇄음’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측의 중요한 근거는 파열음의 변이음 중에는 파열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ㅂ, ㄷ, ㄱ’의 경우 음절 종성에서는 파열이 되지 않는 미파음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미파음까지 포괄하는 용어로는 ‘파열음’보다 ‘폐쇄음’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파열음의 변이음 중에 파열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지만 이것이 ‘폐쇄음’이라는 용어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후음인 ‘ㅎ’의 변이음은 모두 후두에서 조음되어야 하고 치조음인 ‘ㄴ, ㄹ, ㅅ’의 변이음은 모두 치조에서만 조음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파열음 ‘ㅂ, ㄷ, ㄱ’의 변이음 중에는 유성 마찰음도 있는데 이것은 ‘폐쇄음’이라는 용어마저도 못 쓰게끔 할 수 있다.³⁾

‘폐쇄음’이라는 용어는 ‘파열음’과는 달리 여러 가지 상이한 용법을 지니고 있다.

(2) ㄱ. 파열음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

- ㄴ. ‘지속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 : ‘파열음, 파찰음, 비음’을 포괄함
- ㄷ. ‘폐쇄-지속-파열’의 단계를 거치는 모든 부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 : ‘파열음(plosive), 내파음(implosive), 방출음(ejective), 흡착음(click)’을 포괄함
- ㄹ. 종성에 나타나는 미파음의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

(2)는 ‘폐쇄음’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쓰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용어를 ‘파열음’ 대신 사용한다면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이 ‘파열음’ 대신 ‘폐쇄음’을 사용한다면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파찰

3) 이 때문에 어떤 음소의 부류를 지칭하는 용어를 결정하거나 또는 그 음소를 음소 체계 내에서 분류할 때에는, 그 음소의 모든 변이음을 고려하기보다 대표 변이음(또는 주-변이음)만을 고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파열음의 대표 변이음은 외파되는 음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파열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음'도 '폐찰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폐쇄음'과 '마찰음'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용어는 '파찰음'이 아닌 '폐찰음'이 될 수밖에 없다.⁴⁾ 그렇지만 '폐쇄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파찰음'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음성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폐쇄음'보다는 '파열음'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폐쇄'와 '파열' 중 이 부류의 음이 지닌 특징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은 '파열'이다. 강한 터뜨림을 동반하여 조음될 때 파열음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폐쇄'는 파찰음에서도 나타나서 파열음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상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실은 폐에서 나오는 날숨을 이용하여 '폐쇄-지속-파열'의 단계를 거치는 자음에 대해서 '폐쇄음'보다는 '파열음'이라는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함을 말해 준다. 즉 (2ㄱ)의 부류에 대해서는 '파열음'이라고 부르고 '폐쇄음'은 (2ㄷ)에 국한하여 영어의 'stop'에 대응하는 용법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편 (2ㄴ)의 용법으로는 '순간음, 비지속음' 등의 용어가, (2ㄹ)의 용법으로는 '미파음, 불파음' 등의 용어가 있다.⁵⁾

2.2. '삼지적 상관속'의 경우

국어의 파열음이나 파찰음은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세 가지 서로 다른 부류가 구별된다. 이 세 부류를 묶어서 흔히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부른다.⁶⁾ 그런데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는 세 부류의 명칭이 매우 다양하게 나

4) 조음 음성학적으로 보아도 '파찰음'보다는 '폐찰음'이 더 타당하다.

5) (2ㄷ)을 지칭하는 데 널리 쓰여 온 '내파음'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내파음'은 원래 의미로는 후두를 발동부로 하며 들숨을 사용하여 내는 폐쇄음(stop)의 일종으로서 국어의 음절말에서 발음되는 미파음을 가리키는 데에는 부적당하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공유되면서 '내파음'보다 '미파음'이나 '불파음'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6) 장애음 계열에서 성대의 울림이 아닌 다른 음성적 자질을 통해 세 가지 부류가 구분된다는 것은 국어 자음 체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타나고 있다.

- (3) ㄱ. 평음 : 평음(平音), 예사소리, 살땃단이, 평청음(平淸音), 본자음(本子音), 보통소리, 순음(順音), 순한 소리, 연음(軟音), 단순음(單純音), 여린 소리, 평자음, 경기음(輕氣音), 무기 연음(無氣軟音), 약한 소리 등
- ㄴ. 경음 : 중성(重聲), 쌍음(雙音), 경음(勁音), 된시옷, 중탁음(重濁音), 쌍자음(雙子音), 격음(激音), 병음(並音), 강음(強音), 힐음(詰音), 중부음(重父音), 짝소리, 농음(濃音), 지음(支音), 쌍초성(雙初聲), 경음(硬音), 된음, 중자음(重子音), 된소리, 꼭단이, 강자음(強子音), 복자음(複子音), 성문폐쇄음(聲門閉鎖音), 단단한 소리, 성문화음(聲門化音), 후두화음(喉頭化音), 센소리 등
- ㄷ. 격음 : 격음(激音), 기음(氣音), 유기음(有氣音), 대기음(帶氣音), 목같이소리, 센소리, 딱단이, 격자음(激子音), 격청음(激淸音), 거센말은소리, 출기음(出氣音), 강음(強音), 숨뚱소리, 거센자음, 기식음(氣息音), 송기음(送氣音), 거친 소리 등

(3ㄱ)의 용어들은 경음이나 격음과 비교해 소리가 약하거나 또는 더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3ㄴ)의 용어들은 소리의 음성적 특징을 반영하거나 또는 표기법적 특징을 반영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⁷⁾ (3ㄷ)은 소리의 강렬한 성질을 용어에 반영하고 있다.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는 자음들의 명칭은 세 가지 하위 부류의 조합을 고려하여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일반화된 몇몇 조합은 다음과 같다.

- (4) ㄱ. 예사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
- ㄴ. 평음 : 경음 : 격음
- ㄷ. 평음 : 경음 : 유기음

7) 경음은 ‘ㄱ, ㄷ, ㅃ, ㅆ, ㅉ’과 같이 표기되거나 또는 예전에는 ㅅ-계 합용 병서로 표기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 중성(重聲), 쌍음(雙音), 된시옷, 쌍자음, 병음(並音) 등이다. 경음의 표기적 특징을 반영한 용어는 주로 20세기 전반기에 많이 쓰였다.

(4ㄱ, ㄴ)은 주로 학교 문법에서, (4ㄷ)은 기술 문법에서 많이 쓰인다. (4ㄱ)과 (4ㄴ)은 고유어와 한자어라는 차이를 지닌다.⁸⁾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는 각 부류의 명칭은 서로가 대등하면서 동질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4)에 제시된 용어들은 그런 점에서 모두 문제점을 지닌다. (4ㄱ)은 각주 8)에서 지적했듯이 ‘예사소리’가 순수 고유어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이지만, 소리의 구체적인 음성적 세기나 느낌을 나타내는 ‘된소리, 거센소리’와 달리 ‘예사소리’는 그러한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4ㄴ)의 경우 역시 ‘경음’이나 ‘격음’에 비해 ‘평음’은 구체적인 음성학적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약점을 지닌다. (4ㄷ)은 ‘유기음’이 문제이다. 다른 용어에 비해 ‘유기음’은 음성적 특성이 너무 구체적으로 두드러져서 ‘평음’이나 ‘경음’과 대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3ㄱ~ㄷ)에 제시되었던 용어들을 대등성과 동질성에 근거하여 조합해보면 다음의 두 가지 후보가 가능하다.

(5) ㄱ. 여린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

ㄴ. 연음[軟音](또는 약음[弱音]) : 경음(硬音) : 격음(激音)

(5ㄱ)은 고유어, (5ㄴ)은 한자어로 짝을 지은 것이다. (5ㄱ, ㄴ)은 짝 지어진 용어들이 고유어와 한자어 여부, 대등성과 동질성 측면에서 (4)의 조합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반화된 관례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⁹⁾

8) 물론 (4ㄱ) ‘예사소리’의 ‘예사’는 한자어 ‘例事’이므로 순수한 고유어는 아니다.

9)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는 하위 부류의 용어는 음운 현상의 용어를 선택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가령 ‘평음’ 대신 다른 용어를 쓰면 음절말에서 일어나는 평과열음화도 다른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 경음화나 유기음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2.3. ‘반모음’의 경우

발음할 때 구강 안의 장애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모음과 비슷하지만 홀로 음절의 중성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한 음소 부류로 반모음이 있다. 반모음을 지칭하는 용어는 그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묶을 수 있다.

- (6) ㄱ. 반자음(半子音), 반모음(半母音), 반모운(半母韻), 반모반즈(半母半子), 반홀소리, 반음(半音), 반닿소리 등
- ㄴ. 부모음(副母音), 버금홀소리, 비성절 모음(非成節 母音) 등
- ㄷ. 섭음(涉音), 과도음(過渡音), 추이음(推移音), 미끄럼소리, 이동자음(移動子音), 경과음(經過音), 활음(滑音), 전이음(轉移音), 이동음(移動音), 활주음(滑走音), 활달음(豁達音), 이음(移音), 짧은 모음, 순간 모음 등
- ㄹ. 접근음, 순간 접근음, 비성절적 접근음 등

(6ㄱ)은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때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반자음’이 되기도 하고 ‘반모음’이 되기도 한다.¹⁰⁾ (6ㄴ)은 반모음이 혼자서는 음절의 중성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데 중점을 둔 용어들이다. (6ㄷ)은 반모음이 음성학적으로 미끄러지듯 발음되는 전이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6ㄹ)은 협착의 정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음성학적 특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6ㄷ)과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6)에 제시된 용어 중에서는 (6ㄱ)을 반영한 ‘반모음’과 (6ㄷ)을 반영한

10) ‘반자음’과 ‘반모음’ 중에서는 ‘반모음’이 좀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자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보다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훨씬 더 일반적이라는 점,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하여 음절의 중성을 이룬다는 점, 구개음화나 이-역행 동화 등에서 반모음이 단모음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점 등은 반모음이 자음보다는 단모음과 더 가까움을 말해 주므로 용어 역시 ‘반자음’보다는 ‘반모음’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활음’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¹¹⁾ 이 글에서는 ‘반모음’과 ‘활음’ 중 ‘반모음’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자 한다.¹²⁾ 우선, 반모음과 함께 분절음을 이루는 요소를 지칭하는 ‘자음, 모음’이 음성적인 속성과 무관하기 때문에 ‘활음’보다는 ‘반모음’이 더 낫다. ‘활음’은 미끄러지듯 발음한다는 음성적 속성을 반영하므로 ‘자음’이나 ‘모음’과는 용어상 대등하지가 않다. 다음으로 ‘활음’에는 ‘y, w’와 같은 음 이외에 후음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음도 활음이라고 부르고 있다.¹³⁾ 따라서 ‘y, w’만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기에는 ‘활음’보다 ‘반모음’이 더 적절하다.¹⁴⁾

3. 자음 체계의 문제

3.1. 조음 위치의 분류

현대 국어의 조음 위치는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와 다른 분류 방식도 존재한

-
- 11) (6ㄴ)의 용어들은 음절의 쓰임새만을 반영하고 있어서 너무 지엽적이라는 문제점을 지니며 (6ㄷ)의 ‘접근음’에는 반모음 이외에도 유음을 비롯한 다른 자음들이 포함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 12) 김종규(2010 : 50-51)에서는 ‘접근음, 활음, 반모음’의 세 용어를 검토한 결과 이중모음의 부음을 가리키는 데에는 모두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선보이고 있다. 김종규(2010)에서는 반모음에 대해 단모음과는 본질적인 음성적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모음’과 그 성격이 완전히 구분되는 ‘접근음, 활음, 반모음’과 같은 용어들을 호의적으로 보기 어렵다. 김종규(2010)에서는 반모음을 ‘비성절적 모음’이라고 기술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 13) 이러한 일시적인 음은 독립된 음소로 처리하지 않고 두 음소 사이의 전이 과정에서 일부로 볼 뿐이다.
- 14) 이혁화(2010 : 16)에서는 음절 구성의 측면에서 반모음은 홀로 중성이 되지는 못하지만 단모음과 결합하여 중성을 이룰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속성을 잘 반영하는 ‘반모음’이 다른 용어들보다 더 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 특히 치조음과 경구개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부류로 묶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자음의 조음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게 된다.

(7) 양순음 : 전설음 : 후설음 : 후음¹⁵⁾

치조음과 경구개음을 한 부류로 묶는 이유에 대해 배주채(1996 : 47)에서는 치조음과 경구개음이 오로지 조음 위치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¹⁶⁾ 즉 조음 방식이 동일하면서 ‘치조 : 경구개’라는 조음 위치만 다르므로써 구별되는 음소의 대립쌍이 국어에는 없다는 것이다. 경구개음에 속하는 ‘ㄷ, ㅌ, ㅊ’은 국어의 유일한 파찰음이기 때문에 경구개음과 다른 자음들의 대립은 조음 위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음 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게 된다.

치조음과 경구개음을 하나의 부류로 묶으면 국어 음운론 기술에서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음절말에서 일어나는 평파열음화의 기술이 좀 더 단순해진다. 평파열음화는 대체로 조음 위치의 변동 없이 조음 방식만 평파열음으로 바뀌는데, 경구개음과 후음은 예외적으로 평파열음화가 적용될 때 조음 위치까지 변하게 된다. 만약 경구개음과 치조음을 묶으면 ‘ㄷ, ㅌ’이 ‘ㄷ’으로 바뀌는 평파열음화 역시 조음 위치의 변동이 없으므로 그만큼 평파열음화를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다. 이-역행동화를 설명할 때 개재 자음의 부류를 단일화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이-역행동화가 일어나는 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자음들은 치조음과 경구개음인데, 이것들을 하나의 부류로 묶는다면 이-역행동화의 개재 자음 조건을 더 간략히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경구개음을 따로 독립시키지 않는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

15) 구체적인 조음 위치의 명칭은 논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국어 자음의 조음 위치를 (7)과 같이 구분하는 방식은 북한의 국어 음운론 연구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16) 이러한 사고는 허 웅(1965 : 191-192)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기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구개음화의 설명에서 나타난다. 공시적 관점에서의 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와 같은 음소적 구개음화와 치조음의 경구개 변이음화와 같은 음성적 구개음화를 포괄한다. 경구개음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ㄷ-구개음화의 경우 변동의 원인을 조음 위치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조음 위치의 동화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ㄴ, ㄹ’과 같은 설정성 공명음이 ‘ㅈ, ㅊ, ㅉ’과 같은 자음 앞에서 음성적으로 구개음화를 겪는 원인도 설명하기 어렵다.¹⁷⁾ 통시적 관점에서의 구개음화는 ‘ㅈ, ㅊ, ㅉ’이 치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변화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변화 역시 경구개음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7)과 같은 방식에서는 중세 국어든 현대 국어든 ‘ㅈ, ㅊ, ㅉ’의 조음 위치에 차이가 없으므로 치음 ‘ㅈ, ㅊ, ㅉ’이 경구개음으로 재음운화되는 변화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 외에 경구개음을 설정하지 않으면 반모음 ‘y’가 ‘ㅈ, ㅊ, ㅉ’ 뒤에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을 포착하는 데에도 불리하다. ‘ㅈ, ㅊ, ㅉ’과 ‘y’ 사이의 배열 제약은 두 음소의 조음 위치가 동일하여 그 성격이 중복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정확히 설명하는 데에는 경구개음이라는 부류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ㅈ, ㅊ, ㅉ’이 관여하는 현상들을 조음 위치가 아닌 조음 방식에 기대어 설명해야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즉, 지금까지 경구개음이라는 조음 위치와 결부 지어 논의되어 왔던 모든 음운론적 사실들은 (7)과 같은 방식에서는 조음 위치가 아닌 ‘파찰음’이라는 조음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경구개음’이라는 특성을 통해서는 잘 이해되는 것들이 ‘파찰음’이라는 특성을 통해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을 감안하면 비록 경구개음에 속하는 자음들이 조음 위치에 의해서만 다른 자음과 변별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구개음을 별도

17) ‘앉아, 울지’ 등의 ‘ㄴ, ㄹ’은 음성적으로 구개음화를 겪게 되는데, 그 원인을 더 이상 ‘ㅈ’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로 설정해 주는 것이 공시 음운론적 기술이나 통시 음운론적 설명을 위해서 더 낫다고 하겠다.

3.2. ‘ㅎ’의 분류

후두 마찰음 ‘h’는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성격 파악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국어의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하여 대부분 설정에서부터 하위 부류 설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¹⁸⁾

- (8) ㄱ. ‘ㅎ’은 자음인가? → 자음으로 보기도 하고 활음으로 보기도 함
- ㄴ. ‘ㅎ’은 장애음인가? → 장애음으로 보기도 하고 접근음으로 보기도 함
- ㄷ. ‘ㅎ’은 평음인가? → 평음으로 보기도 하고 유기음으로 보기도 함

여기서는 (8)의 세 가지 쟁점 중 (8ㄷ)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¹⁹⁾ (8ㄷ)의 경우 ‘ㅎ’을 평음으로 보는 입장과 유기음으로 보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²⁰⁾ ‘ㅎ’을 평음으로 보는 근거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9) ㄱ. ‘ㅎ’의 변이음들(φ, ç, x, h)은 유기성이 약하다.
- ㄴ. ‘ㅎ’은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를 겪는다.

18) ‘ㅎ’의 성격 파악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들은 김선철(2012)에서 각각도로 검토한 바 있다.

19) (8ㄷ)의 쟁점은 (8ㄱ), (8ㄴ)과 관련하여 ‘ㅎ’을 자음 중 장애음으로 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국어의 경우 ‘ㅎ’은 다른 장애음과 유사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장애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20) (8ㄷ)에 제시된 두 가지 이견 외에 이진호(2014)에서 ‘분류 불가설’이라고 명명한 제삼의 견해도 있다. 후음이면서 마찰음은 ‘ㅎ’ 하나밖에 없으므로 굳이 평음이나 유기음 어느 한쪽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서 ‘ㅎ’이 어디에 속하는지 구체화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평음’과 ‘유기음’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과 ‘평음’이나 ‘유기음’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 ㄷ. ‘ㅎ’ 뒤에서는 무성모음화가 잘 안 일어난다.
- ㄹ. 유기음보다는 평음이 더 보편적인 음이다.

(9ㄱ)은 ‘ㅎ’의 음성학적 특징, (9ㄴ, ㄷ)은 변이음 실현 과정에서 ‘ㅎ’의 기능, (9ㄹ)은 언어 보편적인 경향성의 차원에서 ‘ㅎ’이 다른 유기음과는 구분되는 측면이다. ‘ㅋ, ㅌ, ㅍ, ㅊ’과 같이 명백한 유기음들은 유기성이 강하고 유성음화를 겪지도 않으며 무성모음화도 더 활발하게 일으킨다.²¹⁾ (9)에 따르면 ‘ㅎ’을 유기음이라고 보기보다는 평음으로 보는 것이 낫다. 반면 ‘ㅎ’을 유기음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도 존재한다.

- (10) ㄱ. ‘ㅎ’과 평장애음이 결합하면 유기음으로 축약된다.
- ㄴ. 전통적으로 ‘ㅎ’은 차청(유기음)으로 분류해 왔다.

(10ㄱ)은 ‘ㅎ’을 유기음으로 분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축약이 일어나면 축약되기 전의 두 음소가 지닌 음성적 특성이 합쳐지기 마련이므로 평장애음이 유기음으로 바뀌는 데 주된 역할은 ‘ㅎ’이 하게 된다. 즉 ‘ㅎ’을 유기음으로 볼 때 축약의 결과가 유기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쉬운 것이다. (10ㄴ)은 전통적인 성운학에서 ‘ㅎ’이 다른 유기음과 동일한 차청으로 분류되었음을 말해 준다.

표면적으로 보면 평음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유기음설을 지지하는 근거보다 더 많아 보인다. 그러나 면밀하게 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9)에 제시된 네 가지 근거 중 (9ㄴ, ㄷ)은 (9ㄱ)에 제시된 ‘ㅎ’의 유기성 부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어서 실제로 (9ㄱ~ㄷ)은 하나의 근거로 묶을 수 있다. 더욱이 (9ㄹ)은 언어 보편적인 경향에 불과해서 ‘ㅎ’이 평음임을 지지하는 직접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21) 신지영(2000 : 244)에 의하면 무성 모음의 출현 빈도는 선행 자음에 따라 ‘ㅅ(52%), ㅆ(21%), ㅈ(11%), ㅍ(8%), ㅌ(3%), ㅋ(2%), ㅎ(1%), ㄱ(1%), ㅊ(1%)’의 순서를 보인다.

결국 자음 체계에서 ‘ㅎ’의 분류는 ‘ㅎ’의 유기성이 낮다는 사실과 ‘ㅎ’이 음운 현상에서 유기음처럼 기능한다는 사실 중 무엇을 중시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여기서는 ‘ㅎ’의 음운론적 기능을 우선시하여 유기음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ㅎ’의 유기성이 떨어진다고는 하나 ‘ㅎ’의 유기음적 속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²²⁾ 유기음의 ‘기(aspiration)’와 ‘ㅎ’의 음성적 특성을 비교한 양순임(1998)에 따르면 둘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지만 발성 작용이나 조음 작용에 공통점도 적지 않다. 더구나 ‘ㅎ’은 다른 유기음과 달리 구강 내의 폐쇄 과정을 갖지 않는 후두 마찰음임을 감안해야 한다. ‘ㅎ’의 유기성이 약하다면 이러한 후두 마찰음적인 속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유기성의 정도를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한다면 ‘ㅎ’이 다른 유기음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ㅎ’이 후두 마찰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다른 유기음들과의 차이는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ㅎ’의 유기성보다는 ‘ㅎ’의 음운론적 기능을 좀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

4. 모음 체계의 문제

4.1. 이중 모음의 범위

최근 들어 이중 모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2) 음성학적 차원에서는 ‘ㅎ’의 유기성이 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되는 견해도 존재한다. 가령 김선철(2012 : 35)에서는 음성학적으로도 ‘ㅎ’은 유기성이 강하다고 보았다. 다만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 (11) ㄱ. 이중 모음의 범위에는 단모음 연쇄만이 포함된다.
 ㄴ. 이중 모음의 범위에는 단모음과 반모음의 연쇄만이 포함된다.
 ㄷ. 이중 모음의 범위에는 단모음 연쇄나 단모음과 반모음의 연쇄 모두가 포함된다.

이 문제는 이미 1950년대 이전에 한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오랜 기간 쟁점화되지 못했다.²³⁾ 그러다가 요즘 들어 다시 논의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11ㄱ~ㄷ) 중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이중 모음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직결된다. 이중 모음을 문자 그대로 모음이 이중으로 된 것이라고 보면 (11ㄱ), 이중 모음을 이루는 두 요소 중 하나는 반모음이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면 (11ㄴ), 이중 모음은 단모음 또는 단모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요소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적인 단위라고 보면 (11ㄷ)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다.

현대 국어 연구에서는 대체로 (11ㄴ)과 같은 입장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11ㄱ)에 해당하는 이중 모음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ㄱ’을 제외하면 단모음 연쇄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은 존재하지 않는다.²⁴⁾ 그러다 보니 (11ㄴ)에 속하는 음들을 이중 모음으로 취급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ㅑ, ㅕ, ㅛ, ㅠ, ㅜ, ㅠ’ 등과 같은 중성자의 존재이다. 문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초창기 연구에서는 ‘반모음+단모음’의 음소 연쇄가 ‘ㅑ, ㅕ, ㅛ, ㅠ, ㅜ, ㅠ’와 같이 한 글자로 나타난다는 점 때문에 이들을 음운론적 단위로 인식하고 이중 모음

23) 가령 김두봉, 최현배 등은 대체로 이중 모음 속에 반모음이 포함된다고 본 반면 이극로의 경우에는 단모음 연쇄만 이중 모음으로 보았다. 이 두 가지 견해를 절충하여 심의린은 이중 모음을 중모음(重母音)과 합모음(合母音)으로 나누고 중모음에는 단모음 연쇄, 합모음에는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을 두어 모두를 이중 모음 속에 포함시켰다. 자세한 것은 이진호(2009)를 참고할 수 있다.

24) 중세 국어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ㅐ, ㅑ, ㅕ, ㅠ’ 등을 ‘ay’와 ‘ai’ 중 어느 쪽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11ㄱ)에 속하는 이중 모음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아무튼 현대 국어에 단모음의 연쇄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 거의 없다는 것은 국어의 유형론적 특징 중 하나로 거론하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

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1ㄴ)과 같은 방식이 이중 모음의 원래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11ㄱ)과 같은 입장이 부각되었다. 이중 모음이 두 모음의 결합이어야 한다면 반모음이 포함된 연쇄는 이중 모음의 정의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²⁵⁾

현대 국어 음운론의 기술에는 (11ㄱ)이나 (11ㄴ)보다는 (11ㄷ)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좀 더 나올 듯하다. (11ㄱ)의 경우 명백하게 중성 역할을 하고 있는 ‘ㅈ, ㅋ, ㄱ, ㅍ, ㅊ, ㅌ, ㄷ, ㅌ’ 등과 같은 연쇄를 이중 모음에서 제외하고 나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합당한 대안 마련이 어렵다.²⁶⁾ (11ㄴ)의 경우는 이중 모음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를 반드시 반모음으로 해석하게끔 하여 인위적 분석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단모음의 연쇄든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든 모두 모음적 성격의 요소들이 한 음절의 중성에서 실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11ㄷ)과 같이 이들 모두를 이중 모음에 포함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11ㄷ)과 같은 입장을 취하더라도 순수한 단모음의 연쇄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과 ‘반모음+단모음’ 또는 ‘단모음+반모음’으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을 구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²⁷⁾

4.2. ‘ㄱ’의 분석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 ‘ㄱ’은 이전부터 그 분석 방법에 이견이 있어 왔

25) 이러한 문제점은 (11ㄴ)과 같은 입장을 취한 논의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가령 최현배(1937 : 41)에서는 이중 모음을 이루는 반모음은 모음의 자격을 갖지 않지만 원래는 모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반모음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중 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26) ‘ㅈ, ㅋ, ㄱ, ㅍ, ㅊ, ㅌ, ㄷ, ㅌ’ 등을 두 개의 단모음 연쇄로 분석하여 (11ㄱ)의 이중 모음 목록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혁화(2012 : 21)에서 지적했듯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27) 각주 22)에서 언급한 심의린처럼 이중 모음 속에 두 개의 하위 부류를 나누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현재 대립하고 있는 세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⁸⁾

- (12) ㄱ. ‘-ㄱ’은 단모음 ‘-ㅏ’와 반모음 ‘y’의 결합이다.
 나. ‘-ㄱ’은 반모음 ‘ㅍ’과 단모음 ‘ㅣ’의 결합이다.
 다. ‘-ㄱ’은 단모음 ‘-ㅏ’와 단모음 ‘ㅣ’의 결합이다.²⁹⁾

(12ㄱ~ㄷ) 중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 ‘-ㄱ’와 관련된 음운 변화의 해석도 완전히 달라진다.

- (13) ㄱ. -ㅏㅣ > -ㄱ [예] 쓰ㅏ- > 띄-, 쓰ㅏ- > 쓰-
 나. -ㄱㅣ [예] 회>히, 뇌>니

(13ㄱ)처럼 ‘-ㅏㅣ’의 두 음절이 이중 모음 ‘-ㄱ’로 줄어든 변화는 (12ㄱ~ㄷ)에 따라 ‘후행 모음의 반모음화’, ‘선행 모음의 반모음화’, ‘단순한 음절 수의 축소’로 달리 해석된다.³⁰⁾ 또한 (13나)처럼 자음 뒤의 ‘-ㄱ’이 ‘ㅣ’로 바뀌는 변화는 (12ㄱ~ㄷ)에 따라 각각 ‘이중 모음의 축약’, ‘반모음 ㅍ-탈락’, ‘단모음 -ㅏ-탈락’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ㄱ’의 해석 문제는 ‘-ㄱ’와 관련된 변화의 설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12)에 제시된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하든 ‘-ㄱ’은 현대 국어의 이

28) (12)에 제시된 세 가지 방식은 북한의 국어 연구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김성근(1995)를 참고할 수 있다.

29) (12ㄷ)의 경우 ‘-ㄱ’에서 음절 주음과 부음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상향 이중 모음이거나 하향 이중 모음과 구별되는 제삼의 부류를 설정하게 된다. 이 부류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동(浮動) 이중 모음’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외에도 ‘중간적(中間的)/횡진적(橫進的)/평판(平板)/평중(平重)/평(平)/수평(水平)/평행적(平行的) 이중 모음’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가 제안되었다. ‘상향 이중 모음’이나 ‘하향 이중 모음’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높이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는 ‘평행 이중 모음’ 또는 ‘수평 이중 모음’이 좀 더 나은 용어가 아닌가 한다.

30) 이 중 흥미로운 것은 (12ㄷ)으로 해석할 때이다. 이때에는 분절음 차원에서는 ‘-ㅏ’와 ‘ㅣ’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만 두 음절이었던 것이 한 음절로 줄어든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 유형은 기존의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도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중 모음 체계에서 유일무이한 특이성을 지닌 존재가 된다. (12ㄱ)의 경우 유일한 하향 이중 모음, (12ㄴ)의 경우에는 반모음 ‘ɰ’를 지닌 유일한 이중 모음, (12ㄷ)의 경우 단모음의 연쇄로 이루어진 유일한 이중 모음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 자체가 다른 이중 모음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인 이상 그 분석 방식은 전체 음운 체계에 부담을 덜 주면서 역사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나올 듯하다.

이혁화(2012 : 25-27)에서는 (12ㄴ)의 중요 근거로 내세운 이중 모음 체계의 통일 및 음성학적 근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12ㄷ)은 음절 구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들어 (12ㄱ)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경환(2003 : 62)에서는 몇몇 방언에 ‘y’로 끝나는 다른 하향 이중 모음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12ㄱ)의 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³¹⁾ 이 글에서는 명시적인 입장을 유보하고자 한다.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12ㄴ)과 같은 방식은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12ㄴ)은 반모음 ‘ɰ’의 설정으로 초래되는 부담이 적지 않다. 반모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며, ‘ɰ’는 오로지 ‘-’와만 결합한다는 극도의 분포상 제약을 지닐 뿐만 아니라 언어 보편적으로도 흔치 않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더욱이 (12ㄴ)은 중세 국어 ‘-’로부터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중세 국어의 ‘-’는 ‘iy’ 또는 ‘ii’일 수는 있어도 ‘ɰi’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iy’ 또는 ‘ii’로부터 ‘ɰi’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시기나 동기,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의 존재 등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3. 반모음의 종류

음소 체계의 차원에서 국어의 반모음은 전설 평순의 ‘y’와 후설 원순의

31) 김경환(2003 : 62-64)에는 (12ㄱ)을 지지하는 두 가지 근거가 더 제시되어 있으나 모두 국어사적인 차원이어서 현대 국어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w’, 두 가지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입장에 따라서는 몇 개의 반모음이 추가되기도 한다. 가령 4.2.에서 보았듯이 ‘i’의 분석 방법에 따라 ‘w’를 추가하기도 하며 다음과 같은 최소 대립군(minimal set)을 근거로 전설 원순의 반모음 ‘u’를 추가하기도 한다.

(14) 끼:[kʲy̝:](끼+어) ↔ 꺄:[kʲw̝:](꾸+어) ↔ 꺄:[kʲu̝:](뀌+어)

(14)에서 세 활용형을 구별해 주는 것은 반모음의 종류이다. 음소의 어휘 변별성을 중시하면 ‘u’는 ‘w’나 ‘y’와 구별되는 음소로 분석하게 된다.³²⁾ 이처럼 분석 방법에 따라 국어의 반모음은 최대 4개까지 설정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조규태(2000 : 200)의 지적처럼 국어의 반모음은 체계상 빈틈을 가지지 않는 최대의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15)

	전설	후설
원순	u	w
평순	y	w

(15)를 보면 반모음 체계의 대립 관계는 혀의 전후 위치와 입술 모양에서 표면상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추가된 반모음들의 분포는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w’는 오로지 ‘i’에만 선행할 수 있을 뿐이다. ‘u’는 주로 ‘i’ 앞에서만 나타나며 형태소 내부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³³⁾ 이것은 음소로서의 ‘u’가 ‘ci, ki’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a/ea’로 시작

32) 음소로 설정된 반모음 ‘u’는 ‘/w/’와 ‘/y/’의 변이음으로 실현되는 ‘[u]’와는 구분되는 존재이다. 자세한 것은 이혁화(2002)를 참고할 수 있다.

33) 방언에 따라서는 ‘a’ 앞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는 하다. 가령 ‘말류+아’나 ‘되+아’의 활용형으로 ‘[말류], [되:]’가 나타나는 방언에서는 ‘u’가 ‘a’ 앞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분포상의 제약이 심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어미가 올 때 반모음화가 적용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포상의 제한 이외에 ‘ㄸ’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음소로 설정했을 때 짝지어야 할 부담이 몇 가지 더 존재한다.

이처럼 ‘ㄸ’와 ‘ㄹ’는 현대 국어의 반모음 체계에 포함시키기에는 적지 않은 제약을 안고 있다. ‘ㄸ’의 경우에는 이중 모음 ‘-’를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므로 반모음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ㄹ’는 (14)와 같은 최소 대립군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ㄹ’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음소 분석의 문제나 공시적 기술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초래된다.³⁴⁾ ‘ㄹ’의 음소 인정 여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³⁵⁾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현대 국어의 음운 체계와 관련된 쟁점을 크게 용어, 자음 체계, 모음 체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용어 측면에서는 ‘파열음, 삼지적 상관 속의 하위 부류, 반모음’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검토하면서 음성학적 특징, 다른 용어들과의 대등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합당한 용어를 제안하였다. 자음 체계 측면에서는 치조음과 경구개음의 구분 문제, ‘ㅎ’의 분류 문제를 다루었다. 모음 체계 측면에서는 주로 이중 모음과 관련된 문제를 고찰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암시적으로 드러났듯이 현대 국어 음운 체계와 관련된 쟁

34) 음소 분석의 문제는 이혁화(2002)를, 공시적 기술의 문제는 이진호(2008)을 참고할 수 있다.

35) 다만 (14)와 같은 최소 대립군의 수는 많지 않다는 점, (14)의 ‘ㅍ:’와 같은 활용형은 그 존재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ㄹ’이 온전한 음소로서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Goldsmith(1995 : 12)에 제시된 대립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ㄹ’는 매우 낮은 등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점들은 음성학과 관련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용어 사용의 문제도 그렇지만 자음 체계나 모음 체계 역시 음성학적 관찰 결과를 음운 체계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가 관여하고 있다. 음운 체계가 음성학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성학적 차이를 전부 음운 체계에 반영할 수는 없다. 결국 음운론적으로 유의미한 음성적 차이를 선별하여 음운론적인 처리를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음운론적 처리에서 좀 더 타당하고 세련된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 문헌

- 강창석(1989), “현대국어 음운론의 허와 실”, 『국어학』 19, 국어학회, 3-40쪽.
- 고영근 외(1979), “국어학연구의 방향정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4, 서울대 국문과, 307-399쪽.
- 김경현(2003), “이중모음 ‘-i-’의 통시적 변화”, 『어문연구』 3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1-70쪽.
- 김선철(2012), “/ㅎ/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 /ㅎ/의 성격과 ㅎ-말음 용언을 중심으로”, 『언어학』 64, 한국언어학회, 31-47쪽.
- 김성규(1987), “어휘소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77, 서울대 국어연구회.
- 김성근(1995), 『조선어어음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김영선(1997), 『우리말 음절 구조의 선호성에 따른 음운 현상에 대한 역사적 연구』, 세종출판사.
- 김종규(2010),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성격에 대하여”, 『어문연구』 38-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5-66쪽.
- 박선우(2008), “현대국어의 /의/는 이중모음인가? -/의/의 음향적·지각적 특성에 대한 검토”, 『우리말연구』 23, 우리말학회, 59-86쪽.
- 박창원(2002), “음운론 연구 50년”, 『국어학 연구 50년』, 혜안, 47-127쪽.
- 배주채(1996),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1990),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송철의(1992), “국어 음운론연구 1세기”, 『국어국문학 40년』, 집문당, 399-425쪽.
- 신승용(2010), “이중모음의 정의와 이중모음에서의 분절음 탈락 -‘wi-i~u’, ‘iy→

i~i'를 중심으로”, 『배달말』 50, 배달말학회, 37-59쪽.

신지영(2000), “한국어 무성모음화 현상의 실현 환경과 그 양상-낭독체 발화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14, 235-259쪽.

양순임(1998), “유기음의 ‘기’와 /ㅎ/에 대한 비교 고찰”, 『우리말연구』 8, 우리말학회, 63-83쪽.

이문규(2004),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이병근(1985), “음운론의 연구”, 『국어학연구사-흐름과 동향-』, 학연사, 45-65쪽.

이상신(2002), “반모음 y의 음절 구조적 지위와 음절화에 의한 방언분화”,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 국문과, 385-407쪽.

이진호(2008), 『통시적 음운 변화의 공시적 기술』, 삼경문화사.

이진호(2009), 『국어 음운 교육 변천사』, 박이정.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이진호(2014), 『(개정)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이혁화(2002), “국어 반모음 ‘ㄷ’의 음성학과 음운론”, 『어학연구』 38-1, 서울대 언어교육원, 339-364쪽.

이혁화(2012), “국어 음운론의 용어 ‘반모음, 이중모음, 중성’에 대한 검토”, 『한글』 296, 한글학회, 5-39쪽.

이희승(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정승철·정인호 편(2010), 『이중모음』, 태학사.

정인호(2004), “하강 이중모음과 부동 이중모음의 음변화”, 『어문연구』 3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9-143쪽.

조규태(2000), “우리말 ‘ㄱ+ㄱ’의 준말에 대하여”, 『한글』 249, 한글학회, 197-207쪽.

최명옥(2003), “구미 음운이론의 수용과 한국어음운론”, 『관악어문연구』 28, 서울대 국문과, 91-159쪽.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허 응(1965), 『(개고신판) 국어 음운학』, 정음사.

Cho, Y.-M. Yu & G. K. Iverson(1997), Korean Phonology in th Late Twentieth Century, 『어학연구』 33-4, 서울대 어학연구소, 687-735쪽.

Fischer-Jørgensen, E.(1975), *Trends in phonological theory-a historical introduction*, Akademisk Forlag.

Goldsmith, J.(1995), Phonological Theory, in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Blackwell, 1-23.

〈ABSTRACT〉

Issues in Korean Segmental Phonology

Lee Jin-ho

In this paper I surveyed the issues related with phonemes of Korean, particularly focusing on terms and phoneme system. There are various terms representing the plosive, triple correlation bundle, semi-vowel. I reviewed each ones and proposed a more adequate term. In Korean phoneme system, division of alveolar from palatal, classification of ‘h(ㅎ)’, some theoretical problems of diphthong have been issued. I suggested that alveolar and palatal be divided into separate classes, that ‘h’ be classified as a aspirate, that Korean diphthong include the sequence of ‘semi-vowel + monophthong’ as well as ‘monophthong + monophthong’, that the interpretation of ‘-’ and the number of Korean semi-vowel inventory cannot be fixed easily. For the settlement of issues in Korean segmental phonology, it needs to use a phonetic clues efficiently.

- 주제어 : 분절음, 자음, 모음, 단모음, 이중 모음, 반모음
segment, consonant, vowel, monophthong, diphthong, semi-vowel

이 진 호

소 속 : 전남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ljhgj@jnu.ac.kr

논문 접수 : 2014. 10. 05.

논문 심사 : 2014. 10. 25. - 11. 15.

게재 결정 : 2014. 11. 20.

인쇄 공익광고의 표제와 슬로건에 나타난 화행 실현 양상*

전 정 미

< 차 례 >

1. 머리말
2. 공익광고 텍스트의 형식적 구조와 화행
3. 표제의 화행 실현 양상
4. 슬로건의 화행 실현 양상
5. 맺음말

1.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인쇄 공익광고 텍스트에 나타난 표제와 슬로건을 대상으로 설득 전략으로서의 화행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설득은 화자 자신이 옳다고 믿거나 바라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어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하기 방법이다

* 이 논문은 2014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임.
논점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 드린다.

(전정미 2007 : 11). 설득은 화자가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한 메시지를 청자에게 제시할 수 있을 때 가능한 행위이다. 화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청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화자는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게 된다. 공익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¹⁾ 공익광고는 1981년 텔레비전 광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공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담으며 발전되어 왔다. 공익광고는 사회 구성원을 설득하여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익광고에서는 공익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실천적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설득이 필수적이다.

초기의 공익광고가 국가 정책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의 공익광고는 국가에 의해 개인이 무시되는 공익이 아닌,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필요한 공익에 대해 논의하는 하나의 장이 되고 있다. 곧 공익광고가 공공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광고의 표현 형식은 전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된다.²⁾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광고와 같이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려움이 더하다. 광고는 일상 대화와 달리 청자와 직접 대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신념, 태도와 구체적인 행동까

1) 이와 관련하여 김미형(2011 : 22-23)에서도 공익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화합의 상태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매체가 됨을 설명하며, 사회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 도구가 되는 공익광고의 의의와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2) 김태철(1983)에서는 공익광고란 인간존중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일반 대중의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범국민적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제반 문제를 광고가 지닌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발휘하여 공공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쉽게 친근감을 주며 설득력 있게 소구하는 광고활동이라고 하였다.(김미형, 2011 : 22 재인용)

지도 변화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방식이 중요하다.³⁾ 또한 설득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인간관계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체면이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공익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고 긍정적인 행동으로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설득을 용이하게 하는 언어적 표현의 활용이 중요하다.

공익광고 안에 사용된 화행의 실현 양상에 관한 연구는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광고 텍스트 안에 활용된 개별 화행의 양상에 대해 다룬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윤희(2006), 전정미(2007), 장혜연(2011), 최숙이 외(2011), 한은주(2011) 등의 연구에서는 주로 공익광고의 화행 실현 양상에 대해 다루었으며, 특히 광고 전략으로서의 효율적인 화행 활용 양상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윤희(2006)에서는 설득을 위해 사용된 전략적 어휘, 특히 인칭 대명사와 생략 현상에 관하여 살피고 있으며, 전정미(2007)에서는 설득이라는 수행행위는 화자가 원하는 특정한 행동이 청자에 의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목표를 가진 화행으로 설명하였다. 장혜연(2011)에서는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공익광고에 나타난 설득의 언어적 표현 기법에 관하여 살피고 있다. 또한 최숙이 외(2011)에서는 전정미(2007)에서 제시한 설득의 요소를 바탕으로 설득 과정에서 장애가 나타날 때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자에 대한 배려를 제안하였다. 한은주(2011)에서는 공익광고를 대상으로 삼아 주제에 따라 화행의 양상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전달 메시지에 따라 선호하는 화행의 양상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대면의 상황도 아니고 한정된 주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공익광고는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이다.⁴⁾ 공익광고에 대한 연구의 내용은 지금 우리

3) 공익광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구성원에게 우리 사회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전환시키고자 설득하는 것이다.

4) 김병희 (2012 : 245)에서도 우리나라의 공익광고가 1942년에 시작한 미국이나 1971년에 시작한 일본보다는 늦었지만 국민들의 의식 계몽과 공공성 제고에 상당한 영

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화행 사용 양상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1983년부터 2013년까지 30년 간 발표된 인쇄 공익광고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특히 표제(headline)와 슬로건(Slogan)에 나타난 표현의 형식적 특징과 표현행위의 활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⁵⁾ 특히 청자의 입장을 고려한 설득 방식으로 선호되는 표현행위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인쇄 공익광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대표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⁶⁾ 그러나 공익광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인쇄 공익광고는 방송 공익광고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덜 받아 사회 구성원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매체⁷⁾이기 때문에 공익광고 텍스트에 사용되는 화행 사용 양상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한 사전 조사로서의 의의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표제와 슬로건에 나타난 표현행위의 실현 양상을 통해 공익을 위해 사회 구성원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제와 슬로건에 나타난 화행 유형으로 연구 범위에 제한을 둔 이유는 두 부분에 공익광고의 가장 핵심적인 설득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목표로

향을 미친 공공적 가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 5) 이 연구에서 자료로 삼은 공익광고는 모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홈페이지의 인쇄 공익광고 자료실에 있는 것으로 1983년부터 2013년에 발표된 것들이다. 최근의 공익광고는 기존의 광고 형식과는 다른 파격적인 유형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표제가 있는 197편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인쇄광고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설득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 장의 포스터 안에 모두 들어있어서 그 의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6) 현재 우리나라의 공익광고는 인쇄나 옥외 매체보다는 TV를 주된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인쇄 공익광고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TV 공익광고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은 한계가 있다.
- 7) 인쇄 공익광고는 신문, 잡지,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공익광고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하는 공익광고에서 청자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로서 화행 사용 양상은 일상 대화에서의 화행 사용 양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익광고 텍스트의 형식적 구조와 화행

2.1. 형식적 구조

일반 지면 광고의 구조는 ‘표제-본문-슬로건-광고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공익광고 텍스트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⁸⁾

(1) 표 제-우리 집 바닥이 우리 집 천장이 된다면?

본 문-시도 때도 없이 가구를 끌고 옮기는 당신. ‘이 정도는 문제 없어’라는 생각으로 조심성 없이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밤늦은 시간에도 소음을 견뎌야 하는 아래층 이웃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배려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슬로건-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 거꾸로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광고주-공익광고협의회 (2013)

자료 (1)에서는 표제를 의문문 형식으로 구성하고 물음표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자연스럽게 본문으로 연결되어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를 확장시켜 ‘이웃에 대한 배려

8) 이 형식이 공익광고 텍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지만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의 위치가 바뀌거나 생략되어 구조가 변형되는 경우도 있다.

없이 생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슬로건 부분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라는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제시하여 설득하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주에 해당하는 '한국공익광고협의회'를 표기한다.⁹⁾

표제는 모든 문자 텍스트 중 가장 두드러지는 위치에 놓여 있으며, 보통 가장 눈에 띄는 글자의 모양을 사용하며 압축적이고 강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제가 광고의 다른 구성요소와는 구별되는 기능에 대해 김동규(2003 : 429)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⁰⁾

(2) 표제의 기능

- ㄱ. 소비자의 주의를 끌 것.
- ㄴ. 일반 대중 중에서 목표 고객을 골라 낼 것.
- ㄷ. 독자를 표제로 끌어 들일 것.
- ㄹ. 목표 고객에 대한 강력한 편익을 제시할 것

자료 (2)의 설명을 토대로 살펴보면 표제의 주된 기능은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이다. 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눈에 두드러지는 효과가 필요하며, 언어적 내용, 글자 모양이나 크기 등을 돋보이게 하여 자연스럽게 본문으로 관심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목표 고객은 모든 청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광고의 목표가 공공 이익의 추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고려해야 하는 전반적인 문제로 이해해야만 설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공익광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메시지가 청자의 인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표제를 구성해야 한다.

광고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슬로건이다. 슬로건의

9) 인쇄 공익광고에서도 그림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가 포함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언어 표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 부분은 제외하였다.

10) 이 내용은 한은주(2011 : 33-34)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인데, 외래어 용어 중의 일부는 연구자가 임의로 수정하였다.

사전적 의미는 대중이 집단행동을 할 때 자신들의 요구와 행동을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해 쓰는 구호이다.¹¹⁾ 오늘날은 기업의 생각이나 주장 또는 제품의 특성 등을 일정 기간이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좋은 인상을 유지하거나 정착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므로, 슬로건은 광고의 표제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Bolen(1984)에서는 슬로건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된 간결하고, 기억하기 쉽고 반복 사용이 가능한 광고 어구 또는 문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좋은 슬로건은 짧고 의미가 명확하며, 단어의 구성이 적절하고 기억하기 쉬워야 하며, 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해야 한다(최민욱 외 2008 : 60 재인용).

Möckelmann & Zander(1970 : 23-45)에서는 슬로건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²⁾

(3) 슬로건의 기능

- ㉠. 커뮤니케이션 구축 기능
- ㉡. 소개와 각인을 통한 침투 기능
- ㉢. 사실적 정보와 논거 기능
- ㉣. 언어적 선전 기능
- ㉤. 감성 가치 전달 기능

(3)에 제시된 기능을 정리하면, 슬로건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설득이 용이하도록 호소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표제의 목표가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라면 슬로건은 메시지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속성을 갖는다.

11) 슬로건은 ‘위급함을 알리는 소리, 군대의 함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스코틀랜드 게일어(Gaelic)의 ‘Slaugh-ghairm’에서 유래한 말이다. 스코틀랜드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 중에 구성원을 독려하거나 우군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외치는 구호를 가리키는 말이다(김경석, 2006 : 최민욱 외 2008 : 59 재인용).

12) 이 내용은 김원식(2011 : 7-9)에서 재인용한 것인데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을 수정하였다.

2.2. 화행

Austin(1962, 1975 : 98-101)의 화행 분류¹³⁾ 이후 Searle(1969, 2007 : 23-25)에서는 Austin(1962)의 이론을 바탕으로 화행을 발화행위(utterance acts), 명제행위(propositional acts), 수행행위(illocutionary acts)와 결과행위(perlocutionary acts)로 분류하였다. Searle(1969)은 수행행위를 다시 진술행위(representative), 지시행위(directive), 언약행위(commisive), 표출행위(expressive), 선언행위(declaration) 등으로 세분화하였다(구현정 2000 : 127-132 참조). Searle(1969)에 의하면 화행에서는 단지 말해진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가진 힘을 찾아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공익광고에서도 설득을 위한 전략적 요소로서 사용된 화행의 양상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행위와 더불어 그 안에 숨은 수행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4) 당신의 시험지입니까? (2013)

자료 (4)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2013년도 공익광고 텍스트의 표제다. 표현행위에 해당하는 문장의 종결방식은 의문문이지만 수행행위는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시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익광고 텍스트에는 사회 구성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정 행위를 지시한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요구이지만 어떤 표현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13) Austin(1975 : 151)에서는 발화수반력에 따라 발화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었다. 그는 『말과 행위』에서 발화 행위를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convict(유죄를 선고하다)’와 ‘understand(이해하다)’와 같은 판정발화(Verdictives)는 판단을 행사하는 것이며, ‘dismiss(해고하다)’와 ‘command(명령하다)’와 같은 행사발화(Exercitives)는 영향력의 주장이나 권능의 행사이며, ‘promise(약속하다)’와 ‘contract(계약하다)’와 같은 언약발화(Commissives)는 책임을 지거나 의도를 선언하는 것이며, ‘blame(비판하다)’ ‘welcome(환영하다)’ 행태발화(Behabitives)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며, 그리고 ‘affirm(긍정하다)’과 ‘mention(언급하다)’과 같은 평서발화(Expositives)는 이유, 논의 그리고 의사소통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김영진 역 1992 : 111-138).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진다. 예를 들면 공익광고 텍스트의 표제나 슬로건에 {명령하다, 지시하다} 등과 같은 직접적인 수행동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청자의 역할을 하는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수행동사를 사용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정 행동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¹⁴⁾ 곧 명령의 형태가 아닌 서술이나 의문의 표현행위도 명령과 동일한 수행력을 갖고 있어 지시행위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제와 슬로건에 나타난 화행의 양상이 설득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표현행위에 해당하는 문장 종결방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공익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행위’가 어떤 표현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설득을 위한 다양한 언어적 표현에 대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인쇄 공익광고 텍스트의 표제가 어떤 표현 양상으로 나타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표제의 화행 실현 양상

표제는 주의집중이 가능한 위치에서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압축적이고 강력한 표현으로 전개하며, 본문의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특징을 가

14) Lakoff(1973 : 296)에서는 화용적 언어 사용능력 규칙으로 명료성과 공손성을 들고 있으며 정보전달의 측면에서는 명료성, 대인관계의 측면에서는 공손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공익광고 텍스트의 지시화행에서는 정보 전달 측면의 명료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더불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손성의 요소도 배제될 수 없다.

15) 공익광고 텍스트에 포함된 수행행위는 지시행위이다. 지시행위는 청자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화행이기 때문에 청자의 입장에서서는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운 화행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지시행위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제와 슬로건이 어떤 표현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고 있다. 모든 표제에는 지시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지시행위는 화자는 요구만 하고 청자는 그 요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화행이다. 공익광고의 목적 자체가 공익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강제성을 줄여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직접적인 지시행위가 주는 강제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문장 종결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3.1. 표제의 종결방식

문장의 종결방식은 언어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청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보여주는 문법범주이며, 대표적으로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으로 나뉜다(권재일, 2012 : 271). 표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눈에 드러나게 하는 부분이므로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표제의 문장 종결방식을 살펴보면 공익광고 속에서 사회 구성원에 대한 화자¹⁶⁾의 설득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197개의 표제에 나타난 종결방식은 다음의 자료 (5)와 같이 종결형과 비종결형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 (5) 가. 산소만 남겨주세요. (2011)
- 나. 이면지, 뒤집어서 재활용 하세요. (2012)
- 다. 내복약 (2011)
- 르. 국보 1호 (2012)

종결형은 (5 가, 나)과 같이 종결어미가 명확하게 실현된 유형을 가리키

16) 공익광고에서의 화자는 정부, 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주체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화자’라고 표현하였다.

며, 비종결형은 (5ㄷ, ㄷ)과 같이 종결어미 없이 명사나 조사, 또는 연결어미 등의 형태로 표제 부분이 구성된 형태이다.

공익광고 텍스트에서 표제의 유형을 크게 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종결형의 표제는 모두 147개(73.6%)이고 비종결형의 표제는 50개(26.4%)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종결방식의 양상은 다음의 (6)과 같다.

(6) 표제의 종결방식 양상

문장 유형	종결형					비종결형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소계	명사	연결어미	명사+조사	부사	소계
빈도(개)	99	31	13	4	147	43	4	3	2	50
비율(%)	67.3	21.1	8.2	3.4	100	82.7	7.7	5.8	3.8	100

표제의 종결방식은 종결형이 비종결형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종결형 전달방식은 서술형(67.3%) > 의문형(21.1%) > 명령형(8.2%) > 청유형(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제는 주의집중의 기능이 강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단어나 구의 형태가 아닌 종결형 어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공익광고에 종결형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종결어미에 청자에 대한 화자의 의향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장의 종결어미는 청자높임도 동시에 실현하는데, 청자가 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화자의 의향을 종결어미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술형 어미의 사용은 전달하려는 주제에 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의문형 어미의 사용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달하려는 주제에 대한 주의집중의 요소로 활용된다. 또한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의 사용은 화자가 함께 포함되는가의 여부로 나누어지는데 주로 사회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령형 어미를 선호하게 만든다.¹⁷⁾

다음에는 의향이 분명하게 나타난 종결형 표제를 대상으로 실제 화행 양상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2. 표제의 화행 양상

3.2.1. 서술문 표제의 화행

문장 종결방식이 서술형으로 끝나는 표제는 모두 99개로 전체의 67.3%의 빈도를 나타내며,¹⁷⁾ 표제의 대표적인 형식이다. 서술문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표제에 포함된 화행은 진술행위이며, 세부적으로는 주로 [단언]과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¹⁹⁾ 특히 서술문 형식의 표제에서 [주장]은 77.8%의 빈도를 나타내고, [단언]은 20.2%의 빈도로 나타나 표제에는 [주장]이 대표적인 화행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 (7) ㄱ. 여가시간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2007)
- ㄴ. 아무개님이 퇴장하셨습니다. (2013)
- ㄷ. 에어컨 한 대가 무려 선풍기 30대의 전기를 씁니다.(1992)
- ㄹ. 오늘도 스물 네 곳에 불이 났습니다. (1985)

자료 (7)의 표제는 서술문의 대표적인 화행 유형으로 (7ㄱ, ㄴ)은 [단언]을 나타내고 (7ㄷ, ㄹ)은 [주장]을 나타내고 있다. 진술행위는 본질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행행위를 가리키지만 [단언]과 [주장]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단언]은 화자가 실제 상황을 그대로

17) 김미형(2011ㄴ : 55-56)에서는 전달 매체의 차이에 따른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인쇄 공익광고보다는 텔레비전 공익광고에서 명령형이 더 높게 사용되는데, 특히 텔레비전에서는 상대방에게 선한 행동을 요청할 때 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18) 표제 중에는 ‘인터넷 교정이 필요하시군요(2006)’와 같이 감탄형 어미가 사용된 경우와 감탄 부호(!)가 사용된 경우는 권재일(2012 : 271)의 분류에 따라 서술문에 포함하였다.

19) 서술문 표제 중에는 약속과 정표도 포함되어 있지만 각각 1개씩만 나타나는 유형이라서 기타 유형으로 처리하였다.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청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데에 초점이 놓인다. 이와 달리 [주장]은 화자가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²⁰⁾. 곧, (7ㄱ)에서는 봉사를 위해 여가시간을 나누어 봉사를 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으며, (7ㄴ)에서는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의 극단적인 피해 사례에 해당하는 ‘죽음’이라는 현재 상황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7ㄷ, ㄷ)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7ㄷ)에서는 에어컨 사용의 자제, (7ㄷ)에서는 불조심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화행 사용은 지시행위의 강제성을 약화하는 효과가 있다. 곧 지시행위가 분명하게 있지만 설득의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을 선택하여 지시행위가 갖는 강제성을 약화하는 것이다.

3.2.2. 의문문 표제의 화행

의문형으로 끝나는 표제는 모두 31개로 전체의 21.1%의 빈도로 나타난다. 의문문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다음의 자료 (8)에서와 같이 의문형 종결 어미가 있는 유형도 있고 어미는 생략되고 의문 부호로만 표시된 유형도 있다. 여러 형식으로 표시된 의문형 표제의 화행은 크게 [질문]과 [확인]으로 나타난다. 이중에서 [질문]은 22.6%가 활용되었고 [확인]은 70.9%의 빈도를 나타낸다.

- (8) ㄱ. 아빠 노릇은 100점, 자식 노릇은 몇 점? (1991)
 ㄴ. 어느 것이 여자의 뇌입니까? (1997)
 ㄷ. 버리면 돌아온다? (2006)
 ㄷ.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2011)

20) 정경숙(2014 : 632)에서는 어미 ‘-다’와 ‘-네’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다’의 경우 필수적으로 청자에게 정보보이어야 하며 화자 자신이 그 일에 대해 인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 (8)의 표제에 나타난 화행은 (8ㄱ, ㄴ)과 같이 [질문]을 포함하고 있거나 (8ㄴ)과 같이 [확인]의 화행을 수행한다. (8ㄱ, ㄴ)의 표제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광고 전체를 살펴봐야 하며, 특히 공익을 위해 지시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의 본문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8ㄷ, ㄹ)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확인이다. ‘쓰레기를 아무 곳에도 버리면 다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돈이라면 절대로 음식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기능을 한다. [확인]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시키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인 지시행위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무엇이 공익에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를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3.2.3. 명령문 표제의 화행

명령문 표제는 모두 13개로 전체 표제의 8.2%의 빈도를 나타내며, 다음의 자료 (9)가 이에 속하는 유형이다.

- (9) ㄱ.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1998)
- ㄴ. 산소만 남겨주세요. (2011)
- ㄷ. 세상을 보기 전에 주위를 먼저 보십시오. (1999)
- ㄹ. 한 잔 비우셨다면 운전할 마음도 비우십시오.(2006)

명령문 형식의 표제에는 [요청]과 [지시]에 해당하는 두 유형의 화행이 포함되어 있는데, (9ㄱ, ㄴ)에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으며 (9ㄷ, ㄹ)에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요청]과 [지시]의 차이는 지시행위가 나타내는 강제성의 강도 차이이며, 이 강도는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된다. 곧 종결어미

에는 종결방식뿐만 아니라 높임의 의향도 동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격식성의 정도가 강제성의 강도와 관련되는 것이다²¹⁾. 자료 (9)의 표제에는 모두 청자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시행위가 나타나 있다. 다만 (9ㄱ, ㄴ)은 높임의 등급에서 보통 높임의 등급에 속하는 [요청]이고, (9ㄷ, ㄹ)은 격식을 갖춘 가장 높임의 등급이기 때문에 더 공적이고 강제성의 강도도 높아진다.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지시행위를 수행하는 방법은 설득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메시지를 수용해야 하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화행이지만 화자의 입장에서는 지시행위의 수행력을 높이기 위한 설득 방법이 된다.

3.2.4. 청유문 표제의 화행

청유문 표제는 모두 4개로 전체 표제의 3.4%의 빈도를 나타내며, 여기에는 [지시]만 나타난다.

(10) ㄱ. 마음의 창을 엽시다. (1984)

ㄴ. 우리 모두 깨끗한 선거를 치러냅시다. (1996)

(10ㄱ)에서는 이웃과의 교류를 지시하고 (10ㄴ)에서는 어떤 선거를 치러야 할지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유문 표제에서는 명령형 표제보다 [지시]만 더 많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청유문의 지시행위에서 요구하는 수행의 범위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곧 상대방에게만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문 표제의 경우에는 청자가 받는 부담의 크기를 줄여주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청유문 표제에서는 요구하는 수행행위의 주체에 화자 자신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청자의 체면을 고려하는 표현을

21) 권재일(2012 : 125)에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수평과 수직관계에 따라 높임의 등급을 [+높임], [+격식]의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구분을 따라 격식성의 정도를 판단하였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수행의 범위에 화자가 함께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지시행위가 나타내는 강제성의 정도는 이미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표제의 문장 유형과 화행 사용 양상의 내용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11)과 같다.

(11) 표제의 화행 사용 양상

문장 유형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주장	단언	기타	소개	확인	질문	기타	소개	요청	지시	소개	지시	소개
빈도(개)	77	20	2	99	22	7	2	31	11	2	13	4	4
비율(%)	77.8	20.2	2.0	100	70.9	22.6	6.5	100	84.6	15.4	100	100	100

공익광고 텍스트의 표제는 청자의 관심을 끌어 압축적으로 공익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고려하면 표어처럼 간결하고 압축적인 비종결형의 표제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종결형의 표제가 월등히 많다. 뿐만 아니라 활용되는 화행의 형태도 명령문 표제에 속한 [지시]보다는 서술문 표제에 속하는 [주장]의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은 표제에 포함된 설득의 전략으로 ‘강제성의 약화’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²²⁾. 비록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사회 구성원인 청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화자는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청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주장]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22) 공익광고를 이용해서 사회 구성원을 설득할 때는 법률적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처럼 특별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등의 강도 높은 의무 또는 강제성을 포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의 의향을 나타내는 데에도 청자가 되는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 강도 높게 설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 슬로건의 화행 실현 양상

슬로건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익광고의 슬로건은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지시행위를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 중에는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2014)²³⁾라는 슬로건은 누가 보아도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라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슬로건이 어떤 종결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형행위는 무엇인지 살펴 이를 설득 전략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1. 슬로건의 종결방식

슬로건을 문장 종결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우선 표제와 마찬가지로 종결어미의 유무에 따라 종결형과 비종결형으로 나눌 수 있다.

- (12) ㄱ. 나를 나누면 우리가 됩니다. (2007)
- ㄴ. 스위치를 내리면 별빛이 켜집니다. (2013)
- ㄷ.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교통 문화의 푸른 신호등 (2002)
- ㄹ. 우리의 손길로 자연을 깨끗하게 (2005)

슬로건은 자료 (12ㄱ, ㄴ)과 같은 종결형과 (12ㄷ, ㄹ)과 같이 종결어미 없이 명사나 조사, 또는 부사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슬로건은 모두 100개가 나타났는데,²⁴⁾ 종결형의 슬로건은 모두 88개(88.0%)이고 비종결형의 슬

23) 이 슬로건은 방송 공익광고에 나타난 것으로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 슬로건은 표제보다 그 수가 적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요즘 공익광고의 다양한 형식과 관련이 있다. 최근의 공익광고는 만화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이

로건은 12개(12.0%)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13) 슬로건의 문장 종결방식

문장 유형	종결형					비종결형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소계	명사	명사+조사	부사어	소계
빈도(개)	72	1	8	7	88	9	2	1	12
비율(%)	81.8	1.1	9.1	8.0	100	75.0	16.7	8.3	100

슬로건의 문장 종결방식은 종결형이 비종결형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종결형 전달방식은 서술형(81.8%) > 명령형(9.1%) > 청유형(8.0%) > 의문형(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종결형은 명사로 끝나는 유형이 주로 나타났고, 조사, 부사어 등이 소수 나타났다.

슬로건은 표제보다도 종결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슬로건이 가진 특성 때문이다. 슬로건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것이고, 종결어미를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요구하는 설득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슬로건의 본질적 기능이다. 서술어가 생략되면 문장이 압축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의미의 모호성도 함께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서술어 생략을 통하여 주의집중을 필요로 하는 표제에서는 압축적인 메시지 전달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슬로건은 생략된 성분을 통한 압축성과 주의집중의 효과보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비교적 단순한 형식의 종결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다.²⁵⁾ 또한 종결어미를 활용하

미지만으로 구성되거나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하여 표제만 있고 본문이나 슬로건은 생략하는 형태로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25) 서은아(2005 : 4)에서는 좋은 슬로건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반 상업광고는 완결된 문장으로 구성되기보다 단어나 구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쉽다고 하였다. 그

여 메시지의 격식성을 갖추고 공적인 담화로서의 가치도 높이는 것이다.

슬로건의 문장 종결방식에서 표제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종결어미 사용의 순서이다. 곧 표제에서는 서술형 어미 > 의문형 어미 > 명령형 어미 > 청유문 어미의 순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슬로건에서는 서술형 어미 > 명령형 어미 > 청유형 어미 > 의문형 어미의 순으로 나타나, 슬로건은 표제에 비해 의문형 어미의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낮다. 의문문은 일상대화에서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의 기능뿐만 아니라 확인, 요청, 명령, 단언, 감탄 등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지만 간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로건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형식이다.²⁶⁾

다음에는 의향이 분명하게 나타난 종결형 슬로건을 대상으로 실제 화행 양상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2. 슬로건의 화행 양상

슬로건은 단순한 문법 구조로 단호하고 압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메시지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슬로건에는 설득을 위해 어떤 표현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2.1. 서술문 슬로건의 화행

문장 종결방식이 서술형으로 끝나는 슬로건은 모두 72개로 전체의 81.8%의 빈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공익광고의 슬로건은 단어나 구의 형태보다는 문장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월등히 많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공익광고에서는 메시지의 명확한 전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6) 표제에서 사용된 의문형 어미의 기능도 대답을 요구하는 유형이 높지는 않았지만, 슬로건에서는 주제를 강조하고 청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다른 유형의 종결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 (14) ㄱ. 세계가 우리를 보러 옵니다. (1983)
- 나.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귀한 손님입니다. (2001)
- ㄷ. 하루 하나씩만 줄여도 미래가 깨끗해집니다. (2007)
- ㄹ. 스마트폰을 멈추면 따뜻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2012)

서술문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슬로건의 화행도 [단언]과 [주장]으로 구분된다. 특히 서술문 형식의 슬로건에서 [주장]은 62개가 나타나 86.1%의 빈도를 나타내고, [단언]은 9개가 나타나 12.5%의 빈도를 보인다. 자료 (14)는 서술문 슬로건의 대표적인 화행 유형으로 (14ㄱ, 나)은 [단언]을 나타내고 (14ㄷ, ㄹ)은 [주장]을 나타내고 있다. [단언]의 슬로건에는 구체적인 지시행위는 드러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이나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장] 화행으로 나타나는 슬로건에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시행위를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14ㄱ)에서는 국제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외국 손님이 많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만 나타내고 있으며, (14나)에서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알려줄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14ㄷ, ㄹ)에는 구체적인 지시행위가 포함되어 (14ㄷ)의 슬로건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하루에 하나씩 줄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14ㄹ)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위하여 스마트 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설득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슬로건에 [주장]이 높게 활용되는 이유는 [주장]에는 화자의 의견에 해당하는 지시행위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하여 청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성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4.2.2. 명령문 슬로건의 화행

명령문 슬로건은 모두 8개로 전체 슬로건의 9.1%의 빈도를 나타낸다. 명

령문 형식의 슬로건에는 [요청] 화행이 포함되어 있다.

- (15) ㄱ. 지금 수도꼭지를 확인하세요.(2009)
- ㄴ. 에너지 위기, 내복약으로 처방해 보세요.(2011)

[요청]에는 지시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15 ㄱ)에서는 물을 아끼기 위해 수도꼭지를 점검하라는 지시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15 ㄴ)에는 난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내복을 입으라는 지시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명령]은 청자보다 화자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성립한다. 그러나 요청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힘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지시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슬로건이지만 [요청]을 사용하는 것은 청자의 입장을 고려한 설득 전략이다. 또한 자료 (15)에는 모두 비격식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함이 강조되어 지시성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있다.

4.2.3. 청유문 슬로건의 화행

청유문 슬로건은 모두 7개로 전체 표제의 8.0%의 빈도를 나타내며, 청유문 슬로건도 표제와 마찬가지로 모두 [지시]만 포함하고 있다.

- (16) ㄱ. 우리는 눈을 더 크고 더 넓은 세계로 돌립시다. (1985)
- ㄴ.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다시 한 번 뛰어봅시다. (1992)

청유문 슬로건에 나타나는 [지시]는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여 지시행위의 수행성을 분명하게 한다. 표제와 마찬가지로 지시행위의 내용이 청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자의 체면 손상은 보완될 수 있다. 슬로건을 통해 지시행위의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우리’의 사용이다. ‘우리’, ‘함께’ 등과 같이 친밀함을 강조하는 언어 표현은 화자와 청자가 같은 지시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동반자의

입장으로 만들어 청자가 받는 부담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²⁷⁾

4.2.4. 의문문 슬로건의 화행

의문형으로 끝나는 슬로건은 1개가 나타나 그 활용의 정도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슬로건이 메시지의 명확한 전달이라는 목적을 가진 요소라고 볼 때, 의문문은 슬로건의 형식으로서 적절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의문문 슬로건에 포함된 화행은 [제안]으로 나타났다.

(17) 이번 주말에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요? (1991)

(17)의 슬로건은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효도를 다하라는 지시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광고의 한 부분이다. 의문형 어미가 사용된 질문의 형식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주의 환기의 기능을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는 지시행위를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약화시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안]은 화자의 의견일 뿐이지 청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청자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감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의문문 슬로건의 [제안]은 청자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설득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슬로건의 문장 유형과 화행 사용 양상의 내용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18)과 같다.

27) 청자의 감성과 심리적인 면에 호소하여 상대방과 일체감을 얻어내는 방법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강력한 책략이 된다. O'Shaughnessy et al.(2007 : 40)에서는 수용자의 관점을 바꾸고자 하는 설득적인 광고에서는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감성적으로 공감을 얻는 광고는 이성적이지만 한 광고보다 신념과 가치, 동기, 욕구, 욕망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하였다.

(18) 슬로건의 화행 사용 양상

문장 유형	서술문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주장	단언	기타	소계			
화행	주장	단언	기타	소계	요청	지시	확인
빈도(개)	62	9	1	72	8	7	1
비율(%)	86.1	12.5	1.4	100	100	100	100

슬로건의 문장 종결방식은 표제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그 구성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슬로건은 표제에 비해 서술문 구성이 대부분이고 사용된 화행도 [주장]이 대부분이다. 명료한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슬로건의 기능과 함께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자의 태도이다. 지시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화자라면 직접적인 지시행위를 전달할 때 명령문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자의 체면 손상의 정도를 줄이면서 화자의 의견에 해당하는 지시행위가 분명하게 포함되게 하기 위한 최적의 설득 표현으로 서술문의 [주장] 화행을 활용하는 것이다.

5. 맺음말

공익광고 텍스트에는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지시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시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구성원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표현 방식은 직접적인 명령문의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서술문이나 의문문처럼 지시행위가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다. 또한 문장 안에 나타난 구체적인 세부 화행도 지시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이나 [진술]을 활용하여 비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이를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공익광고 텍스트가 비록 일상적인 대화와는 다른 상황

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소통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akoff(1973 : 29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메시지가 명료하면서도 공손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요하지 않고(Don't impose), 선택할 수 있게(Give options)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공익광고 텍스트의 표제와 슬로건을 활용한 가장 공손한 설득 전략은 서술문의 활용이고 [주장]이나 [진술]의 사용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분명한 혜택이 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당위적인 행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도 무조건 높은 강도로 구성원을 설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공익광고의 표제와 슬로건을 통해 설득의 전략으로서 사용되는 문장의 종결방식과 화행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광고 언어가 사회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익광고의 언어적 표현 양상을 살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논의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화자 중심적으로만 논의가 진행되고 청자가 되는 사회 구성원의 수용 정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구현정(2000), 『대화의 기법』, 도서출판 경진.
- 권재일(201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김동규(2003), 『카피라이팅론』, 나남출판사.
- 김미형(2011-), 『공익광고를 통해 본 소통과 배려』, 한국문화사.
- 김미형(2011-), “인쇄 공익광고와 TV 방송 공익광고의 구문 특성 분석”, *한국어 의미학* 34, 『한국어 의미학회』, 47-75쪽.
- 김병희(2012), “주제 변화와 수상 실적으로 본 공익광고 크리에이티브 30년의 변화와 전망”, 『한국광고홍보학보』 14-2, 한국광고홍보학회, 2012, 242-

264쪽.

- 김원식(2011), “광고와 슬로건”, 『언어와 언어학』 26,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34쪽.
- 김태철(1983), “우리나라 공익광고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 현 공익광고 실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은아(2005), “신문 광고 슬로건의 문장 구조”, 『인문과학연구』 13, 안양대학교, 1-10쪽.
- 장혜연(2011), “인쇄매체 공익광고의 국어학적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정미(2007), “광고 텍스트에 나타난 설득 화행의 표현 양상 연구”, 『겨레어문학』 38, 겨레어문학회, 32-56쪽.
- 정경숙(2014), “한국어 종결어미 ‘-네’와 단언화행”, 『언어』 제39권 제3호, 한국언어학회, 617-640쪽.
- 정윤희(2006), “TV 공익광고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 『새얼어문논집』 제18집, 새얼어문학회, 2006, 253-277쪽.
- 최민욱·윤일기(2008), “슬로건 유/무에 따른 광고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 제품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9-6, 한국광고학회, 57-86쪽.
- 최숙이·백정민(2011), “설득 화법의 전략 연구—설득 실패 화법 분석을 통한 전략 제시”,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359-388쪽.
- 한은주(2011), “공익 광고 언어의 화행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ustin, J. L., (197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김영진 옮김(1992), 『말과 행위』, 서광사.
- Bolen, W. H. (1984), *Advertising*,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 essays on face to face behavior*, New York : Doubleday Anchor Books.
- Lakoff, R.. (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s of ninth regional meeting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292-305.
- Möckelmann, J. & S. Zander(1975), *Form und Funktion der Werbeslogan. Untersuchubg der Sprache und werbepsychologischen Methoden in den Slogans*. Göttingen.
- O'Shaughnessy, J and O'Shaughnessy, Nicolas J. (2007), *Persuasion in advertising*. 남인용·김미애 옮김(2007), 『광고와 설득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 Searle, J. R. (1969, 2007), *Speech Acts :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Speech Acts in the Headlines and Slogans of Public Service in Printed Advertisements

Jeon Jung-mi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s and the trend of the utilization of speech act as shown in 197 public service print advertisements, particularly in its headlines and slogans, from 1983 to 2013 spanning 30 years.

According to the study, the endings of headlines were much more likely to be final endings rather than pre-final endings. Headlines with final endings were in the order of descriptive (67.3%) > inquisitive (21.1%) > prescriptive (8.2%) > suggestive (3.4%) forms. Furthermore, the most used speech act in headlines is that of an [argument]. This is a persuasion strategy included in the headline, functioning to ‘weaken the forcefulness’ of a prescriptive order. An [argument] delivers new information from the narrator to the speaker. Moreover,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the information, it guides the listener to solve the problem on their own, thereby weakening the forcefulness compared to a direct [order].

The endings of slogans were also most likely to be descriptive (81.8%). However, compared to the case of headlines, the inquisitive form occurred much rarely. As the purpose of a slogan is to underline the topic and to deliver a clear message to the listener, the inquisitive form is inappropriate.

As Lakoff(1973) has suggested on the endings of headlines and slogans as well as on the use of speech acts, it avoids imposing orders but offering options in order to clarify the message and to maintain a civil nature. Though a public service text contains actions that benefits all the constituents of the society, and thereby serve the public interest, it can be seen that a forceful text is not always used to persuade the constituents.

- **주제어** : 표제, 슬로건, 의사소통, 화행, 공익광고, 설득 전략
headlines, slogan, communication, speech act, public
service advertisement persuasion strategy

전 정 미

소 속 :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전자우편 : meejeon@smu.ac.kr

논문 접수 : 2014. 10. 20.

논문 심사 : 2014. 10. 25.- 11. 15.

게재 결정 : 2014. 11. 20.

운율 연구의 동향과 전망*

— 1950년대 이후 표준어 운율 연구를 중심으로 —

차 재 은

< 차 례 >

1. 서론
2. 연구 개관
3. 주제별 운율 연구 동향과 전망
4. 결론

1. 서론

발화된 음성 언어에는 언제나 운율이 실린다는 점에서 운율은 분절음과 더불어 언어의 중요한 음성적 형식이 된다. 음 높이, 길이, 쉼 등의 운율 요소가 제거된 분절음의 연쇄는 자연 발화로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운율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화자라면 /여러분 안녕하세요/의 음 높이, 길이, 세기 등에 적절한 변화를 주어 장면(context)에 맞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화를 산출할 수 있으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학습자는

* 본고는 필자의 한말연구회 전국학술대회(40회) 발표 논문인 “운율 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줄이고 고친 것이다. 지정 토론과 질의를 통해 좋은 비평은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운율에 관한 지식은 음소나 음운 규칙처럼 한국어 화자들의 머릿속에 내재된 추상적 언어 정보라 할 수 있다.

운율에 관한 지식 역시 우리말 화자들이 가진 추상적 언어 지식이라는 점에서 운율은 음운 체계나 음운 규칙과 대등한, 혹은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질 법하다. 그러나 한국어 음운론 연구 주제로서의 운율은 음운 체계나 음운 규칙과 동등한 비중으로 탐구되지는 못했다. 田光鉉(1992)에서 “音長·抑揚·악센트에 대한 연구는 音韻論의 다른 분야에 비해 그 範圍나 深度에 있어 다소 뒤져 있다”고 진단했듯이, 1990년대 초까지의 운율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풍부한 실정은 아니었다.

90년대 초반 이후, 심도 있는 운율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음성 인식, 합성과 같은 분야에서 요구되었다.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 언어를 컴퓨터가 인식하게 하는 일(음성 인식)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말소리를 기계적으로 합성하는 일(음성 합성)을 위해서는 자연 언어의 운율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으나 당시 운율 연구의 성과로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음성 인식과 합성이 운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90년대 중반 이후 운율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왔다. 통제된 음성 실험 자료를 음성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계량적,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 일반화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어 운율의 음성적 실체에 대한 여러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또 1980년대 이후는 단어 대상의 음장, 악센트 중심의 운율 연구를 뛰어넘어 각 운율 단위의 운율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법의 다른 부문인 통사부, 의미부와 의 관계를 규명하는 논의도 이어지는 등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90년대 중반 이후 20여 년 동안, 운율 연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온 것을 고려하면 운율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1950년대 이후 표준어 운율 연구를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조망하며 향후 연구 방향을 전망해 보려 한다. 먼저 2장에서는 1950년대부

터 현재까지의 운율 연구를 10년 단위로 세부 주제별로 개관하며 양적인 성장을 정리해 보고 3장에서는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운율 연구의 방향을 전망해 본다.

2. 연구 개관

운율 연구사를 검토하기 위한 사료 문헌으로 교육대학원 논문을 제외한 국내의 주요 석·박사 논문, 주요 학술지 논문, 운율을 주제로 한 단행본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연구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된 경우, 운율의 음성적 특징을 규명하는 것보다 음운 규칙의 기술에 중점이 놓인 연구는 1차 사료에서 제외하였다.

다음 <표 2>는 195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운율 연구를 세부 연구 주제별로 개관한 것이다. 연구 주제의 분류는 논문 제목의 핵심어와 논문 내용을 토대로 음장, 악센트, 리듬, 억양, 운율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음장과 악센트는 단어 중심, 리듬은 단어와 말토막 중심, 억양은 강세구 이상의 음높이 연쇄, 운율은 음 높이, 길이, 쉬 등의 운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표 1> 운율 연구 개관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현재	합계
음장	2	2		2	1	6	13
악센트	3	2	1	3	1		10
리듬			1	1	4	2	8
억양			1	4	11	19	35
운율					6	13	19
합계	5	4	3	10	23	40	85

위 표에서 보이듯이, 1950·60년대의 운율 연구는 단어 중심의 음장과 악센트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1970년대에는 리듬과 억양에 대한 관심이 태동하여 1980년대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억양 관련 연구도 시작되었다. 1990년대의 운율 연구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연구 주제도 다양해진다. 이 시기에는 억양과 운율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2000대 이후의 연구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요약하면 운율 연구는 단어 단위의 음장, 악센트 연구에서 출발하여 강세구, 억양구, 발화 단위의 억양, 운율 연구로 확장되어 온 것이다.

3. 주제별 운율 연구 동향과 전망

이 장에서는 세부 주제별로 운율 연구의 구체적 동향을 살펴보려 한다. 세부 주제는 음장, 악센트, 리듬을 개별 주제로 하고 억양과 운율을 하나로 묶어¹⁾ 각 주제에 해당하는 주요 연구를 소개하되 개별 연구는 다시 세부 주제를 기준으로 묶어서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 주제별 쟁점과 연구사적 의미를 밝히도록 한다.

3.1. 음장

음장은 변별적 기능을 하는 음의 길이를 뜻하는 것으로, 음장 연구는 크게 음장 현상의 공시적 기술에 초점을 둔 논의와 음장의 공시적 변별성을 다룬 논의로 나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규칙 중심의 음장 연구(단모음화, 보

1) 억양은 특정 언어 단위를 구성하는 음절의 음높이를 연결한 것이고 운율은 음높이, 길이, 쉼 등으로 구성된 언어 형식이라는 점에서 억양과 운율은 개념적으로 다르지만 실제 사료 논문들에서 내용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주제별 연구사 서술에서는 둘을 하나로 묶어서 다루기로 한다.

상적 장음화)는 제외하고 음장에 관한 기술적, 실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먼저 공시적 음장을 기술한 논의로는 南廣祐(1954), 南廣祐(1955), 차재은(2005), 차재은(2010), 차재은(2011)이 있다.

南廣祐(1954)는 우리말의 한자어, 고유어가 장단 대립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용언이 활용에서 단음화(뚝고~도우니)된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으며 南廣祐(1955)는 어두 장음이 비어두에서 단음화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두 연구는 음장에 관한 최초의 논의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차재은(2005), 차재은(2010), 차재은(2011)은 음장이 유지되던 시기의 장단 대립 양상을 문어와 구어 자료를 통해 실증한 것으로, 차재은(2005)에서는 1930년대의 음성 자료를 통해 강세구의 첫 음절이 아닌 위치에서도 음장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차재은(2010)은 <큰사전>을 분석한 결과 고유어 단어는 음장에 의한 최소 대립쌍 수가 동사 53, 명사 112쌍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다. 차재은(2011)은 <큰사전>의 고유어 복합어 음장을 X:-Y, X-Y:, X:-Y:로 유형화하고 합성어 2음절의 음장은 현실 음장을 반영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한편 음장의 공시적 변별성을 다룬 주요 연구로는 박주경(1985), 정명숙·황국정(2000), 김수형(2001), 김선철 외(2004)를 들 수 있다.

박주경(1985)는 청각 판단, 스펙트로그램, 설문지를 통해 음장을 조사한 결과, 당시의 자라나는 세대(10, 20)대는 발화 속도가 빠르며 장단을 의식하지도 발음하지도 못하는 반면 안정된 세대(30대 이상)는 발화 속도가 늦고 장단을 의식하며 실제 사용에서도 개인별, 세대별로 일관성이 있음을 밝힌 논문이다. 이 논문은 세대별로 장단의 인식과 발음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명숙·황국정(2000)은 2음절 한자어의 장단을 실험음성학적으로 고찰한 결과, 노년층 화자가 장단음을 더 잘 구별하며 장단의 소멸은 장단이 중화되는 어휘의 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수형

(2001)은 현대국어에서 음장은 더 이상 변별력이 없음을 광범위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밝히고 있고 김선철 외(2004)에서도 60대와 20대가 기저 장음 유지 비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였다. 이 연구들은 현대 국어의 음장 소멸 과정을 보여준다.

이미 이승녕(1960), 이현복(1974)에서 젊은이들이 음장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관찰을 한 바 있고 박주경(1985), 김수형(2001), 김선철 외(2004)에서도 현대 국어에서 음장이 소멸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지민제(1993), 정명숙(2002), 정명숙·황국정(2004)에서는 음장이 여전히 변별적이라고 보았으나 이러한 결론은 관찰 대상의 특수성(아나운서 발화, 한자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 발화에서 음장은 거의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음이 어떤 운율 단위, 어떤 위치에서 실현되었는지는 앞으로도 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장음은 어두나 강세구의 첫 위치에서 실현된다고 알려져 왔으나(남광우 1955, 이병근 1986, 지민제 1993), 20세기 초의 음성 자료를 다룬 차재은(2005)에 의하면, 강세구 첫 위치가 아니어도 ‘용비:어천가’와 같이 비어두 장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음장 연구는 음장이 확실하게 존재했던 20세기 초의 음성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3.2. 악센트

악센트는 강세, 음 길이, 음 높이에 의한, 주로 단어 내 특정 음절의 돌출됨을 뜻한다. 악센트 연구는 우리말 악센트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강약 악센트설과 고저 악센트설로 나눌 수 있는데, 강약 악센트설에는 李崇寧(1955a, c), 이승녕(1960), 이현복(1973), 이호영(1987), 이상직(1987), 유재원(1988), 성철재(1991)가 있으며 고저 악센트설로는 정인섭(1965)가 있다.

먼저 강약 악센트설을 살펴본다. 李崇寧(1955a)에서는 중양어가 선강 후약 악센트임을 주장하였고 李崇寧(1955c)에서는 악센트가 장모음에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이승녕(1960)에서는 앞 논의를 종합하여 서울말은 강약 악센티

며 장모음이 악센트를 가진다는 이론을 세웠는데 이는 모두 청각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이현복(1973)은 청취 실험을 통해 서울말의 악센트는 강세와 음절의 길이가 결합된 복합체로서 악센트의 위치는 모음의 장단과 음절 구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송녕의 강약 악센트설과 장모음 악센트를 결합한 복합 악센트설이 등장한 것이다.

이호영(1987), 이상직(1987), 유재원(1988)에서도 한국어의 악센트 위치는 모음의 장단과 음절의 구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첫 음절이 무거운 음절이면 그 음절에 악센트가 오고 가벼운 음절이면 다음 음절에 악센트가 온다는 것이다. 단, 유재원(1988)에서는 말토막 안에 무거운 음절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가벼운 음절에 악센트가 놓인다(예 : 개구리, 개구리'가)고 하였는데, '개구리가'의 악센트 실현 영역은 단어보다 큰 어절이며 마지막 음절이 흔들리는 것은 음 높이의 변화에 의한 것이어서 기존의 복합 악센트설과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이호영(1990)에서는 조사는 악센트를 받지 못하는 요소이므로 '개구리가'는 적절한 논증 자료가 아니라고 하였다.

성철재(1991)에서는 무의미 낱말 중 흔들리는 부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청취 실험과 첫 두 음절의 길이, 세기, F0를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낱말의 흔들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음절 유형과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F0값의 분포가 고정된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실증한 것으로, 2음절 낱말의 F0는 오름형, 3음절 낱말은 오르-내림형, 4음절 낱말은 오르-내리-오름의 유형을²⁾ 가지며 첫음절과 둘째 음절의 F0 차이가 길이나 세기 변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나 음향 분석 결과보다는 청취 실험 결과에 더 비중을 두어 낱말 리듬에서 가장 중요한 운율 변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2) Jun(2000)에서 강세구의 기저 억양을 LHa로 기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고저 악센트설인 정인섭(1965)에서는 아나운서의 발화를 소노그래프로 분석한 결과 서울말의 단어 악센트를 변별적인 고저 악센트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이상직(1987)은 우리말은 성조 언어가 아니므로 고저 악센트는 변별적일 수 없다고 비판하였고 또 유재원(1988)에서는 정인섭(1965)의 실험이 모음에 내재된 음향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고 청취 실험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문장에 실현된 단어의 높낮이와 강도를 객관적 음향 분석을 통해 관찰하고 이중 일관된 요소는 강도가 아닌 높낮이임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정인섭(1965)은 연구사적 가치가 인정된다.

이상 우리말의 악센트 논의는 단어 단위의 복합 악센트(음장+음절 구조)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객관적 음성 분석이 결여된 것이 한계이며 고저 악센트설은 객관성은 확보하였으나 악센트를 변별적 요소로 보는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말의 악센트를 연구할 때는 음장의 변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음장은 복합 악센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승녕(1960), 이현복(1974)에 의하면 20세기 중반 이후 변별력이 약화되었고 박주경(1985)에 의하면 80년대의 20대들은 음장을 변별하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악센트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운율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90년대 이후의 운율 연구는 억양, 운율 단위, 운율 경계 등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옮겨간다. 이런 점에서 단어 단위의 복합 악센트는 20세기 중반 이전의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더 정치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3.3. 리듬

리듬은 특정 운율 단위에 운율 요소의 반복적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반복성과 등시성(等時性)을 그 특징으로 한다. 리듬 연구는 우리말을 강세 박자 언어로 보느냐, 음절 박자로 보느냐에 따라 양분할 수 있는데, 강세 박

자 언어로 보는 연구에는 이현복(1974), 박진희(1990)이 있고 음절 박자 언어로 보는 연구에는 정명숙·신지영(2000)이 있다. 성철재(1994, 1996)은 강세 중심과 음절 중심의 절충설에 가깝다.

이현복(1974)에서는 서울말의 입말 리듬 단위인 말토막은 하나 이상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하나가 반드시 강세를 가져야 하며 장음이거나 폐음절이면 강세 음절이 된다고 보았다. ‘언제라도+’좋으실 때+가뵙지요’에서 +가 말토막의 경계이며 ’는 강세 표지이다. 말토막은 발화 속도와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빠른 발화일수록 말토막이 길어지며 30대는 장단 구별이 없어 2음절에 강세를 부과한 결과 리듬 패턴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박진희(1990)는 한국어 낱말 리듬을 길이를 중심으로 실험 음성학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음절 구조와 길이, 강세 여부와 길이, 음절 수와 길이, 음절 위치와 길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음절 수에 따른 길이의 증가 비율이 영어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어를 강세 박자 언어로 보았다. 이에 대해 정명숙·신지영(2000)에서는 박진희(1990)에서 실험 결과 강세 음절과 비 강세 음절의 길이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한국어를 강세 언어로 보았다고 비판하였다.

정명숙·신지영(2000)에서는 강세와 강세 사이의 거리, 모라 수의 증가에 따른 어절 길이 증가, 음절 수의 증가에 따른 어절 길이 증가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는 강세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으며 강세를 받은 음절과 그렇지 않은 음절에 사이에 길이 차이가 없으며 모라 수와 어절 길이에 양의 비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음절수와 어절 길이 사이에 비례 관계가 관찰되므로 음절 박자 언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성철재(1994)에서는 낭독체 발화 실험을 통해 한국어는 강세 박자 언어와 음절 박자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성철재(1996)은 무의미 단어 실험을 통하여 한국어는 강세 기반 언어로 볼 수 있으나 영어와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

한국어 리듬의 특징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것은 악센트론과도 연결된다.

李崇寧(1955a)에서 중앙어가 선강 후약 악센트를 가졌다고 하였고, 이현복(1973), 이호영(1987), 이상직(1987), 유재원(1988), 성철재(1991)에서는 우리말의 낱말 악센트를 비변별적인 복합 악센트로 보고 있다. 강세 악센트를 가진 낱말이 말토막 안으로 들어가면 ‘강세 음절+비강세음절의 연쇄(●●●●)’를 가진 강세 박자 언어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강세 악센트 이론에 따르면 우리말은 강세 박자 언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명숙·신지영(2000)의 음성 실험 결과는 현재 우리말이 음절 박자 언어임을 보여주고 있다. 강세 박자 언어라면 강세와 강세 사이의 거리가 ‘(●●●●)(●●●●)(●●●●)’와 같은 패턴으로 일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한국어는 ‘강세(를 가졌다고 하는 음절)’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으며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 사이에 길이 차이도 없고 오히려 음절수와 어절 길이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국어를 강세 박자 언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 李崇寧(1955a), 이현복(1973)의 관찰은 잘못된 것일까? 이현복(1973)의 논의가 연구자 개인의 직관에 의존한 한계는 있지만 그 당시 장년층 이전 세대의 리듬 단위는 강세를 중심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실제로 차재은(2005:114)의 20세기 음성 자료 분석에 따르면, 강세구 첫 위치에 오는 ‘(조선)(말에는)’의 장음 ‘:말’은 강세구 중간 위치에 오는 ‘(표준말을)’의 단음 ‘말’에 비해 파형의 세기가 더 강하고 음 높이도 높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음장이 존재했던 20세기 초의 음성 자료에 실현된 운율 패턴에 대한 정밀한 고찰을 통해 당시의 리듬 단위와 특징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3.4. 억양과 운율

억양은 강세구 이상의 단위에 얹히는 음 높이의 변화를 뜻한다. 운율은 억양에 쉽 등의 운율 요소가 더해진 음성 형식으로 억양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개별 논문에서는 억양과 운율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실험음성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억양과 운율을 함께 묶어서 다루되, 실험 절차와 방법을 가급적 자세하게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3.4.1. 운율 단위의 설정

운율 단위의 설정은 리듬과 음높이 패턴 중 무엇을 중심에 놓는지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이호영(1991, 1996)은 리듬 중심, Jun(1993, 2000)은 음높이 중심의 운율 단위를 설정하였다.

먼저 이호영(1991, 1996)에서는 한국어의 운율 단위로 ‘말토막 → 말마디 → 문장’을 설정하였다. 말토막은 ‘하나의 강세 음절 + 영 개 이상의 비강세 음절’로 구성된 정보 단위로서 말토막 억양이 없이는 억양 단위이고 말마디는 말마디 억양이 부가되는 정보 단위로 끝음절에 핵억양이 오며 문장은 문장 억양이 부가되는 가장 큰 운율 단위이다.

반면 Jun(2000)에서는 우리말의 운율 단위로 ‘음절 → 음운단어 → 강세구(AP) → 억양구(IP) → 발화’를 설정하고 강세구의 성조 패턴과 억양구의 음성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강세구(accentual phrase)는 성조+고저고(THLH, 14개 유형)의 음높이 패턴과 짧은 쉬를 갖는 LHa로 추상화되는 운율 단위, 억양구(intonational phrase)는 9개의 경계 성조(H, L, HL, LH, HLH, LHL, HLHL, LHLH/LHLHL), 끝음절 장음화, 쉬를 동반하는 운율 단위이다. 이 연구는 운율 전사의 표준적 규약으로 수용되면서 이후의 우리말 운율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호영(1991)의 ‘말토막’과 ‘말마디’는 대체로 Jun(2000)의 ‘강세구’와 ‘억양구’에 대응하는데, 강세구와 억양구가 운율 요소의 특징에 기반한 용어인데 비해 말토막은 리듬 단위를 기술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이다. 이에 대해 안병섭(2010 : 67)에서는 “억양을 기준으로 설정된 운율 단위들은 시간적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데 비하여 리듬 중심의 운율 단위는 운율의 중요한 요소인 음높이 특성을 음 연쇄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운율 연구에서는 Jun(2000)에서 제안된 ‘강

세구, 억양구'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한편, 안병섭(2010)은 '운율은 운율 내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음운 단어를 제외한 '음절→강세구→억양구→발화'만을 운율 단위로 인정하고 있다. Jun(2000), 신지영·차재은(2003)에서는 음운 단어를 운율 단위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나 안병섭(2010)에서는 음운 단어는 형태·통사적 기준이 있어야 정의될 수 있고 강세구 경계에서 휴지가 실현되는 비율이 1% 미만으로 극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음운 단어를 운율 위계 구조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음운단어를 운율 단위에서 제외하기 전에 더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안병섭(2010)에서 음운단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음운단어 뒤에 물리적 휴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세구나 억양구도 음소나 음절과 같은 추상적 언어 단위이며 음성적 표지가 없더라도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럴 수)와 (고)(성조군)을 설명하기 위해 음운단어보다 더 적절한 개념을 찾을 수 없다면 선부르게 음운단어를 폐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최상위 운율 단위인 발화에 대해서도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경 외(2005)에서는 발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발화 수반력과 발화 종결을 알리는 운율 요소라고 보았는데, 그 구체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세하지 않았다.

안병섭(2007)에서는 화자의 발화 의지가 운율적으로 완료된 의사소통의 자립 단위로 발화를 정의하고 완료성의 표지를 점진하강의 완료로 보았다. 발화 끝은 억양구 경계 성조, 장음화, 휴지를 동반하되 발화 끝 휴지는 억양구 경계 휴지보다 길다고 하였다.

김수진 외(2011)에서는 발화 판정 요소와 발화 구성 요소를 구분한 후 발화 판정 요소는 말차례, 종결 억양, 휴지이고 발화 구성 요소는 통사적 충족성, 종결 어미, 휴지로 설정한 후 실제 구어 자료 판정에 응용하여 발화를 종결 어미 발화, 연결 어미 발화, 조각 발화, 미완결 발화로 구분하였다.

앞으로도 발화 단위에 대한 연구는 발화의 개념, 종류, 운율적 특징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3.4.2. 강세구의 운율 패턴과 기능

강세구의 억양과 운율에 대해서, 이호영(1991)에서는 말토막 억양의 개념을 설정하였고 Jun(1993, 2000)에서는 강세구의 운율적 특징과 억양 목록을 소개하였으며 이호영·손남호(2007)에서도 강세구의 억양 패턴을 제시하였다. 또 송민규·이영배(2007)에서는 THLH의 예외에 대한 관찰과 예외의 이유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먼저 이호영(1991)에서는 말토막 억양에 오름조(친근한 발화), 수평조(사무적인 발화), 내림조, 오르내림조가 있다고 하였고 곽동기(2000)에서도 중간구 끝 음절의 오름조는 친근한 태도, 발화 미완료 등을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일승(1992)에서는 20대 남성 3인의 낭독체 발화를 대상으로 소노그래프를 이용하여 말토막 끝 두 음절의 억양을 관찰한 결과 말토막의 끝 음절이 앞 음절에 비해 11%정도의 오름 억양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Jun(2000)에서 THLH로 구체화된 강세구의 억양 패턴과 같은 것이다.

성철재·김상훈(1996)에서는 리듬 단위로 운율구를 제안하고 경계 신호의 자동 검출을 위해 6가지 자질을 설정한 후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경계 앞 뒤 음절의 길이와 높이의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밝히고 있다.

이숙향(2002)에서는 서울방언 화자 7명을 대상으로 3가지 발화 속도로 문장 읽도록 하여 분석한 결과, 강세구의 억양 패턴은 강세구의 음절 수, 첫 음절 시작 자음, 발화 속도의 영향을 받았고 강세구말 장음화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K-ToBI에 대한 검증의 성격을 가진다.

송민규·이영배(2003)에서는 한국어 강세구 첫 음절의 운율 패턴을 관찰한 결과, THLH 유형에서 벗어나 평음이 강세구 초 위치 고조를 가지는 경

우가 각 분절음 별로 약 10-15% 정도라고 하였다. 특히 L%나 HL% 등 특정한 억양구 경계성조가 나타나는 강세구에서 평음이 고조로 실현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는데, 이는 분절음의 특성보다는 억양구 경계 성조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는 강세구의 억양을 정밀하게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병섭(2007)은 남녀 아나운서 각 100발화씩 200개의 낭독체 발화를 검토한 결과 강세구 경계에서의 휴지 실현은 0.25%(남)와 0.40%(여)에 불과한 반면 억양구 경계에서는 96.2%(남), 89.3%(여)로 휴지가 실현됨을 밝히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음운단어를 운율 단위에서 제외하였다.

이호영·손남호(2007)에서는 4음절어(나주에서, 파주에서)에 얹히는 억양 패턴 35개를 선정한 후 서울말 화자 30인을 피험자로 하여 어느 패턴이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판단하게 하는 청취 실험을 실시한 결과, 약자음으로 시작하는 강세구는 L, 강자음으로³⁾ 시작하는 강세구는 H가 자연스럽게 L로 시작하는 억양 패턴도 자연스럽게 인지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연성 실험과 구별 실험 결과를 토대로 서울말의 강세구 억양 패턴으로 HH, LL, LH, HL, LHL, HLH, H+LH, LHLH를 추출하였다. 이 논문은 음성 실험을 통해 Jun(2000)에서 제시된 강세구 억양 목록을 확인, 수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 강세구 연구 성과들을 보면, 대체로 Jun(2000)에서 제시된 강세구 단위를 실증하면서 강세구에 대한 정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강세구 연구는 문체(낭독/자유발화)와 성별, 화용을 구분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에 따른 강세구 억양의 특징, 핵심적 억양 목록, 강세구 경계 성조의 기능, 통사·의미 요소와의 관련을 고려한 정치한 연구들이 모였을 때 강세구에 대한 종합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경음, 격음, 마찰음(ㅎ, ㅅ)이 여기에 속한다. 그 외의 자음은 모두 약자음이다.

3.4.3. 억양구 경계 성조의 기능과 특징

억양구 경계 성조의 목록, 기능, 특징 등을 고찰한 연구로는 이현복(1976), 이숙향(1984), 이호영(1991), 김선철(1999), 이호영(1999), 한선희·오미라(1999), 한선희(2000), 김태경·장경희(2006), 유승미(2007), 오재혁(2011a), 오재혁(2011b), 조민하(2011), 정미현(2013) 등이 있다.

이현복(1976)은 단음절어 ‘네, 말, 가’ 등의 억양을 기술하면서 서울말에 20가지 억양이 있다고 하였는데, 억양의 수가 많은 것은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태도적 기능을 구분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숙향(1984)는 라디오와 드라마 대담의 억양을 영국식 억양 분석법으로 기술한 결과, 문미 억양의 형태는 내림, 오름이 있고 이 억양은 통사적, 언표내적, 태도 표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음운론적 중요성을 가지는 문미 억양의 목록을 확인하고 억양의 기능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호영(1991)에서는 말마디 끝음절에 오는 핵억양으로 ‘낮은 수평조, 가운데수평조, 높은수평조, 낮내림조, 높내림조, 온오름조, 낮오름조, 내리오름조, 오르내림조’의 9가지를 설정하였다.

김선철(1999)는 억양구(IP)와 중간구(ip)를 운율 단위로 삼아 단문인 서술문, 의문문(판정, 설명, 확인, 수사, 반문, 선택), 명령문, 청유문과 복문인 접속문(대등, 종속), 내포문의 억양을 실험 음성학적인 방법으로 고찰한 결과 서울말은 어휘적으로 명세되지 않은 H*, L*, H*+L 유형의 강제악센트를 가지며 억양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고저악센트와 경계음조를 이용하는 언어라고 규정하였다.

이호영(1999)는 서법이 다른 10개의 실험 문장을 5명의 서울말 여성 화자에게 읽힌 후 핵억양의 시작점, 최고점, 최저점의 기본 주파수를 측정한 결과, 핵억양과 문장 유형에는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평서문, 명령문은 주로 낮은 수평조, 낮내림조, 오르내림조를 사용하고 예-아니오

의문과 되물음 의문에는 높내림조와 높은수평조가 사용되며 의문사 의문에는 대부분의 핵역양이 두루 사용됨을 밝혔다.

한선희·오미라(1999)에서는 낭독체와 자유발화 자료의 역양구말 위치의 경계톤을 문장 말과 문장 중간 위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계톤 9가지(HL% LH% L% H% L-%, LHL%, HLH%, H-% LHLH%)를 도출한 연구인데, 낭독체와 자연발화, 표준말 화자와 방언 화자를 섞어 놓은 점은 실험 설계상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한선희(2000)에서는 자유발화 자료의 역양구말 경계 성조를 문장 말과 문장 중간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요’의 경우 문장 끝에서 하강조와 상승조 비율이 2:1, 문장 중간에서는 하강조와 상승조의 비율이 1.4:1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태경·장경희(2006)에서는 드라마 분석 결과, 부하 직원과의 대화에서는 문중 역양구 경계 성조로 하강조를 사용하고 상사-부하간 진술이나 대답 화행에서도 하강조를 사용하며 발화 속도는 상사와의 대화에서는 빨라지고 부하와는 느려지며 음높이는 친구와 대화에서 폭이 커짐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대화 참여자의 지위 관계에 따른 운율 특성을 규명한 것으로 역양의 화용적 변이를 다룬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

유승미(2007)은 라디오 방송 음성 말뭉치를 구축하여 400개 문장에 보이는 어말어미 ‘-아/어, -지요, -습니다’의 선행 핵역양과⁴⁾ 핵역양을 관찰하여 ‘오름, 오르내림, 낮내림, 낮오름, 낮은수평, 내리오름조’를 추출하고 이중 ‘-아요’형은 친근하고 다정한 느낌의 역양 모형, ‘-니다’는 공손한 역양 모형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오재혁(2011a)는 종결법을 결정하는 운율적 단서에 대한 지각적 연구로 평서형 발화의 끝 음절의 음 높이, 길이, 세기를 조정하여 126개의 자극으로 지각 실험을 수행한 결과 종결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음 높이이고

4) ‘정말 좋겠네요’ 중 음절 ‘네’가 선행 핵역양 위치이다.

음의 세기는 영향이 없음을 밝혔다.

오재혁(2011b)은 국어 종결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음성적 특징에 대해 포준어 화자 107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지각 실험을 수행한 결과, 상승 억양은 의문법, 하강 억양은 평서법으로 지각되나 감탄법은 지각 비율이 매우 낮아 평탄 억양의 기능으로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낮은 상승-하강은 기본적으로 평서법(명령법)의 기능을 갖는 억양이나 이 억양에서 평서법과 명령법은 변별적이지 않고 중간 굴곡 지점의 음높이가 높아지면 의문법(감탄법)으로 지각되는 비율이 높아짐을 밝혔다. 또한 높은 상승-하강 억양은 기본적으로 의문법(감탄법)의 기능을 갖지만 높은 상승-하강 억양에서도 의문법과 감탄법은 변별적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종결 억양에 대한 지각 실험을 수행한 결과라는 데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조민하(2011)는 자유 발화의 억양과 맥락적 사용을 분석한 결과, 비종결어미의 종결기능은 억양이 결정하고 맥락적 기능에 의해 화자의 의도가 구체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경계 성조 목록은 의미 변별에 참여하는 L%, H%, LH%, HL%, LHL%에 한정되는데, H%는 청자 반응과 관련되고 장음화된 L%는 간접적 행동 요구의 기능을 하며 LHL%은 주장, 강조, 설득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연결어미의 종결기능은 담화적 사용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문법화나 종결어미화로 규정될 수 없고 발화 말 경계 성조의 기능으로 한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미현(2013)에서는 억양구 끝과 발화 끝의 운율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 화자 10인을 대상으로 산출과 지각 실험을 수행하였다. 발화의 종결 여부만 달라지고 나머지 통사, 의미적 특징이 유지되는 후보층 구문(재미있게 놀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재미있게 놀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으로 평서형과 의문형 낭독 실험을 한 결과, 평서형 억양구 경계 성조는 L%, HL%, LHL%로, 의문형 경계 성조는 H%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지각 실험은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여기가 중요해요, 이 책 전체에서’ 중 ‘요’의 음절 길이와 후행 휴지 길이를 조작한 자극을 들려준 결과, 발화 종결과 비종결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경계 성조는 L%, H%, HL%이고 경계 성조를 통제 변인으로 한 지각 실험에서 말음절의 길이는 L%에서는 양의 관계, H%에서는 음의 관계를 보였고 HL%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발화로 지각되기 위한 휴지 길이는 L%(600ms)>HL%(400ms)>H%(200ms)의 순서라고 하였다.

이상, 이호영(1991)에서 9개의 말마디 핵억양을 제시했고 Jun(1993, 2000)에서는 8개의 억양구 경계 성조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한선희·오미라(1999)에서도 9개의 억양구 경계성조가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억양구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억양구 경계 성조의 목록, 경계 성조의 기능 해석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인다.

특히 억양구 연구는 문체, 통사 구조, 의미 구조, 화용적 변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억양과 화행, 억양의 화용적 변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문체별로 대규모의 음성 발음치를 이용할 필요도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장의 종류별로 억양을 고찰한 김선철(1999), 종결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음성적 특징을 고찰한 오재혁(2011a, b), 경계 성조의 의미를 화행과 연결하여 해석한 조민하(2011), 억양구와 발화 끝의 경계 성조를 다룬 정미현(2013), 억양의 화용적 변이를 다룬 김태경·장경희(2006)의 연구가 주목된다.

3.4.4. 통사, 의미 구조와 억양의 관련성

통사 구조와 억양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로는 최혜원(1995), 김미란 외(2000), 김미란(2001), 박미영·안병섭(2003), 유정(2003), 남길임(2007) 등이 있으며 특히 성철재·송윤경(1997), 송윤경(1998), 전은·이숙향(1999)는 조사의 운율적 특징에 주목한 연구이다.

최혜원(1995)에서는 ‘주어+목적어+서술어’ 구문에서 목적어를 생략했을 경우와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에서 목적어와 부사어를 생략했을 경우 생략 요소 앞뒤 음절의 길이, F0, 크기를 측정된 결과, 생략 요소 앞 음절의 음높이가 생략 없는 문장에서보다 더 낮고 음 길이는 더 길어진다

고 하였다. 또 대등접속문 S1+S2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생략했을 경우 F0를 측정할 결과 S2의 P1(문장의 첫 말토크중 가장 마지막 음절) 값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미란 외(2000)에서는 의문사 의문문에 보이는 H%와 HL%는 ‘누구, 뭘, 언제, 어디’에 정보초점이 실현된 결과 경계성조가 낮아지는 H%의 음성적 변이이고 선택의문문에 나타나는 HL%경계 성조는 초점의 차이와 관련되며 반복의문문의 경계성조는 정보초점이 아닌 강조초점임을 밝히고 있다. 또 김미란(2001)에서는 한국어의 대등적 연결 어미 ‘-고’의 함축 의미는 일반 함축과 억양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고 보았다.

박미영·안병섭(2003)에서는 의문사가 초점으로서 작용하는 운율적 돌들림을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부정사와 의문사의 성조형은 모두 LH 이나 부정사의 f0가 30-70Hz인 반면, 의문사는 70-100HZ로 차이를 보이며 의문사 뒤에 보이는 강세구 해지 현상은 의문사와 무관하며 부정사 의문문에서는 문장 전체의 음높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후행 언어 단위의 억양이 뚜렷하지 않아서 초점 받은 의문사 ‘누가’를 더 돌들리게 한다고 보았다.

유정(2003)에서는 한국어 문장에 나타난 초점의 운율적 특징을 살핀 것으로, 짧은 초점(질문과 대답이 하나씩인 경우)에서는 초점과 강세에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고 길이는 초점이 아닌 경우에 비해 1:1.1의 비율로 늘어났고 초점 전 강세구의 길이는 초점 전 강세구가 아닌 경우에 비해 1:1.5의 비율로 늘어났으며 75%가 억양구로 실현되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점에 강세가 실현되지 않는 대신 초점 앞을 끊어 읽음으로써 초점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남길임(2007)에서는 세종 계획 구어 말뭉치 5만여 어절을 자료로 하여 국어의 억양 단위와 통사 단위와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억양 단위의 통사적 층위는 절 이상이 82.5%이며 절의 수는 하나 또는 두 개를 포함한 경우가 가장 많고 한국어의 억양 단위 경계는 종결어미 또는 연결어미의 일부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형절이나 명사절을 형성하는 전성어미는 억양 단위 경계에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연구들은 조사의 운율 패턴에 주목한 것들이다.

성철재·송윤경(1997)에서는 주어 자리 조사의 운율 패턴을 실험한 결과, 조사의 평균 길이는 ‘이/가’보다 ‘은/는’이 긴데, 이는 보통 ‘은/는’ 뒤에 끊어 읽기 때문이고 ‘이/은/는’은 문장의 음절수가 늘어날수록 F0 값이 낮아지나 ‘가’는 반대로 F0 값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끊어 읽기는 절, 독립어 뒤, 부사어, 관형어, 목적어 뒤에서 빈번하다고 하였다.

송윤경(1998)에서는 주어 자리에 오는 ‘이/가’, ‘은/는’, 목적격 조사 ‘을/를’의 운율 패턴을 어절의 위치, 앞뒤 문장 성분, 끊어 읽기를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주제어 ‘은/는>이/가>을/를’의 순서로 운율 경계가 생기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전은·이숙향(1999)에서는 남녀 각 1인, 1000개씩의 낭독체 문장을 중심으로 한국어 조사의 운율적 특성을 관찰한 결과, 조사의 길이는 ‘억양구, 강세구 말 > 억양구, 강세구 중간’ 순서로 길고 조사에 구 억양(LH)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길이가 짧다고 보고하였다.

3.4.5. 점진하강

발화는 호흡이라는 물리적 조건 안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발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억양 곡선의 정점과 저점의 음높이가 점차로 낮아지는 점진하강(declination)이 관찰된다. 어떤 발화에서든 음높이 곡선에서 저조끼리 연결한 선인 저점 연결선과 고조끼리 연결한 고점 연결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진 하강에 대한 연구로는 인지영·성철재(2008), 곽숙영·신지영(2009), 곽숙영(2010), 곽숙영·신지영(2012), 곽숙영(2012)가 있다.

인지영·성철재(2008)는 방송 뉴스를 라디오와 티비로 나누고 남성과 여성을 독립 변수로 하여 각 집단에서 관찰되는 꼭대기선과 바탕선 기울기를

분석한 결과 라디오가 티비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억양 곡선 기울기가 완만함을 밝혔다. 또 바탕선은 전반적 하강을 보여주고 꼭대기선은 주제의 전환, 강조 등 화자의 심리적 양상이 불규칙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곽숙영·신지영(2009)은 점진하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중립 발화와 초점 발화를 구분하지 않은 점, 강세구 경계 성조를 상위선, 억양구 경계 성조를 하위선에 포함시킨 점을 비판하며 중립 발화(나영이가 영만이를 미워해요)와 초점 발화(나영이가 미영이를 너무너무 미워해요)로 나눈 실험 문장을 서울, 경기 방언 남녀 피험자 8명이 낭독하게 한 후 ‘저고저고’의 강세구에서 첫 번째 성조에서 최저 음높이를 연결하여 하위선을 삼고, 두 번째 성조에서 최고 음높이를 연결하여 상위선을 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곽숙영(2010)은 남녀 10인의 고립 문장 낭독 발화를 분석한 결과, 발화의 길이와 상관없이 시작 음 높이와 마지막 음 높이가 일정하여 점진하강의 총량은 불변하며 절 경계에서 발생하는 점진하강의 재조정은 통사적 단위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초점에 의한 억양적 돌돌림은 하나의 점진하강선에 부가적으로 얹힌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곽숙영·신지영(2012)는 남녀 30명씩 6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접속문, 내포문, 도치문의 낭독 발화를 분석한 결과, 대등 접속문은 절 경계에서 점진하강 재조정이 일어나고 종속 접속문은 각 절의 길이가 음운구 3개 이상일 때 점진하강 재조정이 일어나며 내포문은 절 경계 외에 문장 성분 경계에서 점진하강 재조정이 일어나며 어느 경우나 길이가 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점진하강의 발생 영역은 1차적으로 통사적 단위이고 의미적으로 긴밀하지 않은 단위일수록 점진 하강 재조정이 잘 일어나며 점진하강이 발생하는 영역과 억양구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곽숙영(2012)는 곽숙영(2009, 2010, 2012)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점진하강 재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사이의 위계를 ‘의미적 긴밀성 > 길이 > 통사적 경계 > 억양구 경계 > 휴지 길이’로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말 점진 하강에 대한 종합적 논의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3.4.6. 발화 속도와 운율

발화 속도와 운율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김경화(1999), 박미영(2002), 김선철(2009)가 있다.

김경화(1999)에서는 명사구를 대상으로 말토막 형성을 고찰한 결과, 음절 수가 적고 발화 속도가 빠른 경우는 하나의 말토막을 형성하고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높거나 문법적으로 친밀한 두 어절도 하나의 말토막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박미영(2002)에서는 세 가지 발화 속도(빠르다, 보통이다, 느리다)에 따른 운율구 형성 양상을 실험한 결과, 20대 화자들의 속도별 음절 길이는 빠른 발화는 음절당 117.6ms, 보통 발화는 168.2ms, 느린 발화는 207.2ms로 차이를 보였으며 발화 속도가 빠른 경우는 한 개의 억양구에 포함되는 강세구의 수가 적은 반면 느린 발화에서는 더 많은 강세구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 김선철(2009)에서는 4개의 실험 문장을 선정한 후 성별을 변수로 하여 남녀 각각 30명씩 총 60명의 발화를 분석한 결과, 발화 속도와 운율구의 생성 빈도 사이에 절대적인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 박미영(2002)의 통제 실험에 의하면 발화 속도는 운율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발화 속도가 빠른 경우는 한 개의 억양구에 포함되는 강세구의 수가 적은 반면 느린 발화에서는 한 억양구 내 강세구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반면, 김선철(200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발화 속도와 운율구의 생성 사이에는 절대적인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명사구를 대상으로 말토막 형성을 고찰한 김경화(1999)에 의하면 발화 속도와 통사, 의미적 요인 두 가지가 모두 강세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발화 속도, 통사 구조, 의미 구조를 통제한 후, 어떤 요인들이 운율구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 밝혀서 해당 요인의 위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문체와 운율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로는 박지혜(2002)가 있다. 이 연

구에서는 20대 남녀 5명씩 10명의 대화체와 낭독체 음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낭독체의 강세구는 1~5음절, 대화체의 강세구는 1~8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낭독체의 강세구는 2, 3음절이 70%이나 대화체는 1~8음절까지 다양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억양구 내 첫번째 강세구의 성조패턴은 낭독체는 LLH만 보인 반면 대화체는 LLH와 LHH가 나타났고 음높이의 폭이 낭독체보다 대화체에서 더 크다고 하였다. 대화체의 운율은 낭독체의 운율보다 인접 강세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이는 대화체의 운율이 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이 연구는 통제된 실험을 통해 대화체와 낭독체의 운율적 특성을 정치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운율 연구를 개관하고 연구 동향과 쟁점을 정리한 후 향후 연구 방향을 전망해 보았다. 1950·60년대의 운율 연구는 단어 중심의 음장과 악센트가 주가 되었고 1970년대에는 리듬과 억양에 대한 관심이 태동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억양과 운율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운율 연구는 단어 단위의 음장, 악센트 연구에서 출발하여 강세구, 억양구, 발화 단위로 확장되어 온 것이다.

2000년 이후 운율 연구는 통제 실험, 음성 말뭉치, 음성 분석기를 이용한 연구 방법이 주를 이루면서 운율과 통사, 의미, 화용 요소의 상호 작용을 규명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은 이후의 연구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향후 운율 연구는 한국어 교육, 음성공학, 언어병리학 등 주변 학문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본고의 사료 문헌은 내성적 관찰이나 음성 분석을

통해 운율 현상을 기술한 연구들로 한정되었다. 운율의 기저 표시 방법이나 운율과 음운 규칙의 관계 등을 다룬 이론적 논의도 중요하나 이 부분을 포괄하지 못한 것은 본고의 한계점이다.

참고문헌

- 곽동기(2000), “한국어 중간구 오름조 현상에 대하여”, 『말소리와 음성과학』 40, 한국음성학회, 13-27쪽.
- 곽숙영(2009), “한국어의 발화 길이 및 절 경계와 초점에 의한 점진하강(declination)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2-3, 한국음성학회, 11-22쪽.
- 곽숙영(2012), “한국어 발화의 점진하강 현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숙영·신지영(2009), “한국어의 점진하강(declination) 연구를 위한 음높이 측정 위치와 기준선 고찰”, 『말소리와 음성과학』 1-2, 한국음성학회 75-84쪽.
- 곽숙영·신지영(2012), “문장 유형에 따른 점진하강 실현 양상 연구”, 『한국어학』 55, 한국어학회, 64-102쪽.
- 구희산(1993), “음성합성의 운율처리를 위한 악센트 연구”, 『음성, 음운, 형태론 연구』, 음성, 음운, 형태론 연구회, 21-34쪽.
- 김경화(1999), “문법 구조와 리듬 단위 형성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뉴스 문장의 명사구의 말토막 형성 관계에 대하여”, 『언어학』 25, 한국언어학회, 29-53쪽.
- 김미란 외(2000), “초점과 관련된 의문문 억양 패턴 실험”, 『말소리와 음성과학』 7-4, 한국음성과학회, 203-217쪽.
- 김미란(2000),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나타난 초점과 문미 억양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란(2001), “한국어 대등적 연결 어미 -고의 함축 의미와 운율”, 『음성과학』 8-4, 한국음성과학회, 289-305쪽.
- 김선주(2000), “한국어 리듬 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2음절 낱말을 중심으로”, 『말소리와 음성과학』 39, 한국음성학회, 1-14쪽.
- 김선철·권미영·황연신(2004), “서울말 장단의 연령별 변이”, 『말소리』 50, 대한음성학회, 1-22쪽.
- 김선철(1995), “국어의 억양음운론적 연구를 위한 시고”, 『언어연구』 10-12, 한국현대언어학회, 1-24쪽.

- 김선철(1998), “서울말 억양의 음운론적 기술을 위한 시고”, 『한글』 239, 한글학회, 53-73쪽.
- 김선철(1999), “국어 억양의 음성학, 음운론적 연구—서울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철(2009), “발화 속도에 따른 운율 단위의 빈도 변이에 대한 시험적 연구”, 『언어학』 53, 한국언어학회, 225-253쪽.
- 김수진·차재은·오재혁(2011), “발화 요소와 발화 유형”, 『한국어 의미학』 36, 한국어어미학회, 91-118쪽.
- 김수형(2001), 『현대국어의 음장』, 역락.
- 김태경·김정선·최용석(2005), “구어 주석 코퍼스 구축을 위한 발화 단위 연구”, 『한국언어문화』 28, 한국언어문화학회, 5-25쪽.
- 김태경·장경희(2006), “대화 참여자의 지위 관계에 따른 운율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13-2, 한국사회언어학회, 69-89쪽.
- 南廣祐(1954), “長短音考(上)”, 『國語國文學』 12, 국어국문학회, 225-229쪽.
- 南廣祐(1955), “長短音考(下)”, 『國語國文學』 13, 국어국문학회, 203-216쪽.
- 남길임(2007), “국어 억양 단위의 통사적 상관성 연구”,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21-50쪽.
- 박미영(2002), “발화속도에 따른 국어 음운의 변화 연구 : 운율구 형성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영·안병섭(2003), “한국어 의문사 의문문의 초점 실현에 대한 운율 특징 연구”, 『음성언어자료와 국어 연구』, 월인, 215-243쪽.
- 박주경(1985), “현대 한국어의 장단음에 관한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11-14, 한국음성학회, 121-131쪽.
- 박지혜(2002), “대화체와 낭독체의 운율에 관한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43, 한국음성학회, 11-23쪽.
- 박진희(1990), “한국어 낱말 리듬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길이(duration)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철재(1991), “표준한국어 악센트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철재(1994), “한국어 리듬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철재·김상훈(1996), “경계 신호의 지각적/음향적 분석—운율구 단위 설정과 관련하여”, 『한글』 232, 한글학회, 35-58쪽.
- 성철재·송윤경(1997), “주어 자리 조사의 운율 패턴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33-34, 한국음성학회, 23-42쪽.
- 송민규·이영배(2003), “한국어 강세구 첫 음절의 운율에 대한 연구”, 『음성언어자료와 국어 연구』, 월인, 245-264쪽.
- 송윤경(1998), “한국어 조사의 운율 패턴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 1—주격 조사

- 와 목적격 조사를 중심으로”, 『언어연구』 18, 한국현대언어학회, 27-40쪽.
- 신지영·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 안병섭(2007a), “언어 분석 단위로서의 발화 설정 방법론 연구”, 『한국학연구』 26,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33-259쪽.
- 안병섭(2007b), “후지의 역할에 대한 반성적 검토”, 『우리어문연구』 28, 우리어문학회, 67-87쪽.
- 안병섭(2010), 『한국어 운율과 음운론』, 월인.
- 오재혁(2011a), “중결법을 결정하는 운율적 단서에 대한 지각적 연구”, 『한국어학』 51, 한국어학회, 117-140쪽.
- 오재혁(2011b), “국어 중결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음성적 특징에 대한 지각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승미(2007), “현대 서울말 평서문에 나타나는 억양 연구”,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17-21합본, 연세대학교언어정보연구원, 133-145쪽.
- 유재원(1988), “현대국어의 악센트 규칙에 대한 연구”, 『성곡논총』 19, 성곡학술문화재단, 293-322쪽.
- 유 정(2003), “한국어 문장에 나타난 초점의 운율적 특징”,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일승(1992), “끊김 앞에서 보이는 서울말의 억양 특징”, 『말소리와 음성과학』 21-24, 한국음성학회, 90-110쪽.
- 이병근(1986), “발화에 있어서의 음장”, 『국어학』 15, 국어학회, 11-39쪽.
- 이상직(1987), “한국어 악센트에 대한 재검토”, 『말소리와 음성과학』 11-14, 한국음성학회, 133-148쪽.
- 이숙향(1984), “한국어 문미억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향(1998), “한국어 운율구조와 관련한 모음 및 음절 길이”, 『말소리와 음성과학』 35·36, 한국음성학회, 43-55쪽.
- 이숙향(2002), “한국어 운율구조의 기술 체계에 대한 연구 : K-ToBI 기술 체계를 중심으로”, 『언어학』 10-2, 대한언어학회, 1-18쪽.
- 李崇寧(1955a), “악센트論(1)”, 『한글』 112, 한글학회, 3-11쪽.
- 李崇寧(1955b), “악센트論(2)”, 『한글』 113, 한글학회, 22-28쪽.
- 李崇寧(1955c), “악센트論(3)”, 『한글』 114, 한글학회, 30-36쪽.
- 이승녕(1960), “현대 서울말의 악센트 고찰”, 『국어학논고』, 동양출판사, 177-227쪽.
- 이영근(1989), “한국어 억양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15-18, 한국음성학회, 37-56쪽.
- 이영길(1986), “한국어 의문문의 억양 의미”, 『한글』 191, 한글학회, 15-38쪽.
- 이영길(1987), “억양 배형 곡선 모형”, 『말소리와 음성과학』 11-14, 한국음성학회, 73-89쪽.

- 이영길(1988), “억양의 구조와 의미에 관한 음성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길(1992), “억양구의 비교 연구-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한글』 215, 한글학회, 29-50쪽.
- 이영길(1998), “억양 모형의 구조와 의미 연구”, 『한글』 199, 한글학회, 3-23쪽.
- 이현복(1973), “현대 한국어의 accent”, 『문리대 학보』 19, 서울대학교, 113-128쪽.
- 이현복(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 10-2, 서울대 어학연구소, 15-25쪽.
- 이현복(1976), “한국어 단음절어의 억양연구”, 『언어학』 1, 한국언어학회, 167-184쪽.
- 이현복(1982), “한국어 리듬의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4, 한국음성학회, 31-48쪽.
- 이현복(1993), “한국어 리듬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25, 한국음성학회, 52-64쪽.
- 이호영(1987), “현대 한국어의 악센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영(1991), “한국어의 억양 체계”, 『언어학』 13, 한국언어학회, 129-151쪽.
- 이호영(1994), “한국어 문장억 양의 선택 과정”, 『한글』 225, 한글학회, 7-33쪽.
-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 이호영(1999), “국어 핵억양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38, 한국음성학회, 25-39쪽.
- 이호영·손남호(2007), “한국어 말토막 억양 패턴의 인지”, 『한글』 277, 한글학회, 5-44쪽.
- 인지영·성철재(2008), “한국어 방송 뉴스 발화의 억양 기술기 특성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66, 한국음성학회, 21-39쪽.
- 임홍빈(1993), “국어 억양의 기본 성격과 특징”, 『새국어생활』 3-1, 국립국어원, 58-90쪽.
- 張泰鎭(1960), “母音 長短의 對立에 대하여—標準語를 中心으로”, 『國語國文學』 22, 국어국문학회, 75-80쪽.
- 張泰鎭(1963), “國語의 音長과 mora”, 『語文學』 9, 한국어문학회, 112-133쪽.
- 田光鉉(1992), “音長·抑揚·악센트”,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東亞出版社, 118-127쪽.
- 전선아(2006), “문장 처리에서 억양이 하는 역할”, 『인문학 연구』 33-1,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5-211쪽.
- 전은·이숙향(1999), “한국어 조사의 운율적 특성-낭독체 문장을 중심으로”, 『말소리와 음성과학』 37, 한국음성학회, 73-85쪽.
- 정명숙(2002), “방송언어에 나타난 말소리의 사적 변천”, 『국어학』 39, 국어학회, 221-249쪽.
- 정명숙·신지영(2000), “한국어의 시간 단위에 관하여”,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261-278쪽.

- 정명숙·황국정(2000), “국어 한자어의 장단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어문연구』 42, 민족어문학회, 285-299쪽.
- 정미현(2013), “국어 발화 종결의 음성적 단서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인섭(1965), “우리말 악센트는 고저악센트다”, 『중앙대 논문집』 10, 중앙대학교, 9-50쪽.
- 조민하(2011), “연결 어미의 종결 기능과 억양의 역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민제(1993), “소리의 길이”, 『새국어생활』 3-1, 국립국어원, 39-57쪽.
- 차재은(2005), “1930년대의 한국어 음장에 대한 연구—〈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의 음성 자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05-128쪽.
- 차재은(2010), “큰사전 고유어 단일어의 음장 분석”, 『우리어문연구』 37, 우리어문학회, 163-189쪽.
- 차재은(2011), “큰사전 고유어 복합어의 음장”, 『한국어학』 50, 한국어학회, 203-229쪽.
- 최혜원(1995), “문장성분의 생략에 따른 억양 곡선의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선희(2000), “대화체 억양구말 형태소의 경계성조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5-2, 한국음성학회, 219-234쪽.
- 한선희·오미라(1999), “한국어 억양구의 경계톤”, 『말소리와 음성과학』 7-4, 한국음성학회, 109-129쪽.
- 황손문(2002), “한국어 화제 구문의 운율적 고찰”, 『말소리와 음성과학』 9-2, 한국음성학회, 59-68쪽.

Jun Sun-Ah(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Jun Sun-Ah(2000), *K-ToBIlabelingconventions:versions3.1*, UCLA Working Papers in Phonetics 99.

〈ABSTRACT〉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Studies on Korean Prosody

- Focusing on the Standard Korean Prosody Since 1950's -

Cha Jae-eu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on Korean prosody. The overview of research on the Korean prosody over the past 60 years were reviewed in this study. Analysis shows that the researches from 1950s and 1960s were focused on vowel length, accent, and rhythm in words. The studies in new area, which are about intonation, and prosody in sentences started at 1980s. There has been an explosive growth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the research on this area since 1990s. I tried to suggest some directions for further studies in Korean prosody; researches about 1) controlled experimental method, 2) based on a large corpus, 3) interaction with syntax, semantics, and pragmatics, 4) interaction with Korean educational linguistics, speech pathology.

- 주제어 : 운율, 음장, 악센트, 리듬, 억양
prosody, vowel length, accent, rhythm, intonation

차 재 은

소 속 :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jecha3@hanmail.net

논문 접수 : 2014. 10. 15.

논문 심사 : 2014. 10. 25.- 11. 15.

게재 결정 : 2014. 11. 20.

평창방언 체언의 성조 연구

최영미

< 차례 >

1. 머리말
2. 연구방법
3. 체언의 성조 실현
4. 성조의 전이적 특징
5. 맺음말

1. 머리말

이 연구는 평창방언의 성조체계와 성조형을 기술하고, 정선방언의 그것과 비교하여 평창방언 체언류 성조의 전이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평창 지역은 지리적으로 영서지역에 속하지만 문화적으로 영동지역에 속하고 있다. 강원도 남부에 있는 군으로, 동쪽으로 정선군, 북동쪽으로 강릉시, 북쪽으로 홍천군, 서쪽으로 횡성군, 남쪽으로 영월군에 접해 있다. 뿐만 아니라 평창 지역의 생활 문화는 영동 방언 특히 강릉 지역 문화권에 속하여, 언어와 지역 문화가 영동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평창방언은 음장방언과 성조방언의 전이 지역으로써 언어적 가치가 크

다. 운율을 기준으로 한 강원방언의 방언 구획은 음장 지역, 성조 지역, 준성조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즉, 성조 지역은 강릉, 삼척, 영월이고, 준성조지역은 평창, 정선, 고성, 양양이며, 음장지역은 그외 영서 지역이다(방언연구회 2001 : 1~2). 그러나 준성조지역으로 분류된 정선방언은 삼척방언, 강릉방언과 함께 성조언어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성조언어적 성격을 가진 정선방언을 준성조방언으로 분류한 것은 체계적인 운율의 기술 없이 강원방언의 방언구획을 시도한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최영미 2009 : 35-42). 더욱이 준성조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 내륙 지역 중에 평창 지역은 음장방언과 가장 근접한 지역이므로 언어현실도 음장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준성조방언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언 지역이 아닌가 한다. 운율 유형의 변화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성조언어가 음장언어로 변화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지역 방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배가 된다.

강원방언은 동남방언보다 비성조언어의 특성을 갖는 사실을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차균(2006 : 40)은 강릉방언과 삼척방언에서 거성의 평2형화¹⁾를 언급했다. 즉, 강릉방언과 삼척방언에서 거성형은 2음절 이상에서 실현되지 않고, 평2형에 합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설명했다. 강릉방언과 삼척방언뿐만 아니라 정선방언에서도 2음절 이상에서 거성형은 평2형에 합류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영미 2009 : 127-128). 이에 따라 강릉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거성형은 단음절에서만 인정이 가능하다. 즉, 거성형이 단독으로 실현되었을 때, 상성형의 음조형([M])으로 실현된다. 또한 강릉방언과 정선방언의 평복형의 자유변동을 겪기 때문에 평복형은 임의적으로 변이음조형을 가진다. 이에 따라, 하위 평복형(평2형 평3형, 평4형...)들은 변별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앞선 연구

1) 거성의 평2형화 규칙은 강릉방언, 삼척방언, 정선방언에서 나타나는 성조규칙이다. 규칙으로 표시하여 보이면, /□□/ → /□²□□/ (2음절 이상의 거성형은 평2형으로 합류한다)이다.

에서 강원방언의 성조체계 및 성조형의 변화가 거성형의 평2형화, 평복형의 자유변동 등과 같은 성조규칙으로 말미암아 비성조방언으로 변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평창방언 성조체계와 성조형을 파악하고, 정선방언의 그것과 비교하여 거성형의 평2형화와 평복형의 자유변동 등과 같은 성조규칙의 적용 여부와 정도성을 파악하여 평창방언 체언 성조의 전이적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 지역 및 체보자

이 연구의 조사 지점은 평창군 진부면 마평2리이다. 1906년 10월에 대화면, 봉평면과 함께 진부면은 행정구역 상 강릉으로부터 이관되었고, 주민들의 생활권도 강릉과 인접하여 춘천, 원주 등과 같은 영서 생활권이 아니라 강릉과 인접해 있으므로 영동 생활권을 갖는다. 즉, 태백산맥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생활권은 영동 지역에 속한다. 따라서 진부면은 강릉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조사지점은 강릉과 직접적으로 인접한 마을은 아니다. 즉, 유천리나 도암면은 1989년에 강릉이나 정선으로부터 진부면으로 편입된 곳인데, 진부면 마평리는 강릉 사이에 대관령면을 끼고 있다.



<그림 1> 조사지점

제보자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으로 선정했다. 첫째, 평창군에서 3대 이상 거주해야 한다. 둘째, 나이는 60대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학력은 국졸 이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제보자는 제시한 3가지 조건을 만족한 분들이다. 평창방언의 소중한 자료를 알려 주신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1) 제보자

- ㄱ. 주 : 조〇〇 70 평창군 진부면 마평2리 59-2 국졸 (마평리 출생)
- ㄴ. 부 : 권〇〇 61 평창군 진부면 마평2리 59-2 국졸 (막동리 출생)

2.2.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조사 항목은 총 600여 개의 어휘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 명사 항목이 250여 개와 용언이 350여 개가 포함했다. 이 연구는 명사 항목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각 어휘 항목은 아래 (2)와 같이 곡용과 활용하면서 구성하는 패러다임을 구분하여 성조형을 조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 항목은 문장을 단위로 조사를 했다. 문장 단위로 조사를 한 이유는 억양에 대한 후속 연구를 피하기 위함이다.

(2) ㄱ. 명사		ㄴ. 용언	
목·이	/HM/[HM]	먹·지	/HM/[HM]
목·을	/HM/[HM]	먹·고	/HM/[HM]
목·도	/HM/[HM]	먹·나	/HM/[HM]
목·뚜	/HM/[HM]	먹·으·먼	/HM ² /[HMM]
목·에	/HM/[MH]	먹·어·서	/HM ² /[HMM]
목부·터	/H ² M/[MHM]	먹거·든	/H ² M/[MHM]
목버·텀	/H ² M/[MHM]	먹더·라	/H ² M/[MHM]
목까·지	/H ² M/[MHM]	먹·도·록	/HM ² /[HMM]

조사 방법은 제보자의 집에서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녹음과 기록을 병행하고, 조사가 끝난 후 녹음된 자료를 반복 재생하면서 전사의 정확성을 꾀했다. 녹음은 TASCAM DR-680 DAT와 Shure KSM 44A/SL 마이크를 사용했다. 현지답사는 5회 실시했다.

(3) 조사일정 :

- 1차 : 2013.12.6.~2013.6.8.(3일간) : 제보자 선정 및 체언 조사 1
- 2차 : 2013.12.18~2013.12.20(3일간) : 체언 조사 2
- 3차 : 2013.12.23~2013.12.25(3일간) : 용언 조사 1
- 4차 : 2014.1.10~2014.1.13(3일간) : 용언 조사 2
- 5차 : 2014.2.10~2014.2.10(3일간) : 용언 조사 3

2.3. 성조 기술 방법

이 연구는 방점법 이론을 토대로 성조를 기술한다. 방점법은 체계 안에서 대립과 분포에 중점을 두고 기저층위와 표면층위로 구분하여 성조를 기술한다. 또한 방점법은 김차균(1977)에서 체계화된 이후 김차균(1991, 1998)에서 다듬어지고 확정되어, 정원수(1994), 이호영(1996), 이문규(1997), 박숙희(2005), 김세진(2006), 최영미(2009) 등에서 검증된 성조 기술 방법이다.

먼저, 평창방언 자료를 대상으로 성조 기술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대립과 중화를 바탕으로 성조소를 찾아 성조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성조소는 각 음절에 얹힌 높낮이 자질로서, 높낮이가 단어의 의미를 분화하는 변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이다. 국어의 성조체계는 둘 또는 세 개의 성조소로 구성되어 있다. 15세기 중세국어의 성조체계와 삼척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의 성조소의 대응관계를 제시하면 (4)와 같다.

(4) 성조소의 대응관계

성조 분류	중세국어	삼척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	
평성	가장 낮은 음조 /L/ □	고 /H/ □	고 /H/ □	고 /H/ □	
측성	거성	가장 높은 음조 /H/ ·□	저 /M/ ·□	저 /M/ ·□	저 /M/ ·□
	상성	높아 가는 음조 /R/ :□	고: /Ĥ/ :□	저: /M/ :□	저: /M/ :□

둘째, 성조형은 형태소, 단어, 어절의 각 음절에 부여된 성조소의 연결형이며, 형태소, 단어, 어절에 얹히는 높낮이 가락을 지칭한다. 성조 방언에서 모든 성조소가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하지만, 성조방언에 존재하는 성조규칙이나 음조규칙에 따라 성조형은 한정되고 제한되어, 형태소, 단어, 어절의 성조형은 유형의 분류가 가능하다.

셋째, 성조를 음운 층위의 기저층위와 음성 층위인 음조 층위로 분리하여 기술한다. 기저성조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조로 실현되는 성조의 음운과정은 방점형 → /성조형/ → [음조형]의 3단계를 거친다. ‘집, ·뭉, :일’이 토씨 ‘·이’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음운과정을 보이면 (5)와 같다.

(5) 성조의 음운과정

		어휘	집·이(家)	·몸·이(身)	:일·이(事)
기 저 층 위	기저방점표상		□ + ·□	·□ + ·□	:□ + ·□
	←성조규칙 ↓	최종방점표상	당연규칙 ²⁾	중화규칙	중화규칙
				·□ ² (중간형) 거성의 평2형화규칙	
	성조형	□·□	□ ²	:□ ²	
표 면 층 위	←음조실현규칙 ↓	음조형	평1형 음조실현규칙	평2형 음조실현규칙	상성형 음조실현규칙
		음조형	[HM]	[MH]	[MH]

(5)에서 기저방점표상은 형태소, 단어가 가지는 고유 성조소의 연결형이고, 최종방점표상은 기저방점표상에 성조규칙이 적용되어 도출되는 것이며, /성조형/은 최종방점표상을 (4)에 제시한 성조소로 바꾼 성조소의 연속체이다. 또한, [음조형]은 /성조형/에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된 표면층위의 음조의 연속체이다.

성조의 음운과정에서 성조규칙과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조규칙은 기저방점표상이 최종방점표상으로 도출되는 과정에서 적용되고, 음조실현규칙은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도출되는 과정에서 적용된다. 평창방언의 성조규칙 및 음조규칙을 제시하면 아래 (6)과 같다.

(6) 평창방언의 성조규칙 및 음조실현규칙

가. 성조규칙

① 중화규칙(김차균 2006:34)

가. ≪□ —≫의 환경에서 □(평성) 이외의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

2) 당연규칙은(default rule)은 기저방점표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최종방점표상으로 도출될 때 적용되는 규칙이다.

나. 《{·□, □, ·□, □} —》의 환경에서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

② 조사 {·에} 앞에서 거성의 평성화

조사 {·에} 앞에서 거성이 평성화하는 성조규칙은 중세 문헌성조에서 보이는 규칙으로, 거성형 명사가 조사 {·에} 앞에서 평성으로 변동하는 규칙이다. 규칙은 ‘·□₁명사→□/___{·에X}’이다.

③ 거성의 평2형화(김차균 2006L:40).

거성형의 평2형화규칙은 평창방언에서 2음절 이상의 거성형이 평2형과 합류하는 성조규칙이다. 단, 이 규칙은 공식규칙인 동시에 통시규칙이기도 하다.

④ 평복형의 자유변동

평복형(□₂·□ⁿ)의 자유변동 규칙은 n음절(단 n≥2)로 이루어진 평복형의 각 하위 방점형들이 서로 자유롭게 변동하는 것이다.

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상성의 평성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상성이 평성화 하는 성조규칙은 중세 문헌 성조에서도 보이는 규칙으로, 상성형 용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X} 앞에서 평성으로 변동하는 규칙이다.

나. 음조실현규칙

① 단음절

ㄱ. 평성 /H/ → [H^ː] / # _____ #

ㄴ. 거성 /M/ → [M̃] / # _____ #

ㄷ. 상성 /M̃/ → [M̃] / # _____ #

② 다음절

ㄱ. 평일형 /HM₁/ → [HM₁], [HH₁] / # _____ #

ㄴ. 평복형 /H₂Mⁿ/ → [MH₀HMⁿ] / # _____ #

ㄷ. 상성형 /M̃₂/ → [M̃ H₀HMⁿ] / # _____ #

3) 평복형의 음조형 [MH₀HMⁿ]에서 [H₀]는 평창방언과 강릉방언에서는 [M]과 [H]의 2/3 정도 높이에서 오름조로 실현된다. 하지만 대구방언이나 경북 내륙 방언에서는 [H₀]는 [M]에 가까운 높이에서 시작하여 오름조로 실현되지만 끝음절의 높이는 [H]에 못 미친다. 또한 경남방언에서 [H₀]는 [M]과 [H]의 중간 정도에서 시작해서 끝음절의 높이가 거의 [H]까지 높아지되 [H]보다 높지는 않는다.

다. 억양의 지배

평창방언에서 평측형 중 평1형의 마지막 음절은 더 장음화해서 실현하
 되, 의문문은 ‘?’로, 단정이나 서술형은 ‘.’로 나타난다. 드물게 끝에서
 둘째음절까지 낮아질 수 있다.

평창방언은 어절의 음조형이 실현될 때, 억양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확
 인된다. (6다)의 기술을 보면, 평성형 평1형의 음조형 실현을 보면 아래와
 같다.

- (7) 가. [[문·만]_{AP} [달·나]_{AP}]_{IP}
 나. [[문·이·나]_{AP} [달·아·라]_{AP}]_{IP}
 다. [[/HM/[HH⁻]_{AP} [/HM/[HH⁻]_{AP}]_{IP}
 라. [[/HM²/[HM²⁻]_{AP} [/HM²/[HM²⁻]_{AP}]_{IP}

(7)은 억양이 어절의 성조를 지배하는 예이다. (7가-나)은 하나의 IP가
 두 개의 AP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다-라)은 (7가-나)의 어
 절의 높낮이를 명시한 것이다. (7가)은 의문문이다. 억양(IP)의 지배를 받는
 두 악센트구(AP) ‘문·만/HM/, 달·나/HM/’의 음조형은 모두 [HH⁻]로 실현되
 고 있다. 즉, 억양이 악센트구를 지배하여 마지막 음절을 장음화시키고, 마
 지막 음절을 [M]이 아니라 [H]로 실현되게 한다. 반면에 (7나)은 명령문이
 다. 억양(IP)의 지배를 받는 악센트구(AP) ‘문·이·나/HM²/, 달·아·라/HM²’의
 음조형은 둘 다 [HM²⁻]로 실현되고 있다. 억양(IP)이 악센트구(AP)를 지배하
 지만 마지막 음절은 장음화하지 않고 마지막 음절의 높이도 변동되지 않는
 다.⁴⁾ 이러한 억양이 어절의 음조형을 지배하는 것은 ‘?’와 ‘.’로 표시한다.
 전자는 어절의 마지막 음절의 음조를 [M]으로 실현하고, 후자는 어절의 마

4) 문장의 억양이 어절의 음조형을 지배하는 것은 성조언어가 비성조방언으로 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억양의 지배는 강원도 방언의 특성의 편리를 보여준다.
 강원도 방언의 문장 억양을 보면,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차차로 올라가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이 문제는 지면을 달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막 음절의 음조를 [H]로 실현되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을 표시할 때는 음절수대로 모두 나열하지 않고 생성음운론의 표기 규칙에 따라 로마자 대문자와 소문자,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간략하게 표기한다. 평창방언의 5음절 평성형, 거성형, 상성형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7) 평창방언 5음절 성조 실현

구분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
평 측 형	평1형	·□·□ ⁴	/HM ⁴ /	[HM ⁴]~[HHHHH]
	평2형	·□ ² ·□ ³	/H ₂ M ⁿ /	[MHM ³]~ [M _H HM ²]~ [M _H ² HM]~ [M _H ³ H]
	평3형	·□ ³ ·□ ²		
	평4형	·□ ⁴ ·□		
	평5형	·□ ⁵		
측 성 형	거성형	(·□ ⁵ →)□ ₂ ·□ ⁿ	/H ₂ M ⁿ /	[MHM ³]
	상성형	:□ ⁵	/M ⁵ /	[MH ⁴]
	음거성형	·□ ⁵	/fH ⁴ /	[fH ⁴]
	음상성형	:□ ⁵	/N ⁵ /	[NH ⁴]

3. 체언의 성조 실현

3.1. 조사의 성조형

체언의 성조형을 살필 때, 조사의 기저방점표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사는 체언에 붙어 하나의 어절을 이루므로, 조사의 기저방점표상을 파악해야 성조의 음운과정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의 기저방점표상은 거성형이나 상성형의 체언과 결합할 때 중화규칙이 적용되

기 때문에 조사의 기저방점표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의 기저방점표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음절 평성형 명사와 결합할 때 그 조사의 기저방점표상으로 파악한다(최영미 2009 : 110).

평창방언의 조사의 기저성조를 설정하기 위해 평성형 명사인 ‘문’과 조사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성조형의 실현을 제시하도록 한다.

(8) 1음절 평성형 명사 ‘문’+ 조사

평창방언		정선방언	
/문/(門)	/H/[H ⁻]	/문/(門)	/H/[H ⁻]
ㄱ. 문·과	/HM/[HM ⁻]	문·과	/HM/[HM]
문·이·나	/HM ² /[HM ²⁻]	문·이·나	/HM ² /[HM ²]
문·에·서	/HM ² /[HM ²⁻]	문·에·서	/HM ² /[HM ²]
ㄴ. 문·도	/HM/[HH ⁻]	문·도	/HM/[HM]
문·만	/HM/[HH ⁻]	문·만	/HM/[HM]
문·에	/HM/[HH ⁻]	문·에	/HM/[HM]
문·을	/HM/[HH ⁻]	문·을	/HM/[HM]
문·은	/HM/[HH ⁻]	문·은	/HM/[HM]
문·의[문·에]	/HM/[HH ⁻]	문·의[문·에]	/HM/[HM]
문·에	/HM/[HH ⁻]	문·에	/HM/[HM]
문·이·면	/HM ² /[HMH ⁻]	문·이·면	/HM ² /[HM ²]
문·만·도	/HM ² /[HMH ⁻]	문·만·도	/HM ² /[HM ²]
ㄷ. 문·으·로	/H ³ /[M _H H ⁻]	문·으·로	/HM ² /[HM ²]
문·같·이	/H ³ /[M _H H ⁻]	문·같·이	/H ² M/[MHM]
문·마·다	/H ³ /[M _H H ⁻]	문·마·다	/H ² M/[MHM]
문·마·둥	/H ³ /[M _H H ⁻]	문·마·둥	/H ² M/[MHM]
문·부·터	/H ³ /[M _H H ⁻]	문·부·터	/H ² M/[MHM]
문·버·터	/H ³ /[M _H H ⁻]	문·버·터	/H ² M/[MHM]
문·처·럼	/H ³ /[M _H H ⁻]	문·처·럼	/H ² M/[MHM]
문·까·지	/H ³ /[M _H H ⁻]	문·까·지	/H ² M/[MHM]
문·조·차	/H ³ /[M _H H ⁻]	문·조·차	/H ² M/[MHM]
문·하·고	/H ³ /[M _H H ⁻]	문·하·고	/H ² M/[MHM]

문한·테 /H³/[MH³H⁻] 문한·테 /H²M/[MHM]

(8)은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조사의 성조형과 음조형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평창방언은 억양이 어절의 음조형을 지배한다. 즉, 어절의 마지막 음절에 억양이 얹혀서, 해당 어절에 뒤따르는 문장 구성성분이 있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억양은 평1형 어절의 마지막 음절을 장음화 하고 그 음절의 음조를 [M]이 아닌 [H]로 실현되게 한다. (8ㄱ-ㄴ)은 어절의 성조형이 평1형이고, (8ㄷ)은 어절의 성조형이 평복형(평2형)이다. (8ㄱ)의 음조형은 억양의 지배를 받지 않아 어절의 마지막 음절의 [M]으로 실현된 것이고, (8ㄴ-ㄷ)의 음조형이 억양의 지배를 받아서 어절의 마지막 음절의 음조가 [H]로 실현된다. 그렇지만 정선방언에서 조사의 음조형은 이러한 억양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처럼 억양이 어절의 음조형을 지배하는 현상은 성조언어가 비성조언어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8)을 토대로 평창방언 조사의 기저방점표상을 제시하면 (9)와 같다.

- (9) ㄱ. □ □ ·과, ·도, ·만, ·에, ·을, ·은, ·의, ·에,
- ㄴ. □□ □ ·이·나, ·에·서, ·이·면~·이·른, ·만·도~·만·두
- ㄷ. □□ □ 으·로, 같·이~같·이, 마·다~마·둥, 부·터~버·터, 처·럼,
- 까·지, 조·차, 하·고, 한·테

3.2. 체언의 성조형

3.2.1. 거성형

거성형은 첫째음절이 거성으로 시작되고,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는 축성으로 중화되는 어절의 성조형을 말한다. 평창방언의 거성형은 1음절에서만 실현된다. 2음절 이상에서 거성형은 평2형으로 합류한다. 평창방언의 거성

형 명사의 성조실현을 보이면 (10)과 같다.

(10) 평창방언		정선방언	
ㄱ. ·귀(耳)/M/[M]		·귀(耳)/M/[M]	
ㄴ. (·귀·가→)귀가	/H ² /[MH]	(·귀·가→)귀가	/H ² /[MH]
(·귀·를→)귀를	/H ² /[MH]	(·귀·를→)귀를	/H ² /[MH]
(·귀·도→)귀도	/H ² /[MH]	(·귀·도→)귀도	/H ² /[MH]
ㄷ. 귀·에	/HM/[HM]	귀·에	/HM/[HM]
ㄹ. (·귀·부·터→)귀부터	/H ³ /[M _H H]	(·귀·부·터→)귀부·터	/H ² M/[MHM]
(·귀·버·터→)귀버터	/H ³ /[M _H H]	(·귀·버·터→)귀버·터	/H ² M/[MHM]
(·귀·까·지→)귀까지	/H ³ /[M _H H]	(·귀·까·지→)귀까·지	/H ² M/[MHM]

(10)을 보면, 거성형 명사 ‘·귀’에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성조의 실현을 보인 것이다. (10ㄱ)은 명사 ‘·귀’가 단독으로 실현된 것으로, 성조형과 음조형이 /M/[M]으로 실현된다. 여기서 음조형을 보면 상성형의 음조형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10ㄴ)과 (10ㄷ)은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이 2음절 이상으로 실현된 예다. 즉, (10ㄴ)은 거성의 평2형화 규칙이 적용되어 평2형으로 실현되고, (10ㄷ)은 거성의 평2형화 규칙과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적용되어 평복형(평3형)으로 실현된 예이다. (10ㄹ)은 명사 ‘·귀’가 조사 ‘·에’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평1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1음절 단독 어절로 실현될 때는 거성형은 상성인 음조형 [M]와 같이 실현되어 축성의 성격이 나타나고, 조사 ‘·에’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이 될 때, 거성이 평성화하는 현상에서 평창방언의 거성형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한편, 평창방언에서 거성형 명사와 조사 ‘·에’가 어절을 이룰 때, 거성이 평성으로 변동하는 규칙은 수의적이다. 즉, 거성이 평성으로 바뀌어서 어절의 성조형이 평1형으로 실현되는 것과 거성이 평성으로 바뀌지 않고 평복형(평2형)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 이처럼 거성의 평성화 규

칙이 적용에 있어서 수의성은 다른 성조방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거성의 평성화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 | |
|--------------|---|
| (11) 가. 이·에 | /HM/[HM ^ː] |
| 나. 담·에 | /HM/[HH ^ː ~MM ^ː] |
| 다. (·물·에)→물에 | /H ² /[MH ^ː] |

(11가)과 (11나)은 거성형 명사 ‘·이(齒), ·담(牆)’과 조사 ‘·에’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가 평1형으로 실현되어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된 예이다. 반면에 (11다)은 거성형 명사 ‘·물’과 조사 ‘·에’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가 평2형으로 실현되고,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거성의 평2형화 규칙이 적용된 예이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11가)과 (11나)은 방점형과 성조형은 같으나 음조형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11가)의 음조형 [HM]은 고조에서 저조로 많이 떨어지는 음성적으로 떨어지는 평1형이다. 그러나 (11나)의 음조형 [HH^ː~MM^ː]은 첫째음절이 고조이고, 둘째음절이 고조이나 첫째음절보다 조금 낮게 실현된 음조형으로, 어절에 문장의 초점이 놓이게 될 때, 어절의 음조형이 [HH]로 실현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MM]으로 실현되는 음조형이다.

(11가-나)과 같이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되는 예와 (11다)과 같이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를 제시하면 (12)와 같다.

- (12) 조사 {·에} 앞에서 거성의 평성화
- | | |
|--|---|
| 가. [HM ^ː] : | ·귀, ·금, ·이, ·땅, ·비, ·빛~·빔, ·벧 |
| 나. [HH ^ː ~MM ^ː] : | ·쌀, ·알, ·엿, ·웃, ·일, ·입, ·잔, ·점, ·칼, ·맛, ·발
(足), ·쇠 |
| 다. [MH ^ː] : | ·날, ·물, ·불, ·뿔, ·섬 |

3.2.2. 상성형

상성형은 첫째음절의 상성으로 시작되고,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가 중화되어 측성으로 되는 어절의 성조형을 말한다. 상성형의 성조 실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3) 상성형의 성조 실현

평창방언		정선방언	
ㄱ. :손(孫)M			
:손·이	/M ² /[MH ⁻]	:손·이	/M ² /[MH]
:손·을	/M ² /[MH ⁻]	:손·을	/M ² /[MH]
:손·도	/M ² /[MH ⁻]	:손·도	/M ² /[MH]
:손·에	/M ² /[MH ⁻]	:손·에	/M ² /[MH]
:손·부·터	/M ³ /[M _H H ⁻]	:손·부·터	/M ³ /[MHM]
:손·버·터	/M ³ /[M _H H ⁻]	:손·버·터	/M ³ /[MHM]
:손·까·지	/M ³ /[M _H H ⁻]	:손·까·지	/M ³ /[MHM]
ㄴ. :까·치M ²			
:까·치·가	/M ³ /[M _H H ⁻]	:까·치·가	/M ³ /[MHM]
:까·치·를	/M ³ /[M _H H ⁻]	:까·치·를	/M ³ /[MHM]
:까·치·도	/M ³ /[M _H H ⁻]	:까·치·도	/M ³ /[MHM]
:까·치·두	/M ³ /[M _H H ⁻]	:까·치·두	/M ³ /[MHM]
:까·치·에	/M ³ /[M _H H ⁻]	:까·치·에	/M ³ /[MHM]
:까·치·부·터	/M ⁴ /[M _H H ⁻]	:까·치·부·터	/M ⁴ /[M _H H _H M]
:까·치·버·터	/M ⁴ /[M _H H ⁻]	:까·치·버·터	/M ⁴ /[M _H H _H M]
:까·치·까·지	/M ⁴ /[M _H H ⁻]	:까·치·까·지	/M ⁴ /[M _H H _H M]
ㄷ. :그·마·리M ³			
:그·마·리·가	/M ⁴ /[M _H H _H H ⁻]	:그·마·리·가	/M ⁴ /[M _H H _H M]
:그·마·리·를	/M ⁴ /[M _H H _H H ⁻]	:그·마·리·를	/M ⁴ /[M _H H _H M]
:그·마·리·도	/M ⁴ /[M _H H _H H ⁻]	:그·마·리·도	/M ⁴ /[M _H H _H M]
:그·마·리·에	/M ⁴ /[M _H H _H H ⁻]	:그·마·리·에	/M ⁴ /[M _H H _H M]
:그·마·리·부·터	/M ⁴ /[M _H H ² H _M H ⁻]	:그·마·리·부·터	/M ⁴ /[M _H H ² H _M M]
:그·마·리·버·터	/M ⁴ /[M _H H ² H _M H ⁻]	:그·마·리·버·터	/M ⁴ /[M _H H ² H _M M]
:그·마·리·까·지	/M ⁴ /[M _H H ² H _M H ⁻]	:그·마·리·까·지	/M ⁴ /[M _H H ² H _M M]

(13)은 명사 ‘:손, :까·치, :그·마·리’와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어절의 성조형인 상성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13ㄱ)은 1음절 명사, (13ㄴ)은 2음절 명사, (13ㄷ)은 3음절 명사의 예를 보인 것이다. 다만 음조형에서 [ㅁ]는 [M]보다는 높고, 뒤따르는 [H]보다 낮은 음조로 실현되는 음조이다.

평창방언에서 상성형은 임의적으로 변이음조형을 갖는다. (13ㄷ)에 제시한 ‘:그·마·리·가, /M⁴/’를 가지고 상성형의 변이음조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4) ㄱ. [MHMM]
- ㄴ. [M_HHM]
- ㄷ. [M_H²H]

(14)는 상성형 ‘:그·마·리·가, /M⁴/’의 음조형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음조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평창방언 화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14ㄱ), (14ㄴ), (14ㄷ)이 결정된다. 삼척방언에서는 (14ㄱ)의 음조형이 우세하게 실현되고, 정선방언에서는 (14ㄴ)의 음조형이 우세하게 쓰인다. 평창방언에서는 (14ㄷ)의 음조형이 우세하게 실현되고, (14ㄴ)은 드물게 실현되며, (14ㄱ)은 아주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13)과 같이 상성형의 성조 실현을 보이는 어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5) ㄱ. 1음절 : :골(谷), :말(言), :곰(熊), :공, :짐, :담(膽), :돈, :눈(雪), :손(孫)
- ㄴ. 2음절 : :까·치, :임·금, :대·추, :거·짓, :췌·미, :개·미, :매·미, :배·차, :아·래, :안·개
- ㄷ. 3음절 : :깍·재·이, :굶·베·이, :지·레·이, :호·레·이

한편, 평창방언에서는 음상성형이 실현된다. 두 개의 평성 모음이 축약되

어 음상성이 생성되는데 그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16) ㄱ. 마음(心)H ²		ㄴ. 맘(心)M	
마음이	/H ³ /[M _H H]	ㅁ이	/M ² /[MIH]
마음을	/H ³ /[M _H H]	ㅁ을	/M ² /[MIH]
마음도	/H ³ /[M _H H]	ㅁ도	/M ² /[MIH]
마음에	/H ³ /[M _H H]	ㅁ에	/M ² /[MIH]
마음부·터	/H ³ M/[M _H ² H]	ㅁ부·터	/M ³ /[MI _H H]
마음버·터	/H ³ M/[M _H ² H]	ㅁ버·터	/M ³ /[MI _H H]
마음까·지	/H ³ M/[M _H ² H]	ㅁ까·지	/M ³ /[MI _H H]

(16ㄱ)의 평측형 중에 평2형인 ‘마음’은 첫째음절과 둘째음절이 평성이다. (16ㄱ)의 ‘마음’에 얹힌 두 개의 평성이 (16ㄴ)처럼 축약되어 ‘ㅁ’이 되는 것이다. ‘ㅁ’의 성조형과 음조형은 /M²/[MIH]으로 실현된다. 평창방언의 상성형은 /M/과 /M/이 있는데, 이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즉, /M/은 중조의 음역에서 상승을 하는 음조로써 으뜸 상성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M/은 두 개의 평성이 축약되어 중조의 음역에서 길게 1.4ms 정도로 실현되는 음조형이다. 전자는 상성형이라 지칭하고 후자는 음상성이라 지칭한다. 이 음상성형은 강릉방언, 삼척방언, 대구방언 등과 같은 동해안 성조방언에 나타나나, 정선방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3.2.3. 평측형

평측형은 어절의 첫째음절의 성조가 평성(□)이고,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가 거성(·□)인 성조형이다. 이때, 어절의 첫째음절 이후 평성의 개수에 따라 평측형은 하위 성조형을 갖는다. 즉, □·□, □·□·□, □·□·□·□ 등은 평1형이고, □□·□, □□·□·□ 등은 평2형이고, ·□□□·□, □□□·□·□ 등은 평3형이다. 평창방언에서 평측형의 성조 실현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7) 평측형의 성조 실현

평창방언		정선방언	
ㄱ. 닭[닥]H			
닭·이	/HM/[HM ⁻]	닭·이	/HM/[HM]
닭·을	/HM/[HM ⁻]	닭·을	/HM/[HM]
닭·도	/HM/[HM ⁻]	닭·도	/HM/[HM]
닭·에	/HM/[HM ⁻]	닭·에	/HM/[HM]
닭부터	/H ³ /[MH ⁻ H ⁻]	닭부·터	/H ² M/[MHM]
닭버터	/H ³ /[MH ⁻ H ⁻]	닭버·터	/H ² M/[MHM]
닭까지	/H ³ /[MH ⁻ H ⁻]	닭까·지	/H ² M/[MHM]
ㄴ. 북(鼓)H			
북이	/H ² /[MH ⁻]	북이	/H ² /[MH]
북을	/H ² /[MH ⁻]	북을	/H ² /[MH]
북도	/H ² /[MH ⁻]	북도	/H ² /[MH]
북부터	/H ³ /[MH ⁻ H ⁻]	북부·터	/H ² M/[MHM]
북버터	/H ³ /[MH ⁻ H ⁻]	북버·터	/H ² M/[MHM]
북까지	/H ³ /[MH ⁻ H ⁻]	북까·지	/H ² M/[MHM]
ㄷ. 감재H ²			
감재가	/H ³ /[MH ⁻ H ⁻]	감재·가	/H ² M/[MHM]
감재를	/H ³ /[MH ⁻ H ⁻]	감재·를	/H ² M/[MHM]
감재도	/H ³ /[MH ⁻ H ⁻]	감재·도	/H ² M/[MHM]
감재에	/H ³ /[MH ⁻ H ⁻]	감재·에	/H ² M/[MHM]
감재부·터	/H ³ M/[MH ⁻ H ⁻ M ⁻]	감재부·터	/H ³ M/[MH ⁻ H ⁻ M ⁻]
감재버·터	/H ³ M/[MH ⁻ H ⁻ M ⁻]	감재버·터	/H ³ M/[MH ⁻ H ⁻ M ⁻]
감재까·지	/H ³ M/[MH ⁻ H ⁻ M ⁻]	감재까·지	/H ³ M/[MH ⁻ H ⁻ M ⁻]
ㄹ. 할머이H ³			
할머이가	/H ⁴ /[MH ⁻ H ⁻ H ⁻]	할머이·가	/H ³ M/[MH ⁻ H ⁻ M ⁻]
할머이를	/H ⁴ /[MH ⁻ H ⁻ H ⁻]	할머이·를	/H ³ M/[MH ⁻ H ⁻ M ⁻]
할머이도	/H ⁴ /[MH ⁻ H ⁻ H ⁻]	할머이·도	/H ³ M/[MH ⁻ H ⁻ M ⁻]
할머이에	/H ⁴ /[MH ⁻ H ⁻ H ⁻]	할머이·에	/H ³ M/[MH ⁻ H ⁻ M ⁻]
할머이부·터	/H ⁴ M/[MH ⁻ H ⁻ H ⁻ M ⁻]	할머이부·터	/H ⁴ M/[MH ⁻ H ⁻ H ⁻ M ⁻]
할머이버터	/H ⁵ /[MH ⁻ H ⁻ H ⁻ H ⁻]	할머이버·터	/H ⁴ M/[MH ⁻ H ⁻ H ⁻ M ⁻]
할머이까·지	/H ⁴ M/[MH ⁻ H ⁻ H ⁻ M ⁻]	할머이까·지	/H ⁴ M/[MH ⁻ H ⁻ H ⁻ M ⁻]

(17)은 평측형 명사와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룬 것으로, 어절의 성조형이 평측형이다. (17ㄱ)의 1음절 ‘닭’은 평1형의 예이고, (17ㄴ, ㄷ, ㄹ)은 평복형의 예이다. 즉, 2음절 ‘북, 감재, 할마이’ 등은 평2형, 평3형, 평4형 등으로 지칭할 수도 있지만, 어절의 첫째음절로부터 평성(□)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평복형이라고 지칭한다.

평창방언에서 평측형은 평1형과 평복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17ㄱ)에 제시한 평1형은 1음절 명사뿐만 아니라 2음절 명사, 3음절 명사에도 평1형은 존재한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8) 머·리(頭)HM		메·누·리HM ²	
ㄱ. 머·리·가	/HM ² /[HM ²⁻]	메·누·리·가	/HM ³ /[HM ³⁻]
머·리·를	/HM ² /[HM ²⁻]	메·누·리·를	/HM ³ /[HM ³⁻]
머·리·도	/HM ² /[HM ²⁻]	메·누·리·도	/HM ³ /[HM ³⁻]
ㄴ. 머·리·에	/HM ² /[HMH ⁻]	메·누·리·에	/HM ³ /[HMMH ⁻]
머·리·부·터	/HM ³ /[HMMH ⁻]	메·누·리·부·터	/HM ⁴ /[HMMM ⁻]
머·리·까·지	/HM ³ /[HMMH ⁻]	메·누·리·까·지	/HM ⁴ /[HMMM ⁻]

(18)은 평1형 명사 ‘머·리, 메·누·리’에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로, 어절의 성조형은 모두 평1형이다. (18ㄱ)은 억양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1형 음조형인 [HM²] 또는 [HM³]으로 실현된 것이다. 반면에 (18ㄴ)은 억양의 영향을 받아 어절의 마지막 음절이 [H]로 상승하여 실현된 예이다. 이로 인해 (18ㄴ)의 음조형은 [HMH⁻]과 [HMMH⁻]으로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조형은 정선방언을 비롯한 국어 성조방언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억양이 어절의 성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강원방언의 특이한 억양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강원방언의 억양은 문장 첫 어절에서부터 문장이 끝날 때까지 차차로 억양이 상승을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억양이 차차로 상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절의 끝음절의 음조가 상승하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평창방언에서 평복형은 임의적인 변이음조형을 갖는다. 즉, 평복형의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도출될 때,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적용되어 평측형의 음조형은 변이음조형을 갖는다. 평복형의 변이음조형이 실현되는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19) 평복형 ‘할머이’의 음조 실현

ㄱ. 할머이 /H³/ : [MH³H⁻](우세)~[[MH³M⁻](드물)

ㄴ. 할머이가 /H⁴/ : [MH²H⁻](우세)~[MH³HM⁻](드물)~[*MH³M²⁻]

(19)를 보면, (19ㄱ)은 평3형으로 두 개의 음조형이 있으며, (19ㄴ)은 평4형으로 3개의 음조형이 있다. 즉, 평창방언 토박이들이 선호하는 음조형인 /H⁴/[MH²H]과 드물게 나타나는 [MH³HM]과 실현된 음조형을 발견하지 못한 [*MH³M²⁻] 등이다. (19)처럼 평창방언에서는 어절의 첫째음절에서 마지막 음절로 차차로 상승하는 음조형이 우세형으로 토박이 화자들이 선호하는 음조형임을 알 수 있다.

(17)과 같이 평창방언에서 평측형으로 실현되는 어휘를 평1형과 평복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0)

ㄱ. 평1형 : 국, 병, 북, 빛, 숲, 거·울, 거·이(鵝), 구·슬, 그·룻, 지·름, 자·침, 굴·밥, 누·에, 다·섯, 더·이(暑), 머·리, 모·래, 이·실(露), 이·불, 하·늘, 나·그·네, 메·누·리

ㄴ. 평복형 : 가매, 가루~값, 가지, 감재, 거름~거림, 고름, 고치, 구름, 그물, 기슭, 나물, 다래, 다리(脚), 매두(節), 마룻, 마을, 바람, 무꾸, 배꼽, 번개

한편, 평창방언에서는 음거성이 실현된다. 음거성은 기원적으로 거성형이었던 것이 두 음절이 축약되면서 보상 작용으로 장음화한 성조형을 말한

다. 음거성이 실현되는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1) · 췌 ㅅ			
·추·우·가	→	· 췌 가	/ḡH/[ḡH]
·추·우·를	→	· 췌 를	/ḡH/[ḡH]
·추·우·도	→	· 췌 도	/ḡH/[ḡH]
·추·우·에	→	· 췌 에	/ḡH/[ḡH]
·추·우·부·터	→	· 췌 부터	/ḡHH/[ḡHH]
·추·우·버·터	→	· 췌 버터	/ḡHH/[ḡHH]
·추·우·까·지	→	· 췌 까지	/ḡHH/[ḡHH]

(21)을 보면, 거성형 ‘·추·우’가 ‘·**췌**’로 축약되고, 조사 ‘·가’와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성조형과 음조형이 /ḡH/[ḡH]으로 실현된다. [ḡ]는 고조의 높지에서 수평조로 이루어지되, 어절을 구성하는 음절의 높이가 동일하게 실현되는 음조로써, 1mora의 길이를 가진다. 이처럼 기원적으로 거성형이었던 것이 두 음절이 축약되면서 보상 작용으로 장음화한 성조형/ḡ/[ḡ]을 음거성이라 지칭한다. 이 음거성은 정선방언에서는 실현되지 않지만 강릉, 삼척, 울진 등 동해안 성조방언의 특징이다.

4. 성조의 전이적 특징

3장에서 평창방언에서 실현되는 성조형을 정선방언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체언류 성조형 실현에서 평창방언이 비성조방언으로의 전이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거성의 평2형화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1음절 거성형(·□)은 /M/[M̥]으로 성조형과 음조형이 실현된다. 즉, 1음절 거성형의 음조형은 상성형의 음조형과 같은데, 이는 거성이 상성과 같이 측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거성형은 1음절에서만 존재한다. 즉 2음절 이상에서 거성형은 평측형 중 평북형(평2형)과 합류를 해서 평북형과 변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저방점층위에서 방점형이 성조형으로 도출될 때, 거성의 평2형화규칙이 적용되어 평북형으로 변동되기 때문이다. 거성형 명사 ‘질(道)’의 성조실현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22) 평창방언		정선방언	
ㄱ. ·질(道)/M/[M̥]		·질(道)/M/[M̥]	
ㄴ. (·질·이→)질이	/H ² /[MH ⁻]	(·질·이→)질이	/H ² /[MH]
(·질·을→)질을	/H ² /[MH ⁻]	(·질·을→)질을	/H ² /[MH]
(·질·도→)질도	/H ² /[MH ⁻]	(·질·도→)질도	/H ² /[MH]
ㄷ. (·질·부·터→)질부터	/H ³ /[M _H H ⁻]	(·질·부·터→)질부·터	/H ² M/[MHM]
(·질·버·터→)질버터	/H ³ /[M _H H ⁻]	(·질·버·터→)질버·터	/H ² M/[MHM]
(·질·까·지→)질까지	/H ³ /[M _H H ⁻]	(·질·까·지→)질까·지	/H ² M/[MHM]

(22)을 보면, 거성형 명사 ‘·질’에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성조의 실현을 보인 것이다. (22ㄱ)은 명사 ‘·질’이 단독으로 실현된 것으로, 성조형과 음조형이 /M/[M̥]으로 실현된다. 여기서 음조형을 보면 상성형의 음조형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22ㄴ)과 (22ㄷ)은 어절이 2음절 이상으로 실현된 예다. 즉, (22ㄴ)은 거성의 평2형화 규칙이 적용되어 평2형으로 실현되고, (22ㄷ)은 거성의 평2형화 규칙과 평북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적용되어 평북형(평3형)으로 실현된 예이다. 여기서 2음절 이상에서 거성형은 평2형화하여 평북형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평창방언과 정선방언 두 방언 모두에서 발견되고 있다.

4.2. 조사 ‘·에’ 앞에서 거성의 평성화

또한 거성인 명사와 조사 ‘·에’가 결합할 때, 거성(·□)은 평성(□)으로 변한다. 이러한 규칙은 중세국어 문헌 성조에서도 적용되는 규칙이다. 다만, 중세국어에서는 예외가 현대 성조방언에서는 예외가 점차 늘어가는 실정이다.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거성인 명사와 조사 ‘·에’가 결합할 때, 거성(·□)은 평성(□)으로 변하는 예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3)	평창방언		정선방언
ㄱ. A유형	이·에	/HM/[HM ⁻]	이·에 /HM/[HM]
ㄴ. B유형	담·에	/HM/[HH ⁻ ~MM ⁻]	담·에 /HM/[HM]
ㄷ. C유형	(·불·에→)불에	/H ² /[MH ⁻]	불·에 /H ² /[MH]

(23)에서 세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23 ㄱ-ㄴ)은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된 유형으로, 음조형의 차이를 갖는다. 즉, (23 ㄱ)은 고조[H](13Qt)와 저조[M](4Qt)로 실현되어 기본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평1형이다. 반면에 (23 ㄴ)은 고조[H](13Qt)와 저조[M](10Qt)로 실현되어 기본주파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평1형이다. 즉, (23 ㄴ)의 음조형을 [HH⁻~MM⁻]으로 표시한 것은 문장의 초점이 놓일 때, 조바꿈을 하여 성조가 낮게 실현되면 [MM]이 실현되고, 성조가 높게 실현되면 [HH]로 실현되는 특징을 갖는다. (23 ㄷ)은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평2형으로 실현된 예이다.

거성 명사와 조사 ‘·에’가 결합할 때,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되는 정도성을 비교해 보자. 현대 성조방언에서 거성의 평성화 규칙의 예외가 늘어가는 경향이다.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거성의 평성화가 실현되는 빈도

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4)

	A유형	B유형	C유형	합계
평창방언	7	53	7	67
정선방언	67	발견 못함	13	67

(24)의 표에서 (23ㄱ)의 A유형은 정선방언에서 우세하나 (23ㄴ)의 B유형은 평창방언에서 우세하다. 반면에 (23ㄷ)의 C유형은 두 방언 모두에 드문 편이나 정선방언이 절대적으로 많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평창방언에서 B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실현되는 사실은 그만큼 거성인 명사와 조사 ‘에’가 결합할 때, 거성이 평성으로 변하는 성격을 잃어가는 특징을 가진다.

4.3.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과 음조형의 선호도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평측형은 평1형과 평복형 두 가지가 존재한다. 평1형은 어절의 첫째음절의 성조가 평성(□)이고, 둘째음절에 거성(·□)이며, 이후 음절의 성조는 측성으로 중화되는 성조형을 말한다. 평복형은 어절의 첫째음절로부터 평성(□)이 둘 이상이고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가 거성(·□)이며, 이후 음절의 성조는 측성으로 중화되는 성조형을 지칭한다. 이처럼 평측형 실현에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은 공통점을 지닌다.

평복형은 임의적으로 변이음조형이 실현된다. 이때, 변이음조형은 토박이 화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된다.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적용된 후 변이음조형의 실현된다. 평복형 3음절과 4음절의 가능한 음조형은 모두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5)

- ㄱ. 3음절 [MHM], [MH_HH]
- ㄴ. 4음절 [MHMM], [MH_HHM], [MH_{HH}H]
- ㄷ. 5음절 [MHMMM], [MH_HHMM], [MH_{HH}HM], [MH_{HHH}H]
- ㄹ. 6음절 [MHMMMM], [MH_HHMMM], [MH_{HH}HMM], [MH_{HHH}HM], [MH_{HHHH}H]

(25)에 제시한 가능한 모든 음조가 실현되기도 하지만 토박이 화자의 선 호도에 따라서 변이음조형의 실현 정도성이 결정된다. 평창방언과 정선방 언에서 평북형 명사 ‘피마주’와 ‘할아버이’의 변이음조형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⁵⁾

(26) 평창방언		정선방언	
ㄱ. 피마주 ⁶⁾ H ³		핀매·주H ² M	
피마주가	/H ⁴ /[MH ² H ⁻]	핀매·주·가	/H ² M ² /[MHM ²]
피마주를	/H ⁴ /[MH ² H ⁻]	핀매·주·를	/H ² M ² /[MHM ²]
피마주도	/H ⁴ /[MH ² H ⁻]	핀매·주·도	/H ² M ² /[MHM ²]
피마주두	/H ⁴ /[MH ² H ⁻]	핀매·주·두	/H ² M ² /[MHM ²]
피마주에	/H ⁴ /[MH ² H ⁻]	핀매·주·에	/H ² M ² /[MHM ²]
피마주부터	/H ⁴ M/[MH ³ H ⁻]	핀매·주·부·터	/H ² M ³ /[MHM ³]
피마주버터	/H ⁴ M/[MH ³ H ⁻]	핀매·주·버·텀	/H ² M ³ /[MHM ³]
피마주까지	/H ⁴ M/[MH ³ H ⁻]	핀매·주·까·지	/H ² M ³ /[MHM ³]
		핀매·주·꺼·짐	/H ² M ³ /[MHM ³]
ㄴ. 할아버이H ⁴		할아버·이H ³ M	
할아버이·가	/H ⁴ M/[MH ² H ⁻]	할아버·이·가	/H ³ M ² /[MH _H HM ²]
할아버이·를	/H ⁴ M/[MH ² H ⁻]	할아버·이·를	/H ³ M ² /[MH _H HM ²]
할아버이·도	/H ⁴ M/[MH ² H ⁻]	할아버·이·도	/H ³ M ² /[MH _H HM ²]
할아버이·두	/H ⁴ M/[MH ² H ⁻]	할아버·이·두	/H ³ M ² /[MH _H HM ²]
할아버이·께	/H ⁴ M/[MH ² H ⁻]	할아버·이·에	/H ³ M ² /[MH _H HM ²]

5) 자료를 제시함에 있어, ①은 주 제보자의 자료이며, ②는 부 제보자의 자료이다. 이후도 같은 방식으로 제시한다.

6) 피마주는 피마자의 방언형이다.

- ①할아버이부·터 /H⁵M/[M_H³HM⁻] 할아버·이·부·터 /H³M³/[M_HHM³]
- ①할아버이버·터 /H⁵M/[M_H³HM⁻] 할아버·이·버·터 /H³M³/[M_HHM³]
- ①할아버이까·지 /H⁵M/[M_H³HM⁻] 할아버·이·까·지 /H³M³/[M_HHM³]
- ②할아버이부·터 /H⁵M/[M_H⁴H⁻] 할아버·이·부·터 /H³M³/[M_HHM³]
- ②할아버이버·터 /H⁵M/[M_H⁴H⁻] 할아버·이·버·터 /H³M³/[M_HHM³]
- ②할아버이까·지 /H⁵M/[M_H⁴H⁻] 할아버·이·까·지 /H³M³/[M_HHM³]
- 할아버·이·꺼·짐 /H³M³/[M_HHM³]

(26ㄱ)은 평복형 명사 ‘피마주’의 성조형과 음조형을 보인 것이고, (26ㄴ)은 평복형 명사 ‘할아버이’의 성조형과 음조형을 보인 것이다. (26ㄱ)을 보면, 명사 ‘피마주 또는 판매·주’와 조사가 결합하여 4음절과 5음절 어절을 이루는데, (25)의 4음절과 5음절의 변이음조형 중에 평창방언은 /H⁴/[M_H²H], /H⁴M/[M_H³H] 등이 실현되고, 정선방언은 /H²M²/[MHM²], /H²M³/[MHM³] 등이 실현되고 있다. 즉, 평창방언의 평복형은 어절의 첫째음절에서 끝음절까지 차차로 상승하는 변이음조형이 실현되고 있으나, 정선방언은 둘째음절에 가장 높게 실현되는 변이음조형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평창방언이 차차로 올라가는 변이음조형이 토박이 화자들이 선호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나 어절의 끝음절이 가장 높은 변이음조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26ㄴ)을 보면 평복형 명사 ‘할아버이’의 음조형을 보면, 조사 ‘-부·터, -까·지’가 결합할 때, 평창방언의 토박이 화자들도 어절의 넷째음절이 가장 높은 변이음조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평창방언의 토박이 화자인 부제보자는 80% 이상 평측형의 음조를 첫째음절에서 끝음절까지 차차로 상승하는 변이음조형을 사용하여 발화했다.

4.4. 평1형과 평복형의 대응관계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평측형 중에 평1형을 대응관계를 보면, 평창방언이 정선방언보다 더 전이적 특징이 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평성형

명사 ‘술’과 ‘옆’이 조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성조형을 보자.

(27) 평창방언		정선방언	
ㄱ. 술H		술H	
술·이[수치]	/HM/[HM ⁻]	술·이[수치]	/HM/[HM]
술·을[수틀]	/HM/[HM ⁻]	술·을[수틀]	/HM/[HM]
술·도	/HM/[HM ⁻]	술·도	/HM/[HM]
술·에[수테]	/HM/[HM ⁻ ~ HH ⁻]	술·에[수테]	/HM/[HM]
술부터	/H ³ /[MH ⁻ H ⁻]	술부·터	/H ² M/[MHM]
술버터	/H ³ /[MH ⁻ H ⁻]	술부·텀	/H ² M/[MHM]
술까지	/H ³ /[MH ⁻ H ⁻]	술까·지	/H ² M/[MHM]
ㄴ. 옆H		옆H	
①옆·이	/HM/[HM ⁻]	옆·이	/HM/[HM]
①옆·을	/HM/[HM ⁻]	옆·을	/HM/[HM]
①옆·도	/HM/[HM ⁻]	옆·도	/HM/[HM]
②옆이	/H ² /[MH ⁻]	옆·이	/HM/[HM]
②옆을	/H ² /[MH ⁻]	옆·을	/HM/[HM]
②옆도	/H ² /[MH ⁻]	옆·도	/HM/[HM]
옆·에	/HM/[HH ⁻]	옆·에	/HM/[HM]
옆부터	/H ³ /[MH ⁻ H ⁻]	옆부·터	/H ² M/[MHM]
옆버터	/H ³ /[MH ⁻ H ⁻]	옆버·텀	/H ² M/[MHM]
옆까지	/H ³ /[MH ⁻ H ⁻]	옆까·지	/H ² M/[MHM]
		옆꺼·집	/H ² M/[MHM]

(27ㄱ)은 ‘술’의 성조형과 음조형을 보인 것이고, (27ㄴ)은 ‘옆’의 성조형과 음조형을 보인 것이다. (27ㄱ)의 ‘술’은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모두 평1형으로 성조가 실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27ㄴ)의 ‘옆’은 평창방언의 주체보자는 평1형으로 발화하고 있지만 부체보자는 평복형으로 발화하고 있다. 반면에 정선방언에서는 평1형으로만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평창방언에서 토박이 화자에 따라 동일한 어휘의 성조가 평1형과 평복형 두 가지로 실현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평창방언이 정선방언보다 전이적 특징을 더 가

지고 있다고 하겠다. 평창방언에서 (27ㄴ)과 같은 평1형의 성조 실현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즉, 평1형 조사 항목은 총 142개인데, 평1형으로만 실현되는 단어가 38개이고, 평1형과 평복형으로 둘 다 실현되는 단어는 56개이며, 평복형으로 실현되는 단어는 48개이다. 이러한 사실은 평창방언에서 성조체계 내에서 평1형의 지위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이러한 사실은 정선방언보다 평창방언이 비성조방언으로 더 진행된 운율형태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4.5. 음상성과 음거성의 실현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두 평성이 축약될 때, 축약에 대한 보상 작용으로 생성되는 성조형과 음조형이 다르다. 즉, 평창방언에서는 음상성과 음거성이 실현되지만 정선방언에서는 음상성과 음거성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를 보여줄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8) 평창방언		정선방언
ㄱ. ㅁㅁ(心)M		:ㅁㅁ(心)M
:ㅁㅁ·이	/M ² /[MH]	:ㅁㅁ·이 /M ² /[MH]
:ㅁㅁ·을	/M ² /[MH]	:ㅁㅁ·을 /M ² /[MH]
:ㅁㅁ·도	/M ² /[MH]	:ㅁㅁ·도 /M ² /[MH]
:ㅁㅁ·두	/M ² /[MH]	:ㅁㅁ·두 /M ² /[MH]
:ㅁㅁ·에	/M ² /[MH]	:ㅁㅁ·에 /M ² /[MH]
:ㅁㅁ·부·터	/M ³ /[MHh]	:ㅁㅁ·부·터 /M ³ /[MHM]
:ㅁㅁ·버·터	/M ³ /[MHh]	:ㅁㅁ·버·텀 /M ³ /[MHM]
:ㅁㅁ·까·지	/M ³ /[MHh]	:ㅁㅁ·까·지 /M ³ /[MHM]
		:ㅁㅁ·까·짐 /M ³ /[MHM]
ㄴ. ㅈㅈ(冬)H		:추(冬)M
·추·우·가	→ ·ㅈㅈ가 /Hh/[Hh]	:추·가 /M ² /[MH]
·추·우·를	→ ·ㅈㅈ를 /Hh/[Hh]	:추·를 /M ² /[MH]

·추·우·도	→ · 쫌 도	/ĤH/[ĤH]	:추·도	/M²/[MH]
·추·우·에	→ · 쫌 에	/ĤH/[ĤH]	:추·에	/M²/[MH]
·추·우·부·터	→ · 쫌 부터	/ĤHH/[ĤHH]	:추·부·터	/M³/[MHM]
·추·우·버·터	→ · 쫌 버터	/ĤHH/[ĤHH]	:추·버·터	/M³/[MHM]
·추·우·까·지	→ · 쫌 까지	/ĤHH/[ĤHH]	:추·까·지	/M³/[MHM]
			:추·꺼·짐	/M³/[MHM]

(28ㄱ)은 평북형 ‘마음’이 축약되어 ‘**뽕**’이 될 때, 음상성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28ㄴ)은 기원적으로 거성이었던 ‘·추·우’가 축약 과정 ‘·추·우 → ·**쫌**’을 거치면서 그 보상 작용에 의한 음거성의 실현을 보여준다.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창방언은 두 개의 평성이 축약 과정을 거쳐 그 보상 작용으로서 음상성과 음거성이 실현되지만 정선방언에서는 축약 과정을 겪지만 모두 상성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4.6. 억양의 지배를 받는 변이음조형 실현

평창방언은 정선방언과 달리 억양이 어절의 음조형을 지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즉, 어절의 마지막 음절은 음조가 축성인 [M]으로 실현되어야 하지만, 억양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절의 마지막 음절은 음조가 [H]로 실현되어 어절 마지막 음절의 음조가 상승하는 현상이 있다. 그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29) 평창방언		정선방언	
ㄱ. 문·과	/HM/[HM ^ˀ]	문·과	/HM/[HM]
문·이·나	/HM²/[HM² ^ˀ]	문·이·나	/HM²/[HM²]
ㄴ. 문·이·면	/HM²/[HMH ^ˀ]	문·이·면	/HM²/[HM²]
문·만·도	/HM²/[HMH ^ˀ]	문·만·도	/HM²/[HM²]

(29ㄱ)은 평성형 명사 ‘문’과 조사 ‘·과, ·이·나’가 결합한 어절로, 어절의

성조형이 평1형으로 실현된다. 억양의 지배를 받으나 어절의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반면에 (29ㄴ)은 평성형 명사 ‘문’과 조사 ‘·아·면, ·만·도’가 결합한 어절로, 어절의 성조형이 평1형으로 실현된다. 억양을 지배를 받아서 어절의 음조형은 [HM²]로 실현되어야 하지만 (29ㄴ)의 음조형이 [HMH]로 실현되고 있다.

국어의 성조방언에서 이러한 음조형 실현은 자못 특이하다. 즉, 한 어절 안에서 하강을 한 음조가 다시 상승하는 음조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술했듯, 강원방언의 억양에 문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차차로 상승하는 억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⁷⁾ 이처럼 억양이 어절의 음조형을 지배한다는 사실도 평창방언의 전이적 특징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평창방언 체언의 성조 실현을 살펴 성조체계와 성조형을 기술하고, 정선방언의 그것과 비교하여 평창방언 성조의 전이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창방언은 성조체계와 성조형 실현 측면에서 성조방언이 가지는 운율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성조방언이 비성조방언으로 이행하는 정도성 측면에서 보면, 평창방언은 정선방언보다 더 비성조방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의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평창방언은

7) 성조방언의 운율 구조의 위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억양이 하위 운율 단위를 지배하는 양상이 성조방언의 그것과 음장방언의 그것이 다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방언에서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차차로 올라가는 억양은 하위의 운율 단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문장 유형에 따라 억양이 하위 운율 단위에 영향을 주는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추후 과제로 삼는다.

정선방언보다 좀 더 성조방언의 운율적 특징을 잃어버린 상태의 성조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평창방언은 성조방언의 운율적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평창방언은 정선방언과 유사한 성조체계를 가지고 있다. 평창방언의 성조소는 3개, 평성(□ /H/[H]), 거성(·□ /M/[M]), 상성(□ /M/[M])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조형은 거성형, 상성형, 평측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0) 평창방언 체언류의 성조형

구분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
평측형	평1형	국	/H/	[H [˦]]
		머·리	/HM/	[HM]~[HH]
		메·누·리	/HM ² /	[HM ²]~[HMH]
	평복형	감재	/H ² /	[MH]
		늘개·이	/H ² M/	[M _H H]
		미꾸라·지	/H ³ M/	[M _H ² H]
거성형	·질(道)	/M/	[M]	
상성형	:눈	/M/	[M]	
	:췌·미	/M ² /	[MH]	
	:굶·베·이	/M ³ /	[M _H H]	
음거성형	·추	/Ĥ/	[Ĥ]	
음상성형	:땀	/M̄/	[M̄]	

둘째, 평창방언에서 거성형은 성조체계 안에서 측성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즉, 평창방언에서 거성형은 1음절에서만 존재한다. 그 근거로는 1음절 거성(·□)이 단독으로 실현될 때, 음조형[M]로 실현되

고, 조사 {·에} 앞에서 거성이 평성으로 변동하는 규칙도 유지되고 있다.

셋째, 평창방언은 음거성과 음상성이 실현되고 있는 점이다. 음거성과 음상성은 동해안 성조방언에 나타나는 특수한 성조형이다.

다음으로, 평창방언이 정선방언보다 비성조방언으로 이행이 더 진행된 성조방언의 운율적 특징을 가진다. 그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거성의 평2형화 규칙이 있다.

둘째,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있다.

셋째, 평창방언에서 평측형은 평1형과 평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1형이 점차 평복형과 변별력을 잃어가고 있다.

넷째, 평창방언에서는 음조형이 억양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있다. 즉, 평1형 어절의 마지막 음절이 [M]으로 실현되어야 하나 [H]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평1형의 성조형 /HM₁/은 [HM₁]과 [HH₁]이 임의 변동한다. 다만, [HM₁]이 드물고 [HH₁]이 매우 우세하게 실현된다.

위에 제시한 근거 중 첫째와 둘째 사실은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공존하는 운율적 특징이지만, 셋째와 넷째는 평창방언에만 있는 운율적 특징이다.

참고문헌

- 강흥구(2002), “강릉방언 1음절 어간 풀이씨 성조”, 『한글』 270, 한글학회.
김봉국(1998), “삼척지역어의 성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봉국(1999), “삼척지역어의 상승조에 대한 실험음성학적인 고찰”, 『관악어문연구』 2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원(2003), “음운론적 관점에서 본 동해안 방언의 특성”, 『동해안 지역의 방언과 구비문학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김차균(1975), “영남·영동 방언의 성조”, 『한글』 155, 한글학회.
- 김차균(1977ㄱ),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차균(1977ㄴ), “어절 성조언어의 기술 방법”, 『언어학』 2, 한국언어학회.
- 김차균(1980),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과학사.
- 김차균(1993), 『우리말의 성조』, 태학사.
- 김차균(1997), “우리말 성조 연구의 성과와 미래의 방향”, 『언어』 18,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차균(1998), 『나랏말과 겨래의 슬기에 바탕을 둔 음운학강의』, 태학사.
- 김차균(1999), 『우리말 방언성조의 비교』, 역락.
- 김차균(2002ㄱ), 『국어 방언 성조론』, 역락.
- 김차균(2002ㄴ), 『영호남 방언 운율 비교』, 역락.
- 김차균(2006ㄱ), 『중부 동해안 방언의 성조 비교』, 글누림.
- 김차균(2006ㄴ), “우리말 성조사 500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국어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 문효근(1969), “영동방언의 운율자질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 22,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문효근(1974ㄱ), “한국 방언 성조의 실험음성학적 분석 연구”, 『연세논업』 11, 연세대학교.
- 문효근(1974ㄴ), “한국어 성조의 분석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숙희(2012), “강원 방언 외래어의 성조형”, 『어문학』 118, 한국어문학회.
- 윤종남(1987), “강릉방언에 대한 초분절음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문 외(1991), “한국어 방언의 기초적 연구”, 『학술원 논문집』 30, 대한민국 학술원.
- 이상녀(1991), “삼척지역어의 음운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재(2004), 『방언연구-자료에서 이론까지』, 태학사.
- 이익섭(1972ㄱ), “영동방언의 Suprasegmental Phoneme 체계”, 『동대어문』 2, 동덕여자대학교.
- 이익섭(1972ㄴ), “강릉방언의 형태음운론적 고찰”, 『진단학보』 34, 진단학회.
- 이익섭(1981), 『영동방언의 언어분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 최영미(2001), “삼척지역어의 운소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미(2003), “삼척지역어의 장단과 고저에 대한 청취실험 연구”, 『국어연구』 110,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최영미(2009), “정선방언 성조체계와 그 역사적인 변천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미(2010ㄱ), “정선방언 성조의 실험음성학적인 연구”, 『겨레어문학』 44, 겨레어문학회.
- 최영미(2010ㄴ), “정선방언 ‘가·다’류 동사의 성조형의 변화”, 『한말연구』 27, 한말연구학회.
- 최영미(2012), “정선방언의 운율유형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73, 어문연구학회.
- 한영균(1991), “강원도 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방언구획과 음운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김영배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경운출판사.

〈ABSTRACT〉

A Study on Tone of a Substantive Word in Pyeongchang Dialect

Choi Young-mi

This research has two aims. The one is to describe tonal system in Pyeongchang dialect. Another aim is to elucidate the transitional features of changes in tonological systems based on Comparing Pyeongchang dialect and Jeongseon dialect.

In conclusion, Pyeongchang dialect is a tone language and tonal system in Pyeongchang dialect is more unstable than that in Jeongseon dialect. There is some ground for this argument.

First, these are interpreted to be the tone languages in Pyeongchang dialect. The base of judgment is as follows.

- a. The tonal systems consist of three toneme(plain tone, depart tone, rising tone) and have three tonemic patterns.
- b. The departing tonal pattern is only in a word with one syllable.
- c. There are peculiar tonemic patterns in tonal systems. we call yindeparting tone and yinrising tone. They occur in tone languages of Eastern Coast Korea.

Second, the tonal system in Pyeongchang dialect is more unstable than that

in Jeongseon dialect. There is some ground for this argument.

- a. There are two tonal rules both Pyeongchang dialect and Jeongseon dialect. One is the plain-2 pattern conversion rule of departing tone. Another is the freely change rule of the pyeongbok pattern. When tone is derive from the deep structure to the surface structure both rules has application.
- b. Sometimes the plain-1 pattern and the pyeongbok pattern is indistinguishable in Pyeongchang dialect. But they strictly distinguish in Jeongseon dialect.
- c. The pitch pattern is governed by intonation in Pyeongchang dialect. But it is not in Jeongseon dialect.

- **주제어** : 성조, 성조체계, 성조변화, 성조형, 성조언어. 평창방언, 정선방언
tone, tonological system, tone change, tonal pattern, tone
languages, Pyeongchang dialect, Jeongseon Dialect

최 영 미

소 속 : 경동대학교

전자우편 : heyum95@naver.com

논문 접수 : 2014. 10. 15.

논문 심사 : 2014. 10. 25. - 11. 15.

게재 결정 : 2014. 11. 20.

18세기 국어 매김마디의 통어론적 연구*

허 원 옥

< 차 례 >

1. 머리말
2. 문법정보의 제약
3. 빠져나간 매김마디
4. 완전한 매김마디
5. ‘흐느-’ 줄임
6. 매김마디+‘것’ 구조
7. 맺음말

1. 머리말

이 논문은 18세기 국어 매김마디의 통어적 구조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매김마디 풀이말과 머리말매김마디의 꾸밈을 받는 이름씨)과의 통어적 제약 관계를 살피고, 매김마디의 속구조를 통하여 매김마디의 통어적 특성을 살피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다.

대상법 ‘-오/우-’는 15세기 중기에 이미 과도기였고, 16세기 중·말기에 이르러서는 현저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으며, 17세기부터는 거의 그 자취를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학술진흥(KU)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감추고 만다. 또한 15, 16세기에는 객체높임법과 대상법이 상호 특이한 통어적 제약관계를 가졌는데, 17세기부터는 대상법과 객체높임법이 거의 모두 허물어짐에 따라 그러한 통어적 제약관계도 의미를 잃어버린다.

18세기는 중세국어가 현대국어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현대국어와 한층 가까워지는 18세기 매김마디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다.

2. 문법정보의 제약

‘-은’이 붙는 매김마디를 ‘ㄴ매김마디’, ‘-을’이 붙는 매김마디를 ‘ㄹ매김마디’라 하겠다.

2.1. ㄴ매김마디

2.1.1. 때매김법

매김법씨끝 ‘-은’은 확정의 때매김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 ‘-으니-’의 변형인데, 다른 때매김법과 겹쳐지면 그 때매김의 뜻이 없어진다.

18세기 ‘ㄴ매김마디’의 풀이말에 나타날 수 있는 때매김법은 확정법, 현실법, 회상법, 완결법, 완결현실법, 완결회상법이다.¹⁾

(1ㄱ)은 확정법, (1ㄴ)은 현실법, (1ㄷ)은 회상법, (1ㄹ)은 완결법, (1ㅍ)은 완결·현실법, (1ㅂ)은 완결·회상법이 실린 예이다.

1) 18세기는 확정법이 완결법에 흡수되어가는 시기이나, 여기 매김마디의 기술에서는 ‘-은’과 ‘-았는’을 따로 기술하기 위해 확정법과 완결법을 따로 설정한다. 허웅 (1983), 457쪽 참조

- (1) ㄱ. 지물 [취훈] 갑술 당께 호고 (경신 6)
 마을 가운데서 회롱하다가 일허 [간] 바를 아지 못호고 (경신 34)
 저희 [간악훈] 정상을 다 붉게 알물 썬려 (운음 2:3)
- ㄴ. 맞당히 [니르시닌] 양이로소이다 (개수 1:5)
 내게는 훈 히 삼빅 늑십 일이 다 [도섭훈] 날이로디 (경세 35)
 사름을 낮게 [넉이닌] 넘과 [지닌] 일을 생각호고 (경신 36)
- ㄷ. 또 구궤의셔 [반샤호던] 복식으로 써 세슈에 명호야 (경세 39)
 사식을 [멀니호던] 사름 궤톨소냐 (경신 36)
 상간의 춘방에서 [호던] 슈작이 므츨내 명의록 가운데 올라 (운음 2:3)
- ㄹ. 나의 도당의 [섯닌] 재 뉘 감히 다시 썬 머리 일스로 뼈 번거 히 들너리오 (가체 3)
 브릇 아등 신즈 [되엿닌] 재 뉘 감히 오늘날 기이호며 (가체 8)
- ㅁ. 저 뒤희 [섯닌] 자근 아히 (팔세 3)
 얼굴이 [사랏닌] 듯 호고 (오륜 2:58)
- ㅂ. 신의 [녕호엿던] 군니 경저와 호방이 몬져 고희매 (무목 10:38)
 그 안으니란 버리고 그 [잇그럿던] 이를 아나 뵈으로 들으니 (어내 3:43)

(2ㄱ)은 18세기 ‘御製內訓諺解’에 미정법이 실린 유일한 예이다. 그러나 (2ㄱ)은 (2ㄴ)인 15세기 원간 ‘內訓’을 그대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²⁾ 따라서 18세기 ‘내매김마디’에는 미정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2) ㄱ. 궤히 ㄹ르치디 [못호린] 後에 怒호고 만일 궤히 怒를 [못호린] 後에 틸찌니 (어내 3:4)
- ㄴ. 아직 ㄹ르초디 ㄹ르치디 [못호린] 後에사 怒호고 怒를 [못호린] 後에사 틀디니 (내훈 3:4)

2) 허웅(1987), 148-149쪽 참조.

2.1.2. 주·객체높임법

(3ㄱ)은 주체높임, (3ㄴ)은 객체높임이 실린 예이다. 18세기는 객체높임이 거의 허물어진 시기이므로, 매김마디에 실리는 객체높임의 예는 매우 드물다.

- (3) ㄱ. 우리 성죄 졌의 대비던을 [되신] 께 일이라 (경세 2)
 [계술ㅎ시늬] 덕을 닐 공경ㅎ야 우러지 아니ㅎ리잇가 (가채 6)
- ㄴ. 성인의 뜻을 불히웁고 거룩흔 공녘을 [닛습늬] 일단이라 ㅎ노라 (가채 2)
 또흔 옥읍을 다시 [뎡줍늬] 뎡 ㅎ디라 (경세 1)

2.1.3. 주체·대상법

(4ㄱ)은 주체법, (4ㄴ)은 대상법이 실현된 예이다. 18세기에는 대상법의 ‘-오/우’가 거의 다 허물어져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단지 ‘니르-’에 ‘-오-’가 연결된 ‘닐온’만 보인다.³⁾

- (4) ㄱ. [괴이흔] 향내 집의 ㄱ득ㅎ더라 (선조 2)
 [順흔] 道는 婦 | 되는 큰 禮니 (여사 9)
 속으로 긋거 또 [驕慢흔] ㅁ음이 절로 나느니 (침해 1:3)
- ㄴ. 그 고등이 이 긋튼니 이 [닐온] ㅎ 말이 일을 께ㅎ며 (경세 21)
 이 나의 [닐온] 바 성이 업스면 스모ㅎ미 아니라 (경세 27)

2.2. ㄹ매김마디

2.2.1. 때매김법

18세기 ‘ㄹ매김마디’의 풀이말에 나타날 수 있는 때매김법은 미정법과

3) 17세기에도 ‘닐온’만 나타났다.
 가운데 허ㅎ니는 [닐온] 불급이니 (마경초집언해 상:21)
 ㅁ룻 主婦는 [닐온] 主人의 妻 | 라 (가례언해 1:23)

완결·미정법이다. (5ㄱ)은 미정법, (5ㄴ)은 완결·미정법이 실린 예이다.

- (5) ㄱ. 그 금흔는 법과 [더신희] 법은 묘당의 맞져 스목을 정햐야 뼈
들니게 햐라 (가채 2)
[히려] 일 업서 강잉햐여 (첨해 2:7)
임의 담석의 [거둘] 거시 업고 (운음 1:2)
- ㄴ. [저머실] 쟈예 어버이 섬기는 일을 싱각햐면 (경세 27)
↳ 저머이실(접+어+이시+리)>저메실>저머실
더의 머음이 덩티 [못햐여실] 쟈 (무목 10:10)
↳ 못햐여이실(못햐+여+이시+리)>못햐예실>못햐여실
고성의 [딕햐여실] 제 (무목 10:14)

2.2.2. 주·객체높임법

(6ㄱ)은 주체높임, (6ㄴ)은 객체높임이 실현된 예이다. 18세기는 객체높임이 거의 허물어진 시기이므로, 그 예가 매우 드물다.

- (6) ㄱ. 죠덩의 [봉작햐실] 뜰들 아라시느니잇가 (무목 10:28)
몽미의 [통령햐실] 분 아닐네라 (경신 54)
- ㄴ. 장춧 장대햐일 일이 햐 쟈예 칠로 [김스울] 썸 햐야 정네를 펴고
일을 편히 햐야 (경세 32)

2.2.3. 주체·대상법

(7ㄱ)은 주체법, (7ㄴ)은 대상법이 실현된 예인데, 대상법 ‘-오-’가 연결된 예는 극히 드물다.

- (7) ㄱ. 이틀 사흘 길호로서 [구경햐] 사롬 모다셔 (개수 5:34)
늬 감히 두번 막아 [딕햐] 재 이시리오 (무목 12:20)
- ㄴ. 境이 쟈예 順햐야 밧기 [得햐] 고디 업고 (선종 112)

3. 빠져나간 매김마디

3.1. 임자말 빠짐

매김마디의 꾸밈을 받는 머리말이 매김말에 대한 의미상의 임자말인 경우이다.

(8) 텃하의 [만전호] 법이 업고 (가체 1)

↳ 법이 만전호-

여러 수십 년의 빅성은 [즈홀호신] 은턱을 님스으며 (가체 1)

비로소 매 터력을 [쌌논] 의용이 문득 머리롤 둥히 너겨 (가체 2)

동으로 의능을 브라니 [찌러지논] 비발이 비비호디라 (경세 3)

3.2. 부림말 빠짐

매김마디의 꾸밈을 받는 머리말이 매김말에 대한 의미상의 부림말인 경우이다.

(9) ㄱ. [호] 일을 술호미 업시 호갓 위만호며 호갓 슈만호니 (경세 28)

↳ 일을 호-

[구은] 올히 [구은] 쇠고기 [구은] 羊의 고기니 (박통 1:4)

[술핀] 올히와 물고기 진에 너허 (박통 1:5)

네 [니르논] 말이 올커니와 (몽어 1:6)

弟의게 [求호논] 바로써 兄을 섬기기를 能타 못호며 (중용 13)

ㄴ. 境이 智에 順호야 밧기 [得호] 고디 업고 (선종 112)

↳ 고들 得호-

ㄷ. 이 [닐은] 호 말이 일을 패호며 (경세 20)

↳ 호 마를 니르-

이 나의 [닐은] 바 성이 업스면 스모호미 아니라 (경세 27)

내 맛당이...말호리니 엇지 [닐온] 데일 일인고 (경신 10)
 용예 청호여 못즈오되 엇지 [닐온] 복비니잇고 (경신 51)
 戰호면 이 [닐온] 棄호미니라 (논어 55)
 天이 命호산 거술 [닐온] 性이오 性을 率호 거술 [닐온] 道ㅣ오 道
 를 修호 거술 [닐온] 教ㅣ니라 (중용 1)

17세기부터 대상법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므로, 18세기 부림말이 빠져나간 매김마디의 풀이말에 ‘-오/우-’가 연결되는 예는 매우 드물다. 필자는 대상법이 실현되는 매김마디 풀이말을 ‘호-’(9ㄴ)와 ‘니르-’(9ㄷ)밖에 찾지 못했다.

(9ㄴ)은 ‘호-’에 ‘-오-’가 연결된 예인데, 한 예만 보인다.⁴⁾ (9ㄷ)처럼 ‘니르-’에 ‘-오-’가 연결된 꼴 ‘닐온’은 그 예가 매우 많다. 17세기와 마찬가지로 18세기에도 이를 하나의 굳어진 꼴로 풀이하겠다.⁵⁾

3.3. 위치말 빠짐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위치말이 빠져나간 매김마디의 풀이말에는 ‘-오/우-’가 불규칙하게 연결되는데, 이는 18세기에도 마찬가지이다.

(10ㄱ)은 ‘-오/우-’가 연결되지 않은 예문이고 (10ㄴ)은 ‘-오/우-’가 연결된 예문이다.

- (10) ㄱ. 부즈 [가느] 길히 자근 세 아히들이 막아 서셔 (소아 1)
 ↳ 길혜 가-
 두료혀 [패훈] 더 도라오고 (경세 15)

4) 17세기에도 다음의 예 하나밖에 찾지 못했다.

수리 조차 나으락 뜨르락 호더 각각 [제 홀] 일돌홀 보야 호라 (연병지남 25)

5) 17세기에 ... ‘니르-’에 ‘-오-’가 연결된 꼴인 ‘닐온’은 그 예가 매우 많다. 이는 ‘닐오-’를 하나의 굳어진 기본꼴로 인식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가정하지 않으면 ‘닐온’의 예만 많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허원옥(2004), 374쪽.

은탕의 [성훈] ㅈ에 비록 삼십 구뵈 이시나 (경세 30)

↳ ㅈ에 성훈-

악공의 회셔 [머물] 적 (무목 10:89)

지계에 [들] 제 문세를 밧드드시 흐며 (어내 1:5)

ㄴ. 다만 더브러 [언논] 스이에 쥬무홀 썬 아니라 (명의 2:26)

3.4. 방편말 빠짐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방편말이 빠져나간 매김마디의 풀이말에는 ‘-오/우-’의 연결이 불규칙하다.

(11ㄱ)은 ‘-오/우-’가 연결되지 않은 예문이고 (11ㄴ)은 ‘-오/우-’가 연결된 예문이다.

(11) ㄱ. 쇼년의 태즈 [경계훈] 말과 강절의 데즈 [훈계훈] 말슴이 가히
절실타 (경세 23)

↳ 말로 경계훈-, 말스믈로 훈계훈-

그 [더답훈] 말노 인흐야 씨치미 업디 아니흐니 (경세 4)

이 사롬을 [해홀] 계교를 두리오 (명의 2:3)

ㄴ. 네 엇지 구십 다 된 네 조부의 슈고 [논홀] 도리를 생각지 아니
흐느뇨 (명의 33)

↳ 도리로 슈고를 난호-

女憲은 겨집 [경계훈] 글이라 (어내 2:9)

3.5. 견췌말 빠짐

18세기 매김마디 중 견췌말이 빠진 예는 찾지 못했다. 이는 17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15, 16세기에도 견췌말이 빠져나간 매김마디의 예는 매우 드물었다.

(12ㄱ)은 15세기 예문인데, ‘-오-’가 연결되어 있다. (12ㄴ)은 16세기 예

문인데, ‘:놀-’이 원래 상성이므로 ‘-오/우-’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다.

- (12) ㄱ. 利는 第二天이니 훈더 잇노니 오직 天人이오 率은 곧 第四天이니
 훈더 잇노니 菩薩이시니 (법화경언해 7:177)
 ⇨ 利는 天人(=이)과 훈더 잇노-/率은 菩薩(=이)과 훈더 잇노-
 ㄴ. 사괴여 :놀 사름 (여씨향약언해 4)
 ⇨ 사람과 사괴여 놀-

4. 완전한 매김마디

매김마디는 대부분의 경우 속구조의 월성분이 빠져나가 만들어지는데, ‘완전한 매김마디’는 빠져나간 월성분이 없는 경우이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완전한 매김마디의 풀이말에는 ‘-오/우-’의 연결이 불규칙하다.

(13 ㄱ)은 ‘-오/우-’가 연결되지 않은 예문이고 (13 ㄴ)은 ‘-오/우-’가 연결된 예문이다.

- (13) ㄱ. 만당히 [니르시느] 양이로소이다 (개수 1:5)
 네 [필훈] 후의 던의 안자 불너 쓰이여 회포를 기록하더니 (경세 1)
 글 비화 [못춘] 후에 집의 도라와 밥먹고 (몽어 1:3)
 또훈 仁義 [이실] 쓰롬이니이다 (맹자 1:1)
 ㄴ. 나 쇼즈의 감히 [모화호을] 빼 아니오더 (가체 1)

5. ‘흐느-’ 줄임

현대 국어에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다.

그는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 이상하다(고 하)는 듯

서술법 ‘-다’와 매김법 ‘-는’이 한데 달라붙은 꼴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이를 하나의 매김법씨끝 ‘-다는’으로 기술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원래 인용토씨 ‘-고’와 인용마디를 이끄는 ‘하-’가 더불어 생략되면서 생긴 구조이다. ‘-고 하-’가 생략된 이러한 매김마디 구조는 현대 국어에서는 매우 생산적이다.⁶⁾

현대 국어에서는 다음의 ‘-단’도 하나의 매김법씨끝으로 기술하는 수밖에 없다.

그는 이상하단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위의 윗은 단순히 ‘-고 하-’의 생략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선 다음과 같은 통시적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는 17세기부터 나타난다.

(14) 奔은 [납치 아니코 제 가단] 마리라 (여훈언해 하:12)

↳ 가다 (흐느)나 마리라 ↳ 가다 흐느 마리라

이 시기에는 아직 인용토씨 ‘-고’가 없기 때문에, 인용마디를 이끄는 ‘흐-’와 현실법 ‘-느-’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곧 이 ‘-흐느-’의 생략

6) 허 웅(1995), 1009-1015쪽, 1033-1035쪽 참조.

이 현대국어의 매김법씨끝 ‘-단’을 생성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18세기에도 많이 나타난다.

(15) 쏘흔 자히 [디나단] 말을 듯고 (경세 10)

↳ 디나다 흐는 말

칠성씨 [조회흐단] 말 흐며 (경신 9)

두 사름이 벗고 [셋단] 말은 (무목 10:72)

쇼론이 노론을 죽이고져 [흐단] 말을 드럿습는다 (명의 2:2)

6. 매김마디 + ‘것’ 구조

현대국어에서 매김마디에 연결되는 매인이름씨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다.

연필은 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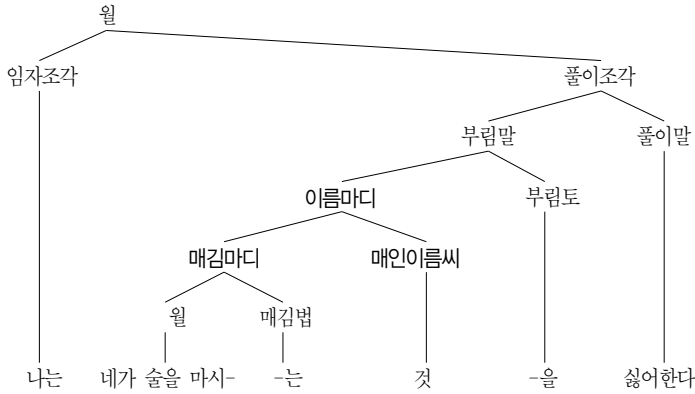
나는 네가 술을 마시는 것을 싫어한다

비가 올 것이다 / 그것은 사실인 것이다

첫째 예문의 ‘것’은 어떤 이름씨(연필)를 대신 받고 있다. 이는 ‘것’의 전형적인 용법으로, 15·16세기의 ‘것’은 이 용법으로만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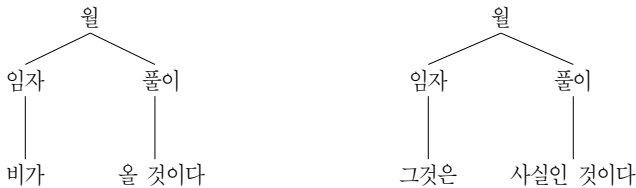
둘째 예문의 ‘것’은 어떤 이름씨를 대신 받고 있지 않다. 이 월은 ‘나는 네가 술을 마심을 싫어한다’로 대치할 수 있으므로, 매김마디와 ‘것’이 더 붙어 이름마디로 기능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구조는 1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15·16세기에는 ‘-口 이름마디’로만 실현된다. (이 구조는 ‘6.1. 이름마디로 기능하는 매김마디+것’에서 다룰 것이다.)

이 구조를 가지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셋째 예문은 ‘비가 오겠다(오리라)’, ‘사실이다’와 같은 의미이므로, 이러한 매김마디를 ‘형식적 매김마디’라 할 것이다.(이 구조는 ‘6.2. 형식적 매김마디’에서 다룰 것이다.) 이러한 구조도 17세기부터 나타난다.

이 구조를 가지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이러한 구조는 ‘올 것이다’, ‘사실인 것이다’를 다시 분석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식적 매김마디’임을 나타낸다.)



6.1. 이름마디로 기능하는 ‘매김마디+것’

매김마디가 ‘것’과 더불어 이름마디로 기능하는 경우이다.7)

7) 다음은 17세기 예문이다.

(16) 더 지조 [놀리는 것] 보자 (박통 1:6)

↳ 더 지조 놀리물 보자

내 님으려 [흐는 거시] 아니라 다른 곳에 가져가 움겨 프라 저기 利錢 어드려 흐느니 (노걸 하:25-26)

↳ 내 님으려 흐미 아니라

이 뵈 이제 번드시 時價 | 이시니 내 사가 이녀이 님으려 [흐는 거시] 아니라 가져가 프라 저기 利錢을 어드려 [흐 거시]니 (노걸 하:56)

↳ 님으려 흐미 아니라, 어드려 흐미니

몸소 흠을 지고 므을 사람의 [돕는 거술] 밧디 아니흐더라 (오륜효 27)

↳ 므을 사람의 도움을 밧디 아니흐더라

의를 어그릇고 [사는 거손] (오륜열 1)

↳ 의를 어그릇고 살믄

내 죽기를 [저흐는 거시] 아니라 (북송 13)

↳ 죽기를 저흐미 아니라

불의로 [가는 거시] 죽음만 꺾디 못흐도다 (빙빙 4:131)

↳ 불의로 가미

6.2. 형식적 매김마디

현대 국어에 다음과 같은 월이 있다.

비가 올 것이다 /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위 월은 매김마디가 ‘것’을 꾸미는 의미구조가 아니다.⁸⁾ 이러한 구조는

夫孝子 | 아버의 肌體를 愛흐는 故로 斂흐야 [葬흐는 거시니] 느미 주검 殘毀흐음도 律문에 이셔 오히려 嚴흐거든 흐물며 子孫이 悖謬호미 이러툃 흘것가 (가례언해 7:17) ↳ 葬흐미니

그리나 實로 뜰 더 [잇는 거시] 아니오 (가례언해 7:30)

↳ 이시미 아니오

8) 이러한 월을 15세기 말투로 되돌리면 다음과 같다.

미정법 ‘-으리-, -겠-’ 대신 ‘-을 것이-’의 구조를 취한 것이다. 곧, ‘-을 것이-’는 녹아붙은 하나의 풀이말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형식적 매김마디’라 하겠다.

이러한 구조는 15, 16세기에는 보이지 않다가, 17세기에 들어와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⁹⁾

(17) 감히 다시 의논이 나르지 못홀 거시오 (가채 2)

↳ 못허리오

늪우처 생각허여도 맛지 못홀 거시니 (첩해 1:16)

유악지둥(帷幄之中)의 피롤 의논홀 거시오 (무목 10:21)

죄칙을 면티 못홀 거시니 (무목 10:25)

돈 四十 五六 다표를 모들 써시니 (박통 1:1)

이제는 니 단정코 무스홀 거시오 (진주 8:4)

또한 현대국어에는 다음과 같은 율이 있다.

그것은 사실인 것이다.

위 율도 매김마디가 ‘것’을 꾸미는 의미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다.’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도 ‘형식적 매김마디’이다.

이 구조도 17세기부터 나타난다.¹⁰⁾

비 오리라 / 지브로 도라가리라

9) 다음은 17세기 예문이다.

점점 순박헌 네 풍속에 도라갈 거시니 (경민편언해 중:37)

↳ 도라가리니

뼈 훤을 시스며 훤을 스슬 거시니 (가례언해 5:27)

그러면 모되 무갓부터 시작홀 써시니 (첩해신어 초 3:29)

10) 사람이 그 姓名을 알 者 | 거의 能히 爲호야 더프리 이실가 헤아린 거시라 (가례언해 7:28) ↳ 헤아리니라

아더게 간 유무에 다 그별홀 거시라 (진주하씨묘출도간찰) ↳ 그별허니라

- (18) 네 父母 | 너로 ्ह여 가 비호라 ्ह 것가 올्ह니 우리 父母 | 날로
 ्ह여 가 비호라 ्ह 거시라 (노걸 상:5) ⇨ 비호라 ्ह니라
 상해 닐오더 즈식을 취티 아녀 선세 유땡을 닛디 못्ह노라 ्ह던 거
 시니 (빙빙 3:111) ⇨ ्ह더라
 그 부친이 일죽 우리 짜홀 덕희엇던 거시니 (후수 1:75)
 ⇨ 덕희엇더라

7. 맺음말

이 논문의 초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ㄴ매김마디’의 풀이말에 나타날 수 있는 문법정보는 매김법, 때매김법(확정법, 현실법, 회상법, 완결법, 완결현실법, 완결회상법), 주·객체높임법, 주체·대상법이다. ‘ㄹ매김마디’의 풀이말에 나타날 수 있는 문법정보는 매김법, 때매김법(미정법, 완결 미정법), 주·객체높임법, 주체·대상법이다.

② 18세기는 객체높임이 거의 허물어진 시기이므로, 매김마디에 실리는 객체높임의 예는 매우 드물다.

③ 18세기에 대상법 ‘-오/우-’는 거의 다 허물어져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ㄴ매김마디’에는 ‘니르-’에 ‘-오-’가 붙은 ‘닐온’만 보이고, ‘ㄹ매김마디’에는 ‘-्ह-’에 ‘-오-’가 연결된 ‘홀’만 보인다.

④ 15, 16세기에도 견썸말이 빠져나간 매김마디의 예는 매우 드물었는데, 17세기와 마찬가지로 18세기에도 아예 보이지 않는다.

⑤ 인용마디를 이끄는 ‘-्ह-’와 현실법 ‘-느-’가 줄어들면서, 서술법 ‘-다’와 매김법 ‘-ㄴ’이 달라붙는 구조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17세기부터 나타나는데, 현대국어 매김법씨끝 ‘-단’을 생성하였다.

⑥ 매김마디가 ‘것’과 더불어 이름마디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조도 17세기부터 나타난다.

⑦ 녹아붙은 풀이말 ‘-을 것’, ‘-은 것’ 구조를 ‘형식적 매김마디’라 하는데, 이러한 구조도 1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김수태(2001), “-고 하-의 생략과 씨끝의 융합”, 『한글』 254, 한글학회, 161-198쪽.
- 김영희(2003), “내포 접속문”, 『한글』 261, 한글학회, 173-206쪽.
- 김용경(2002), “문법화의 단계성에 대한 고찰”, 『한글』 256, 한글학회, 45-68쪽.
- 박동근(1998), “어찌씨 파생의 뒷가지 ‘-이’ 연구”, 『한말연구』 4, 한말연구학회, 128-145쪽.
- 박주영(2000), “‘것’의 문법화: 분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7, 한말연구학회, 201-220쪽.
- 서태룡(1979), “내포와 접속”, 『국어학』 8, 국어학회, 109-120쪽.
- 양영희(2004), “16세기 국어 ‘흔뇌’체의 공손 등급 설정”, 『한말연구』 15, 한말연구학회, 209-230쪽.
- 유승섭(2002), “국어 내포 보문의 논항 구조-의존 용언을 중심으로”, 『한글』 256, 한글학회, 163-190쪽.
- 이근영(2003), “첩태몽어의 음운학적 연구”, 『한말연구』 13, 한말연구학회, 145-163쪽.
- 이정택(2003), “관형사의 품사 설정 문제”, 『한말연구』 13, 한말연구학회, 167-185쪽.
- 이현희(1989), “국어 문법사 연구 30년(1959-1989)”, 『국어학』 19, 국어학회, 291-352쪽.
- 임혜원(2003), “노걸대언해류에 나타난 공간 개념 은유 연구”, 『한말연구』 13, 한말연구학회, 217-245쪽.
- 정동환(1999), “-하다’ 그림씨의 의미 분석”, 『한말연구』 5, 한말연구학회, 173-198쪽.
- 차현실(1981), “중세국어의 응축보문 연구: ‘-오/우-’의 통사기능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문학박사학위논문.
- 최대회(2014), “국어의 이름마디 연구”, 『한말연구』 34, 한말연구학회, 317-346쪽.
- 허 응(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응(1983), 『국어학』, 샘문화사.
- 허 응(1987), 『국어 매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 허 응(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응(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허 응(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 허원욱(1993), 『15세기 국어 통어론』, 샘문화사.
- 허원욱(1995), “현대 국어의 매김마디 연구”, 『한말연구』 1, 한말연구학회, 243-259쪽.
- 허원욱(1997), “16세기 국어의 매김마디 연구”, 『한말연구』 3, 한말연구학회, 173-196쪽.
- 허원욱(2004), “17세기 국어 매김마디의 통어론적 연구”, 『한말연구』 17, 한말연구학회, 367-390쪽.
- 황경수(2001), “중세국어 의존명사의 의미기능 연구”, 『한말연구』 9, 한말연구학회, 220-240쪽.

• 인용한 18세기 문헌

문헌이름	펴낸 연대	줄임
女四書諺解	1736	여사
御製內訓諺解	1737	어내
蒙語老乞大	1741	몽어
禪宗永嘉集諺解	1745	선종
改修捷解新語	1748	개수
論語栗谷諺解	1749	논어
孟子栗谷先生諺解		맹자
中庸栗谷先生諺解		중용
武穆王貞忠錄	1760	무목
警世問答續錄諺解	1763	경세
朴通事新釋諺解	1765	박통
明義錄諺解	1777	명의
繪音	1782-1795	윤희음
加髻申禁事目	1788	가체
捷解蒙語	1790	첩해
家禮釋義	1792	가례
重刊老乞大諺解	1795	노걸
敬信錄諺釋 佛嚴寺版	1796	경신
五倫行實圖	1797	오륜
北宋演義	18세기	북송
聘聘傳		빙빙
珍珠塔		진주
型世言		형세
後水滸傳		후수
先朝行狀		선조
小兒論		소아
八歲兒		팔세

〈ABSTRACT〉

A Syntactic Study of Adnominal Clauses in 18th Century Korean

Huh Won-w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yntactic rules in adnominal clauses in 18th century's Korean.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 grammatical informations in ‘-n’ adnominal clauses are tense(present, recollection, perfect, decision, perfect-present, perfect-recollection), honorific (subject ‘-isi-’/object ‘-sΛp-’), slipped object sign ‘-o/u-’. The other side, ‘-l’ adnominal clauses have tense(undecided, perfect-undecided), honorific (subject ‘-isi-’/object ‘-sΛp-’), slipped object sign ‘-o/u-’.

In 18th century, object honorific and slipped object sign ‘-o/u-’ were broken down. Therefore they were rare in adnominal clauses.

Formal adnominal clauses (‘-il kəs, -in kəs’ structure) and ‘adnominal clause+kəs=nominal clause’ structure were come out from 17th century for the first time, and ‘-hΛ nΛ-’ omitted adnominal structures were come out from 17th century too.

- 주제어 : 매김마디, 때매김, 이름마디, 형식적 매김마디.
adnominal clause, tense, nominal clause, formal adnominal clause.

허원옥

소 속 :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huhw3@kku.ac.kr

논문 접수 : 2014. 09. 30.

논문 심사 : 2014. 10. 25. - 11. 15.

게재 결정 : 2014. 11. 20.

송완식(1927) 『백과신사전』의 전문 용어에 대하여*

허재영

< 차례 >

1. 서론
2. 사전 편찬사에서 본 『백과신사전』
3. 『백과신사전』의 전문 용어
4. 결론

1. 서론

이 연구는 송완식(1927)의 『백과신사전』의 표제어 가운데 전문 용어 수록 실태를 분석하고, 사전 편찬사의 관점에서 전문 용어 처리 방법의 변화 과정을 기술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사전은 1927년 9월 15일 경성의 동양 대학당에서 초판이 발행되었으며, 1938년에는 영창서관에서 『신수선한(新修鮮漢) 백과대사전(百科大辭典)』이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이 나왔다. 편자인 송완식은 구체적인 행적을 찾기 어려우나 1920년대 저술 출판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1920년대 이 사전을 출판한 동양대학당에서 그가 저술한 것으로 보이는 몇 권

* 이 논문은 2014년도 단국대학교 대학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의 책이 발견되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문답상해(問答詳解) 법률보감(法律寶鑑)』(1928, 동양대학당, 저작 겸 발행자 송완식)과 『옥산사유안(玉山祠儒案)』(1927, 동양대학당, 저작 겸 발행자 송완식)이 있다. 특히 『문답상해 법률보감』은 일제 강점기 법령 및 용어를 상세히 풀이하고 각종 서식을 제시한 것으로, 1915년 신문사에서 편집부에서 발행한 『최신 실용 조선백과사전』, 1917년 신문사 발행 『간명 법률 경제 속어 사해』 등과 같은 성격을 지닌 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박형익(2004 : 118)에서는 송완식이 1935년 『일선대사전(日鮮大字典)』을 편집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바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그는 일제 강점기 용어 사전 편찬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저술가이자 출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완식(1927)의 『백과신사전』은 ‘백과사전’이라는 명칭으로 출판된 책으로는 신문사 편집부(1915) 이후 두 번째의 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백과사전이라는 명칭의 사전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근대 계몽기 이후 신학문의 도입이나 일제 강점기의 각종 법령의 증대에 따라 새로운 용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백과신사전』은 이보다 앞선 자전류나 전문 분야의 용어 해설집과는 달리 여러 학문을 종합하여 대상 용어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백과사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는 발견할 수 없는데, 자전이나 신어 및 국어사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박형익(2004)에서도 이 사전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렵다. 다만 박형익(2004 : 144-153)에서는 『최신 실용 조선백과사전』의 표제항 선정, 용례, 어원 정보, 뜻풀이 정보의 특징을 기술한 바 있는데, 이는 송완식(1927)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김민수(1977), 이병근(2000) 등에서 규명한 『말모이』(주시경이 중심이 되어 조선 광문회에서 1915년 완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전. 이 사전은 ‘알기’와 ‘어법 용어’, ‘전문 용어’, ‘ㄱ~갈죽’까지의 본문만 고본으로 전해지며, 고본 원고는 1927년 이후 계명구락부로 넘어갔으나 출판되지는 못했음)의 전문 용어 분류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전에는 총 10,402개의 용어가 등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3,123개의 용어는 그 용어가 사용되는 분야를 표시하였다. 이처럼 비교적 많은 수의 용어를 표제항으로 삼고, 전문 분야를 표시한 점은 우리나라 사전 편찬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말모이』가 완전하게 전해지지 않는 시점에서 송완식(1926)의 표제어 분석과 전문 용어 처리 방식 및 내용을 검토하는 일은 사전에서의 전문 용어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 사전 편찬사에서 본 『백과신사전』

2.1. 송완식(1926)의 『백과신사전』의 서지 사항

이 사전은 범례(凡例) 1쪽, 약어표(略語表) 1쪽, 색인(索引) 4쪽, 본문 490쪽, ‘제발명(諸發明)·발견(發見) 일람표 2쪽, 각국 화폐 비교표 1쪽, 각국 도량형 비교표 2쪽, 표조대수 연간 연백(表照對數年間年百 : 연표) 2쪽, 발음 색인 12쪽, 판권 1쪽으로 구성되었으며, 가로 12.5cm, 세로 18.5cm의 딱딱한 표지로 간행되었다. 저작 겸 발행자는 송완식(宋完植), 인쇄자는 심우택(沈禹澤), 발행소는 경성부 종로에 소재했던 동양대학당(東洋大學堂), 인쇄소는 대동 인쇄 주식회사(大東印刷株式會社)이다.

이 사전을 편찬한 목적은 용어 정리를 통해 신지식을 보급하는 데 있었다. 이 사전이 편찬된 직후 『매일신보』에는 이 사전에 대한 전면 광고가 몇 차례 실렸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자.

(1) 新文化의 明星-百科新事典 出來 △조선에 처음되는 사전 내용도 자못 충실하다.

사전(辭典)이 일국 문화에 대한 관계 잇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업는 것이다. 더욱이 심중경정이 심한 이십세기 현대에서 남과 갓치 살아나가려면 일상의 신지식(日常新智識)을 올게 밝히지 안으면 안 될 것이요 일상의 신지식을 밝히려면 사전이 아니고는 구할 곳이 업슬 것이다. 그런데 우리 조선에는 반만년의 력사는 찬연히 사라 잇스되 이제까지 사전이란 것이 업서 암흑천지에서 모르는 것을 아라보라고 해매는 대중이 막대 일흔 장님갓치 애를 췌스나 그네에게 집뺨이 주는 자가 업섯다. 만근 삼년 이래로 신문화가 수입되어 만반 학의 술어와 속어, 런어 류형어, 외국어 등은 나날이 늘어 반도강산을 휩쓸되 이것 역시 사전이란 것이 업기 때문에 대중은 그것을 무슨 의미도 모르고 그대로 설사를 하고 지내왔다. 그리하여 나날이 신문화의 소화 불량자만 늘어 갓섯다. 이것을 기막히게 심각한 송완식(宋完植) 씨는 오년의 긴 세월을 누누 고심 편찬하여 이제 비로소 백과사전(百科辭典)이란 것을 완성하여 노았다. 이것이야말로 어둔 밤에 밝은 등이요 장님의 집뺨이며 소화 불량자의 건위산이다. (중략) 그 사전의 내용은 현대 우리 조선 사람의 가장 필요한 온갖 과학(科學)을 토대 삼어 가지고 정치, 경제, 법률, 제도, 지리, 력사, 군사, 교육, 철학, 종교, 천문, 물리, 화학, 식물, 동물, 광물, 료리, 논리, 심리, 위생, 심리, 수학 등의 술어와 속어, 현대어, 류형어, 외국어 등을 가나다 음 순으로 가장 간단 명료하게 해석하여 목동초부라도 한 번 보면 능히 알게 되었으며 또 외국어는 낫낫치 원어(原語)를 대조하였는데 세계 만국말 어느 것 안 든 것이 업스며 테제는 사륙판 양장 금문자 박은 것인데 조희가 상등이요 인쇄도 자못 선명하더라. (하략)¹⁾

이 광고문에 나타나듯이, 이 시기 사전은 신지식이나 체도에 따라 생성된 신개념어의 급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박형익(2004 : 141-144)에서 소개한 신어 정리 자료 및 신어 사전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다.²⁾ 송완식(1927)의 『백과신사전』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범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 『매일신보』 1927.10.16.

2) 근대 계몽기 각종 신어 자료에 대해서는 이용호(1975)를 비롯하여, 박형익(2004), 김태훈·박상진(2011), 허재영(2013) 등에서 연구된 바 있다.

(2) 凡例

- 一. 本書는 所謂 新學文上에 나타나는 科學 述語·新語·熟語·外國語를 蒐輯하고 그것에 平易한 解釋을 加하여 初學者의 便宜를 補코자 함.
- 一. 語의 排列은 가나다 音 順으로 하고 便宜上 外國語는 모다 章首에 置하다.
- 一. 語數는 可及의 多蒐하고 解釋은 詳細를 爲主하얏슴으로 辭典의 洋式으로는 或 缺點이 잇슬지언정 解釋은 遺憾이 업도록 힘쓰다.
- 一. 外國語와 外國語의 譯語는 原語·原音を 對照키 爲하야 ——히 原語를 對照하다.
- 一. 外國語는 索引에 便利키 爲하야 流行音으로 만히 排列하다.

‘범례’에는 이 사전에서 선정한 대상어의 범위, 용어 배열 방식, 뜻풀이 원칙, 원어 대조 방법, 유행음 색인 배열 원칙 등을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 용어 배열 원칙이나 유행음 색인 배열 원칙은 어문 규범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요했던 기준이었으며, 백과사전의 특성상 중시했던 것은 용어 선정의 대상과 범위였다. 이 사전에 수록한 10,402개의 용어 가운데 전문 분야가 표시된 것은 3,123개이지만, 분야 표시를 하지 않은 용어 가운데 전문 분야에서 사용했던 것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전문 용어가 수록되어 있는 셈이다.

2.2. 백과신사전의 어휘 현상

이 사전은 ‘범례’에서 밝힌 것처럼 ‘가나다’ 순의 배열을 취하였다. 그러나 규범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행 맞춤법의 배열순서와는 다르다. ‘색인’에 제시한 배열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배열순서

- . 가, 거, 겨, 고, 과, 구, 귀, 규, 그, 기
- . 나, 너, 노, 뇨, 뉴, 느, 니

- . 다, 더, 더, 도, 도, 두, 드, 디
- . 라, 라, 러, 러, 로, 료, 루, 류, 르, 리
- . 마, 머, 머, 모, 묘, 무, 므, 미
- . 바, 버, 베틀, 보, 부, 브, 비
- . 사, 샐, 서, 서, 소, 좌, 쇼, 수, 슈, 스, 시
- . 아, 야, 어, 여, 오, 와, 요, 우, 워, 유, 으, 이
- . 자, 자, 저, 조, 좌, 조, 주, 쥬, 즈, 지
- . 차, 차, 처, 초, 초, 쉼, 츠, 치
- . 카, 코, 콰, 쿠, 크, 키
- . 타, 티, 터, 토, 투, 트
- . 파, 퍼, 펌, 포, 표, 푸, 프, 피
- . 하, 하, 허, 허, 호, 화, 효, 후, 휴, 흐, 히

이에 따르면 가나다 배열순서는 현행 맞춤법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자어의 경우 한자를 표제항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배열 과정에서는 현행 맞춤법과 다른 점이 많다.³⁾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4) 현행 사전의 자모 배열과의 차이

ㄱ. 한자음 읽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예) . 姦通罪-乾燥-(중략)-干滿의 순서로 배열한 것 : 乾은 지식영의 <자전석요>, <신자전>에서 ‘간’으로 표기했지만 ‘간(마를 간)’을 음으로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乾’을 일본식 한자음 ‘칸’으로 읽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胛骨- 皆動 - 客體 - 強姦의 순서로 배열한 것 : 이 경우도 ‘強’을 ‘강’으로 읽은 까닭으로 보인다.

ㄴ. 구개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 : ‘더, 덕, 던, 덤, 데, 덩, 디’ 부에 배열한 한자어는 구개음화된 음을 인정하지 않음. 예) ‘더’ 부 : 低級, 低率, 低壓, 抵當, 抵當權

ㄷ.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두음에 오는 한자음 ‘라, 라, 러,

3) 이러한 차이는 신문사 편집부(1917)의 『간명 법률 경제 속어 사해(簡明法律經濟熟語辭解)』에도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13)을 참고할 수 있다.

러, 로, 료, 루, 류, 르, 리'를 모두 인정함. 예를 들어 '羅針盤, 羅針子
午線, 裸麥 …' 등은 '라' 부에 배열함.

- ㄹ. 단모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샤, 서, 쇼, 슈/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를 모두 인정함.
- ㄱ. 한자를 기준으로 한 경우 : 固定-固定資本-固有-固有權-固有名詞, 또는 拷問-苦力-苦土-苦痛-苦學-苦學生-顧問 등과 같이 같은 한자로 구성된 용어를 먼저 배열함. 이에 따라 동음이의어도 같은 한자로 된 용어를 배열한 뒤 다른 한자로 이루어진 동음이의어를 그 다음에 배열함.

이러한 차이는 이 사전이 편찬된 시기와 규범이 만들어진 시기의 언어적인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의 혼란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자어의 경우 현대 한자음과 다른 것들이 매우 많은데, 그 이유는 이 시기 한자음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5) 한자음의 차이

- ㄱ. '가'부 : 釀金(각금 → 거금 : 釀은 '추렴할 거, 술잔치 각'으로 읽힘)
- ㄴ. '고'부 : 腔腸, 腔腸動物(공장, 공장동물 → 강장, 강장동물)
- ㄷ. '기'부 : 喫驚(긱경 → 깅경), 喫水(긱수 → 깅수), 喫雷(긱뢰 → 깅뢰)
- ㄹ. '나'부 : 涅槃(날반 → 열반)
- ㄱ. '다'부 : 搭乘(답승 → 탑승)
- ㄷ. '므'부 : 默契, 默示, 默許(묵계, 묵시, 묵허 → 목계, 목시, 목허)
- ㄷ. '배'부 : 舶來, 舶來品(백래, 백래품 → 박래, 박래품)

(5)에 나타나는 한자음은 표준음이 정해지지 않았던 이 시기의 한자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釀'의 경우 최남선(1915)에서는 '술도로기 거, 술추렴 거'로 읽고 '각'과 뜻이 같다고 풀이한 데 비해,⁴⁾ 조선총독부(1920)에서는 '釀金'을 '각금'으로 등재하였다.⁵⁾ 이 시기 한자음이 표준화되는 과정

4) 최남선(1915), 『신자전(新字典)』, 조선광문회, 4-24쪽.

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 성과를 찾기 어려워⁶⁾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송완식(1927)은 대체로 최남선(1915)의 한자음을 준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5)에 등장하는 다른 한자들은 대부분 최남선(1915)의 음과 같기 때문이다.⁷⁾

이 사전에서 구체적인 용어 선정은 ‘범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술어, 신어, 속어, 외국어’를 망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사전에서 어휘 단위를 고려하여 등재어를 선정하는 것과는 달리 ‘구’나 ‘속어’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落下의 定律, 力の 能率, 物質의 保存, 生의 哲學’ 등과 같은 용어는 학술어로 쓰이는 속어들이다. 또한 ‘口頭 契約, 口頭 辯論, 國民教育’ 등과 같은 용어는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 전문 용어로 쓰이는 어휘들이다.⁸⁾ 그뿐만 아니라 시대상을 반영하는 ‘國內 公安, 國際 公安, 局待, 局待費, 前納 電報’와 같은 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⁹⁾ 시대와 개념의 변화에 따라 뜻풀이가 달라지거나 대표 어휘가 달라지는 것들도 비교적 많다.

또한 오늘날의 사전에 비해 한자어나 외국어, 외국어의 번역어가 많은

- 5) 조선총독부(1920), 『조선어사전』, 국서관행회. 일본. 이 사전에서는 한자로 이루어진 등재어도 괄호 안에 한글 음을 표기하였다.
- 6) 박형익(2004 : 116-135, 615-640)에서는 이 시기 발행된 자전류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대 계몽기로부터 1920년대까지 발행된 대표적인 자전으로는 정익로(1908)의 『국한문신옥편』, 지석영(1909)의 『사전석요』, 최남선(1915)의 『신사전』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자전의 한자음을 비교하여 표준음을 정하는 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는 찾기 어렵다. 근대 이후 한자음 표준화 과정은 별도의 연구 과제라고 볼 수 있다.
- 7) ‘腔’은 최남선(1915)에서 ‘창자 강, 뼈대 강, 말허구리 강, 노래곡도 강’으로 표기하여 ‘강’을 대표음으로 하였는데, 조선총독부(1920)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窪’은 최남선(1915)에서 ‘양금흙 널, 개흙 널’로 읽었으나 속음(俗音)으로 ‘날’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총독부(1920)에서도 ‘날’로 읽었다. 최남선(1921)에서는 ‘喫’을 ‘먹을 낱, 마실 낱’으로 읽었으며, ‘搾’은 ‘부쓰칠 답, 걸 답, 칠 답, 모쓸 답’, ‘黠’을 ‘잠잠묵, 침잠할 묵’, ‘舶’을 ‘당두리 백/빅’으로 읽었다. 조선총독부(1920)에는 이 네 한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할 때 송완식(1927)에서는 최남선(1915)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 8) 이러한 어휘들은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전문 용어로 처리한 어휘들이다.
- 9) 이러한 용어는 오늘날의 사전에는 등재하지 않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전에 등재된 용어의 어종별 분포¹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어종별 분포

구분	개수	비율(%)
한자어	10,041	96.53
영어 또는 영어+한자어	316	3.03
기타(독일, 서반아, 서장어 포함, 범어, 숫자, 이탈리아 어, 인도어)	14	0.13
순수 일본어	7	0.07
네덜란드	7	0.07
프랑스 어	7	0.07
차자	6	0.06
포르투갈	5	0.04
계	10,402	100.00

(6)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전의 신지식과 신개념 또는 신제도 등과 관련한 용어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편찬자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실제로 신지식 유통 과정에서 한자 사용 비중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오늘날과는 달리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의 비중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鹽酸加里(염산칼륨, kalium-독), 亞硫酸瓦斯(아류산 와사 : 亞黃酸gas), 珈琲(coffee), 毒瓦斯彈(독가스탄, 毒gas彈), 排水噸數(배수톤수, 排水ton數)’와 같이 외국어를 차자한 한자어(‘범례’의 외국어 번역어)도 많이 쓰였다. 특히 다음 용어들은 한자어를 표제항으로 삼았고 로마자 원어를 대조하였는데, 이는 외국어를 한자어로 번역하여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7) 로마자로 대조한 용어

他愛主義(Altruism), 利他主義(Altruism), 精靈說(Animism), 靈魂說(Animism),

10) 어종별 분포는 송완식(1927)의 뜻풀이에서 밝힌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統覺(Apperceptio), 弧燈(Arc lamp), 藝術(Art), 藝術을 위하야의 藝術(Art for art), 人爲淘汰(Artificial selection), 人爲分類(Artificial system), 地瀝青(Asphalt), 原子(Atom), 原子說(Atomism), 證權(Authority), 自己暗示(Autoauggestion)

(7)의 유형에 해당하는 용어는 모두 229개이다. 이들 용어와 (6)에 분포하는 362개의 외국어를 합치면 591개의 용어가 외국어 계열의 용어들인데, 이는 전체 용어의 5.68%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일제 강점기의 지식 유통은 신지식이나 신개념, 신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용어가 한자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백과신사전』의 전문 용어

3.1. 전문 용어의 개념과 특징

전문 용어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말한다. 이 용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된 것은 신기철·신용철(1958)의 『표준국어대사전』(을유문화사)으로 보이는데, 이 사전에서는 ‘전문 용어=학술어’로 풀이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글학회(1957)의 『우리말큰사전』(을유문화사)이나 문세영(1938)의 『조선어사전』(박문서관)에서는 ‘전문 용어’라는 어휘는 등재하지 않고, 이와 비슷한 개념인 ‘전문어’를 등재하였다. 특히 문세영(1938)에서는 ‘전문어=술어’라고 풀이하였는데, 이때의 ‘술어’는 ‘학술어’의 준말로 볼 수 있다.¹¹⁾

11) 그 이후 한글학회(1992)의 『우리말 큰사전』(어문각)에서는 ‘전문 용어’를 등재하였다. 그러나 국립 국어 연구원(1999)의 『표준국어대사전』(두산)에서는 ‘전문 용어’를 등재하지 않았으며, 국립 국어원 누리집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전문 용어’는 검색되지 않는다.

이처럼 국어사전에서는 ‘전문 용어, 전문어, 학술어, 술어’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들 용어가 모두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어휘 풀이를 참고할 때 좀 더 명료해진다.

(8) 전문 용어와 관련된 용어

- ㄱ. 전문 용어 : 『언어』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슬개골은 의학 전문 용어이다.
- ㄴ. 전문어(專門語) : 『명사』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는 말. ≍전용어「1」. 「참고 어휘」학술어(學術語).
- ㄷ. 전용어 : 『명사』 「1」일정한 계층이나 부문에서만 쓰는 말. 『개인 전용어/자기들의 전용어같이 쓰는 하나님이란 말을, 영술이 예수교에 끌어다 붙이는 것이 더욱 해괴하고...』《김동리, 을화》 「2」=전문어.
- ㄹ. 학술어 : 『명사』 학술 분야에 한정된 뜻으로 쓰는 전문 용어. ≍갈말 01·술어02(術語). 「참고 어휘」전문어(專門語).

(8)의 풀이를 참고할 때, ‘전문어’와 ‘학술어’는 동의 개념으로 처리되었으며, ‘전문어’는 ‘학술어’ 이외에 ‘전용어「1」’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전문 용어를 다루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문 용어 = 학술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07년도 학술단체총연합회 제2회 통합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제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²⁾ 이때 발표된 논문 가운데 대부분은 ‘학술 전문 용어’라는 제목을 사

12) 이 대회는 2007년 6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제주 컨벤션 센터 ICC에서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라는 제목 아래 공청회 형식으로 열렸다. 모두 4개의 분야로 구성된 대회에서 제1부는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 경과 보고’(김하수),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 일정 보고’(박재찬), ‘2007년도 학술 전문용어 중간 결과물의 현황 및 문제점’(이현주), ‘전문용어 자원 처리 및 오류 유형’(김정훈), 제2부는 ‘전문 용어와 고유 명사 처리 문제’(박용찬), ‘1차 사업 중 복 용어 처리 방법론 및 결과’(이동녕), ‘전기 분야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김정훈), 제3부와 제4부는 33개 학술 단체의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

용하였는데, 대회의 공식 명칭에서 ‘학술 전문 용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전문 용어’를 ‘학술 전문 용어’ 또는 ‘(학)술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김광수(2004)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전문 용어는 특정된 집단에서 정밀하게 규정된 과학적인 개념과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특수한 어휘”¹³⁾라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상당수의 선행 연구에서 ‘전문 용어 = 학술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이해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학술’이라는 표현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업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원·전문용어언어공학센터연구(1998)의 보고서인 『전문 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문화관광부)이나 2006년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체’ 등에서는 ‘전문 용어’ 앞에 ‘학술’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문 용어’와 ‘학술 전문 용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술’은 ‘학문과 기술’을 의미하거나 ‘학문 연구의 방법이나 이론’을 지칭한다. 이를 고려할 때 ‘전문 분야’가 ‘학문이나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두 용어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 직업이나 직종을 나타낼 경우 학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 용어’는 ‘학술 전문 용어’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정 직종에만 존재하는 제도나 행동 양식, 기구의 부속품 등을 나타내는 용어는 전문 용어로 볼 경우 자연스럽지만 ‘학술 전문 용어’라고 부를 경우 적절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전문 용어’는 줄여서 ‘전문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학술어’나 ‘술어’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⁴⁾

를 제목으로 하였다.

13) 김광수(2004), 『남북한 전문 용어 비교 연구』, 역락, 12-13.

14) 이밖에도 ‘전문 용어’와 ‘학술 은어’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는 ‘전문

전문 용어가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용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때, 특정 용어가 전문 용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일은 더 어려운 문제를 갖는다. 류범모 외(2006)에서는 구성 정보와 문맥 정보를 이용하여 전문 용어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계산 방식을 따르다고 하더라도 전문 용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점에서 전문 용어를 변별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일상어(또는 일반어)’와의 구별에서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 최석두(2000)에서는 일본인 학자 시바다 타케시[柴田武](1989)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전문 용어가 갖는 특징을 열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¹⁵⁾ 이 기준은 ‘통용 범위’(좁음), ‘어휘 습득 과정’(일상어 이후에 습득), ‘성립 시기’(짧은 역사), ‘개념의 변화 가능성’(개념 변화 가능), ‘원어와 대역어의 관계’(원어와 대역어가 존재), ‘인위적 조작 가능성’(조작 가능), ‘단의성(單義性)’, ‘문체상의 특징’(문장체, 문자 언어), ‘언어 기반’(표준어를 기반으로 함), ‘어휘의 성질’(대부분 명사로 존재), ‘사전 등재 여부’(일반 사전에 등재되지 않음) 등이다.

3.2. 『백과신사전』의 전문 용어 분야

사전 편찬사를 고려할 때 송완식(1927)은 학술 분야의 전문 용어를 체계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전문 용어 분류는 이 사전 이전에 편찬된 『말모이』 고본(稿本)¹⁶⁾에도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그 전문

용어’를 뜻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technical term’과 ‘jargon’을 구분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전자는 학문이나 직업상의 전문 분야를 고려한 접근 방식을 말하며, 후자는 ‘특수 집단의 변말, 또는 직업상의 은어’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용어학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는 전자를 가리킨다.

15) 최석두(2000), 専門用語學의 內容과 課題, 『지식처리연구』 1-1, 문헌정보처리연구회, 61-75.

16) 『말모이』의 편찬 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김민수(1977 : 310-355), 이병근(2000 : 27-36)을 참고할 수 있다. 두 논문에서는 이 사전이 1910년 조선 광문회에서 착수하여 1915년 경 초고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사전 편찬의 핵심 인물이었던 주시경의 서거 및 김두봉의 망명 등으로 인해 고본이 흩어졌다가 계명구락

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조선총독부(1920)의 『조선어사전』이나, 학습용 사전을 표방한 심의린(1926)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에는 전문 용어 분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전하는 『말모이』 고본은 ‘알기’, ‘본문’, ‘찾기’, ‘자획 찾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기’는 사전 편찬의 기본 방침을 정한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어서 ‘어법 용어’와 ‘전문 용어’의 약호(略號)를 제시하였다. 이때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9) 『말모이』의 전문 용어 약호

- | | | |
|----------|----------|----------|
| 【宗】(大宗教) | 【教】(教育學) | 【動】(動物學) |
| 【佛】(佛敎) | 【經】(經濟學) | 【植】(植物學) |
| 【耶】(耶蘇敎) | 【法】(法學) | 【鑛】(鑛物學) |
| 【哲】(哲學) | 【數】(數學) | 【物】(物理學) |
| 【心】(心理學) | 【天】(天文學) | 【化】(化學) |
| 【倫】(倫理學) | 【地】(地質學) | |
| 【論】(論理學) | 【生】(生理學) | |

남아 있는 『말모이』 고본의 어휘는 ‘ㄱ~갈죽’까지로 이 가운데 전문 용어 표시가 들어 있는 어휘는 30개로, 각 분야별 어휘는 다음과 같다.

(10) 『말모이』 전문 용어

- ㄱ. 동물 : 갑각(甲殼), 갑각류(甲殼類), 갑충개(甲蟲類), 개각(介殼) (4개)
- ㄴ. 법학 : 가독(家督), 가독상속(家督相續), 가미장(假埋葬), 가처분(假處分), 가출옥(假出獄), 가집행(假執行), 감정(鑑定), 가택침입죄(家宅侵入罪), 가택수색(家宅搜索), 가자분산(家資分散)(10개)

부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매일신보』 1927년 6월 9일자 ‘문화사상 획기적 사업-조선어 사전을 편찬’이라는 기사에서, ‘조선 광문회에서 10년 전 사전 편찬 작업을 행하였는데(최남선, 권덕규, 이규영, 김두봉) 1919년 중단되었던 것을 1927년 계명구락부에서 최남선, 변영로, 양건식, 임규 등이 다시 편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고본을 정리한 원고는 이병근(2000)의 부록으로 실려 있다.

- ㉔. 생물학 : 가동관절(可動關節)(1개)
- ㉕. 수학 : 각(角), 각도(角濶), 가분수(假分數), 각뿔(角錐), 각도(角度)(5개)
- ㉖. 식물학 : 각두과(穀斗科), 가관(假管), 각두(穀斗)(3개)
- ㉗. 이학 : 가속도(加速度), 가분성(可分性)(2개)
- ㉘. 화학 : 가수분해(加水分解), 가성물(加性物), 가성가리(苛性加里), 가역반응(可逆反應), 가성조달(苛性曹達)(5개)

출판되지 못한 고본 일부의 원고여서 전문 용어에 대한 『말모이』의 기술 방식과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남아 있는 원고를 고려할 때, 『말모이』의 전문 용어는 그 용어가 쓰이는 한 분야만을 선택하여 기술하였으며, 30개의 용어 가운데 법학, 수학, 화학 용어가 비교적 많다.

이에 비해 송완식(1927)은 3,123개의 용어에 전문 분야가 표시되어 있으며, 일부 용어는 두 분야 이상의 복수로 표시되어 있어, 전문 용어에 대한 편찬자의 태도와 분야별 용어 분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¹⁷⁾ 송완식(1927)의 전문 용어 약어(略語)는 다음과 같다.

(11) 송완식(1927)의 전문 용어 약어표

【哲】哲學, 【心】心理學, 【論】論理學, 【教】教育學, 【法】法律學, 【經】經濟學,
 【動】動物學, 【植】植物學, 【生】生物學, 【鑛】鑛物學, 【理】物理學, 【化】化學,
 【數】數學, 【天】天文學, 【地】地質學, 【倫】倫理學

(11)의 전문 용어가 『말모이』와 다른 점은 ‘대종교, 불교, 야소교’와 관련된 종교 분야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법학’ 대신 ‘법률학’, ‘생리학’ 대신 ‘생물학’이라는 용어를 쓴 점이다. 『말모이』의 분류 체계가 19종이었음에 비해 송완식(1927)은 16종이므로,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두 사전의 전문 용어 분류 체계는 같다고 볼 수 있다.

17) 송완식(1927)에 나타난 전문 용어는 3,123개로 ‘일상어로 전문 분야에 쓰이는 것’(69개), ‘한 분야의 전문 용어로 쓰이는 것’(3,029개), ‘두 분야 이상의 전문 용어로 쓰이는 것’(25개)으로 나눌 수 있다.

송완식(1927)의 전문 용어 설명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특정 분야에서만 쓰이는 용어로, 해당 용어 다음에 전문 분야를 표시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일상어가 전문 용어로 쓰일 경우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12) 전문 용어 풀이 방식

ㄱ. 전문 용어로만 쓰일 경우

슈 部 : 收監狀 【法】檢事가 收監을 命令하는 文書

收穫遞減(Diminishing return) 【經】土地의 生産力 卽 其收益은 或程度까지는 其土地에 投入한 資本 及 努力을 增加하는 대로 增加하되 其程度를 過하면 資本 及 努力을 增加할 적마다 其比例가 漸次 減少함. (예시 생략)

ㄴ. 일상어가 전문 용어로도 쓰일 경우

서 部 : 閃光 변적어리는 빛. 銅鑛 갓흔 것의 갈나진 금에 他 物이 入하여 一種 異樣의 光을 放함. 【天】 恒性이 반작반작하는 光輝.

소 部 : 訴願 裁判을 請願함. 【法】 行政官廳의 不當 處分으로 因하여 法律上의 利益 及 權利를 侵害當한 者가 其處分의 取消 又は 變更을 其上級官廳에 請願함.

(12)의 전문 용어 처리 방식에서 두 번째 유형은 사전의 뜻풀이 과정에서 다의어 처리가 가능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용어는 69개인데, 각 분야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13) 일상어와 전문 용어로 모두 쓰이는 용어¹⁸⁾

+經	7	+植	1
+論	1	+心	1
+動	1	+倫	2
+倫	1	+地	1
+理	3	+地 理	1
+法	42	+天	1

+數	5	+哲	1
+植	1	+哲, 文法	1
계	69개		

(13)에서 흥미로운 점은 일상어와 전문 용어로 쓰이는 용어 가운데 대부분은 법률 용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決定, 契約, 戒嚴, 故障, 雇傭, 共有, 供託, 交戰, 教唆, 絞首, 拘留, 拘引, 禁錮, 禁令, 禁獄, 給付, 忌避, 寄託, 期限, 棄却’ 등과 같은 용어는 일상어로 쓰일 때와 법률 분야에서 쓰일 때 의미를 갖는다. 이 점은 법률 분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수로 표시한 전문 용어의 분포에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법률 분야의 용어가 많다. 단수로 표시한 전문 용어는 총 3,029개로 각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단수로 표시한 전문 용어의 분포

분야	개수	비율(%)	분야	개수	비율(%)
法	800	26.40.	鑛	106	3.50
數	399	13.17	經	69	2.28
理	311	10.28	哲	64	2.11
化	308	10.17	生	60	1.99
地	248	8.19	心	54	1.78
植	199	6.57	文法	44	1.45
天	159	5.25	論	31	1.02
動	144	4.75	倫	23	0.76
鑛	106	3.50	教	10	0.33
계	3,029개				100

18) 이 자료에서 ‘+’는 일상어에 전문 분야의 의미가 추가되었다는 의미에서 표시한 기호이다.

(14)에는 약어표에 존재하지 않는 ‘문법’이 추가되었다. 약어표와 실제 설명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문법 용어가 44개나 된다는 점에서 언어 관련 전문 용어로 규정할 수 있다. 이들 용어를 분야별로 볼 때, ‘법률(26.40%)>수학(13.17%)>물리학(10.28%)’의 순서를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법률’을 제외한 다른 용어들은 대부분 자연과학 계통의 용어가 많다. 인문학이나 사회학 분야의 용어인 ‘경제(2.28%)>철학(2.11%)>심리학(1.78%)>논리학(1.02%)>윤리학(0.76%)>교육학(0.33%)’의 용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편이다. 이처럼 분야별 용어의 편차를 보이는 것은 편자의 학문 용어에 대한 관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 시기 학문과 지식 유통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달리 말해 일제 강점기 법률 및 자연 과학 계통의 용어가 다른 분야에 비해 급증했거나 혼란스러웠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와 함께 두 분야 이상 중복 표시된 25개의 용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용어는 대체로 유사한 분야의 용어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논리학과 윤리학’, ‘물리학’과 ‘수학’, ‘물리학’과 ‘화학’처럼 유사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뜻이다.

송완식(1927)의 전문 용어 분포는 근대 계몽기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의 지식 유통 과정에서 ‘법률’과 ‘과학 사상’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특정 분야의 용어가 급증하는 현상은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의 언어 권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병혁(1988)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식민주의 언어 동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세력을 얻는 언어는 ‘행정’이나 ‘법률’ 관련 언어였다. 『백과신사전』에서 법률 용어가 다른 분야의 용어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식민 시대의 법률·행정 용어의 급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셈이다.

4. 결론

이 논문은 송완식(1927)의 『백과신사전』에 나타난 전문 용어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사전 이전에 백과사전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던 사전으로 신문사 편집부(1915)의 『최신 실용 조선백과사전』이 있기는 했지만, 그 사전은 각종 서식을 중심으로 한 자료집이어서 용어를 중심으로 한 백과사전은 송완식(1927)이 처음 발행된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전이 출간되기 이전 우리나라에서도 몇 종의 사전이 더 나왔다. 예를 들어 주시경이 중심이 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 광문회(1915 초고 완성 추측)의 『말모이』, 조선 총독부(1920)의 『조선어사전』, 심의린(1926)의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 그밖에 신문사 편집부(1917)의 『간명 법률 경제 속어 사해』 등이 있었으나, 『말모이』는 완간되지 못했고, 조선 총독부(1920)도 전문 용어를 체계적으로 수록하지는 않았다. 심의린(1926)은 보통학교용 사전이었으며, 신문사 편집부(1917)은 법률·경제 분야의 용어만을 다룬 것이다. 이 점에서 송완식(1927)은 본격적인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전 편찬의 목적은 용어 정리를 통해 신지식을 보급하는 데 있었다. 국어의 규범이 통일되기 이전에 편찬한 사전이기 때문에, 이 사전의 어휘 배열은 현대 사전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한자음을 읽는 방식도 지금과 다른 점이 많다. 특히 어종별로 볼 때 한자로 이루어진 용어가 96.53%에 이를 정도로 근대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의 지식 유통 상황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 사전에 등재된 용어는 모두 1,402개로 그 가운데 전문 용어로 분류된 것은 3,123개이다. 전문 용어의 분류 기준은 『말모이』와 비슷하나 ‘종교’ 분야를 두지 않은 점은 다르다. 전문 용어 가운데는 일상어가 전문 용어로 쓰이는 용어 69개, 단일 분야로 분류된 용어 3,029개, 분야가 중복된 용어 25개가 있으며, 분야별로 볼 때 법률 용어와 자연 과학 분야의 용어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처럼 일상어의 전문 용어화 과정은 어휘론적 차원에서 다의어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며, 분야별 분포 결과는 근대 계몽기 이후 일제 강점기의 지식 유통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송완식(1927)을 전후로 발행된 사전을 전수 조사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할 경우 좀 더 뚜렷해질 수 있다.

참고문헌

- 구희관·정한민·이병희·성원경(2005), “수식어구를 이용한 한국어 용어의 전문성 측정”,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2-1, 한국정보과학회, 439-441쪽.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1』, 국립국어연구원.
- 권은주(201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전문용어의 역사용어 구축, 『한국사전학』 2012, 한국사전학회, 31-51.
- 권재일(2006),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분류 체계 수립을 위하여”, 『한글』 274, 한글학회, 231-266쪽.
- 김광수(2004), 『남북한 전문 용어 비교 연구』, 역락.
- 김민수(1977), 『주시경연구』, 탑출판사.
- 김지홍 외(2010),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지원 체계 구축-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 김태훈·박상진(2011), “신어 정착 연구”,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71-98쪽.
- 김평·성원경·류범중(2009), “전문 용어 표준화 지원 시스템 개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7-1, 한국콘텐츠학회, 94-98쪽.
- 김한샘(2008), “전문용어 정비의 현황과 과제”, 『한말연구』 23, 한말연구학회, 93-120쪽.
- 남길임(2008),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표제항에 대한 사전학적 분석-식물 영역 전문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47, 언어과학회, 75-97쪽.
- 류범모·배선미·최기선(2006), “구성정보와 문맥정보를 이용한 전문용어의 전문성 측정 방법”,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3-7, 한국정

- 보과학회, 636-645쪽.
- 리수락(2005), “전문용어 표준화의 원칙과 평가기준”, 『한국어정보학회』 7-2, 한국어 정보학회, 1-11쪽.
- 박용삼(1995), “전문용어 사전편찬에 대하여”, 『독일문학』 58-1, 한국독어독문학회, 209-228쪽.
-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월인.
- 박형익(2005), 『심의린 편찬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태학사.
- 배선미(2007), “영-한 전문용어 조어력에 대한 통계적 연구-물리, 화학, 의학, 기계 공학, 화학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언어』 32-1, 한국언어학회, 85-104쪽.
- 배선미(2007), “영-한 전문용어 조어력에 대한 통계적 연구”, 『언어』 32, 한국언어학회, 85-104쪽.
- 송완식(1927), 『옥산사유안』, 동양대학당.
- 송완식(1927), 『최신 백과신사전』, 동양대학당.
- 송완식(1928), 『문답상해 법률 보감』, 동양대학당.
- 송완식(1938), 『신수선한 백과대사전』, 영창서관.
- 신문사 편집부(1915), 『최신 실용 조선백과사전』, 신문사.
- 신문사 편집부(1917), 『간명 법률 경제 속어 사해』, 신문사.
- 유현경 외(2010), 『전문 용어 자료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 윤경자(1944), 『지리 용어 사전』, 수문각.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용호(1973), 『미군정기 한글 운동사』, 성청사.
- 이용호(1975), 『개화기 한글 운동사』, 성청사.
- 이현주(2006), “전문용어 명명절차 속의 일상어휘의 역할- angle, plan, image 그리고 lumiere에 대하여”, 『프랑스학연구』 37, 프랑스학회, 275-299쪽.
- 이현주(2010), “전문어 학습사전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프랑스 경영용어 학습사전(DAFA)』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회』 84, 한국불어불문학회, 789-826쪽.
- 이현주·조동성(2011),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 의미학』 35, 한국어어학회, 245-283쪽.
- 장유진·홍희정(2005), “국어사전의 전문용어에 관한 연구”, 『한글』 270, 한글학회, 197-232쪽.
- 정호정(2010), “번역과 전문용어학, 전문용어학과 번역학”, 『통역과 번역』 12-2, 한국통번역학회, 235-255쪽.
- 조남호(2005), “학술용어집 발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국어 정책에서 본 전문용어 정비와 문제점”, 『수의학용어 표준화 2차 공청회』, 대한수의학회,

17-23쪽.

- 조선총독부(1920), 『조선어사전』, 국서관행회, 일본.
- 최기선(2006), 『21세기 세종계획 전문 용어의 정비』, 국립국어원.
- 최남선(1915), 『신자전』, 박문서관.
- 최석두(2000), “전문용어학의 내용과 과제”, 『지식처리연구』 1-1, 문헌정보처리연구회, 61-75쪽.
- 최석두(2000), “한글 전문용어 관리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 한국정보관리학회, 5-10쪽.
- 최형용(2010), “전문 용어의 형태론: 지침으로서의 전문 용어 형성 원칙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1, 한중인문학회, 393-323쪽.
- 최형용(2011), “전문 용어로서의 문장 부호의 명칭에 대하여”, 『한중인문학연구』 34, 한중인문학회, 201-230쪽.
- 한국과학기술원 · 전문용어언어공학센터연구(1998), 『전문 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 문화관광부.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2004), 『학술 전문 용어 표준화 연구 중간 발표회/공청회 자료집』,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2008),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 연구 결과 보고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 허재영(2013), “근대어 사전 편찬을 위한 어휘 자료 기초 연구”, 『국문학논집』 22,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71-495쪽.
- 허재영(2013), “전문 용어 사전의 관점에서 본 <간명 법률경제숙어사서>”, 『한국사전학』 21, 한국사전학회, 303-324쪽.
- 허재영(2014), “근대 계몽기 외국어 교육 실태와 일본어 권력 형성 과정 연구”, 『동북아역사연구』 44, 동북아역사재단, 315-354쪽.
- 홍희정(2007), “국어사전에서의 전문용어 기술에 관한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1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5-27쪽.
- 후지다[藤田圭一] · 한국토목공학회 편(1996), 『토목공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ABSTRACT〉

The Technical Terms in SONG WANSIK(1927)'s BAEKGWASINSAJEON

Heo Jae-you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AEKGWASINSAJEON(百科新辭典, new encyclopedia) written by Song Wansik(송완식). This dictionary was published in 1927. This book was the first full-scale encyclopedia in Korea. Prior to that, some dictionaries were published. For example, the MALMOI(말모이), which means a gathering the terms in the, Korean language), and compiled by JOSEONGWANMUNHOI(朝鮮光文會, the publisher) and the JOSEONEOSAJEON(the Korean dictionary) published by the Japanese General Government. But the MALMOI was an unpublished manuscript and the JOSEONEOSAJEON was not focused on technical terms.

Song's dictionary contained 10,402 terms relating to modern science, knowledge and systems. The remaining, 3123 terms were expressed as technical terms. I analyzed these terms into Song's criteria. He made criteria based on a scientific classification system. These standards started the MOLMOI in Korea.

I found many technical terms distributed in law and natural science. These results meant that law and natural science information were needed at that time. This phenomena were characteristic in colonial times.

- **주제어** : 송완식, 백과사전, 전문 용어, 분류 체계, 근대 학문
Song Wansik, encyclopedia, technical term, classification system, modern science

허 재 영

소 속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자우편 : hjy435@hanmail.net

논문 접수 : 2014. 10. 20.

논문 심사 : 2014. 10. 25. - 11.15.

게재 결정 : 2014. 11. 20.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말뭉치 자료 구축 방안 연구*

황성은** · 심혜령***

< 차례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말뭉치 자료 구축 방안
4. 결론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일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외국노동력,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의 증가 및 외국국적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늘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

* 이 논문은 2014년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은 한국어 학습의 목적이 그만큼 다양화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들의 한국어 학습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된 한국어 교육의 내용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¹⁾

한국어 교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습자군은 유학생으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013년 기준 85,923명에 이르는데 그 중 학위 과정 유학생이 56,715명에 달하고 있다.²⁾ 이렇게 한국어 수요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그들이 처한 학문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수학 목적 학습자를 위한 전문어 및 학문 학습용 기본어휘 선정 등에 관한 연구나 학문적 읽기 및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대학 수학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및 연구 등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및 교육 자료 개발의 공통적인 목적은 그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대학 수학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함과 동시에 학문적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어 교육의 경제성 및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언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이러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바로 어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어휘를 배우지 않고는 언어를 배울 수 없다³⁾고 할 정도로 언어 학습에서 어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어휘 학습의 비중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심혜령·황성은(2012)은 학위 과정 유학생들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 어휘 학습에 관한 어려움은 대학 수학

1) 심혜령(2010)은 한국어 학습자의 개별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며, 한국어 학습의 궁극적 목적을 직시한 어휘 선정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내 외국인 유학생	대학(학위+연수)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학위	40,585	50,591	60,000	63,653	60,589	56,715

3) Rivers(1981)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임을 언급하며 전공 및 교양서적에 등장하는 다양한 층위의 어휘들이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방해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대학 수학 전 이러한 어려움과 부담이 줄어든다면 수업의 이해도 및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제 수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어휘 교육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교육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부딪치게 되는 것이 ‘어떤 어휘를 가르쳐야 하는가?’이다. 즉, 모든 언어 교육에서는 어떠한 어휘를 선정하여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데, 대학 수학 목적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에서도 어휘 선정에 관한 문제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기간 특정 전공 내지는 특정 계열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어휘 및 전문어를 선정한 연구들이 있어 왔고, 교육 자료 개발 시 나름의 방식으로 선정한 어휘들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범계열 또는 범전공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어휘 또는 학문 계열 별 학술어휘라는 개념을 가지고 체계적인 기준 및 자료에 근거하여 어휘를 선정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대학 수학 목적 학습자가 전공 관련 수업만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양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본격적인 전공 어휘보다는 그를 위한 전 단계 어휘를 선형 지식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범계열 내지 범전공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전문어가 아닌 학문 수학을 위해 요구되는 어휘가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선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특정 목적을 위해 어휘를 선정하고자 결정했다면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어휘를 선정할 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어휘를 선정할 때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선정 작업을 진행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휘 선정은 선정 기준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구축된 자료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기준과 선정 작업에 의해 선택된 자료를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는 선정된 어휘의 교육적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문 수학을 위한 어휘, 이른바 학술어휘를 선정하기 위

한 진단계로서 학술어휘 선정에 필요한 말뭉치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 어휘 선정 연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학습자를 위해 연구되어 왔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보편성에 입각한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에서부터 특수성에 기반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나 결혼이주여성, 중도입국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어휘 선정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선정 연구 역시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먼저 국외 연구로는 Nation(1990, 2001)과 Coxhead(2000)가 대표적이다. Nation(1990, 2001)은 학술 텍스트에 등장하는 어휘를 살펴 빈도 및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학술어휘와 전문어휘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Coxhead(2000)는 학문분야를 기술, 과학, 법, 상업으로 나누고 각 분야마다 7개 과목을 선정, 총 28개 과목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말뭉치를 자료로 하여 570 단어족의 AWL(Academic Word List)를 작성하였다. Nation(2001)은 영어 기본 어휘 2,000여 개와 Coxhead(2000)에서 선정한 570 단어족을 이해하게 되면 학술 텍스트의 90%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신명선(2004),⁴⁾ 노구치 타카히로(2004), 김남예(2005), 강지현(2007), 유해준(2007), 김선숙(2008), 김은영(2008), 김유미·강현화(2008), 이상민(2009), 황성은(2011), 심혜령·황성은(2012) 등이 있는데, 신명선(2004)과 김

4) 신명선(2004)은 국어교육을 위한 사고도구어를 선정할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그의 연구 방법 및 성과는 한국어교육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기에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은영(2008)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유학생이 많이 진학하는 계열 내지는 전공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신명선(2004)은 ‘한국십진분류법’을 참고하여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예술 분야에 걸쳐 실제 학술적 텍스트인 소논문 및 단행본을 기반으로 말뭉치를 구축한 연구로, 구축한 말뭉치를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Academic Word List(AWL)를 선정할 후 이에 대한 교육 실태와 선정된 사고도구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은영(2008)은 ‘한국십진분류법’과 신명선(2004)의 학문 분류를 재정리하고 각 분야별 초록을 모아 말뭉치를 구축한 다음 그를 바탕으로 학술어의 각 학문 분야별 분포 양상을 비교·분석하여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815개의 학술어 목록을 작성하였다.⁵⁾

한국어교육 기관의 상황을 감안할 때,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반을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각 계열이나 전공을 분리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선정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유의미한 자료를 기반으로 말뭉치가 구축된 상태에서 어휘가 선정되어야 실효성 있는 한국어 교육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휘 선정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분명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이러한 기준 하에 말뭉치를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선정

5) 노구치 타카히로(2004)는 학회지에 나온 어휘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전공자를 위한 전문어휘를 선정하였다. 김남예(2005)는 인문계열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인문학 분야 학회지를 수집하여 절충식 방법으로 어휘를 선정하였다. 강지현(2007)은 상경계열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상경계열 학문용 기본어휘를 선정하였다. 유해준(2007)은 인문·사회 영역에서 어휘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김진숙(2008)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술도구어 추출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유미·강현화(2008)는 학술 전문어휘의 개념을 규정하고, 한국어·문학, 경영학, 컴퓨터학과를 대상으로 전공별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상민(2009)은 국내 대학 기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경영학 기본어휘를 선정하고 그 어휘 목록의 특성을 분석하여 경영학 기본어휘 교수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황정은(2011)은 신명선(2004)과 김은영(2008), 이상민(2009)에서 선정한 어휘들을 종합하여 A등급의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와 유의관계를 갖는 해당 목록의 학술어휘들을 정리한 후 학술어휘 목록들의 공기관계를 제시하였다.

하고자 하는 어휘들이 교육적 가치를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으로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될 것이라 사료된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술어휘의 개념

하나의 문장을 익히거나 하나의 문단을 읽거나 또는 한 편의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수많은 어휘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들의 의미 및 그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 비로소 텍스트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교수·학습함에 있어 어휘 교육 및 학습은 언어 학습의 기초이자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는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범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한 어휘가 속한 범주를 아는 것은 어휘 및 어휘 교육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범주는 교육 및 학습 목적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어휘의 의미나 정보에 대한 교육에 앞서 그 어휘들을 범주화함으로써 교육할 어휘에 교육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별 어휘를 놓고 이것이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무턱대고 논하기보다는 판단의 근거인 교육의 목적에 맞게 그것들을 범주화한 상태에서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목적에 따라 교육 및 학습할 어휘들은 달라지는 법이다. 따라서 이에 맞는 어휘들이 선정되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에서의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학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즉, BICS(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와 인지 및 학문적 언어 능력인 CALP(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가 요구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이 대학 수학 전 학습하는 한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지 및 학문적 언어 능력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여 대학 수학 전 인지 및 학문과 관련된 언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 수 있다면 그들이 목적인 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능력은 그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전공 서적 및 학술적 텍스트에 등장하는 어휘를 익히는 것으로 보다 손쉽게 갖추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전공 서적 및 학술적 텍스트에 어떠한 어휘들이 등장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들 어휘가 바로 학술어휘이다.

넓은 의미에서 학술어휘란 학문을 위해 익혀야 하는 모든 어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학문이란 어떤 한 분야의 특정 전공을 말하며 그 특정 전공을 수학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어휘가 학술어휘인 것이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어휘 범주에 속한 어휘도 있고, 어느 하나의 전공에만 등장하는 학술어휘인 전문 학술어휘와 해당 전공에 등장하면서 다른 전공에도 등장하는 학술어휘인 범용 학술어휘⁶⁾도 있다.

전공 서적 및 학술적 텍스트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모두 학술어휘 범주에 넣어 교육하기에는 교육 효과를 위한 어휘 범주화의 목적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과연 광의의 학술어휘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이 대안적 학습 효과를 얻게 해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술어휘의 개념을 광의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범주를 좁혀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학술어휘를 한정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그것을 정의해 왔는

6) 이 ‘범용 학술어휘’란 본 연구의 논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본고에서 마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데, 그 중 Nation(1990)은 학술적 텍스트에 나타나는 어휘들을 빈도와 속성에 따라 ‘기초어휘, 학술 도구어, 전문어, 저빈도어’로 분류하였다. ‘기초어휘’는 고빈도어로 학술적 텍스트 안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가장 먼저 학습하기 시작하는 어휘로 학문 목적 뿐 아니라 일반 목적 학습자들에게도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교육 대상이 되는 어휘이다. ‘학술 도구어’는 학술적 텍스트에서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어휘로 본고에서 말하는 범용 학술어휘라 할 수 있다. ‘전문어’는 전문적 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로 본고에서 말하는 전문 학술어휘에 해당하며, ‘저빈도어’는 전문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어휘로 자주 등장하지 않는 어휘를 말한다. 이때 기존 연구에서의 학술 도구어와 본고에서 제시하는 학술어휘는 다음과 같은 개념적 차이를 갖는다. 본고의 범용 학술어휘는 학술 도구어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도구적인 성격으로서의 어휘가 아니라 전문어의 반대축을 이루는 어휘들로서 학술적 행위를 할 때 두루 쓰이는 어휘를 말한다. 이는 학술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누구나 공히 이해하는 범주의 어휘들이다. 예를 들면 국어학을 하는 사람이 범용 학술어휘를 알면 경영학 논문을 읽을 때 일부 전문 용어 즉 전문적 개념어만 생소할 뿐 그 안에 쓰이는 용어들은 이해할 수 있다. 학술 도구어가 단순히 학술 단계를 위한 지지대와 같다면 범용 학술어휘는 학술 행위를 할 정도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히 두루 알고 있어야 하는 어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가치가 있는 어휘 범주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초어휘에 속한 어휘들은 이미 한국어 학습 초기에 교육이 이루어졌기에 대학 수학 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별도로 교육할 필요성이 적다. 또한 ‘전문어’는 모국어 화자 역시 이러한 어휘를 알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문어를 학습할 수 있는 언어 능력 및 인지 능력만을 갖추고 진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사가 이들 개별 어휘를 직접 교수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이들 어

휘를 학습할 수 있게 전략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저빈도어’는 출현 빈도가 낮으므로 우선 교육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즉, 정해진 시간 안에 학습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한 최선책으로서의 어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대학 수학 목적 학습자에게는 일상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어휘나 전략적 도움이 필요한 전문어, 우선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저빈도어보다는 학술어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휘의 개방성으로 인해 학술어휘는 전문어휘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Nation(2001)에서 전문어휘를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1에서 범주4로 분류하여 학술어휘와 전문어휘에 대해 그 경계를 나누어 보려 하였으나 여전히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다. 그가 말한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범주1 : 특별한 학문 분야(field) 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 범주2 : 특별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그 외 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 양쪽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가 다름.
- 범주3 : 특별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그 외의 분야에서도 나타남.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떤 학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는 일상 언어 사용의 예를 통해 추론할 수 있음.
- 범주4 : 학문 분야에서 잘 나타나기는 함. 심세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특수성은 거의 없음.

Nation(2001)은 그 단어가 특별한 영역에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따라 위와 같이 구분하였는데, 범주1과 2를 전문어휘로 구분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 범주3과 4를 전문어휘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김유미·강현화(2008)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Nation(2001)의 연구는 전문어휘를 논함에 특별한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그 구분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이는

본고에서 학술어휘와 전문어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근거를 제공한다.

본고는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문 학술어휘를 전문어휘로, 여러 학문에 두루 나타나는 범용 학술어휘를 학술어휘로 보고 이들을 구분하고자 한다. 다음의 예를 통해 학술어휘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어는 문장 중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된 성분이다.⁷⁾

여기에서 ‘독립어’나 ‘문장’은 언어학의 핵심 개념 중의 하나로 전문어휘이다. 그러나 ‘성분’의 경우 일반적 의미와 특정 영역에서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의미로 특정 영역에서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 학문에 대한 의존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어휘를 학술어휘의 범주 안에 넣고자 한다. ‘관련’은 일반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기본어휘라 할 수 있다.⁸⁾ 이러한 대분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구축된 말뭉치가 필요하다.

2.2. 말뭉치의 어휘 선정 자료로서의 의의

교육에 있어 그 첫 시작은 대상을 선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학술어휘도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학술어휘 선정 작업이

7) 표준국어문법론(2014 : 288)

8) ‘관련’을 기본어휘로 보고자 하나 추후에 어휘 분류 검토 과정에서 구어 말뭉치보다 학술적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말뭉치에서 자주 등장한다면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지닌 어휘들과 함께 전문가 평정을 거쳐 학술어휘 범주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 판단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뭉치 자료이다. 말뭉치는 조건만 만족할 수 있으면 작게는 시집 한 권이나 소설 한 편으로부터 1억 어절 이상의 말 또는 글로 표현된 각종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자료의 집합이 모두 해당되며, 그 내용도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말뭉치라는 용어는 연구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료를 대량으로 모았다고 해서 모두가 말뭉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말뭉치가 되어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⁹⁾

- 텍스트 수집이나 입력 과정에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언어의 다양한 변이를 담아내야 한다. 즉, 언어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 해당 언어의 통계적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 즉, 유의미한 규모로 확보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대표성’과 ‘균형성’이라는 특성을 지녀야 교육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말뭉치가 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최근의 언어 연구에서는 말뭉치를 좁게 보아,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를 갖추고 내용적으로 다양성과 균형성이 확보된 자료의 집합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는 말뭉치 언어학이 언어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은 빈도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다.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된 말뭉치를 이용하여 모국어 화자의 문어, 구어의 어휘 사용 빈도를 확인한 결과, 기초 어휘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모국어 화자가 빈도 높게 통용하는 기초어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9) 서상규·한영균 저(1999), 『국어정보학 입문』, 태학사.

하는 것이 언어교육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즉, 말뭉치를 활용하여 어휘를 선정한다는 것은 언어 학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어휘들의 교육적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빈도를 기준으로 하는 우선순위가 어휘 교육에서 해당 어휘가 차지하는 중요도의 전부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안적 효율성을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말뭉치 자료 구축 방안

학술어휘란 학문을 위해 접하게 되는 여러 학술적 텍스트에서 두루 등장하는 어휘이다. 유의미한 학술어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올바른 말뭉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학술어휘를 선정하기 위한 말뭉치 구축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3.1. 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학문 체계 설정

말뭉치 자료 구축에 있어 기저가 되는 실제 자료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 학술어휘의 경우 여러 학문에 두루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학문의 학술적 텍스트가 대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어떤 학문의 학술적 텍스트들을 말뭉치 자료에 포함할 것인지, 다양한 학문들의 비중 즉, 각 학문의 말뭉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다양한 학문들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뭉치에 어떤 자료는 포함하고 어떤 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면 어휘 선정의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학문 체계에 대한 분류가 우선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조사를 보면 학문 영역을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표준적인 학문 간 계열 체계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단적인 예로 ‘예체능계열’의 경우 각각 ‘예능계열’과 ‘체능계열’로 구분할 수 있고, 이때 ‘예능계열’은 그 이론적 기초로 이른바 ‘미학(美學)’이나 ‘예술학’이라고 불리는 순수 학문적 체계가 존재하며, ‘체능계열’ 역시 그 이론적 기초에 ‘물리학’이나 ‘생물학’, ‘운동역학’과 같은 순수 학문 체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예만 보더라도 행정부처의 학문 간 계열 구분이 다분히 분류 편의와 사회 현상적 결과에 의했다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학술적 활동을 위해 기초가 되는 ‘학술어휘’를 선정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보다 학술적 차원에서 학문 체계를 분류하고 이들 각 학문 간 거리를 설정해보고자 한다.

학문은 크게 인문학, 사회과학, 상학, 수학, 자연과학, 공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학문은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연구 분야로 삼고 있으면서도 타 학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논하는 학문인 인문학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함께 다루게 되는데 이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과학으로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과학에는 사회학, 정치학, 법학, 종교학, 예술학, 도덕학 등이 포함되는데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한 분석에 있어 경영학과 경제학을 빼고 논할 수 없다. 이 둘 즉, 상업 경영학과 상업 경제학, 무역학을 통틀어 상학이라고 하며, 상학이 가진 사회성으로 말미암아 사회과학과 상당히 가까운 자리에 놓이게 된다. 상업과 관련된 학문인 상학은 이윤 추구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수량 및 공간의 성질 등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인 수학과 인

접하게 된다. 학문으로서의 수학은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및 이를 응용하는 학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수학의 정밀한 수리적 방법으로 자연현상들 사이에 함수관계를 확정하는 등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자연과학이다. 이러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현재는 사회과학에서도 채택하여 심리학, 인류학, 지리학 등에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자연과학적 방법과 성과에 따라서 공업생산기술을 개발·실천하는 응용과학이 있는데 이러한 학문을 공학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학은 자연과학과 상당히 밀접한 학문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인접한 정도에 따른 학문 분류

계열	세부 학문
인문학	언어학, 문학, 예술학, 철학, 사학, ...
사회과학	사회학, 정치학, 종교학, 심리학, ...
상학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수학	대수학, 통계학, 기하학, 해석학, ...
자연과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천문학, ...
공학	건축공학,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

3.2. 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학술어휘 등급화

앞서 학문을 분류함에 학문 간 거리를 상정하였는데, 말뭉치 구축 단계에서 학문 간 거리에 따른 분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전공에 출현하는 학술어휘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에게 이를 구분하지 않고 범용 학술어휘라고 하여 모든 것을 제시하는 것은 어휘 교육적 효율성에 맞지 않고 부적절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용 학술어휘 선정을 보다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문을

분류할 때 학문 간 거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말뭉치 구축과 학술어휘의 위계화는 필히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위계화에 따라 말뭉치 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었을 때 범 학문에 걸쳐 나타나는 학술어휘의 선정이 보다 설득력을 가지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색인에는 그 책의 핵심 주제어에 해당되는 어휘를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색인에 담긴 전공 서적의 핵심 주제어는 당연히 전문어휘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전공 서적의 색인을 통해 전문 학술어휘인지 아닌지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범용 학술어휘는 다른 학문에 한 번이라도 등장한 어휘로 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분류한 학문 체계 중 학술어휘가 중복되어 등장하였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학문 체계에 따라 구축된 말뭉치 자료에서 공통 어휘를 추출할 때 얻을 수 있는 어휘 목록은 전 계열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어휘인지, 일부 계열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어휘인지, 각 계열 내 세부 학문 사이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어휘인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어떠한 학술어휘가 전 학문에서 중복되어 나타난다면 그 어휘의 유용성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어휘는 학문 목적에서 보자면 마치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와 같은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 대학 수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들이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1단계 학술어휘라 볼 수 있다.

두 계열 이상에서 중복되는 어휘는 1단계 학술어휘보다는 그 융통성의 측면에서 뒤쳐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어휘를 2단계 학술어휘로 볼 수 있는데, 2단계 학술어휘에서는 몇 개의 계열에서 중복을 보이는지, 중복 어휘가 나타난 계열 간의 거리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등급을 세분화할 수도 있다. 더 많은 중복을 보이거나 계열 간 거리가 먼 학문에서 중복을 보인다면 여타의 2단계 학술어휘보다 우선적으로 교육할 가치가 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문학이라는 한

계열에 속한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을 선정하여 2단계 범용 학술어휘를 뽑게 되면 전문 학술어휘라 할 수 있는 ‘동사’와 같은 단어가 범용 학술어휘가 되어 버리는 오류들이 나올 수 있어 하나의 학문 내에서 2단계 어휘를 추출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렇다고 분류한 학문 내에 속한 세부 학문들 간 중복 어휘를 교육적 가치가 없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 즉,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각 계열 내 세부 학문끼리 중복되어 나타나는 학술어휘이다. 이를 3단계 학술어휘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선 1단계와 2단계보다 교육적 우선순위 면에서는 뒤에 있다 볼 수 있다. 전공 서적 및 학술적 텍스트에 등장하는 어휘의 유형과 학술어휘를 등급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전공 서적 및 학술적 텍스트에 등장하는 어휘 분류

분류		개념	
기본어휘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어휘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 -기준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학술어휘	범용 학술어휘	1단계	전 계열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어휘
		2단계	두 개 이상의 계열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어휘
		3단계	각 계열 안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어휘
	전문 학술어휘	하나의 세부 학문 일명 전공에서 나타나는 어휘	

학술어휘의 출현 범위에 따른 위계화는 1, 2, 3단계 어휘를 분류하는 기준임과 동시에 전공에 따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어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준도 될 수 있다. 이러한 단계 구분은 필요에 의해 1단계 어휘를 제외한 2단계나 3단계 어휘를 선택적으로 학습하거나 교수할 수 있다는 이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3.3. 말뭉치 자료 선정의 실제

위와 같이 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말뭉치 자료 구축의 기저가 되는 학문과 등급을 분류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말뭉치 자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각 계열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어져야 한다. 이는 말뭉치 자료의 특징 중 하나인 대표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단계로, 말뭉치 구축 자료가 무엇이나에 따라 대표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가 구성하고자 하는 <형태 분석 말뭉치>의 설계 및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말뭉치를 구성할 학문 분야는 앞서 분류한 목록을 따른다. 단, 선정하고자 하는 학술어휘의 단계에 따라 학문 분야를 선택하여 말뭉치를 구성할 수 있다.
- 말뭉치는 각 학문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단행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대학 수학 시 학습자들이 접하게 되는 일차적인 학술적 텍스트는 단행본으로 구성된 수업 교재이므로 이를 말뭉치로 구축한다.
- 말뭉치의 크기는 250~300만 어절로 구성한다. 각 학문 분야별로 구축된 말뭉치의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계한다.

단행본을 말뭉치 자료로 구성한다고 할 때에 수많은 단행본 중 어떤 것을 그 자료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고는 각 학문마다 그 학문으로의 진입을 돕는 기본 교재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교재들을 찾아 선정하고자 한다.

이들은 대부분 ‘○○학 개론’, ‘○○학 원론’, ‘○○의 기초’, ‘○○의 이해’, ‘○○(해당 학문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적들이 해당 학문을 대표하는 기본 교재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적들은 각 학문에서 다루는 보편적이고 기본

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석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단행본 중 학문 분류에 속한 학문의 이름이 포함되어 위와 같은 제목을 달고 있는 서적들을 어휘 선정을 위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다음으로 2단계 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말뭉치 자료 선정 절차가 필요하다. 2단계 학술어휘는 학문 간 거리가 멀어야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양극단에 있는 인문학과 공학,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 놓인 상학의 자료를 말뭉치 자료로 구축하여 유의미한 2단계 학술어휘를 선정할 수 있다.¹⁰⁾ 그 선정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량이 높은 순위의 교재를 선택한다. 2013년 랭키닷컴에서 온라인 서점 순위를 알아본 결과 에스**가 1위를 차지하였고, 인**크 도서, 교**고가 그 뒤를 이었다.¹¹⁾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세 사이트에서 판매량이 높은 한국어, 경영학, 컴퓨터공학 서적을 선택하고자 한다.
- 1위에서 3위까지의 사이트에서 ‘한국어학 개론, 한국어학원론, 한국어의 기초, 한국어의 이해, 한국의 언어, 한국어학’을 검색하여 나온 결과물 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책을 선정하되 각 사이트의 도서 분류에서 <대학 전공/교양서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서적을 최종 선택한다.
- 1위에서 3위까지의 사이트에서 ‘경영학 개론, 경영학원론, 경영학의 기초, 경영학의 이해, 경영학’을 검색하여 나온 결과물에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선택한다.
- 1위에서 3위까지의 사이트에서 ‘컴퓨터공학 개론, 컴퓨터공학원론, 컴퓨터공학의 기초, 컴퓨터공학의 이해, 컴퓨터공학’을 검색하여 나온

10) 이들 학문 중 유학생이 많이 진학하는 전공을 들어 자료 선정 절차의 예로 보이고자 한다.

11) 2013년 온라인 서점 순위 <자료 · 랭키닷컴(<http://www.rankey.com>)>

1위	에스**	2위	인**크	3위	교**고	4위	알**	5위	반****스
6위	도****가	7위	리**	8위	영**고	9위	북**	10위	다**

결과물에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선택한다.

- 각 사이트에서 나온 결과물을 종합하여 말뭉치 자료 구축의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판매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그 안에 담긴 어휘는 학술적 행위를 함에 있어 이해 및 사용에 상대적으로 유용할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가 해당 학문에서 사용되는 전문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그 주변부에 있는 어휘를 선정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처럼 판매량이 높은 서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각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판매율이 높은 순위로 제시한 것이다.¹²⁾

- 신지영 등(2012.02), 『한국어학의 이해』, 지식과 교양(13점¹³⁾)
- 이익섭 등(2008.02),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10점)
- 조오현 등(2008.08), 『한국어학의 이해』, 소통(9점)
- 김진호(201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개론』, 박이정(8점)
- 정경일 등(2000.02), 『한국어의 탐구와 이해』, 박이정(5점)

‘에스 **’의 경우 도서의 판매량이 확인되어 각각의 검색어를 입력한 후 판매량이 많은 순서로 정리하였으나 ‘인**크 도서’ 및 ‘교**고’는 판매량순과 인기도순으로 검색되어 검색어를 넓게 입력한 후 본고에서 찾고자 하는 제목의 도서를 임의로 순위를 매겨 정리한 후 세 사이트의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이는 경영학 관련 도서를 검색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다음은 경영학 관련 말뭉치 자료 선정을 위해 서적의 판매량 및 판매순위를 정리한 것이다.

12) 조사기간 : 2014년 5월 27일~2014년 6월 9일.

13) 총점은 각 사이트에서 나온 순위에 따라 점수를 합산한 것이다. 판매량이나 판매 순위가 높은 것을 5점으로, 낮은 것을 1점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 장영광, 정기만 공저(2011.08), 『생활속의 경영학』, 신영사(12점)
- William G. Nickels 등저/권구혁 등역(2012.03), 『경영학의 이해』, 생능 (12점)
- 김광희(2012.03), 『누워서 읽는 경영학원론』, 내하(11 점)
- 전수환(2013.06), 『에센스 경영학』, 세경북스(9점)
- 최중락(2012.11), 『경영학개론』, 법문사(5 점)

컴퓨터공학 관련 서적 역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다음은 각 사이트에서 컴퓨터공학 관련 서적을 검색하여 나온 결과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 양희준 등(2000.02), 『컴퓨터공학 개론』, 보문당(11 점)
- 남권희 등(2000.12), 『전기 전자 컴퓨터 공학 정보가이드』, 태일사(11 점)
- 조성제 등(2000.03), 『컴퓨터공학 개론』, 대영사(9점)
- 이배호 등(2005.02), 『21세기 컴퓨터공학개론』, 전남대학교출판부(6점)
- 이종근 등(2009.02), 『컴퓨터공학 개론』, 한산(5 점)

컴퓨터공학 관련 도서의 경우 실습을 담당하는 도서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교재라기보다 컴퓨터 화면을 보이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교재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언어 연구의 자료로 구축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자료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 진행 과정 중 2단계 학술어휘 선정을 예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위의 자료 중 1순위에 선정된 자료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말뭉치로 구축하였다.¹⁴⁾

- 말뭉치 자료로 구축할 어휘는 단어외는 차이가 있다. 문장 단위로 구

14) 본고는 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말뭉치 자료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선정 과정을 보이교자 하는 것이기에 자료의 일부만을 예로 들어 학술어휘를 선정하여 보았다.

성되어 의미를 발현하는 어휘는 제외하고, 구 단위로 구성되어 의미를 발현하는 어휘의 경우는 구 단위라도 하나의 의미라면 어휘의 범주 안에 넣어 자료 구축 대상으로 삼는다.

- 학술어휘로 선정할 어휘는 체언류로 한정하되 ‘어근+하다/되다’로 구성된 용언류는 어근만을 분리하여 대상에 포함한다.
- ‘-이, -히, -게’ 등이 붙어 부사가 된 어휘 역시 ‘-이, -히, -게’를 제외한 어휘만을 말뭉치 자료 구축 대상으로 삼는다.

다음은 각 개론서에서 추출한 어휘 중 세 학문에서 모두 등장한 어휘 목록의 일부이다.

각도, 개념, 결과, 고려, 수단, 언급, 영역, 우려, 주목, 평가, 현상, 현실, ...

다음은 학문 간 거리가 먼 경우로, 한국어학과 컴퓨터공학에 중복되어 등장한 어휘의 일부이다.

가산, 각도, 간판, 간행, 값, 개념, 개발, 검출, 결과, 결론, 경우, 경제성, 계산기, 고려, 고안, 관계, 관습, 교체, 구별, 구분, 구성, 규칙, 그림, 근래, 기능, 길이, 논리, 단위, 대립, 대응, 대표, ...

세 학문 중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한국어학과 경영학에 중복되어 등장한 어휘 목록 중 일부이다.

각도, 간과, 개념, 건물, 결과, 고려, 고안, 과거, 관찰, 명백, 문제, 문헌, 산물, 상황, 생산성, 서양, 수단, 언급, 연구, 영역, 요구, 인식, 저술, 적용, 정도, 정부기관, 주목, 주장, 지적, 지혜, 평가, ...

다음은 경영학과 컴퓨터공학에서 중복되어 나타난 어휘 목록 중 일부이다.

개념, 결과, 고려, 관계, 수단, 언급, 영역, 우려, 주목, 표시, 표현, ...

위의 목록에는 한국어 교육에서 접하게 되는 교육용 기본어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유의미한 학술어휘를 선정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용 어휘와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국립국어원에서 개발 및 구축한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1단계와 2단계, 3단계의 어휘 목록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사업으로 대규모 자료를 구축하여 이루어졌기에 활용되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각 서적의 색인에 포함된 어휘는 범용 학술어휘가 아닌 전문 학술어휘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에 이 또한 확인하여 제외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2단계 범용 학술어휘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각도, 가산, 간행, 검출, 경제성, 고안, 관습, 동사, 명사, 물리적, 배열, 범주, 변환, 보수적, 부호, 서술, 수치, 예문, 입력, 저술, 정착, 조처, 지명, 착안, ...

4. 결론

본고는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적 언어 능력 향상을 궁극적 목적으로 두고, 그들이 처한 학문적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적 교육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학문 수학을 위해 요구되는 학술어휘 선정에 필요한 말뭉치 자료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학술어휘란 전공 서적 및 학술적 텍스트에 등장하는 학문 수학을 위한 어휘를 말하는데, 이들 어휘가 올바른 자료와 기준, 절차에 의해 선정될 수만 있다면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 상당한 교육적 가치가 있을 것

이다.

그를 위해 본고에서는 학술어휘의 개념을 보다 상세히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된 학술어휘를 선정하기 위한 효율적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학술어휘 선정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학술적 차원에서의 학문 분류와 그를 기반으로 한 학문 간 거리의 상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추후 본고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학문 간 거리 상정에 의한 단계별 어휘 목록이 나온다면 한국어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진학 목적 학습자를 위한 유용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강범모(1998), “제2부 말뭉치와 언어 정보의 추출: 빈도와 언어 기술”, 『언어정보개발연구』 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07-132쪽.
- 강지현(2007),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상경계열 학문용 기본어휘 선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현화(2011),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자료 구축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7-42쪽.
- 고경태(2010), “한국어교육에서 일반 말뭉치 활용의 확대를 위한 제언”, 『국어문학』 49, 국어문학회, 65-88쪽.
- 고영근·남기삼(2014), 『표준국어문법론』, 박이정.
- 김낭예(2005), “학문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방안 연구—인문계열 학습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숙(2008),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술도구어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미·강현화(2008),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학술 전문어휘 선정 연구—한국어, 문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전공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19-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4쪽.
- 김은영(2008), “한국어 교육용 학술어 선정과 공기관계 연구: 명사 분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구치 타카히로(2004), “한국어교육 전공자용 한국어 전문어휘 교육 연구”, 경희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상규 · 한영균(1999), 『국어정보학 입문』, 태학사.

신명선(2004), “국어 사고도구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혜령(2007a),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를 위한 한자어 명사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한국어학』 36, 한국어학회, 123-164쪽.

심혜령(2007b), “한국어 교육용 기초 한자어 명사의 공기 관계 연구—한중 대조 연구를 예시로 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혜령(2010), “한국어 학습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어휘력 제고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5,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원, 101-128쪽.

심혜령 · 황성은(2012),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술어휘 교육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2-172쪽.

심혜령 · 황성은(2014), “학문 목적 한국어 교실에서의 학술어휘 교육에 대한 방향성 모색”,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43쪽.

유해준(2007).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본 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인문·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상민(2009),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경영학 기본어휘 선정 및 분석—경영학 전공 기본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남호(2003b), “말뭉치를 활용한 어휘 빈도 조사”, 『텍스트언어학』 1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33-52쪽.

황성은(2011),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에 대한 학술어 유의어 연구—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oxhead, A(2000), “A new Academic Word List”, *TESOL Quarterly*, 34(2), 213-238.

Nation, I. S. P.(1990),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Heinle & Heinle Publishers.

Nation, I. S. P.(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vers, W. M.(1981).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2nd. e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A Study on Corpus data Construction for Academic Vocabulary Selection Targeting at the Learners having an Academic Purpose

Hwang Shung-eun · Shim Hye-ryeo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as the preparatory stage of selecting the academic vocabularies is to prepare the construction corpus data for the academic vocabulary selection.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aiming for the university study comprise a large par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ir linguistic ability.

The aim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are two. One is to acquire the communication skills for their daily life and the other is to have the cognitive and academic proficiency. The former aim has been fulfilled generally in Korean language classes. However, the education for the latter is insufficient, so it is urgent to educate the learners. The most appropriate way for this is the vocabulary instruction considering economic effects and effectiveness. For the vocabulary instruction, to select appropriate vocabularies and determine constructed data to select such vocabularies are preceded and these are very important processes.

So, this thesis defines the concept of the academic vocabulary and examines the meaning of the corpus data. Based on this purpose, the academic system was set up not for the scheme of construction reflecting administrative

convenience, but for the selection of the academic vocabulary. Also, the grades of the selected vocabularies were subdivided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priority and selected vocabularies as the corpus data are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academic scope and interdisciplinary distance. Finally, this thesis suggests a part of process of the selecting vocabularies and real studying.

- **주제어** : 학술어휘, 어휘 선정, 말뭉치, 학문 목적 학습자, 말뭉치 자료 구축
academic vocabulary, vocabulary selection, corpus, Korean students of academic purpose, corpus data construction

황 성 은

소 속 :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전자우편 : hseun20@hanmail.net

심 해 령

소 속 : 배재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전자우편 : Shimhr@pcu.ac.kr

논문 접수 : 2014. 10. 25.
논문 심사 : 2014. 10. 25. - 11. 15.
게재 결정 : 2014. 11. 20.

<알 림>

학회지 간행 및 심사 규정

제1장 학회지

제1조 (학회지 이름) 우리 학회의 학회지는 “한말연구”라 한다.

제2조 (발간 시기) “한말연구”는 해마다 2회 정시(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2001.06.30. 개정>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지를 기획하고, 심사자를 위촉하며, 게재할 원고를 결정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출판부 이사를 포함해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 위원 선정)

- ① 편집 위원은 뛰어난 연구 업적을 가진 이 가운데 세부 학문 분야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편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 ④ 편집위원회에는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외에 책임 위원을 둘 수 있다. <2011.03.30. 신설>

제6조 (회의)

- ① 학회지 발간 60일 전에 정기 편집 회의는 연다.
- ②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 회의를 연다.
- ③ 편집 회의는 통신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제7조 (심사 대상) ① 학회지에 실을 논문, 자료 및 소개, 서평 등(이하 ‘원고’라 함)은 모두 심사를 거친다.

제8조 (심사 의뢰)

- ① 원고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편집위원회에서는 총무부 및 재무부와 연락하여 원고 투고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다. <2011.03.30. 신설>
- ② 투고자의 자격이 확인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해당 분야의 전공자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012.10.30. 일부개정>
- ③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9조 (심사 기간) 심사자는 심사를 위촉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심사 방법)

- ① 원고 심사는 객관식 심사와 서술식 논평으로 나눈다. <2011.03.30. 개정>
- ② 객관식 심사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2011.03.30. 개정>
 1. ‘원고 심사 결과서’에 제시된 각각의 심사 항목에 대해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은 A+로부터 D0까지의 8개 등급으로 나눈다.
 2. ‘최종 판정’은 ‘게재 가’, ‘수정 뒤 게재’, ‘수정 뒤 재심’, ‘게재 불가’ 가운데 하나로 판정하되, ‘게재 가’와 ‘수정 뒤 게재’는 종합 등급이 B0 이상이어야 한다.
 3. ‘원고 심사 결과서’의 심사 항목과 형식은 따로 정한다(서식 1).
- ③ 서술식 논평은 ‘심사 의견서’로 작성하되,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2011.03.30. 개정>
 1. 심사 항목별 세부 의견을 기술한다.
 2.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 수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3.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 ④ 심사자는 가능한 한 개인적인 견해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수행하며, 잘못된 자료의 제시, 논리상의 오류나 명백한 해석의 잘못이 아니라면 가능한 투고자(글쓴이)의

태도를 존중해야 한다.

제11조 (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 청구)

-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자들로부터 받은 원고 심사 결과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일단 결과를 확정한다. <2011.03.30. 개정>
- ② 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심사 의견서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심사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2011.03.30. 신설>
- ③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심사 결과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을 판단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에 따른 심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12조 (게재)

-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② 동점일 경우, 먼저 접수한 원고를 우선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내용 수정 지시로 편집 마감 시간을 넘기거나 편수 제한 등으로 앞선 호에서 넘어온 원고를 우선하여 게재한다.

제13조 (비밀 유지)

- ① 원고 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자에게 투고자(글쓴이)의 성명과 신분은 밝히지 않는다.
- ② 심사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③ ‘원고 심사 결과서’(심사 의견서 포함) 원본은 학회에서 보관한다.

제4장 논문의 취소와 별칙

제14조 (논문 게재의 취소)

- ①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한말연구”에 투고하여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한말연구”에 투고하여 게재된 논문이 그 뒤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게재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투고자가 자기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저서의 일부로 그 논문을 수록하거나, 그 논문을 바탕으로 논의를 명백히 확대 또는 발전시킨 경우는 취소하지 않는다. <2007.11.29. 제14조 신설>

제15조 (벌칙) 제14조 및 이에 준하는 중복 게재를 한 투고자는 “한말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 <20 07.11.29. 신설>

제5장 그 밖

제16조 (관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정(2000.06.30. 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2003.10.30. 전면 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2007.11.29. 일부 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2011.03.30. 일부 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2011.08.20. 일부 개정)은 201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2012.10.31. 일부 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한말연구』 원고 심사 결과서

원고 종류	논문, 자료 발굴/소개, 서평, 기타		
글 쓴 이	밝히지 않음	투고자 소속	밝히지 않음
제 목			
원고 접수	20 년 월 일	심사일	20 년 월 일

내용 심사 결과표

심사 항목	A+	A0	B+	B0	C+	C0	D+	D0
(1) 논문 주제의 적절성								
(2) 연구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독창성								
(4) 논문의 체계성과 서술의 논리성								
(5) 앞선 연구의 적절한 인용과 비판								
(6) 연구 결과의 객관성 및 기여도								
(7) 본 학회지의 성격과 맞는가?								
최종 판정	게재 가능, 수정 뒤 게재, 수정 뒤 재심사, 게재 불가							

심사자 : _____ (서명)

※ 다음 쪽에 ‘심사 의견서’를 첨부함.

심사 의견서	
원고 제목	
심사자	

학회지 투고 규정

제1장 투고 원칙

제1조 (투고 자격)

- ① 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투고일 직전 2년치)를 납부한 사람. <2011.03.30. 개정>
- ② 학회 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2조 (원고 내용)

- ① 국어학 및 언어학 이론 및 현상에 대한 연구
- ② 국어 교육학 및 한국어 교육 논문. <2012.10.31. 개정>
- ③ 위 ①이나 ②와 관련된 자료 및 소개.
- ④ 위 ①이나 ②와 관련된 서평 등.

제3조 (원고 접수)

- ①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한다. 다만 발간 예정 두 달 전까지 접수한 원고를 우선하여 심사한다.
- ② 원고는 『한말연구』 투고 신청서(서식은 뒤에 따로 붙임)와 전자우편 제출한다. <2012.10.31. 개정>
- ③ 원고를 제출한 뒤 투고자는 원고 접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2.10.31. 개정>

제4조 (심사료 및 게재료)

- ①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밀린 연회비(제1조 참조)와 심사료 6만 원을 함께 내어야 한다. <2012.10.31. 개정>
- ②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게재료를 내어야 한다.
가. 전임 교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신분의 사람이면 10만 원, 그밖의 사람이면 5만 원을 내어야 한다. <2011.03.30. 개정> 다만 분량이 학회지로 25쪽을 넘으면 1쪽에 1만 원씩을 더 내어야 한다.

나.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결과물은 30만 원을 내어야 한다. 다만 학회지로 25쪽을 넘으면 1쪽에 1만 원씩을 더 내어야 한다. <2011.03.30. 개정>

제2장 투고 형식

제5조 (작성 언어)

- ① 원고는 한국어나 외국어로 작성하되, 혼용하지 않는다. <2011.03.30. 개정>
- ② 원고는 ‘한글’(97 이상)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원고 체재)

- ① 개별 원고의 기본 체재는 다음과 같다.
논문 제목(과 부제)－글쓴이 성명－목차－본문 내용－참고 문헌－외국어 초록(제목－글쓴이 성명－내용)－주제어(한국어 및 외국어)－글쓴이 소개－논문 접수일 및 게재 결정일.
- ② 장절의 번호는 1. > 1.1 > 1.1.1 > [1] 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하의 단위는 글쓴이가 정한다.
- ③ 각주는 내용주를 원칙으로 하며, 각주 번호는 1), 2), 3) , …으로 표시한다.
- ④ 예문 번호는 (1), (2) (3), …으로 하고 세부 항목은 ㄱ, ㄴ, ㄷ, …으로 표시한다. 본문에서 예문을 지시할 때는 (1ㄱ), (1ㄴ), (1ㄷ) , …처럼 한다.
- ⑤ 모든 그림과 표에는 번호와 이름을 붙인다. 번호는 [그림 1], <표 1> 등과 같이 표시하며, 그림 번호는 그림의 밑에, 표 번호는 표의 위에 붙인다.
- ⑥ 참고 문헌의 수록은 한국어 문헌, 중국 문헌, 일본 문헌, 기타 외국 문헌 순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홍길동(2000ㄱ), 『단행본 제목』, 중국(발행지가 해외일 경우 표시함), 출판사.
홍길동(2000ㄴ), “논문 제목”, 『게재지 이름(한말연구)』 33.(0권 0호의 숫자만 표시함), 한말연구학회, 00-00쪽.

홍길동(2000ㄷ), “논문 제목”, ○○대학교 ○○학위논문.

(외국 논저는 일반 관례에 따름)

- ⑦ 외국어 초록은 편집 용지를 기준으로 2쪽 정도로 한다.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 ⑧ 글쓴이의 로마자 표기는 성과 이름 순으로 한다. 성과 이름 사이에 반점은 쓰지 않는다.
- ⑨ 외국어 초록 뒤에 한국어와 영어 주제어를 각각 5개 내외 첨부한다.
- ⑩ 제출한 원고가 학회에서 정한 체제에 어긋날 경우, 또는 편집상의 제약이 있을 때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의 체제나 형식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판짜기)

- ① 학회지에 투고할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기준(‘한글 2005’ 기준)으로 판짜기를 한다.

가. 편집 용지 : 사용자 정의-너비 147, 길이 210

나. 여백 주기 : 위 10, 아래 7, 머리말 10, 꼬리말 12.7, 좌우 19

다. 글자 모양(공통) : 장평 95%, 자간 -4

라. 글자 풀 및 크기, 줄 간격

<첫면>

논문 제목 : 태명조, 크기 15p

글쓴이 성명 : 과량새, 크기 13p

목차 : 신명조, 크기 9p

<본문>

본문 : 신명조, 크기 10.5p, 줄 간격 172%

예문 : 신명조, 크기 9.5p, 줄 간격 150%

각주 : 신명조, 크기 9.5p, 줄 간격 130%

장 번호 : 태명조, 크기 13.5p

절 번호 : 중명조, 크기 11.5p

소절 번호 : 윤고딕, 크기 10p

<참고 문헌>

제목 : 태명조, 크기 11.5p

내용 : 신명조, 크기 9.5p, 줄 간격 150%

<외국어 초록>

제목 : 태명조, 크기 13p

글쓴이 성명 : 태명조, 크기 11.5p

내용 : 신명조, 크기 9.5p, 줄 간격 172%

- ② 투고한 원고가 편집 원칙에 어긋났을 경우에, 편집자는 위에 정한 원칙에 따라 고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2000.06.30. 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2003.10.30. 전면 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2008.07.12. 일부 개정)은 200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2011.03.30. 일부 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2011.03.30. 일부 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2012.10.31. 일부 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2013.10.31. 일부 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2>

『한말연구』 투고 신청서

투고자 성명	한 글		소속	직위
	로마자			
최종 학위				
주소	(우편물 받을 곳)			
전자우편				
전화 연락처	집	일터	손전화	
논문 제목	한국어			
	외국어			
투고일		접수 확인		
회원 여부	나는 한말연구학회 {회원임, 회원이 아님}.			
연구비 수혜 여부	위의 논문은 연구비를 {지원 받은, 지원 받지 않은} 논문임.			
중복 투고 여부	위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함.			
전자파일 원문 제공 동의	투고한 논문이 『한말연구』에 게재되면, 같은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전문 학술정보 사이트에 전자파일 형태로 원문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나는 위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또 동의하여 위의 논문을 『한말연구』 제 호에 투고합니다.				
20 년 월 일				
투고자 성명 :				
한말연구학회 귀하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말연구학회(이하 ‘이 학회’라 함) 회칙 제23조에 의거하여, 건전한 연구 윤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글쓴이와 편집위원회와 심사자의 연구 윤리를 규정하며, 이에 따른 일들을 관장할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03. 30. 개정>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한말연구학회 회원(이하 ‘회원’이 함)을 비롯하여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이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이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제4조 (서약)

- ① 이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규정에 따를 것을 서약해야 한다.
- ② 이 연구윤리규정 발효 시점의 회원은 이 규약을 따르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연구윤리 준수 의무

제1절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무

제5조 (표절 금지)

- ① 연구자는 투고, 제안, 수행 결과 보고나 발표 등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 ② 연구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유용하지 않는다.

- 제6조 (중복 투고 금지) 연구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에 대해 이를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 제7조 (위조 및 변조 금지)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하여 연구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2011.03.30. 신설>
- 제8조 (부정행위 금지) 연구자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11.03.30. 신설>
- 제9조 (명목상 저자 불인정)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이바지한 연구에 대해서만 글쓴이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직접 참여하거나 이바지한 바가 없는 연구에 대해 자신을 글쓴이로 올려서는 안 된다.
- 제10조 (공동 연구 저자 표시) 공동 연구의 경우 글쓴이의 순서는 상대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직하게 표시해야 한다. <2011.03.30. 신설>

제2절 편집위원회의 연구윤리 의무

- 제11조 (투고자 존중)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제12조 (엄정·공정한 집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게재 여부 결정 등, 모든 과정을 정해진 이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제13조 (심사자 선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자를 선정할 때에 학술 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되,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나이, 개인적인 친분 등을 고려하여 치우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14조 (심사자 비공개)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글쓴이에게 심사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자의 연구윤리 의무

제15조 (성실한 심사)

-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 ② 본인이 심사자로서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바로 알려야 한다.

제16조 (투고자 존중) 심사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글쓴이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글쓴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부정 의혹 고지)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이 이미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표절로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011.03.30. 신설>

제18조 (선의의 표절 예방) 심사자는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심사 대상 논문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과 일치할 때에는 사실 확인을 거치거나 글쓴이에게 알려 선의의 표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11. 03.30. 신설>

제19조 (비밀 보장)

- ① 심사자는 심사한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때까지 글쓴이와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심사자는 심사한 논문의 내용을 글쓴이의 동의 없이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20조 (설치) 이 학회의 연구 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21조 (구성과 임기)

- ① 위원회는 총무부 이사와 출판부 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11.03.30. 개정>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당연직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2011.03.30. 개정>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서기는 위원회의 기록과 실무를 담당한다.

제22조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2011.03.30. 각항 신설>

1.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2.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수행한다.
3. 연구 부정 행위를 심의하고 판정한다.
4. 연구 부정 행위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23조 (회의 및 의결)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원이나 이해 당사자나 학회의 회장 또는 연구윤리 위원 3인 이상의 요청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1.03.30. 개정>
- ④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심의 요청 및 위원회 소집)

- ① 회원이나 이해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심의 요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에게 알리고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③ 심의와 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011.03.30. 신설>
- ④ 심의 요청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는다. <2011.03.30. 신설>

제25조 (심의 절차)

- ① 위원회는 접수된 사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외부 심의 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연구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⑥ 위원회는 심의의 모든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 결정문은 심의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26조 (결과 보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즉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보 및 심의 내용 <2011.03.30. 신설>
- 2. 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3. 심의 절차
4. 심의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5. 심의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절차
6.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정도 <2011.03.30. 신설>

제27조 (징계 절차 및 내용)

-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접수하면,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②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리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2. 해당 발표를 취소한다.
 3. 학회의 학술지에 일정 기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3.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일정 기간 발표를 금지한다.
 4. 회원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한다.
 5. 학회의 가입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한다.
 6. 주의 또는 경고 서면을 발송한다.
- ③ 징계 결과는 심의 요청자와 연구윤리규정 위반 당사자에게 즉시 알린다. <2011.03.30. 신설>
- ④ 위반 사항은 이 학회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지한다. <2011.03.30. 신설>

제4장 규정 개정

제28조 (규정 개정)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이 수정되었을 때에는 바로 공고하고 일정 기간 이의가 없을 경우 기존 회원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새로운 규정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2007.11.29. 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1.03.30. 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 후기

- 『한말연구』 제35호는 2014년 10월 20일까지 투고를 받은 결과 모두 19편의 논문이 접수되었다. 2014년 10월 25일 편집 위원회에서 해당 논문마다 3인의 심사 위원을 배정하고, 11월 15일까지 심사를 의뢰하였다. 심사 결과는 게재 가능 4편, 수정 후 게재 8편, 수정 후 재심 1편, 게재 불가 6편으로 나타났다. 편집 위원회에서는 수정 후 재심 1편을 재심한 결과 게재 가능한 논문으로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35호의 게재율은 68.42%이다.

- 한말연구학회 활동 내역(2014.01.01.~2014.12.01.)

날짜	내 용
2014.02.07.	제39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상허연구원)
2014.02.19.	재단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및 DOI 지원 설명회 참석 (연구재단 대전청사 연구관 1층 대강당/총무부)
2014.02.28.	제40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 모집 공고 (누리집, 전자우편)
2014.03.14.	한말연구 34호 논문 모집 공고 (누리집, 전자우편)
2014.03.17.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지원사업 신청
2014.03.21.	국립국어원 국어연감 내용 보완 제출
2014.03.21.	2014년 DOI 사업 신청
2014.03.23.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발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2013년 한말연구 발간 지원 선정건)
2014.04.15. ~2014.06.29.	한말연구 34호 논문 접수 및 심사 진행 교열 및 교정
2014.06.30.	한말연구 34호 발행

384 한말연구 제35호 (2014, 12)

2014.06.30.	2014년 DOI 사업 신청 승인
2014.07.18	제40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평택대학교 제2피어션 빌딩)
2014.08.18.	2014년 DOI 협약 체결
2014.09.11.	한말연구 35호 논문 모집 공고 (누리집, 전자우편)
2014.10.13.	한국연구재단 국내학술지지원사업 신청
2014.10.15. ~2014.12.29.	한말연구 35호 논문 접수 및 심사 진행 교열 및 교정
2014.10.30.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말연구학회’ 항목 신규 집필
2014년 상시	학회 공문(직위증명서, 게재예정증명서 등) 발급, 발송 홈페이지 주소록(변경된 소속정보, 연락처 등) 갱신 한말연구학회 홈페이지 관리, 게시판 질의에 대한 응답, 학회 소식 및 학계 소식 공지 학회 페이스북 운영

『한말연구』 제36호 원고 모집 안내

- (1) 출판 예정 : 2015년 6월 30일
- (2) 원고 마감 : 2015년 4월 30일
- (3) 투고 자격 : 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투고일 직전 2년치)를 납부한 사람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 (4) 투고 내용 : 국어학, 언어학, 국어 교육학, 한국어 교육(어학 관련) 등.
- (5) 투고 방법 : ‘한글’로 작성하며, 투고 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hanedit@hanmail.net)으로 제출.
- (6) 심사비 : 6만 원(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게재가 결정된 후 소정의 게재료를 내어야 함. ‘투고 규정’ 참조)
- (7)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5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함.
- (8) 원고 형식 : 다음 ‘논문 형식’과 『한말연구』 35호 참조.
- (9) 투고한 논문은 우리 학회에서 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함.

※ 논문 형식(한글 2007 기준)

- ① 편집 용지 : 사용자 정의-너비 147, 길이, 210
- ② 여백 주기 : 위/아래-7, 머리말/꼬리말-10, 좌우-17
- ③ 기본 체제 : 논문 제목(부제)-투고자-차례-내용-투고자 소개-논문 접수한 날, 논문 심사한 날, 게재 확정된 날-참고 문헌-영문 초록(영문 제목-투고자 로마자 표기-영문 요약)-주제어
- ④ 번호 매김 : 1-1.1.-1.1.1.-[1]
- ⑤ 예문 번호 : (1) ㄱ, ㄴ, ㄷ,
- ⑥ 기본 글꼴 : 신명신신명 장편 96% 자간 -10
- ⑦ 참고 문헌

보기) 홍길동(1999), “논문 제목”, 『단행본(학술지명)』, 발행지(해의 출판물의 경우), 출판사, 00-00쪽.

※ 학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회지 투고 규정과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 학회 임원

회 장	이근영(대진대)	
부 회 장	조일규(평택대), 허원욱(건국대)	
상무이사	총 무 부	김양진(경희대), 윤혜영(한라대)
	재 무 부	최홍렬(강원대), 윤재연(호서대)
	연 구 부	구현정(상명대), 최영미(경동대)
	출 판 부	허재영(단국대), 신호철(청주대)
	정 보 부	김용경(경동대), 박동근(건국대)
	섭 외 부	김홍범(한남대), 한성일(가천대)
	국 제 부	김남길(USC), 조용준(건국대)
일반이사	고석주(연세대), 김미형(상명대), 김병진(진주국제대), 김연희(대진대), 김유권(대진대), 김유범(고려대), 김정호(건국대), 김준희(가천대), 김진호(가천대), 김형배(국립국어원), 김혜정(경북대), 박석준(배재대), 박선자(부산대), 박진호(서울대), 박형익(경기대), 서은아(상명대), 소강춘(전주대), 손세모들(대진대), 이관규(고려대), 이만식(경동대), 이주섭(제주대), 장숙영(협성대), 최대회(건국대), 최용기(국립국어원), 최중호(동의대)	
감 사	방운규(평택대), 전영옥(상명대)	

▣ 편집위원회

위 원 장	이관규(고려대)
위 원	허재영(단국대), 신호철(경기대), 고석주(연세대), 구현정(상명대), 김남길(USC), 김혜정(경북대), 양영희(전남대), 황선엽(서울대)

▣ 윤리위원회

위 원 장	전정예(건국대)
위 원	김양진(경희대), 김정태(충남대), 손남익(강릉대), 윤혜영(한라대), 최용기(국립국어원)

▣ 학회 연락처

주 소 : [220-712] 강원도 원주시 한라대길 한라대학교 교양과정부 윤혜영 교수 연구실
전 화 : 033-760-1812, 010-3057-0595
전자우편 : puppi@hanmail.net

▣ 홈페이지 : www.hanmal.or.kr

한 말 연 구 35

2014년 12월 24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발행

편집 / 발행 : 한말연구학회

발 행 인 : 이근영

발 행 처 : 도서출판 역락

서울 서초구 반포4동 577-25 문창빌딩 2층

전 화 : (02) 3409-2058, 3409-2060

팩 스 : (02) 3409-2059

이메일 : youkrack@hanmail.net

등 록 : 1999년 4월 19일 제303-2002-000014호

ISSN 1229-4500

정 가 23,000원
